



홍성지역 사투리

한글자모의 조합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
한글의 구조와 형태를
한글의 특징을 강조
한글의 다양성을 보여
한글의 유연성을 나타
한글의 조화를 이루
한글의 균형을 잡
한글의 리듬을 살
한글의 맛을 내

한글

언어는 그 민족, 그 국가의 상징이요,
열이며 정신이다.

홍성지역 사투리

편집자 김정현 · 이재인

 홍성문화원



발간사



우리는 말을 통해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정작 말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고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있고 말로써 소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사상 등 모든 의사전달이 말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옛부터 사용해 온 언어들은 시대적 환경적 변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생활환경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속에 언어문화도 변해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 오던 언어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의사소통에 불편을 주면서 표준어 사용이 확산됨에 따라 옛 선조들이 사용해 오던 일부 사투리 말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언어문화의 변화와 문명의 변화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옛부터 사용하다 점차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 고장의 사투리를 발굴 조사하고 정리한 자료를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홍성지방의 사투리는 홍성만의 독특한 사투리도 있지만 생활환경이 비슷하고 같은 생활 권역속에 살아온 인근지역 예산군이나 청양군, 서산시 등 행정구역상 가까이 위치한 지역과 서로 섞이고 섞여 충청도 사투리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조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남겨 주신 언어문화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자가 향후 우리지역의 향토문화를 이해하고 발굴하는데에 있어 하나의 유익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1년간 홍성지역 사투리를 발간하기위해 우리 고장의 사투리를 발굴 조사하고 정리해 주신 내포구비문화연구소 김정현 소장님과 인장박물관 이재인 관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 책을 발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홍성군과 홍성군의회에도 감사드리며 향토문화발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12월 일

홍성문화원장 유 환 동



머리말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언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언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니까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의 언어를 발굴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는 전통문화의 계승이요, 우리 삶의 모습이면서도 언어의 역사적 보존문화재이다.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자각한 홍성문화원에서는 온고지신의 이념으로, 오래전부터 사투리 사전을 편찬한다는 계획으로 언어문화 창달에 그 뜻을 이룩한 셈이다.

우리 편·저자는 “홍성 사투리 사전”이라고 보다는 “홍성지역 사투리 사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했다. 언어라는 특성은 지역과 지역이 밀접하게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홍성에서만 고집하여 쓰는 말은 없다는 것이, 편·저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본 사투리 사전은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홍성지역이라는 광의의 뜻을 지니고 있다. 홍성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는, 보령시·청양군·예산군·서산시·당진시 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투리들도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지역끼리 미세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확신하기에 “홍성지역 사투리 사전”이라는 표현을 쓰

기로 했다. 이 표현 속에는 광의의 충청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아무튼 홍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지역의 언어문화 유산이라는 개념이다.

이 사전에는 탈락되어 있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완하여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강호재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란다.

언어는 그 민족, 그 국가의 상징이요, 얼이며 정신이다. 이를 연구하고 갈고 닦아 사전이라는 귀한 언어를 입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사전의 출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유환동 홍성문화원장님, 그리고 행정절차와 경비지원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성군수님, 충청남도의회와 홍성군의회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거듭 거듭 우리 영혼을 되살리고 삶의 족적을 찾아 정리하였다는 감격과 감사를 기록해 둔다.

2020년 12월 일

편저자 김정현 · 이재인



일러두기

1. 이 사투리 사전은 충청도, 그러니까 홍성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투리라고 할 수 있는 용어를 선정, 편저자와 언어학자들의 자문 하에 편집되었다.
2. 이 사투리 사전은 남녀노소들이 사용해 온 언어를 수집하였으며, 편찬자들의 검토와 검증을 거쳐 구성되었다.
3. 책의 구성은 고유한 홍성지역 사투리를 제시하고, 표준어는 [표],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 사투리 사용 용례는 [예]라는 약호를 사용했다.
4. 홍성지역 사투리라고는 하지만, 한자와 영어, 일본어 형태인 접두사·접미사·조사, 관용어, 준말까지도 실었다.
5. 사투리 <표제어>의 순서는 현재 사용하는 한글 맞춤법에 의거 게재하였다.
6. 사투리는 홍성지역의 특징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소리 나는 대로 기록했다. 후음(콧소리)과 된소리(경음)는 되도록 기록하지 않으려 했다.
7. 사투리의 뜻이 다르면서 음이 같은 단어가 둘 이상 배열될 때에는, 번호를 붙여 구별하고 용례를 제시했다.

8. 사투리 풀이는 국어대사전(민중서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을 따랐다.
9. 용언의 기본형은 ~다, ~네, ~다, ~여, ~혀의 용례로 실었다.
10. 장음(긴소리)은 사투리 음절 오른쪽에 : 기호를 제시했다.
11. 1부 '홍성 사투리의 특징'은 2008년에 홍성문화원에서 음운학자에 의뢰하여 조사한 내용의 핵심부분을 옮겨 실었다.
12. 2부 '사투리 모음'은 이미 발간된 이웃 지역의 사투리 사전, 유명 작가와 시인·소설가 등의 작품 속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노인들에게 의뢰하여 수집하였다.
13. 3부 '홍성 사투리 사용의 실제'는 1993년에 홍성문화원에서 민속학자와 구비문학연구자들에게 의뢰하여 조사한 「홍성의 민담(民譚)」 일부 내용을 원문대로 옮겨 실었다.



차례

발간사.....	004
머리말.....	006
일러두기.....	008
홍성지역 사투리	013
1부 홍성지역 사투리의 특징	014
2부 홍성지역 사투리 모음	044
ㄱ	044
ㄴ	064
ㄷ	071
ㄹ	091
ㅁ	093
ㅂ	109
ㅅ	126

○	146
ㄷ	164
ㄹ	179
ㅋ	185
ㅌ	187
ㅍ	191
ㅎ	195
3부 홍성지역 사투리 사용의 실제	204
참고문헌	268



언어는 그 민족, 그 국가의 상징이요,
얼이며 정신이다.

홍성지역 사투리

1부 : 홍성지역 사투리의 특징

2부 : 홍성지역 사투리 모음

3부 : 홍성지역 사투리 사용의 실제

홍성지역 사투리의 특징



1. 음운 특징

1) 모음

(1) 홍성 방언의 단모음은 10모음 체계이다.

단모음 ㅣ ㅐ ㅑ ㅕ ㅖ ㅡ ㅗ ㅛ ㅜ ㅠ

(2) 짧게 발음되는 ‘ㅕ’는 ‘ㅣ’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귀(耳) → 기	뉘 → 니	뒤꺾 → 디꺾
쉬파리 → 시파리	쥐구멍 → 지구멍	비취 → 비치
튀김 → 티김	바퀴 → 바키	휘파람 → 히파람

(3) 짧게 발음되는 ‘ㅖ’는 ‘ㅐ’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괴롭히다 → 게로피다	뇌출혈 → 네추럴
뒹박 → 땃박	뒹부리 → 땃부리
셋조각 → 셋쪼각	외톨이 → 에토리
피 → 께	최(崔)씨 → 체씨
헛가루 → 핵가루	퇴비 → 테비

(4) 길게 발음하는 ‘ㅖ’는 ‘오이[o:j]’, ‘ㅕ’는 ‘우이[j]’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외:가 → 오:이 가[o:j ka]	회(會): → 호:이[ho:j]
묘(墓) → 모:이[mo:j]	죄:짓다: → 조:이짓따[co:jeitt'a]
귀:하다 → 구:이허다[ku:jhəta]	위(上): → 우:이[u:j]

(5) 짧게 발음되는 ‘ㄷ’을 ‘ㄱ’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벼 → 베	벼이삭 → 벤니삭
벼슬 → 베슬	벼루 → 베루
벼락 → 베락	벼룩 → 베룩
면도칼 → 멘도칼	멸치 → 멜치

(6) 길게 발음되는 ‘ㄷ’은 ‘ㄴ’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거:지 → 그:지	넉:섬 → 늑:섬
덤: → 듸:	선:머슴 → 슌:머슴
어:른 → 으:른	전:쟁 → 즌:쟁
쳐:녀 → 츠:녀	형:끓 → 흥:겉

(7) 길게 발음되는 ‘ㄷ’중에서 어떤 것은 ‘이으[ji:]’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경:사 → 기응:사[kji:h̃sa]	면:장 → 미은:장[mji:nc̃aɦ]
병:원 → 비응:원[pji:h̃w̃ən]	영:영 → 이응:영[ji:h̃j̃əɦ]
현:대 → 히은:대[h̃ji:nt̃ɜ]	

(8) 모음 ‘ㅡ’가, ‘ㅜ’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하늘(天) → 하늘	며느리 → 메누리
배고프다 → 배고푸다	고슴도치 → 고슌도치
없다 → 읍:따	바늘 → 바눌

(9) 어간에서 어미에서 ‘ㅏ’는 ‘ㅑ’로, ‘ㅓ’는 ‘ㅕ’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한다 → 현다	나하고 → 나허구	서운하다 → 서운허다
못하다 → 못허다	했다 → 헛따	먹고 → 먹구
자고 → 자구	몰라요 → 물:류:	가시오 → 가슈:

(10) 접미사나 조사에서 ‘ㅡ’를 ‘ㄴ’로 발음하는 경향도 있다.

우리들이 → 우털이 너희들 → 느이덜 보는데 → 보넌디

2) 자음

(1) **홍성 방언의 자음은 19자음 체계로 표준어의 그것과 같다.**

자음 ㅂ ㅅ ㅈ ㅊ ㅌ ㄷ ㄱ ㅋ ㆁ ㄷ ㄴ ㄹ ㅎ ㅁ ㄴ ㄹ ㅎ

3) 음라우트

(1) 체언에서 ‘ㄴ’는 ‘ㄱ’로, ‘ㄷ’는 ‘ㄱ’로 음라우트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

석유 → 섹유	상여 → 생여	망인(亡人) → 맹인
박이연 → 백이연	저육(豬肉) → 제육	차일(遮日) → 채일
아기 → 애기	어미 → 에미	난장이 → 난쟁이
호랑이 → 호랭이	지렁이 → 지랭이	아가미 → 아개미
지느러미 → 지느레미	옹덩이 → 옹뎡이	엉덩이 → 응뎡이
해바라기 → 해바래기	정강이 → 정쟁이	눈두덩이 → 눈뎡이
산등성이 → 산등쟁이		

(2) 체언에서 ‘ㄴ’가 ‘ㄴ’앞에서 ‘ㄱ’로 변하는 음라우트 현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똥똥이 → 똥뎡이	몽둥이 → 몽뎡이
모통이 → 모뎡이	뜸부기 → 뜸베기
궁둥이 → 궁뎡이	벌레통이 → 벌레뎡이

(3) 체언에서 ‘ㄴ’가 모음 ‘ㅣ’앞에서 ‘ㄱ’로 음라우트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물고기 → 물게기	닭고기 → 닥게기
물둥이 → 물뎡이	밤송이 → 밤생이

- (4) 용언에 접미사 ‘-이’나 ‘-기’를 붙여 명사화할 때 움라우트 현상을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보기 (싫다) → 베기 실타

- (5) 어간에 ‘ㅏ’, ‘ㅑ’, ‘ㅓ’가 들어간 동사에 ‘이’나 ‘기’를 붙여 피동형이나 사동형이 되는 용언에서는 움라우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꺾이다 → 꺾기다	먹히다 → 맥키다	벗기다 → 뱃기다
잡히다 → 재피다	삭이다 → 새기다	박히다 → 배키다
속이다 → 세기다	녹이다 → 네기다	뽑히다 → 뻬피다

4) 모음 조화

- (1) 어간과 어미 사이에 음성모음끼리의 모음조화는 잘 이루어진다.

떼다 → 떼어	매다 → 매어	꺾다 → 꺾어
걷다 → 걸어	얻다 → 으터	주다 → 줘

- (2) 어간이 음성모음이나 중성 모음일 때 음성모음인 어미와 조화를 이룬다.

비비다 → 비벼	당기다 → 땡겨	다치다 → 다쳐
집다 → 집어	뛰다 → 뛰어, 떠	
되다 → 되어	쇠다 → 세어	깨다 → 깨어
거들다 → 거들어	다듬다 → 다듬어	

- (3) 어간이 양성모음이라도 어간의 끝 음절에 받침이 소리 날 때에는 모음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잡다 → 잡어	밟다 → 밟어	살다 → 살어
줄다 → 줄어	숫다 → 숫어	끓다 → 끓어

- (4) 의성어나 의태어에서도 모음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장아장	알록달록	도란도란	살랑살랑
어정어정	얼룩덜룩	중얼중얼	울긋불긋
꼬부랑꼬부랑	산들산들	보송보송	반질반질

5) 구개음화

- (1) 자음 ‘ㄱ’과 ‘ㅋ’을 모음 ‘ㅣ’나 ‘ㅟ’앞에서 각각 ‘ㅈ’과 ‘ㅊ’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기름 → 지름	앞길 → 앞질
김밥 → 짐밥	기다랗다 → 지दार타
겨 → 저	겸상 → 점상
겹겹이 → 접접이	결단나다 → 절판나다
키 → 치	키우다 → 치다

- (2) ‘ㄷ’이나 ‘ㅌ’이 모음 ‘ㅣ [i, j]’앞에서 ‘ㅈ’이나 ‘ㅊ’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굳이 → 구지	만이 → 마지	굳이들다 → 고지들다
같이 → 가치	붙여 → 부쳐	한티고개 → 한치고개
벼훅이 → 베훅치	활이다 → 할치다	굳혀 → 구쳐

- (3) 자음 ‘ㅎ’을 모음 ‘ㅣ [i, j]’앞에서 ‘ㅅ’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힘 → 심	힘껏 → 심껏	고래힘줄 → 고래심줄
형 → 성	형편 → 생편	흥 → 승
흉내 → 송내	혐의 → 섬의	효도 → 소두

6) 두음 법칙

- (1) ‘녀, 뇨, 니’로 시작되는 한자어의 어두음은 자음 ‘ㄴ’이 ‘ㅇ’으로 바뀌어 발음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원음대로 발음한다.

女：女子(여자) 女性(여성) 少女(소녀)

年：年歲(연세) 年度(연도) 青年(청년)

尿：尿素(요소) 尿石(요석) 泌尿器(비뇨기)

泥：泥岩(이암) 汚泥(오니)

- (2) 한자어의 첫음절에서 ‘ㄹ’은 ‘ㄴ’으로 바뀌어 발음하되, ‘랴, 려, 료, 류, 리’로 시작되는 한자어는 첫 음절에서 자음 ‘ㄹ’을 ‘ㅇ’으로 바꾸어 발음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원음대로 발음한다.

落：落石(낙석) 下落(하락)

來：來年(내년) 去來(거래)

老：老人(노인) 初老(초로)

麗：高麗(고려) 麗州(여주)

禮：禮義(예의) 儀禮(의례)

料：料理(요리) 肥料(비료)

里：里長(이장) 千里(천리)

流：流水(유수) 下流(하류)

- (3) ‘ㄹ’로 시작되는 외래어도 첫 음절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발음한다.

라면 → 나면

라디오 (radio) → 나지요

리어카 (rear-car) → 니야까

룩색(rucksack) → 니꾸사꾸

7) 경음화

- (1) 체언이나 용언에서 ‘ㄱ받침’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이 각각 ‘ㅍ’, ‘ㅌ’, ‘ㅃ’, ‘ㅆ’, ‘ㅊ’으로 변하는 경음화 현상은 이 지방 방언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탁구 → 탁꾸	녹두 → 녹뚜	국밥 → 국뺨
국수 → 국쑤	딱정벌레 → 딱쟁버러지	
먹겠다 → 먹꼇따	식다 → 식따	

- (2) ‘ㄷ’, ‘ㅌ’, ‘ㅅ’, ‘ㅆ’, ‘ㅈ’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이 각각 ‘ㅍ’, ‘ㅌ’, ‘ㅃ’, ‘ㅆ’, ‘ㅊ’으로 변화는 경음화 현상도 나타난다.

굳기 → 굳끼	끝구멍 → 끝꾸멍	잇속 → 잇쑥
잡지 → 잡찌	있다 → 있따	쏟겠다 → 쏴꼇따
젓빛 → 젓뽳	밭도랑 → 밭뚜렁	숫돌 → 숫똥
꽃봉오리 → 꽃뽕오리	젓소 → 젓쏘	

- (3) ‘ㅂ’, ‘ㅍ’ 받침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ㅍ’, ‘ㅌ’, ‘ㅃ’, ‘ㅆ’, ‘ㅊ’으로 경음으로 발음된다.

집기 → 집끼	잡다 → 잡따	잡벼 → 잡뽳
입속 → 입쑥	합작 → 합작	앞강물 → 앞깁물
짚단 → 짚뽳	앞배 → 앞뽳	옆사람 → 옆싸람
앞자루 → 앞짜루		

- (4) 받침 ‘ㄴ’, ‘ㄹ’, ‘ㄹ’, ‘ㅇ’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경음화되어 각각 ‘ㅍ’, ‘ㅌ’, ‘ㅃ’, ‘ㅆ’, ‘ㅊ’으로 소리 나기도 한다.

인기 → 인끼	술국 → 술꺨	숨기놀이 → 숨끼노리
산등성이 → 산뽕생이	발등 → 발뽕	방구석 → 방꾸석
삼단 → 삼뽳(대마)	장독 → 장뽕	안방 → 안뽕

술독 → 술뜩	글방 → 글뺑	금방 → 금뺑(귀금속)
상복 → 상뽕(복)	안식구 → 안씩꾸(부인)	산자락 → 산짜락
섬사람 → 섬:싸람	창살 → 창짚	산자락 → 산짜락
술잔 → 술짚	숨자 → 숨짜	땅주인 → 땅짚

- (5) 구나 문장에서 두 어휘 사이에서도 경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 있다 → 헐 수 있따 먹을 것 좀 주렴 → 머글 것 좀 주렴
어렸을 적에 → 어려쓸 짝에

- (6) 어두의 ‘ㄱ, ㄷ, ㅂ, ㅅ, ㅈ’ 등 예삿소리를 된소리로 경음화하여 발음하는 경향은 다른 지역과 같다.

가시 → 까시	고린내 → 꼬랑내	고추 → 꼬추
닭다 → 따끄다	도랑 → 또랑	도랑물 → 또강물
부러지다 → 뿌러지다	버드렁니 → 빼드렁니	반짝 → 뺨짝
사납다 → 싸나웁다	소나기 → 쏘내기	상놈 → 쌍놈
작다 → 짹다	조그맣게 → 쪼끄맣게	조각 → 쪼각
개구리 → 깨구리	동그라미 → 퉁구래미	

8) 홀반침의 발음

- (1) ㅈ, ㅊ, ㄷ, ㅌ 받침으로 끝나는 어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형태소(조사)가 올 때 ‘ㅅ’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젖(乳) → 젓 (저슬 메긴다.)
낫(晝) → 닛 (동지 무렵에는 나시 짤부다.)
빚(負) → 빛 (비슬 저서라두 자식은 가리켜야 한다.)
웃 → 윗 (오슬 올려서 온 몸이 가려웁다.)
뎛 → 뎛 (더세 걸린 테끼가 불쌍하다.)
뎛 → 뎛 (배를 멈추려면 다슬 내려라.)

돛 → 돛 (거센 바람에 도시 찌저졌다.)
 낫(面) → 낫 (미안해서 너를 볼 나시 읊구나.)
 빛(光) → 빗 (그 말을 듣더니 낫비시 변허더라.)
 솟 → 솟 (수술 만지면 손이 검어진다.)
 밭 → 밧 (쟁기루 바슬 간다.)
 술 → 솟 (가마소슬 새루 사 왔다.)
 팔 → 팻 (파스루 메주를 쏜대두 고지 듣는다.)
 곁 → 갓 (거슨 상했어두 속은 멀쩡허다.)
 밑 → 밋 (등잔 미시 어둡다.)
 별 → 빗 (오뉴월 하루비시 어디냐?)

9) 겹받침의 발음

- (1) 겹받침으로 된 체언에서는 두 받침(자음) 중 한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값 [kap]	값도 [kapt'o]	값이 [kapi] → ㅅ 탈락
샷 [sak]	샷도 [sakt'o]	샷을 [sakil] → ㅅ 탈락
여덟 [jətɪl]	여덟만 [jətɪlman]	여덟이 [jətiri] → ㅂ 탈락
닭 [tak]	닭하고 [takhəku]	닭이 [taki] → ㄹ 탈락
흙 [kik]	흙만 [hɪfɪman]	흙이 [kiki] → ㄹ 탈락

- (2) 겹받침의 어간을 가진 용언에서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는 두 받침(자음)이 모두 발음되지만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때는 한 받침(자음)만 발음 된다.

없다 [u:p'a]	없지 [u:pe'i]	없어 [u:psə]
앓다 [ant'a]	앓지 [anci]	앓아 [ancə]

- (3) 겹받침으로 된 어간을 가진 용언 중에서 어미에 관계없이 겹받침의 두 번째 자음을 한 음절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도 보인다.

굶다 → 굴그다	맑다 → 말그다	굶다 → 글그다
밝다 → 발그다	짧다 → 짤부다	넙다 → 널부다
붉다 → 불그다	묻다 → 물그다	섞다 → 스러웁다
떨다 → 뜰부다	젊다 → 절무다	늑다 → 늘그다
납다 → 날그다	엷다 → 이을브다	삶다 → 살무다
훔다 → 홀트다	밟다 → 발부다	웁다 → 올무다
핥다 → 할트다	읽다 → 일그다	웁다 → 올푸다
꿇다 → 골무다		

10) 자음 축약

- (1) ‘ㅎ’받침 뒤에 ‘ㄱ’, ‘ㄷ’, ‘ㅌ’이 올 때는 두 자음을 합쳐서 ‘ㄱ’, ‘ㄷ’, ‘ㅌ’으로 발음한다.

농게 → 노케 [nok ^h e]	종고 → 조쿠 [cok ^h u]
당고 → 다쿠 [tak ^h u]	웁다 → 올타 [olt ^h a]
많다 → 만타 [mant ^h a]	종더라 → 조터라 [cot ^h əra]
종지 → 조치 [coc ^h i]	꿇지 → 끈치 [k ^h inc ^h i]
웁지 → 올치 [olc ^h i]	

- (2) ‘ㄱ’, ‘ㄷ’, ‘ㅂ’, ‘ㅌ’받침 뒤에 ‘ㅎ’이 올 때는 두 자음이 합쳐져서 ‘ㄱ’, ‘ㄷ’, ‘ㅌ’, ‘ㅍ’으로 발음한다.

먹히다 → 메킨다 [mek ^h inta]	막히다 → 매키다 [mek ^h ita]
굳히다 → 구치다 [kuc ^h ita]	문혀 → 무쳐 [muc ^h jə]
잊혀 → 이쳐 [ic ^h jə]	맞히다 → 마치다 [mac ^h ita]

- (3) ‘ㅅ’받침 뒤에 ‘ㅎ’이 올 때는 두 자음이 합쳐져서 ‘ㅌ’으로 발음한다.

깨끗하다 → 깨끄터다 [k ^h ek ^h it ^h əta]
못하다 → 무터다 [mut ^h əta]

- (4) 한 문장이나 구에서 두 어휘 간에 ‘ㄱ’, ‘ㄷ’, ‘ㅂ’받침 다음에 ‘ㅎ’으로 시작되는 어휘가 이어질 때는 자음 축약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떡 해 먹었니? → 떡 해 먹었니? [t'ək-he-məkəni]

곤 할 거야 → 곤 헐 꺼여. [kot-həl-k'əjə]

밥 하고 있다 → 밥 허구 있다 [pap-həku-itt'a]

11) 비음절화

- (1) 어간 끝 음절의 모음 ‘ㅣ’가 ‘어’나 ‘오(우)’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날 때는 두 음절이 합쳐져서 한 음절로 발음한다.

숨기다 : 숨기어서 [sumkiəsə] → 숨겨서 [sumkjəsə]

지다 : 지어 [ciə] → 저 [cjə]

마시다 : 마시어 [masiə] → 마셔 [masjə]

가시다 : 가시오 [kasio] → 가슈 [kasju]

사시다 : 사시오 [sasio] → 사슈 [sasju]

모시다 : 모시어 [mosiə] → 모셔 [mosjə]

- (2) 어간 끝 음절의 모음 ‘ㅛ’가 ‘아’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날 때에는 두 음절이 합쳐져서 한 음절로 발음한다.

오다 : 오아 [oa] → 와 [wa]

보다 : 보아 [poa] → 봐 [pwa]

쏘다 : 쏘았다 [s'oatt'a] → 쏘다 [s'watt'a]

놓다 : 놓아라 [noara] → 놔라 [nwara]

- (3) 어간 끝 음절의 모음 ‘ㅜ’가 ‘어’로 시작되는 어미와 만날 때에는 두 음절이 합쳐져서 한 음절로 발음한다.

꾸다 : 꾸어서 [k'uəsə] → 꺾서 [k'wəsə]

두다 : 두어 [tuə] → 뒹 [twə]

주다 : 주어서 [cuəsə] → 줘서 [cwəsə]

추다 : 추어 [c^huə] → 취 [c^hwə]

치우다 : 치우어라 [c^hiuəra] → 치위라 [c^hiwəra]

12) 외래어의 발음

(1) 외래어에서 어두음 ‘l’, ‘r’는 ‘ㄴ’으로 바뀌어 발음한다.

로켓(rocket) → 노께또 [nok^het^hol]

로터리(rotary) → 노타리 [notari]

라이터(lighter) → 나이트 [nait^ha]

루비(ruby) → 누비 [nupi]

리본(ribbon) → 니봉 [nipoh]

(2) 외래어에서 어두음 ‘b’는 ‘ㅃ’으로 발음한다.

버스(bus) → 뽀쓰 [p^hə:s^ht]

백(back) → 뽀쓴다 [p^hɛ:k] 빠꾸(후진) [p^ha:k^hu]

백(bag) → 뽀(가방) [p^hɛ:k]

외래어에서 어두음 ‘g’는 ‘ㄱ’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껌(gum) → 껌 [k^hi:m]

가스(gas) → 까쓰 [k^ha:s^hi]

갱(gang) → 깡패 [k^ha:hp^hɛ]

13) 음길이와 억양

(1) 장모음(長母音)과 단모음(短母音)을 비교적 정확히 구별하여 발음한다.

일(一) → 일 [il]

일(事) → 일: [i:l]

이(齒牙) → 이 [i]

이(二) → 이: [i:]

눈(目) → 눈 [nun]

눈(雪) → 눈: [nu:n]

매(채찍) → 매 [mɛ]
발(足) → 발 [pal]
밤(夜) → 밤 [pam]
가마(술) → 가마 [kama]
병(그릇) → 병 [pjəŋ]
굴(해물) → 굴 [kul]
말(馬) → 말 [mal]

매(조류) → 매: [mɛ:]
발(가리개) → 발: [pa:l]
밤(栗) → 밤: [pa:m]
가마(탈것) → 가:마 [ka:ma]
병(病) → 비웅: [pjɪ:ŋ]
굴(터널) → 굴: [ku:l]
말(言) → 말: [ma:l]

(2) 길게 발음되는 ‘어’나 ‘여’는 ‘으[i]’나 ‘이으[ji]’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거:도(鋸刀) → 그:도
거:머리 → 그:머리
거:드름 → 그:드름
거:지 → 그:지
건:너 → 근:너
건:강 → 근:강
검:사 → 금:사
건:설 → 근:설
건:의 → 근:의
검:찰 → 금:찰
경:계 → 기웅:계
경:제 → 기웅:제
너:마지기 → 느:마지기
넉:섬 → 늑:섬
더:러움 → 드:러움
등치 → 등치
범(虎): → 봄:
명(命): 미웅:
별(星): → 비을:

거:만 → 그:만
찰거머리 → 찰그:머리
거:사 → 그:사
거:짓말 → 그:진말
저건너 : 저근:너
건:물 → 근:물
숙제검사 → 숙제금:사
건:축 → 근:축
검:진 → 금:진
경:감 → 기웅:감
경:쟁 → 기웅:쟁
결:상 → 글:쌍
너:말 → 느:말
넬: → 늘:
덤: → 듬:
면:장 → 미은:장
범:죄 → 봄:제
명:령 → 미웅:령
변:호사 → 비은:호사

변:덕 → 비은:덕	변:전소 → 비은:전소
병:신 → 비응:신	병:원 → 비응:원
병(病): → 비응	병:인년 → 비응:인년
서:자(庶子) → 스:자	서:족(庶族) → 스:족
선:(選) → 슨:	맞선 → 맞스:
선:거 → 슨:거	설:날 → 슬:날
선:머슴 → 슨:머슴	석:섬 → 슅:섬
선:달 → 슨달	섬:(島) → 슴:
성:(姓) → 승:	씨:레 → 쓰:레
선:물 → 슨:물	성:질 → 승:질
어:른 → 으:른	연:제 → 은:제
여:우 → 이으:수	연:구 → 이은:구
연:설 → 이은:설	영:구 → 이응:구
어:름 → 으:름	없:다 → 읍따
저:당 → 즈:당	저:금 → 즈:금
전:기 → 즈:기	전:나무 → 즈:나무
전:(前) → 즈:	파:전 → 파:즌:
점:심 → 즈심	정:오 → 증:오
자전거 → 자증겨	전:방 → 즈:뽕
천:대(賤待) → 촌:대	편:지 → 피은:지
처:녀 → 츠:녀	형:끓 → 흥:겁
현:옷 → 혼:옷	현:병 → 혼:병

(3) 능동형의 용언이 사동형이나 피동형으로 될 때, 첫 음절의 음길이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알다 [a:lt̪a]	알리다 [allita]	알어지다 [a:rəcita]
감다 [ka:mt̪a]	감기다 [kamkita]	감겨지다 [kamkjəcita]
플다 [pʰu:lt̪a]	플리다 [pʰullita]	

(4) 같은 문장에서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억양이 달라진다.

어디 가니?

어느 곳에 가느냐고 물어볼 때 : 워 ㄴ 디 가네↘

어디 곳에든지 가느냐고 물어볼 때 : 워 — 디 가네↗

아무 곳에도 가지 말라고 강요할 때 : 워 ㄴ 딜 가네↘

2. 형태 특징

1) 명사

(1) 모음 ‘ㅣ [i]’바로 앞 음절에서 음라우트 현상을 보이는 명사가 많다.

아기 → 애기	다리미 → 대리미	싸라기 → 싸래기
시라귀 → 시래기	오자미 → 오재미	골짜기 → 골째기
등성이 → 등생이	정강이 → 정갱이	잔등이 → 잔탱이
기저귀 → 기제기	뜸부기 → 뜸베기	호랑이 → 호랭이
가랑이 → 가랭이	고양이 → 고앵이, 꿩이	방망이 → 방맹이
난장이 → 난쟁이	부엌이 → 부앵이	젓터미 → 젓데미
천덕이 → 천데이	잠꾸러기 → 잠꾸레기	꾸러미 → 꾸레미
장끼 → 쟁끼	잠방이 → 잠뱅이	두렁이 → 두랭이
누더기 → 누데이	참빛 → 챔빋	언챙이 → 언챙이, 어챙이
지느러미 → 지느레미	아가미 → 아개미	파리미 → 피래미
두꺼비 → 두께비	구더기 → 구데이	지렁이 → 지랭이
질경이 → 질갱이	맹꽁이 → 맹꿩이	동그라미 → 동그래미
쭈꾸미 → 쭈께미		

(2) 동이, 둥이, 텅이, 툇이 등으로 끝나는 명사는 그 부분을 ‘텅이’나 ‘텅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막둥이 → 막텅이	쌍둥이 → 쌍텅이
몸둥이 → 몸텅이	몽둥이 → 몽텅이

엉덩이 → 응덩이	방둥이 → 방뎡이
궁둥이 → 궁뎡이	모통이 → 모뎡이
벌레통이 → 벌레뎡이	미런통이 → 미런뎡이
팔삭둥이 → 팔삭뎡이	물둥이 → 물뎡이
꽃송이 → 꽃생이	보통이 → 보뎡이
눈두덩이 → 눈뎡이	밤송이 → 밤생이

(3) ‘며’나 ‘벼’를 ‘메’나 ‘베’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벼 → 베	벼이삭 → 벤니삭	벧단 → 뱃단
벼씨 → 뱌씨	벼루 → 베루	벼락 → 베락
벼슬 → 베슬	벼룩 → 베룩	별일 → 뱌닐
면도 → 뎡도	멸치 → 뎡치	며느리 → 메누리
며칠 → 메칠	멸구 → 뎡구	뎡 → 뎡

(4) ‘ㄱ’이나 ‘ㅋ’이 ‘ㅈ’이나 ‘ㅊ’으로 구개음화된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기름 → 지름	들기름 → 들지름	석유 → 섹유지름
기장 → 지장	기침 → 지침	기다랗다 → 지다랗다
길다 → 질다	길 → 질	길거리 → 질걸
김 → 짐	김밥 → 짐밥	김매기 → 짐매기
김장 → 진장	웃짓 → 웃짓	기와집 → 지와집
깍다 → 지우다	계 → 지	젓돈 → 짓돈
결단나다 → 절판나다	결방살이 → 젓방살이	저드랑이 → 저드랑
결 → 젓	전디다 → 전디다	쌀져 → 쌀저
옛기름 → 옛지름	경치다 → 정치다	경읽다 → 정읽다
겹이불 → 점니불	겹옷 → 겹것	겹겹이 → 겹겹이
점상 → 점상	결두리 → 젓밥	앞길 → 앞질
키 → 치	키우다 → 치다	키질 → 치질

(5) 표준어와 많이 다른 방언들도 있다.

벼훑이 → 훑태	절구 → 도구통
새빼기 → 호애기	새끼(줄) → 산내끼
조 → 스숙	고갱이 → 속꼬뱅이
고구마 → 무감자	감자 → 북감자
팽과리 → 껏매기	그네(타작기구) → 천치 도구
간장 → 지랑	상추 → 부루
부추 → 졸	백설기 → 백무리
튀밥 → 광밥	독배기 → 투가리
부젓가락 → 화젓가락	다리쇠 → 걸쇠
대자 → 잣막대	패대기질 → 자리개질
민들레 → 할미도리	삼대(대마줄기) → 저릅대기
이영 → 나래	용마름 → 용구새
서까래 → 연목가래	낙숫물 → 추넛물
기스락물 → 서근새물	뜰 → 뜰팡
장독대 → 장팡	가게 → 존방
오디 → 오대	종기 → 꼬무락지
오지랍 → 앞지랍	다래끼 → 눈다락지
말더듬이 → 반병어리	귓볼 → 귀부랄
귀에지 → 귓속	왼손 → 오여손
오른손 → 바루손	부스럼 → 부슬목
딸꾹질 → 폐기	트림 → 게트름
숨바꼭질 → 감추기장냥	자치기 → 메떼기 치기
목말 → 꽃세우기	얼레 → 연자새
대장간 → 불무간	창자 → 창새기
새우 → 새웅개, 새뱅이	장구벌레 → 곤두벌레
그리마 → 설랭이	진딧물 → 뜰물
방아깨비 → 땅개비	버마재비 → 사마귀
물방개 → 쌀방개	물땅팽이 → 보리방개

반딧불 → 개똥불	땅벌 → 옷빠시
말벌 → 왕텅이	소입마개 → 쇠망
밭채 → 바지게	올가미 → 올무
살팽이 → 살가지	두더지 → 뒤제기
냉이 → 나승개	빨기 → 빠비
딸기 → 땃꼴	개암 → 개금
그루터기 → 등컬	가지 → 가쟁이
가장자리 → 가쟁이	산마루 → 산말랭이
돌 → 돌팍, 독	이슬비 → 이슬갱이
겨울 → 즐기	배낭 → 바랑
억새 → 왓새	무릎 → 무르팍
복사빼 → 복숭아빼	귀알 → 풀솔
나무 → 낭구	타작 → 바심
결두리 → 젓밥	얼레빗 → 어린빋
시숙 → 시아주버니	김(해태) → 해우
참게 → 못그이	도마뱀 → 동아배암
능사 → 능구렁이	화사 → 올멕이
물뱀 → 무자수	함께 → 한치

(6) 표준어와 유사한 방언들도 많이 있다.

보습 → 보십	극쟁이 → 끝쟁이	바구니 → 바구리
깜부기 → 깜북	깨 → 꽤	덩굴 → 녕쿨
무 → 무수	깍뚜기 → 깍떼기	봉선화 → 봉숭아
배추 → 배차	조리 → 조랭이	달래 → 달리
누룽지 → 누룽개	눌은밥 → 누름밥	고욤 → 고염
송능 → 송님	뚜껑 → 꾸께	솔가리 → 솔겔, 솔꺼루
부지깽이 → 부지개	화로 → 화루	잎 → 이파리
석쇠 → 적쇠	그을음 → 끄름	줄기 → 줄거리
팽이 → 켱이	도리깨 → 도리캐	뿌리 → 뿌래기

베개 → 보개, 버개	지붕 → 지병	보시기 → 보새기
쌈 → 새암	수렁 → 수랑	
가위 → 가새	수염 → 시염	
손가락 → 손꾸락	사마귀 → 사막	귀신 → 구신
언청이 → 어챙이	홍역 → 호녁	노끈 → 낫내끼
방귀 → 방구	소꿉질 → 소꿉장냥	삼태기 → 삼태미
돼지 → 도야지	어미 → 예미	어레미 → 얼멩이
아비 → 애비	할머니 → 할메	장다리 무우 → 무짱다리
풀무 → 불무	바퀴 → 바쿠	조리 → 조랭이
마꾸라지 → 미꾸리	술개 → 소리개	그을음 → 끄름
벌레 → 버러지	여우 → 여수, 이으수	지붕 → 지병
개 → 가이	염소 → 염생이	또아리 → 똥아리
고누 → 고니	사금파리 → 새금파리	가르마 → 가름마
팽이 → 뽕이	형 → 성	숨바꼭질 → 숨박질
고기 → 계기	남 → 념	마을(가다) → 마실(가다)
계 → 그이	구유 → 구수	물고기 → 물계기
토끼 → 테끼, 테깽이	과일 → 과실	염소 → 염생이
먼지 → 몐지	송편 → 생편	뿌리 → 뿌래기

(7) 홍성군 방언 중에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뽕씨 → 찔나라락(홍동), 찔나라락(은하·홍북), 뽕씨(전 지역)
수제비 → 뚝뚝수제비(광천), 뚝수제비(은하), 뚝뚝제비(홍북),
손수제비(구항)
낙숫물 → 꾸시럭물(은하), 추넛물(광천)
가게 → 존방(장곡), 송방(은하), 하꼬방(구항), 가게(공통)
민물새우 → 새우(공통), 새웅개(광천, 구항, 장곡), 새뱅이(홍성, 홍북,
금마), 생이(은하)
산마루 → 봉두라지(은하), 상봉(홍동), 통봉(홍북), 산말랭이(공통)

구석 → 구석쟁이(은하), 구텡이(홍동, 홍북)
 누룽지 → 능개(은하), 누룽개(장곡)
 눌은밥 → 눔밥(은하), 누름밥(광천)
 과즐 → 강정(은하), 약과(홍동, 홍북), 빈사과(구항), 과(공통)
 아궁이 → 아궁지(홍동, 홍북, 금마), 아국쟁이(은하, 서부), 아궁(광천)
 대님 → 재님(은하), 켜님(홍북, 홍동), 댜님(장곡, 광천)

2) 대명사

- (1) 대명사에 조사 ‘-의’가 붙을 때, 조사 ‘의’가 생략되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누구의 집이냐? → 누구네 집이냐?
 자기의 이름도 잊었다 → 제 이름도 잊었다. (잊어 먹었다)
 나의 물건이다 → 내 물건이다.
 너의 뭍이다 → 네 뭍이다.
 너희들의 짓이지? → 느이덜 짓이지?

- (2) 의문대명사는 음절을 축약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가 → 누가	무엇이 → 뭐가
언제 → 원제	어디서 → 워디서
무엇을 → 뭘	

3) 조사

- (1)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조사 ‘이, 은, 을, 와, 으로, 야’가 쓰이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는 조사 ‘가, 는, 를, 과, 로, 야’가 붙지만,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에 ‘이’를 덧붙여서 모음으로 끝나는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조 사	받침으로 끝나는 체언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변 형
이/가	사람이	제비가	칠복이가
은/는	콩은	보리는	길동이는
을/를	밥을	감자를	거북이를
와/과	형과, 형허구	누나와 누나허구	수돌이와 수돌이허구
아/야	칠복아- 삼춘-	철수야- 할아버지-	칠백이야- 김칠복-

(2) 조사 ‘에/에게’는 그 목적 대상(체언)이 신, 사람, 동물일 때에는 ‘에게’나 ‘헌티’를 사용하고, 그 밖의 대상일 때에는 ‘에’를 사용한다.

대 상	사 용 예
신	하느님에게, 하느님헌티, 산신령에게, 산신령헌티
사 람	수돌이에게, 수돌이헌티, 순이에게, 순이헌티
동 물	곰에게, 곰헌티, 돼지에게, 돼지헌티
식 물	밤나무에, 배추에
무생물	보리밭에, 바위에
장 소	서울에, 동네에, 시장에

4) 용언

(1) 어간에 겹받침이 있을 때 둘째 받침을 음절화하여 실현하는 사례가 많다.

꺾다 → 꺾그다

깎다 → 까끄다

짹다 → 짹부다

넙다 → 넹부다

뭍다 → 뭍그다

볶다 → 불그다

밝다 → 발그다	싫다 → 스러웁다
젊다 → 절무다	늙다 → 늘그다
낱다 → 날그다	달다 → 달무다
엷다 → 이을부다	살다 → 살무다
땀다 → 따끄다	뺨다 → 빠우다
훔다 → 홀트다	발다 → 발부다
뭉다 → 무끄다	웁다 → 올무다
할다 → 할트다	웁다 → 을푸다
굶다 → 글그다	꿌다 → 꼰무다
뺨다 → 뜰부다	

(2) 어간의 ‘ㅂ’받침은 ‘웁’으로 실현하는 사례가 많다.

가볍다 → 가벼웁다	쉽다 → 시웁다	어렵다 → 어려웁다
가렵다 → 가려웁다	가엷다 → 가여웁다	부럽다 → 부러웁다
맵다 → 매웁다	사납다 → 사나웁다	가깝다 → 가까웁다
두껍다 → 두꺼웁다	무섭다 → 무서웁다	

(3) 용언의 어간이 표준어와 크게 다른 어휘는 많지 않다.

길다 → 질다	작다 → 짝다
높다 → 노푸다	낮다 → 얕다
없다 → 읊다	깊다 → 지푸다
다르다 → 달르다	굽다 → 굶다
씻다 → 씨치다	줍다 → 좇다
뺨다 → 빠우다	매달다 → 매어달다
마르다 → 말르다	기르다 → 질르다
만들다 → 맹길다	바루다 → 폐다
부수다 → 부시다	흐트리다 → 흘치다
자르다 → 찰르다	맞추다 → 맞치다
메우다 → 메다	괴다 → 고이다

켜다 → 케다	때리다 → 썰리다
가르치다 → 가리키다	못하다 → 못허다
모시다 → 뵈시다	벗기다 → 베끼다
따뜻하다 → 뜨뜻허다	따끔하다 → 뜨끔허다

5) 용언의 활용

- (1) 어간 끝 음절의 받침 ‘ㅂ’인 용언의 활용은 이 지방 방언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굽다 : (-다) 고굽다 (-고) 고웁구 (-으니) 고우니 (-아서) 고워서
돕다 : (-다) 도웁다 (-고) 도웁구 (-으니) 도우니 (-아서) 도워서

- (2) 어간 끝 음절의 받침 ‘ㄷ’인 용언의 활용은 이 지방 방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듣다(聞) : (-다) 듣다 (-으니) 들으니 (-어서) 들어서
묻다(問) : (-다) 묻다 (-으니) 물으니 (-어서) 물어서
싣다(載) : (-다) 싣다 (-으니) 실으니 (-어서) 실어서

- (3) 어간 끝 음절의 받침 ‘ㄹ’인 용언의 활용은 이 지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울다 : (-다) 울다 (-고) 울구 (-으니) 울으니 (-시오) 우슈
풀다 : (-다) 풀다 (-고) 풀구 (-으니) 풀으니 (-시오) 풀으슈

- (4) 어간 끝 음절의 받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ㅅ불규칙 활용’은 이 지방 방언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긋다(劃) : (-다) 긋다 (-으니) 그스니 (-어서) 그서서
낫다 : (-다) 낫다 (-으니) 나스니 (-어서) 나서서
잇다 : (-다) 잇다 (-으니) 이스니 (-어서) 이서서
젖다 : (-다) 젖다 (-으니) 저스니 (-어서) 저서서

- (5) 어간의 끝 음절 받침 ‘ㅎ’이 ‘ㄴ’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거나 어간과 어미의 모양이 함께 바뀌는 ‘ㅎ불규칙 활용’은 이 지방 방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파랳다 : (-다) 파랳다 (-ㄴ) 파란 (-으니) 파라니 (-어서) 파래서
 노랳다 : (-다) 노랳다 (-ㄴ) 노란 (-으니) 노라니 (-어서) 노래서
 하얳다 : (-다) 하얳다 (-ㄴ) 하얀 (-으니) 하야니 (-어서) 하얘서

- (6) 어간 끝 음절이 ‘ㄹ’인 용언의 활용은 이 지방에서는 독특하게 나타난다.

흐르다 : (-다) 흘르다 (-고) 흘르구 (-어) 흘러 (-어서) 흘려서
 가르다 : (-다) 갈르다 (-고) 갈르구 (-아) 갈러 (-아서) 갈려서
 빠르다 : (-다) 빨르다 (-고) 빨르구 (-아) 빨러 (-아서) 빨려서
 모르다 : (-다) 물르다 (-고) 물르구 (-어) 물러 (-어서) 물려서
 고르다 : (-다) 골르다 (-고) 골르구 (-아) 골러 (-아서) 골려서
 자르다 : (-다) 잘르다 (-고) 잘르구 (-아) 잘러 (-아서) 잘려서
 누르다 : (-다) 놀르다 (-고) 놀르구 (-어) 놀러 (-어서) 놀려서
 무르다 : (-다) 물르다 (-고) 물르구 (-어) 물러 (-어서) 물려서

- (7) 동사 ‘하다’와 접미사 ‘-하다’가 붙는 용언의 활용은 이 지방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하다 : (-다) 허다 (-고) 허구 (-아) 헤, 허여 (-아서) 헤서
 곤하다 : (-다) 곤허다 (-고) 곤허구 (-아) 곤헤, 곤허여 (-아서) 곤헤서
 진하다 : (-다) 진허다 (-고) 진허구 (-아) 진헤, 진허여 (-아서) 진헤서
 수북하다 : (-다) 수북허다 (-고) 수북허구 (-아) 수북헤, 수북허여 (-아서) 수북헤서

- (8) 어간의 끝 음절 모음 ‘ㄴ’나 ‘ㅡ’가 ‘-어’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우 불규칙 활용’이나 ‘ㅡ’탈락은 이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푸다 : (-다) 푸다 (-고) 푸구 (-어) 퍼 (-어서) 퍼서
 끄다 : (-다) 끄다 (-고) 끄구 (-어) 꺼 (-어서) 꺼서
 따르다 : (-다) 따르다 (-고) 따르구 (-어) 따러 (-어서) 따러서
 담그다 : (-다) 담구다 (-고) 담구구, 담구 (-어) 담거 (-어서) 담거서
 고평다 : (-다) 고평다 (-고) 고평구 (-어) 고평 (-어서) 고평서
 바쁘다 : (-다) 바쁘다 (-고) 바쁘구 (-어) 바빠 (-어서) 바빠서
 크다 : (-다) 크다 (-고) 크구 (-어) 커 (-어서) 커서

(9) 어간의 끝 음절 ‘ㄹ’뒤에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러 불규칙 활용’은 이 지방 방언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푸르다 : (-다) 푸르다 (-어) 푸르러 (-어서) 푸러서
 누르다 : (-다) 누르다 (-어) 누러 (-어서) 누러서

6) 연결 어미

연결 어미의 사용 방법은 표준어와 같으나, 그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다.

연결 어미	방 언	사 례
-(-으)면	-(-으)면	비가 오면 소풍은 안 간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으)면서	-(-으)면서	저는 놀면서 우리만 시킨다. 지가 바루 도둑놈이면서.
-(-으)니(까)	-(-으)니(께)	다시 따져 보니께 돈을 더 받았더라. 아침 첫 차를 타야 허니께 일찍 오너라.
-때문에	-때미	너때미 나만 죽는다. 너무 많이 먹었기 때미 배탈이 났어.
-느라고	-느라구	얘기 허느라구 해 지는 줄 몰랐다.
-라/라고	-라구	너, 지금 뭐라구 했니? 형을 형이라구 불러야 한다.

7) 문말 어미

(1) 문말 어미를 길게 발음하는 특징이 있다.

안녕하세요? : 안녕허슈 ˊ

진지 잡수세요 : 진지 잡수슈 —

종종 들려 다오 : 종종 들리지 그러 ˋ

물꼬를 살피러 가는가? : 물꼬 보러 가남 ˊ

8) 문말 줄임 현상과 억양

(1) 문말 줄임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 그렇게는 못휴.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 난 물류.

올해 벼농사는 풍년이 들었어요. : 올 벼농사는 대풍유.

(2) 말 끝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시인할 때 : 그류 — (짧게 발음함)

정말 그러냐고 반문할 때 : 그류 ˊ (길게 발음하여 끝을 높임)

그렇게 하자고 동의할 때 : 그류 ˋ (길게 발음하며 끝을 낮춤)

9) 보조 용언

(1) 보조 용언의 사용은 표준어와 큰 차이는 없으나, ‘버리다’보다는 ‘먹다’를, ‘-않다’ 보다는 ‘안’을 많이 사용한다.

네가 했던 말을 깜빡 잊어 버렸다. → 니가 했던 말을 깜빡 잊어 먹었다.

불장난을 하다가 바지를 태워 버렸다. → 불장난을 하다가 바지를 태워 먹었다.

오늘은 그리 춥지 않다. → 오늘은 그다지 안 춥다.

오늘 나무하러 가지 않았다. → 오늘 나무허러 안 갔다.

10) 부사

표준어와 다르게 사용되는 부사도 많이 있다.

천천히 → 촌츄니	쓸데없이 → 쓸디읍씨
나중에 → 양중에, 야중에	일부러 → 억부러
공연히 → 괜시리	알맞게 → 마추맞게
모두 → 몽땅	어찌 → 워째
어떻게 → 워떻게	

3. 문법 특징

1) 경어법

말하는 상대에 따라 예삿말, 반높임말, 높임말, 아주 높임말을 잘 구분하여 사용한다.

구분	아들에게	사위에게	형에게	할아버지께
평서	잘 크다	잘 크네	잘 크네유 잘 커유	
명령	앉어 앉어라	앉게	앉으슈	앉으십슈
청유	먹어 먹자	먹게 먹지	잡수슈	잡수십슈
감탄	참 고웁구나! 참 잘했구나!	참 고우네! 참 잘했네!	참 고우네유! 참 잘하섌슈!	
의문	지금 비가 오네? 워디 가네? 오늘이 장날이냐? 이게 뭐냐?	지금 비가 오나? 워디 가능가? 오늘이 장날잉가? 오늘이 장날잉감? 이게 뭔가?	지금 비가 와유? 워디 가슈? 오늘이 장날유? 오늘이 장날이래유? 이게 뭐래유?	

2) 시제

과거형에는 ‘-었/았-’중에서 ‘-었-’만을 사용하고, 현재형에는

‘-는/ㄴ-’을 모두 사용하며, 미래형에는 ‘-겠-’대신에 ‘-것-’을 사용한다.

동 사	과 거	현 재	미 래
가다	갔다	간다	가겠다
먹다	먹었다	먹는다	먹겠다
잡다	잡었다	잡는다	잡겠다

3) 동사의 사동형과 피동형

동사의 사동형이나 피동형은 특이하지 않으나, 사동형에서 ‘-게 하다’는 ‘-게 허다’로 발음한다.

본 동사	방 언	사 동 형	피 동 형
땀다	따끄다	따끄게 허다 걸레로 따끄게 했다	땀이다 마루가 깨끗허게 땀었다
쓰다	쓰다	쓰게 허다 모자를 쓰게 했다	쓰여지다 머리에 모자가 쓰여졌다
실다	싫다	실케 허다 마차에 짐을 실케했다	실리다 마차에 짐이 실렸다
먹다	먹다	멕이다 아이에게 젓을 멕였다	멕히다 잠자리가 제비에게 멕혔다

4) 부정법

의지부정의 경우 장형부정 ‘-지 않다’보다는 단형부정 ‘안’을 많이 사용한다.

오늘은 그리 춥지 않다 → 오늘은 그다지 안 춥다

오늘 나무허러 가지 않았따 → 오늘 나무허러 안 갔다

※ 집필 : 유병륜(전 공주교육대학교대학원장, 음운학자), 이수영(전 홍남초등학교장), 가용현(전 홍주초등학교장), 김정현(전 구항초등학교장)



언어는 그 민족, 그 국가의 상징이요,
얼이며 정신이다.

홍성지역 사투리

1부 : 홍성지역 사투리의 특징

2부 : 홍성지역 사투리 모음

3부 : 홍성지역 사투리 사용의 실제

홍성지역 사투리 모음



- 가:개 [표] 가게 [예] 우리동네 가:개는 나이 먹은 할머니가 주인이여.
- 가:개빵 [표] 가게 [예] 나는 가:개빵 앞을 지날때마다 먹음직스런 과자들을 보
구 침을 꿀꺽 생겼어.
- 가까스루 [표] 가까스로 [예] 우리 야구팀은 9회 역전 위기를 가까스루 막어내
구 이겼어.
- 가깝허다 [표] 갑갑하다 [예] 요즘 코로나19로 집에만 갇혀 있으니께 가깝허기
 짝이 읍어.
- 가거들랑 [표] 가거든 [예] 올해 핵교 가거들랑 공부 점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
점 타 봐.
- 가걸랑 [표] 가거든 [해] 내일 누나네 가걸랑 엄마아빠 모두 잘 있으니께 걱정
말라구 전해 줘.
- 가:구웁다 [표] 어림없다 [예] 그 금으루 우리 송아지를 사간다는 것은 가:구웁
는 일이여.
- 가:근방 [표] 근방 [예] 우리동네 가:근방을 아무리 살펴봐두 그만헌 메누리감
은 읍더구먼.



가께표 [표] 가위표 [예] 누나는 오늘 남자와 맞손을 보구 들어오면서 두 팔로 가께표를 했어.

가냥 [표] 가장 [예] 우리집 송아치 중에 저놈이 가냥 먹성이 좋아.

가랭이 [표] 가랑이 [예] 옹은 살림살이 주제에 부잣집 따라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니께.

가러막다 [표] 가로막다 [예] 엄마는 저녁이 술 마시러 나가는 아버지 앞을 가러 막었어.

가러얏다₁ [표] 가라얏다 [예] 수백 년 동안 물속으루 가러얏었던 배가 태안 앞 바다서 발견뿔어.

가러얏다₂ [표] 가라얏다 [예] 밤새 머리가 아푸더니 새벽부터 가러얏기 시작허네.

가레 [표] 가래 [예] 호미루 막을 데를 가레로 막게 생겼구먼.

가레떡 [표] 가래떡 [예] 어릴적 가레떡이다가 꿀을 찍어먹던 맛을 잊을 수가 읍구먼.

가레침 [표] 가래침 [예] 가레침을 아무데나 톱택 뵈고 땡기는 몰상식헌 사람도 있더라.

가레툷 [표] 가래툷 [예] 어제 산이 올라갔다 왔더니 가랭이에 가레툷이 생겼어.

가름마 [표] 가르마 [예] 너는 가름마 탄 머릿결이 참말로 이쁘기도 허구나.

가면 [표] 가면 [예] 이번이 가면 온제 또 온다네?

감옥소 [표] 감옥 [예] 저렇게 망나니짓을 일삼는 늙은 감옥소에 집어넣야 된다니께.

가물치다 [표] 가무리치다 [예] 손씨댁은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구 그 자리서 가물쳤어.

가새 [표] 가위 [예] 안방 화장대 서랍 속이 가서 가새 좀 끄내오거라.

가생이 [표] 가장자리 [예] 오늘 저녁때까장 마당 가생이루 물건을 옮겨놓게나.

가설라른 [표] 가설랑은 [예] 그사람 한번 가설라른 소식두 읍구먼.

가슈: [표] 가세요 [예] 할아버지, 안녕히 가슈:

가심 [표] 가슴 [예] 교통사고 모습을 보면서 가심이 벌렁거리구 다리가 후들거리서 갱실히 지나왔어.

가심얹이 [표] 가슴얹이 [예] 우리 할머니는 삼촌이 세상을 떠난 후로 평생을 가슴얹이 허면서 살었어.

가운디 [표] 가운데 [예] 그사람 즘잖허기가 부처님 가운디 뒤편이 같다니께.

가유: [표] 가요: [예] 빠스시간 늦지 않게 얼릉얼릉 가유.

가이 [표] 개 [예] 잔치집 냄새를 맡은 동네 가이들이 때루 몰려오는구먼.

가이꿈 [표] 개꿈 [예] 오늘 아주 좋은 꿈을 꿔는디, 할머니 말씀이 애덜 꿈은 모두 가이꿈이라네.

가이망나니 [표] 개망나니 [예] 저놈은 온동네 사람이 머리를 썰레썰레 흔드는 가이망나니가리께.

가이당 [표] 계단 [예] 가이당이 가팔르니께 조심조심 내려가셔유.

가쟁이 [표] 가지 [예] 대추나무 가쟁이에 가오리연이 걸렸네.

가편허다 [표] 거뜬하다 [예] 어제는 피곤했넌디, 하룻밤 푹 자구났더니 몸이 가편허구먼.

가제나 [표] 가뜩이나 [예] 긴긴 장마루 가뜩이나 힘드는데, 태풍까지 불어온다 니 올 농사는 망쳤네.

가진양념 [표] 갇은양념 [예] 가진양념을 모두 능구 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오 떨어 물르졌네유.

가차이 [표] 가까이 [예] 너무 멀어서 목소리가 잘 안들리니께 가차이 얹어유.

각구목 [표] 각목 [예] 어젯밤이 가꾸목으루 사람을 때린 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는구먼.

각대기 [표] 갑(匣) [예] 아빠 어린시절이는 각대기루 딱지를 접어갖구 딱지치기 허면서 놀었어.

각승 [표] 각성 [예] 우리동네는 열가구가 모두 각각 승이 달려.

각승바지 [표] 각성바지 [예] 우리동네는 열 집이 사는데, 재미있게두 모두가 각승바지여.

간다니께 [표] 간다니까 [예] 쪼끔만 더 놀다 간다니께 자꾸만 전화허구 그러네.

간:뎡이 [표] 간덩이 [예] 너는 그런 말을 함부루 허는 걸 보니께 간:뎡이가 크



- 긴 큰가 보구먼.
- 간디었다** [표] 간데었다 [예] 아침까지 집앞이서 놀던 강아지가 간디 였네.
- 간사지** [표] 간석지 [예] 우리동네 드넓은 간사지는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모두 육지가 되었어.
- 갈구리** [표] 갈고리 [예] 방죽에 가득 찬 수초를 굽어낼라니께 튼튼한 쇠갈구리가 필요하겠구먼.
- 갈구쟁이** [표] 갈고쟁이 [예] 저 소나무는 갈구쟁이가 너무 많아서 가지치기를 해주야 겠어.
- 갈라구** [표] 가려고 [예] 더 점 놀다 가지, 벌써 갈라구 그러는겨?
- 갈:량** [표] 가량 [예] 내 갈:량이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
- 갈:량허다** [표] 어림잡다 [예] 저울이 읊으니께 갈:량해서 적당히 주게나.
- 갈롱떨다** [표] 간능떨다 [예] 우리동네 노랭이 영감이 다방 아가씨 갈롱에 흘락 넘어갔다네.
- 갈르다** [표] 가르다 [예] 그 과자를 둘이 사이 좋게 똑같이 갈라서 갓구 가려무나.
- 갈어였다** [표] 갈아였다 [예] 김씨는 진장(김장) 금이 떨어져서 배차밭을 갈어엿구 엉엉 울었어.
- 갈어주다** [표] 갈아주다 [예] 친구가 상점을 차렸는디 물건 점 하나 갈어주구 오야졌네.
- 갈키** [표] 갈퀴 [해] 사람들은 내 손구락이 가늘고 길어서 갈키 손구락이라구 놀리곤 했어.
- 감주** [표] 식혜 [예] 잔치집 음식상이는 감주가 읊으면 서운허지.
- 감추기장낭** [표] 숨바꼭질 [예] 우리 어린 시절이는 감추기 장낭이 제일 재미있었어.
- 갈잔허다₁** [표] 갈잖다. [예] 그사람 허우대는 멀쩡헌디 허는짓은 갈잔허단 말여.
- 갈전허다₂** [표] 갈잖다. [예] 김좌진 장군은 힘이 장사라서 벼가마를 한손으로 갓전허게 들어올렸다는군.
- 갓질** [표] 갓길 [예] 고속도로에서 갓질루 달리는 것은 위험허니께 챙기게.
- 강승허다** [표] 강성하다 [예] 콩밭이 온통 콩은 읊구 바랭이만 강승허구 있네.

강정 [표] 과줄 [예] 강정은 우리 고유의 명절 음식이여.

갓구 [표] 가지고 [예] 시댁이 갈 때 사돈 으르게 보내는 손물을 꼭 갓구가거라.

개갈 [표] ? [해] 언행 따위가 종잡을 수 없을 때, ‘안나다’와 함께 사용함.

[예] 저 사람은 허는 짓이 개갈 안난다니께.

개갈내다 [표] ? [해] 하던 일을 끝내다 [예] 이번이는 무슨 일이 있어두 그 문제를 개갈내세.

개구녕 [표] 개구멍 [예] 저 집 올타리는 개구녕이 있어서 애들두 글루 들락거려.

개금 [표] 개암 [예] 칠월 푸장 나뭇짐에 개금가지가 섞여있어서 황재했어.

갱굴창 [표] 개골창 [예] 술이 취해서 곤약고가 된 영철이가 갱굴창이 빠져서 허부적거리다 갱실히 빠져 나왔다.

과나리봇짐 [표] 과나리봇짐 [예] 내 이삿짐은 훌훌단신에 과나리봇짐이 전부라니께.

개렵다 [표] 가렵다 [예] 뭐가 물었는지 내 등어리가 몹시 개려워 죽겠네.

개리다₁ [표] 가리다 [예] 방아 쪼은 쌀의 니를 개리구 낫더니 눈이 아리네.

개리다₂ [표] 가리다 [예] 저사람은 으른이 되서두 낮을 개리구 부끄럼을 많이 타는구먼.

개리다₃ [표] 잔칫집 마당은 채알을 쳐서 햇빛을 개려야 음식이 상하지 않는거여.

개볍다₁ [표] 가볍다 [예] 졸업시험이 끝나서 마음이 훌가분허구 개볍구먼.

개볍다₂ [표] 가볍다 [예] 내 몸무게는 보매 보기버덤두 개벼운 편이여.

개볍다₃ [표] 가볍다 [예]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구 입이 개벼워서 탈이여.

개뿐허다 [표] 가뿐하다 [예] 아버지를 등에 업구 병원에 가는데, 너무 개뿐해서 마음이 아팠어.

개용돈 [표] 가용돈 [예] 할머니는 손주들이 주는 개용돈을 한푼두푼 모태는 것이 큰 즐거움이지.

갠수 [표] 간수 [예] 맛있는 두부를 맹글라면 갠수를 적당히게 놓야 되는 거여.

갠찮다 [표] 괜찮다 [예] 어제는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한숨 폭 자구 낫더니 지금은 갠찮네.

갯가 [표] 바닷가 [예] 작년 여름 갯가에서 그이와 조개를 잡던 추억을 잊을 수



가 얹어.

갯지렁이 [표] 갯지렁이 [예] 갯지렁이는 갯벌에서 얹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환경지킴이여.

갯개미 [표] 간재미 [예] 그 바닷가 횃집은 갯개미 회가 아주 유명하여.

갯구랑 [표] 개울 [예] 우리 어릴 때 갯구랑을 건너 땡기던 징검다리가 지금도 남아 있구먼.

갯굴창 [표] 개울 [예] 갯구랑 참고

갯기다 [표] 감기다 [예] 어제 잠을 못잤더니 자꾸만 눈이 갯겨서 힘들게 일했어.

갯변 [표] 강변 [예] 우리 마을 앞 갯변이는 모래사장이 넓어서 주말마다 사람들로 북적이지.

갯신히 [표] 간신히 [예] 엇그제 등산 갔다가 폭설이 내리는 바람이 갯신히 내려 왔어.

거렁뱅이 [표] 비렁뱅이 [예] 옛 속담이는 ‘거렁뱅이 자루찢기’라는 말두 있다네. 불쌍헌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구 서루 돕구 살으라는 뜻이지.

거무수름하다 [표] 거무수름하다 [예] 너 혹시 위디 아프냐? 얼굴이 왜 그렇게 거무수름하냐?

거죽 [표] 가죽 [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냉기구, 호랑이는 죽어서 거죽을 냉긴다는 말이 있어.

거진 [표] 거의 [예] 이제 거진 다 났으니께 자꾸만 재촉허지 말구 쪼끔만 더 지둘러 줘.

거편하다 [표] 거뜬하다 [예] 이까짓 쌀자루야 아주 거편허게 들어올릴 수 있지.

거치장스럽다 [표] 거추장스럽다 [예] 모처럼 귀걸이를 했더니 거치장스럽기만 허구먼.

거름 [표] 거품 [예] 그사람 제 승질을 못이겨서 그이 거름을 내뿜구 떠들어 대는구먼.

건덕지 [표] 건더기 [예] 계기국이 국물만 많구 건덕지는 족구먼.

건데기 [표] 건더기 [예] 이빨 빠진 우리 할머니는 김치 건더기를 전부 건져내

구 국물만 마셔.

걸어딜이다 [표] 걷어들이다 [예] 콩이 잘 여물었으니 내일쯤 걸어딜이야졌어.

걸때 [표] 걸대 [해] 몸의 크기 [예] 저 선수는 보기보다 걸때가 크구먼.

걸떡대다₁ [표] 걸떡대다 [예] 재는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먹을 것만 보면 걸떡
대구 난리라니께.

걸떡대다₂ [표] 넘보다 [예] 그 사람은 이쁜 여자만 보면 고연히 걸떡댄다니께.

~**걸랑** [표] 거든 [예] 내일 큰집이 가걸랑 할머니께 큰 절부터 올리려무나.

~**걸루** [표] 걸로 [예] 이번이는 이걸루 저녁반찬을 헤먹으야졌구먼.

겁나게 [표] 매우 [예] 소나기가 갑자기 겁나게 쏟아지는구먼.

겉더깡이 [표] 겉껍데기 [예] 그 빵은 겉더깡이가 볼품 읍어두 속은 부드럽구
맛있어.

겉모냥 [표] 겉모양 [예] 저사람은 겉모냥만 저렇지 속은 꼭 찻어.

게기 [표] 고기 [예] 올 추석은 스승님께 게기라두 한 근 사갓구 가야졌구먼.

겨란 [표] 계란 [예] 마이크 소리가 요란헌걸 보니께 겨란장수가 온 모양이네.

게롭히다 [표] 괴롭히다 [예] 저애 어릴적이는 짓궂어서 친구들을 무척 게롭히
구 땡겼지.

게서 [표] 거기에서 [예] 너 지금 게서 뭐허구 있는 거냐?

게육질₁ [표] 구역질 [예] 우리동네는 축산 약취 때미 사람들마두 게육질이 심
허구 못살겠다구 난리들이여.

게육질₂ [표] 구역질 [예] 우리 사장은 돈 많은 체 자랑만 허구 상대할 때마두
게육질이 난다니께.

게을름뱅이 [표] 게으름뱅이 [예] 게을름뱅이와 친구허면 밥 굶어죽기 딱 좋다네.

게트름 [표] 트림 [예] 무수를 먹구 게트름을 허면 냄새가 아주 고약허지.

게피스럽다 [표] 거추장스럽다 [예] 약취가 심헌 돼지우리를 치우는 일은 아주
게피스런 일이여.

겻말 [표] 허리춤 [예] 이씨는 술값 시비가 붙어서 여주인한테 겻말 짹허구 망
신 톡톡히 당했다.



- 게타리** [표] 허리띠 [예] 오늘 저녁은 모처럼 게타리를 풀어놓고 양젓 먹어보세.
- 쟁운기** [표] 경운기 [예] 우리 밭은 쟁운기로 갈기는 너무 죽어서 쟁기질쩍이는 안되어.
- 쟁유허다** [표] 경유하다 [예] 홍성서 덕산을 갈 때는 내포신도시를 쟁유해야 한다네.
- 겨댕기다** [표] 기어다니다 [예] 애기가 엇그제 웅알이허더니 벌써 겨댕기네.
- 고냥** [표] 그냥 [예] 아침이 방 점 치우라구 했더니 자구 일어난대루 고냥 놔뒀네.
- 고니** [표] 고누 [예] 옛날 전통놀이는 고니가 참말루 재미있었지.
- 고드랫독** [표] 고드랫돌 [예] 말랑말랑허던 가래떡이 고드랫독처럼 굳어 버렸네.
- 고디다** [표] 고되다 [예] 오늘 일을 너무 고디게 했더니 온 삭신이 아파 죽겠네.
- 꼬린내** [표] 고린내 [예] 애덜이 밭을 안땀구 들어오는 바람이 꼬린내가 나서 숨을 못쉬졌구먼.
- 고린장** [표] 고려장 [예] 우리동네 뒷산 동작골은 아직도 고린장 터가 있다구 허더라.
- 고망큼** [표] 고만큼 [예] 지금 손이 들구 있는 고망큼만 쥐두 되네.
- 고무** [표] 고모 [예] 내일은 제주도에 사는 우리 막내고무가 오시기루 했어.
- 고바위** [표] 언덕배기 [예] 저 산 고바위를 넘어왔더니 숨이 가쁘구먼.
- 고뿔** [표] 감기 [예] 올 겨울 고뿔은 유난히 기승을 부릴거라구 허네.
- 고상** [표] 고생 [예] 젊어서 고상은 사서도 험다니께 어렵더라두 잘 견뎌봐.
- 고소롬허다** [표] 고소하다 [예] 참깨 볶는 냄새가 참말루 고소롬허구먼.
- 고숨도치** [표] 고슴도치 [예]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헌줄 알구 이뻐한다네.
- 고시러지다** [표] 고스러지다 [예] 베를 제때 거두지 못해서 폭삭 고시러졌구먼.
- 고시레** [표] 고수레 [예] 옛날이는 들밥을 먹을 때마두 먼저 고시레버텀 했어.
- 고연이** [표] 공연히 [예] 오늘은 고연이 짜증만 나는 하루구먼.
- 고염** [표] 고염 [예] 옛말이 감버덤 고염이라는 말두 있어.
- 고이현** [표] 고안 [예] 허, 저런 고이현 늙 좀 보게나.
- 고자리** [표] 구더기 [예] 된장이 익기두 전인디 고자리가 먼저 생겼네.

고재 [표] 고자 [예] 저사람 고재라구 소문이 났넌디, 장가 들구 떡두께비같은 아들만 낳았네.

고주배기 [표] 그루터기 [예] 광복후루는 산이 험벗어서 고주배기를 캐다 땀감으로 썼어.

고지 [표] 도급 [예] 일손이 모잘러서 논을 고지로 내놔어.

곡간 [표] 곳간 [예] 옛날버팀 곡간이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네.

곡쟁이 [표] 곡쟁이 [예] 언땅을 팔 때는 삼보다는 곡쟁이가 꼭 필요허지.

곡석 [표] 곡식 [예] 곡간이다가 곡석을 가득 채워 놓으니께 보기만 해두 배가 불르구먼.

곤두벌레 [표] 장구벌레 [예] 그 사람 성질 급허기가 곤두벌레 뛰듯 허는구먼.

곧바루 [표] 곧바로 [예] 으른들 말씀이 밥 먹구 곧바루 누우면 소가 된다구 했어.

골려먹다 [표] 놀려먹다 [예] 사람을 그렇게 골려먹으면 못쓰는 뱀이라네.

골리다 [표] 놀리다 [예] 그 친구는 너무 순해서 사람들이 맨날 골려두 씹 한번 웃구 만다니께.

골르다 [표] 고르다 [예] 나는 잘 몰르니께 전문가인 자네가 잘 익은 수박 점 하나 골려주게.

골망텅이 [표] 고랑텅이 [예] 우리 밭은 저 산 골망텅이 안쪽에 있어.

골째기 [표] 골짜기 [예] 골째기 비탈 밭이는 감자꽃만 풍년이네.

골텅이 [표] 골짜기 [예] 너두 자연인처럼 산속 골텅이로 들어가서 살구 싶단 말이냐?

곰지다 [표] 알차다 [예] 작은 방죽이라구 깐봤더니 물계기를 아주 곰지게 잡었구먼.

곰팡이 [표] 곰팡이 [예] 긴 장마루 농 속 옷들마두 곰팡이가 하얗게 앉었어.

공꺼 [표] 공것 [예] 공꺼 좋아허다가 이마 벗어진다는 말이 있다네.

과실 [표] 과일 [예] 올해는 태풍때미 우리 과수원이 과실이라구는 사과 땃개 매달려있을 뿐여.

과줄 [표] 한과 [예] 명절에 과줄을 만드는 일은 번잡스런 과정이 많어.



팔팔하다 [표] 팔팔하다 [예] 너는 승질이 너무 팔팔해서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렵다.

광밥 [표] 튀밥 [예] 광밥은 아무리 먹어도 헛배만 불러.

광술 [표] 관술 [예] 쥐불놀이 깡통불을 피울 때는 광술이 최고여.

광우리 [표] 광주리 [예] 옛날 농사를 지을 때 광우리 안이다가 담아내오던 들밥은 천하일미였어.

광챙이 [표] 벼멸구 [예] 올해 논농사는 광챙이가 망쳐놓았구먼.

괘시리 [표] 공연히 [예] 오늘은 괘시리 울적한 하루였어.

괘이 [표] 고양이 [예] 그 사람 상판대기가 꼭 괘이 낮짝 닮았어.

괴다 [표] 고이다 [예] 책상다리가 흔들릴 때는 접은 종이루 괴어 놓으면 되지.

괴짜 [표] 궤짜 [예] 안 입는 혼웃은 모두 괴짜 속이다가 느놓거라.

굉일 [표] 공휴일 [예] 굉일이 바쁠 것 같으면 이번 굉일날이나 만나세.

구녕 [해] 구멍 [예] 작은구녕이라두 그냥 냉기지 말구 찬찬히 살피봐라.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레루두 못막을 수가 있음께.

구데기 [표] 구더기 [예] 아니, 구데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단 말이나?

구덩이 [표] 구덩이 [예] 무구텅이에 가서 무수 좀 뗏 개 끄내다가 얼큰한 찌개 좀 끓여먹세.

구락쟁이 [표] 아궁이 [예] 오늘 밤은 날씨가 춥구나. 구락쟁이에 군불 좀 뜨곤 뜨끈하게 지퍼라.

구렁텅이₁ [표] 구렁텅이 [예] 차바쿠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읊구먼.

구렁텅이₂ [표] 구렁텅이 [예] 환락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는 평생 신세 망치는 줄만 알게.

구렁이 [표] 구렁이 [예] 이눔아, 구렁이 담넘어가듯 허지 말구, 일 좀 딱부러지게 제대루 해봐.

구루마 [표] 마차 [표] 저사람은 손구락이 굵어서 끼구 있는 반지가 구루마 바쿠만 허구먼.

구름 [표] 구름 [표] 오늘은 하늘이 모처럼 구름 한 점두 읊이 맑구먼.

- 구름찌다** [표 구름끼다 [예 하늘이 시커멓게 구름찢길 보니까 비가 올 날씨구먼.
구:리질 [표 구:두질 [예 연기가 굴뚝으로 잘 빠져나갈라면 해마두 구:리질을 자주 해줘야 하여.
구만 [표 그만 [예 오늘은 일을 구만허구 일찍 집에 들어가야겠구먼.
구만허 [표 그만해 [예 이제 구만 혀라. 맨날 듣는 잔소리 지겹기만 혀다.
구석쟁이 [표 구석 [예 거기 구석쟁이루 가지 말구, 여기 가운데루 나와서 앉어유.
구수 [표 구유 [예 예수님두 구수에서 태어나셨다. 가난헌 집안에서 태어났다 구 부끄럽게 생각허지 말어.
구수름허다 [표 구수하다 [예 오늘 누룽밥이 아주 구수름허구 먹을만 허구먼.
구실르다 [표 구슬리다 [예 저렇게 화가 나서 펄펄 날뛰는 사람은 살살 구실르는데 최고여.
구적거리다 [표 구저분하다 [예 하루쟁일 비만 오구 집안이 구적거려서 발볼 일 디가 읍구먼.
구참다 [표 귀참다 [예 모처럼 책 좀 읽을라니께, 파리가 자꾸만 구참게 달려붙네.
구메기 [변 이무기가 되어 [예 저사람은 이제 구메기가 되서 눈치만 백단이 넘는다니께.
구:신 [표 귀:신 [예 요즘 시상이 무슨 구:신이 있다구 그 난리를 치나.
구실르다 [표 구슬리다 [예 그녀석 승질은 지랄 맞어두, 살살 구실르면 말을 잘 들어.
구이:양 [표 귀양 [예 우리 선조 한 분은 임금한테 바른말 했다가 흑산도로 구이:양을 갔다.
구이:엽다 [표 귀엽다 [예 새끼들은 사람이구 짐승이구 모두 이쁘구 구이:엽다니께.
구이:경 [표 구경 [예 이번 휴가 때는 부모님 모시구 서울구이:경이나 가야겠네.
구:이허다 [표 귀:하다 [예 돈버텨두 사람을 구:이허게 생각하는 세상이 최고여.
구진구진 [표 조금씩조금씩 [예 아침부터 구진구진 비가 오기 시작허는구먼.



구텡이 [표 구석 예 구텡이에 앉어있지 말구 앞으로 나오게.

구통배기 [표 뽀따귀 예 이눔아, 너 구통배기를 한 대 음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군:내 [표 군동내 예 방이 한동안 불을 안땔더니 군:내가 심하게 나네.

군:달 [표 윤달 예 조상님 산소는 군:달이 이장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구먼.

굴:내다 [표 연기나다 예 아궁지에 불을 땔 때마다 굴:내서 전딜 수가 얹어.

굴르다 [표 구르다 예 뽕밭이 굴러두 저승버덤은 이세상이 더 좋다는구먼.

궁시렁거리다 [표 구시렁거리다 예 너는 호박 잃어버린 늑처럼 왜 그렇게 궁시렁거리구 있느냐?

굴뽀대기 [표 굴뽀데기 예 백사장이 웬 굴뽀대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르겠네.

굴품하다 [표 굴뽀하다 예 새콤달콤헌 회무침이 먹고 싶은 것을 보니까 속이 굴품헌 모양이구먼.

굿다 [표 굽다 예 삼겹살을 굿기에는 참나무 숯불이 최고라네.

궁뎡이 [표 궁둥이 예 궁뎡이를 마주하면 하느님두 웃으신다는 속담이 있어.

귀꾸녕 [표 귀뚜멍 예 내가 말헐 때는 귀꾸녕이다가 말뚝을 박어놓구 있었네? 지금 와서 엉뚱헌 소리만 허구 지랄이냐?

귀불알 [표 꾀불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니 우리애기 귀불알이 바짝 얼어서 들어왔네.

귀싸대기 [표 귀와 뽀 예 학창시절 선생님한테 귀싸대기 한 대 음어맞은 기억을 잊을 수가 얹어.

귀후개 [표 귀이개 예 애야, 귀후개 좀 찾아와라. 귀가 간질간질헌게 꾀밥이 짝 찬 모양이여.

꾀밥 [표 귀지 예 꾀밥을 함부루 굽어내다가는 탈나기 쉬워.

그냥반 [표 그양반 예 그냥반 체신머리 얹이 펄펄 날뛰는 승질머리 허구는…….

그눔 [표 그놈 예 그눔 근력 쓰는 걸 보니까 천하장사감이로구먼.

그눔 [표 그것 예 지금 자네가 들구 있는 물건이 딱 좋구먼. 그눔이루 그냥

주게나.

그니 [표] 그네 [예] 이도령과 춘향이는 그니를 타면서 정이 들었다네.

그:도 [표] 거:도(鋸刀, 톱) [예] 큰 나무를 벌 때는 그:도가 있어야 된다니께.

그드름 [표] 거드름 [예] 그녀석 그드름 피우는 꼴이라니.

그러니께 [표] 그러니까 [예] 그러니께 이번이는 어렵다는 말이구먼.

그런디 [표] 그런데 [예] 그런디, 너는 짜래기밥만 먹었네? 왜 어린놈이 항상 반말이냐?

그래서 [표]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이는 어렵다는 말씀이구먼유?

그류 [표] 그래요 [예] 그류! 으르신 맘대루 한번 해보슈!

그:만 [표] 거:만 [예] 그 친구 돈 점 벌었다구 그:만 떠는 꼴 좀 보라지.

그만큼 [표] 그만큼 [예] 너두 그만큼 나이를 먹었으면 네 장래를 생각해야지.

그:머리 [표] 거:머리 [예] 옛날이는 논이서 모심을 때마두 그:머리가 올마나 많았는지 몰러.

금:저리 [표] 거:머리 [예] 그:머리 참조

그뭉 [표] 그뭉 [예] 내일이 벌써 순달그뭉이네. 참 세월이 빨리두 가는구먼.

그북허다 [표] 거북하다 [예] 내가 그 자리에 가봐야 서루가 그북허기만 혈거 갈구먼.

그:사 [표] 거:사 [예] 그때 충신들은 그:사에 실패허구 반역으로 몰려 죽었지.

그세다 [표] 거세다 [예] 만주벌판 북풍바람이 독립군들의 양가심에 그세게 파 구들었어.

그시다 [표] 굿다 [예] 우리 손자가 도화지에 그신 줄이 여간 뻥뻥하지 않구먼.

그여 [표] 기어이 [예] 이놈 자식이 그여 일을 저질르구 말었구먼.

그이 [표] 게 [예] 이번 갈산 장은 그이가 지천으로 나왔더구먼.

그저끼 [표] 그저께 [예] 어제 그저끼가 홍성 장날이었슈.

그쥬:? [표] 그렇지유? [예] 그쥬? 제 말이 맞쥬?

그:지 [표] 거:지 [예] 네 옷차림이 꼭 그:지 모습이구먼.

그지? [표] 그렇지? [예] 그지? 내 말이 틀림 읍지?



그:짓말 [표] 거:짓말 [예] 너는 그:짓말 점 작작 해라.

그짓뿌랭이 [표] 거짓부랭이 [예] 네 입이서 나오는 말은 모두 그짓뿌랭이 뿐 이구먼.

그쩍이 [표] 그때에 [예] 그쩍이는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을 꿈두 못꾸던 시절 이었어.

근:강 [표] 건:강 [예] 할머니, 부디 근:강 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너 [표] 건:너 [예] 저 강근:너 초가삼간이 내집이구먼.

근대리다 [표] 건드리다 [예] 애 지금 승질이 잔뜩 낫으니께 근대리지 마라.

근디리다 [표] 건드리다 [예] 근대리다 참고

근력없다 [표] 힘없다 [예] 나이를 먹으니께 근력두 읊어지구 몸이 옛날 같지 않구먼.

근:물 [표] 건:물 [예] 오래 된 근:물이 아직두 튼튼허구먼.

근:설 [표] 건:설 [예] 옛날 중동 근:설 현장은 참으로 더웠다네.

근:의 [표] 건:의 [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무 때나 근:의 바랍니다.

근:축 [표] 건:축 [예] 이탈리아 예술의 백미는 근:축에 있다네.

글:루 [표] 그곳으로 [예] 글루 쪽 걸어가면 앞이 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슈.

글:립 [표] 건립 [예] 우리동네 경로당 앞이다가 국기게양대를 새루 글:립했어.

글:립 [표] 걸립 [해] 마을 산신제를 지낼 때마두 풍물패들이 들어댕기면서 경비를 글:립했어.

글발 [표] 콩발 [예] 글발 사이루 심은 수수가 머리를 숙이구 영그는 모습이 가을이구먼.

글발무 [표] 열무 [예] 엄마가 글발 고랑이다가 심은 글발무를 뽑어서 담근 절이 맛은 최고여.

글:상 [표] 걸:상 [예] 옛날 핵교에서 쓰던 글:상은 모두 나무로 만들었어.

글:치다 [표] 걸:치다 [예] 저사람 사업허다가 진 빛이 대추나무에 연 글:치듯 했다는구먼.

금뎡이 [표] 금덩이 [예] 최영 장군 아버지는 “금뎡이 보기를 돌뎡이 보듯 해라”

는 말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냈겠다.

금:문소 [표] 검:문서 [예] 큰길 입구 금:문소는 음주운전 단속을 자주 허는 장소여.

금빵 [표] 금방(귀금속) [예] 엄마는 시집을 때 동네 금빵이서 만든 금반지를 지금도 끼고 있어.

금:사 [표] 검:사 [예] 금:사들이 정의로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네.

금:열 [표] 검:열 [예] 우리학교 급식실은 주기적으루 위생 금:열을 엄격하게 실시해서 청결허지.

금:진 [표] 검:진 [예] 오늘이 근:강 금:진 받는 날이네.

금:찰 [표] 검:찰 [예] 요즘 정치권이서는 금:찰 개혁 한다구 난리들이구먼.

기 [표] 귀(耳) [예] 누가 내 승을 보는지 기가 가렵구먼.

기냥 [표] 그냥 [예] 오늘은 아무것도 줄게 읍으니께 기냥 가게.

기다 [표] 그렇다 [예] 기다, 아니다, 싹박질만 허지 말구 사이 좋게 지내거라.

기동냥 [표] 귀동냥 [예] 저사람 얘기는 전부 기동냥으루 좇어들은 게 분명허.

기력지 [표] 길이 [예] 저사람 키는 전봇대만큼이나 기력지가 질구먼.

기레기 [표] 기러기 [예] 기레기가 남쪽으루 내려오는 걸 보니께 가을이구먼.

기맥히다₁ [표] 기막히다 [예] 자네 허는 짓을 보구있으니께 참으루 기맥혀서 말이 안나오네.

기맥히다₂ [표] 기막히다 [예] 저 어린애 트로트 실력이 참으로 기맥히구먼.

기시다 [표] 계시다 [예] 우리집은 할머니가 누워 기시니께 조용조용 허게 놀어라.

기여 [표] 맞어 [예] 기여! 자네 말이 백번 옳구먼.

기응:계 [표] 경:계 [예] 군인은 야간 기응:계를 잘 서야 되느겨.

기응:사 [표] 경:사 [예] 우리 아들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집안 기응:사 났네.

기응:제 [표] 경:제 [예] 나라 기응:제가 살아야 백성이 편안헌 거여.

기응:쟁 [표] 경:쟁 [예] 세상살이는 모두가 기응:쟁이지.

기제기 [표] 기저귀 [예] 애기가 올 때는 기제기를 잘 살펴야 되여.

기주떡 [표] 증편 [예] 기주떡은 막걸리를 알맞게 섞으야 맛이 부드러워지는 거여.



까까 [표] 과자 [예] 아가야, 엄마가 까까 사다 줄테니께 그만 올라라.

까깝하다 [표] 갑갑하다 [예] 하루정일 집안이만 갇혀있으니께 가깝하기 이렇디
웁구먼.

까그매 [표] 까마귀 [예] 아침부터 까그매가 우는게 동네 초상이라두 날려나.

까발기다₁ [표] 까발리다 [예] 걸보매 큰 밤생이도 까발겨 보면 밤톨이 죽은 늑
두 많아.

까발기다₂ [표] 까발리다 [예] 저 사람은 밥 먹구 허는 짓이 념의 승허물 까발리
는 게 추미라.

까살지다 [표] 가살지다 [예] 너는 말투가 왜 그렇게 까살지구 찔찔맛으나?

까수다 [표] 채:썰다 [예] 김장 양념은 무수를 똑 고르게 까수는 것이 제일 어렵
더구먼.

까시 [표] 가시 [예] 손톱 밑이루 까시가 백혀서 괴롭구먼.

까실까실하다₁ [표] 까슬까슬하다 [예] 네 손등이 왜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거칠
구 까실까실 허냐?

까실까실하다₂ [표] 까슬까슬하다 [예] 그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까실까실헌 승
격은 안변했더구먼.

까쓰 [표] 가스 [예] 외출 혈 때는 까쓰 벨브를 잘 잠그구 나가야 현다.

~까장 [표] ~까지 [예] 지금까지장은 큰 일 읍이 잘 견뎠는디 앞으로가 어떨지
물르겠네.

까데기₁ [표] 갑대기 [예] 요새는 친구들 까데기 벳기는 장냥을 했다가 성추행
범으루 벌 받아.

까데기₂ [표] 갑대기 [예] 꽃뱀이 늙은 홀애비한테 접근할 때는 까데기를 벳겨
먹을 심산이었지.

까떼기 [표] 까뚜기 [예] 국밥을 먹을 때는 까떼기 반찬이 최고여.

까쟁이 [표] 까정어 [예] 그 아가씨 걸보매 순진헌거 같어두 여간 까쟁이가 아
니더라구.

깐보다 [표] 깔보다 [예] 걸보매 옷차림이 허접허다구 사람을 깐보면 안되네.

깎 [표] 꼴 [예] 오늘 학교 갔다 오거든 소 깎 좀 베어와라.

깜깜무소식 [표] 감감무소식 [표] 우리아빠 돈벌어 갓구 온다더니 뭇 년 쟤 깜깜 무소식이여.

깜텡이 [표] 감둥이 [표] 어릴적 동네서 얼굴이 까만 친구를 깜텡이라구 골린 적이 있었어.

깃난쟁이 [표] 갓난쟁이 [표] 우리 엄마가 나를 깃난쟁이 적이 등에 업구 피난왔다.

깨구락지 [표] 개구리 [예] 올챙이 깨구락지 시절 생각 못한다더니, 꼭 너보구 허는 말 같구먼.

깨금박질 [표] 양감질 [예] 어릴적 사방치기 놀이는 깨금박질을 잘해야 이겼어.

깨금발 [표] 양감질 [예] 어릴 적 깨금발로 서서 벌 받던 추억이 나네.

깨깃허다 [해] 깨끗하다 [예] 빨래를 어찌나 깨깃허게 빨았는지 눈이 부시구먼.

깨딱 [표] 까딱 [예] 깨딱허다가 차를 놓칠 뻔 했구먼.

~깨미 [표] ~까봐 [예] 재가 내 잘못을 일러깨미 은근히 겁이 나네.

깨송허다 [표] 생기나다 [해] 꽃이 시들었더니 한줄금 소내기가 지나자 깨송 해졌네.

깹이다 [표] 깡이다 [예] 이번 장마루 산자락이 군데군데 깹여내려갔네.

깹매기(깹가리) [표] 팽과리 [예] 사물놀이는 깹매기가 앞서 이끌어야 제격이지.

꺼리 [표] 거리 [예] 아침꺼리두 읊는 집이서 무슨 봉제사여?

꺼꿀루 [표] 거꾸로 [예] 허리가 선창은 사람은 철봉이서 꺼꿀루 매달리는 운동이 좋다.

꺼끔배 [표] 깨끼대 [예] 절구에 보리방아를 찼을 때는 꺼끔배질을 잘해야 알곡이 들 튀어나가지.

꺼불다₁ [표] 까불다 [예] 저렇게 즘잖혀 뵈는 사람두 꺼불 때는 영락 읊는 애덜 같구먼.

꺼불다₂ [표] 까불다 [예] 콩바심은 도리깨질을 현 다음 치로 까불러야 깨끗하게 되지.

꺼시래기 [표] 가시랭이 [예] 손톱 꺼시래기를 잘못 근대려서 생인손을 앓은 적



이 있다네.

꺼정 [표] 까지 [예] 니가 나한테 지금꺼정 진실하게 대헌 적이 한번이라두 있었느냐.

꺼적 [표] 거적 [예] 옛날 읍내 다리 밑이는 그지들이 바람 맥이루 꺼적대기를 걸쳐놓구 살었어.

겔쩍지근하다 [표] 꺼림칙하다 [예] 그때 그사람한테 쓸디웁는 말을 해서 두구 두구 겔쩍지근 허네.

께₁ [표] 께 [예] 저사람 약은 술수 부리다가 이번이는 제 께에 넘어간 심여.

께₂ [표] 근처 [예] 나팔꽃이 울타리게 많이 께었어.

께까드럽다 [표] 까탈스럽다 [예] 우리 과장은 승질이 께까드러서 상대허기가 조심스러워.

꺅이다 [표] 꺅이다 [예] 이번 태풍으루 수수목이 모두 꺅여 버렸네.

꺼름하다 [표] 꺼림칙하다 [예] ‘겔쩍지근하다’ 참고

께차다 [표] 꺅차다 [예] 저 선수는 만년 후보였다가 뒤늦게 주전선수를 께챘어.

꺅하다 [표] 꺅하다 [예] 어제 잠을 설쳤더니 눈이 꺅해졌네.

꼬깁 [표] 꼬깁 [예] 내동생 생일때 종이를 접어서 꼬깁모자를 만들어서 씌워줬어.

꼬깁 [표] 꺅깁 [예] 저사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꼬깁 빼먹듯 허구 있어.

꼬나보다 [표] 쏘아보다 [예] 너는 무슨 심사가 틀려서 엄마를 그렇게 꼬나보고 서있느냐?

꼬두밥 [표] 고두밥 [예] 꼬두밥을 잘 지어야 술맛이 좋아.

꼬라지 [표] 꼬락서니 [예] 네 옷 입은 꼬라지가 그게 뭐냐?

꼬락쌩이 [표] 꼬락서니 [예] 네 꼬락쌩이도 बे기 싫으니께 당장 집이서 나가 뺏겨라.

꼬랑내 [표] 고린내 [예] 나는 양말을 벗을 때마두 꼬랑내가 많이 나서 고민이구먼.

꼬랑지 [표] 꼬리 [예] 가을해가 노루 꼬랑지마냥 짧구먼.

꼬:매다 [표] 꺅매다 [예] 옷이 찢어졌으니께 얼른 좀 꼬:매줘유.

- 꼬맹이** [표] 꼬마 [표] 저기 꼬맹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꼭 공이 굴러오는 거 같네.
꼬약대다 [표] 크게 소리치다 [예] 저사람 애지간이 꼬약거리구 있네.
꼬소하다 [표] 고소하다 [표] 깨소금 볶는 냄새가 아주 꼬소허구나.
꼬무락지 [표] 종기 [예] 내 등쪽으루 꼬무락지가 나서 움직이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녀.
꼬작지 [표] 꼭대기 [예] 오늘은 꼬작지밭이 가서 일허구 올겨.
꼬찌 [표] 꼴찌 [예] 나는 이번 시험이서 꼭 꼬찌를 벗어나구 말겨.
꼬치₁ [표] 고치 [예] 누에꼬치가 아주 탐스럽게 여물었구먼.
꼬추 [표] 고추 [예] 초가지붕 위루 널어놓은 꼬추가 보기 좋구먼.
꼬치장 [표] 고추장 [예] 이번이 담근 꼬치장은 아주 매콤허구먼.
끈끈하다 [표] 줄기차다 [예] 오늘은 태풍영향으루 하루정일 끈끈허게 비가 오는구나.
꼴값 [표] 얼굴값 [표] 쥐뿔두 읊는 늙이 잘난 척 꼴값 떨구 있네.
꼴떼기 [표] 꼴뚜기 [표] 어물전 망신은 꼴떼기가 시킨다는 말두 있어.
꼴뵈다 [표] 저 친구 특허면 자랑질 해대는 것이 꼴뵈구먼.
공짜 [표] 공짜 [표] 공짜라면 양젓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
꼽새 [표] 곱사등이 [표] 유명한 여자 무용수 한 사람은 꼽새춤을 잘 춰서 인기를 끌었어.
꽃생이 [표] 꽃송이 [예] 함박눈이 탐스런 꽃생이처럼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네.
꾸기다₁ [표] 구기다 [예] 네 얼굴 표정이 꾸겨진 걸 보니께 속상헌 일이 있나벼.
꾸기다₂ [표] 구기다 [예] 잘 되던 사업이 코로나19 때미 꾸겨졌어.
꾸기다₃ [표] 구기다 [예] 태풍이 불어와서 여행기분이 꾸겨지구 말었어.
꾸레기 [표] 꾸러기 [예] 우리집 손자가 유치원에서 장난꾸레기로 소문이 났다네.
꾸레미 [표] 꾸러미 [예] 잘 말린 북어 한 꾸레미 주세유.
꾸부리다 [표] 구부리다 [예] 나이를 먹으니께 허리를 꾸부리는 게 이전 같지 않아.
꾸정물 [표] 구정물 [예] 빨래를 여러번 흥겼는디두 꾸정물이 계속 나오네.



꿈때암 [표] 꿈때 [예] 아침버텨 넘어지는 게 어제 저녁 꿈때암 제대루 했네.

끄내다 [표] 꺼내다 [예] 애야, 안방이 가서 할아버지 수건 점 끄내다 드려라.

끄냉이 [표] 끈 [표] 쌀푸대 아구리는 끄냉이루 단단히 묶어 뒤라.

끈내끼 [표] 끈 [예] 끄냉이 참고

끄니 [표] 끼니 [예] 우리 어린시절이는 끄니를 제대루 잊지 못허는 집이 허다 했어.

끄달리다 [표] 시달리다 [예] 요새 공무원들은 민원인한테 끄달려서 일허기가 힘들다구 허여.

끄덩이 [표] 끄덩이 [예] 아기를 업어줄 때마두 뒤에서 끄덩이를 자꾸만 잡어 땡기네.

끄랭이 [표] 꾸러미 [예] 아버지는 장이 가시더니 오징어 한 끄랭이 사갖고 오셨어.

끄름 [표] 그을음 [예] 생나무 타는 끄름이 부뚜막을 새카맣게 끄실렀네.

끄실리다 [표] 그을리다 [예] 옛날 등잔불 끄름이 콧구멍을 새카맣게 끄실리곤 했지.

끄치다 [표] 그치다 [예] 소내기가 정신없이 네리더니 점점 끄치구 있구먼.

끌르다 [표] 끄르다 [예] 끄냉이를 너무 꽁꽁 묶어 매서 쉽게 끌러지지 않네.

끌챙이 [표] 극쟁이 [예] 풀이 무성한 밭은 끌챙이로 득득 굽어주는 게 최고여.

끔 [표] 껌 [예] 짹짹 거리며 끄 씹는 소리가 너무 크구먼.

깁기다 [표] 끼이다 [예] 애기가 침대 틈새기루 깁겨서 큰일날 뻔했어.



나뎡기다 [표] 나다니다 [예] 너는 집구석이 붙어있지 않구서, 왜그렇게 쓰잘데기 얹이 나뎡기구 있는거냐.

나뎡굴다 [표] 나뎡굴다 [예] 태풍으루 떨어진 사과며 배가 여기저기 나뎡굴구 있네.

나레 [표] 이영 [예] 초가지병은 이년마두 나래를 엮어서 덮어야 비가 새지 않는다네.

나면 [표] 라면 [예] 우리 손주는 밥보다두 나면을 더 좋아혀.

나무새 [표] 나물 [예] 정월대보름 오곡밥은 나무새를 갖춰야 제격이여.

나뭇데미 [표] 나뭇데미 [예] 배씨네 나뭇데미가 집채만큼이나 큼지막허구면.

나박지 [표] 나박김치 [예] 나박지는 습습허게 담겨야 입맛을 돋군다네.

나싱개 [표] 냉이 [예] 곱창찌개는 나싱개를 놓야 향긋헌 맛이 나지.

나스다 [표] 나서다 [예] 재는 쥐뿔두 물르는 늪이 나스기는 일등이라니께.

나이마두 [해] 자기 생각이 맞았을 때 쓰는 감탄사. [예] 나이마두, 내가 그럴줄 알었다니께.

나이타 [표] 라이터 [예] 자네는 웬 미제 나이타를 갖고 나디냐?

나지오 [표] 라디오 [예] 우리 어릴적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오직 나지오를 통해서만 들었어.

나허구 [표] 나하고 [예] 이번 일은 자네허구 나허구 비밀로 허세.

낙출웁다 [표] 틀림없다 [예] 저 친구는 아무리 힘든 일두 낙출웁이 헤내는 사람이여.

난디웁다 [표] 난데웁다 [예] 벌금이 백만원이나 된다고? 난디웁는 날베락일세.

날게기 [표] 날고기 [예] 호랭이 날게기 먹는다는 속담두 있다네.

날루 [표] 날로 [예] 우리손주 허는 짓이 날루날루 약어지구 있구면.

날랑은 [표] 나는 [예] 이번 일에 날랑은 빼주게나.

날러댕기다 [표] 날아다니다 [예] 여름날은 해지기가 무섭게 물건들이 날러댕간다구.

날마두 [표] 날마다 [예] 저사람은 새벽기도를 날마두 빠지지 앵구 참석허지.

날베락 [표] 날벼락 [예] 멀쩡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니 웬 날베락이라.

남새 [표] 냄새 [예] 여름이는 돼지거름 남새가 올라나 고약헌지 몰러.

나자빠지다 [표] 나자빠지다 [예] 내 돈 꺾간 사람이 값을 생각은 안허구 뒤루 나자빠지네.

남어돌다 [표] 남아돌다 [예] 올 벼농사가 풍년이라서 쌀이 남어돌게 생겼구면.

낫:살 [표] 나잇살 [예] 사람이 낫:살이나 먹었으면 체면을 지킬 줄 알아야지.

낫짝빠기 [표] 낫짝 [예] 그 사람 요새는 낫짝빠기도 안 비치네.

낭구 [표] 나무 [예] 깊은 산중 생활은 땀 낭구라도 잔뜩 준비헤두야 땀이 놓여.

낭:중 [표] 나중 [예] 자네 부탁은 낭:중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

낫개림 [표] 낫가림 [예] 우리 손주가 점점 커가면서 낫개림이 훨씬 들허네.

낫짝 [표] 얼굴 [예] 벼룩두 낫짝이 있으야지, 더 이상은 너한테 신세질 수가 앵구면.

내깁 [표] 내(川) [예] 옛날 우리동네 앞으로 흐르던 내깁은 물게기 천국이었어.

내돌루다 [표] 내두르다 [예] 젊어서 몸을 함부루 내돌루면 늙어서 후회한다네.

내둥 [표] 내내 [예] 너는 내둥 몰르는 척허더니 지금 와서 왜 나스는 거냐.

내:빠다 [표] 달아나다 [예] 도둑놈이 제발이 저려서 내:빠구 있구면.

내:빠리다 [표] 내버리다 [예] 그 집은 살림살이를 내:빠리구 야반도주 했다네.

내:뻘지다 [표] 내버리다 [예] 내:빠리다 참고

내비두다 [표] 내버려두다 [예] 맨날 반대만 허구 말 많은 처남은 내비두구 우리끼리 의논허세.

내:위 [표 내:외 예] 저 근너집 내:위는 정 좋기루 근방이서 소문이 자자허지
내찍기다 [표 내쫓기다 예] 박씨는 머슴살이를 십년씩이나 허구두 빈손으루
 내찍기구 말었다.

낸내 [표 연기 예] 우리집은 아궁이 불을 때면 낸내가 나서 눈이 매워.

넴편 [표 남편 예] 내 동생 넴편이라는 사람은 허구헌날 술독이 빠져서 산다
 는구먼.

넵대 [표 넵다 예] 아버지는 술주정을 헐 때마다 주변 물건을 넵대 집어던지
 기 일쑤였어.

넷갈 [표 넷가 예] 우리집 앞이루 흐르는 넷갈은 맑기가 거울 같었어.

냉고래 [표 불기 없는 방 예] 방이 메칠동안 불을 안땀더니 아주 냉고래가
 되었네.

냉기다 [표 남기다 예] 배가 불르거든 꾸역꾸역 자주 먹지말구 그만 냉기거라.

너나없이 [표 너나없이 예] 우덜은 한·일전 축구시합을 이겨서 너나없이 대
 한민국만세를 불렀어.

너댓개 [표 네댓개 예] 애야, 저기 텃밭이 가서 고추 좀 너댓개만 따오거라.

너두나두 [표 너도나도 예] 사람덜이 너두 나두 제 잘난 맛으루 사는 거지.

너머 [표 너무 예] 너는 아무리 인정머리가 얹어두 그렇지, 나헌티 해두해두
 너무 허는구먼.

너물 [표 나물 예] 너물만 먹구서 힘을 쓸 수가 있겠니? 계기두 종종 먹어라.

너버텀 [표 너부터 예] 이번 일은 반장인 너버텀 먼저 헤라. 그레야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여.

너이 [표 넷 예] 우리팀원 중이서 쓸만한 사람은 너이가 전부구나.

넉출 [표 넉쿨 예] 뒷산이 올라가다가 가시넉출한티 팔뚝이 굵혔어.

넛 [표 관 예] 우리 할머니 천국 가는 길이 쓸 넛은 오동나무루 헤야졌구먼.

넛개 [표 날개 예] 사람은 옷이 넛개란다.

넛러가다 [표 날아가다 예] 그 먼 길을 벌써 도착했다구? 새처럼 넛러간 모양
 이구먼.

넌뽕대기 [표] 넌뽕지 [예] 태권도 선수가 넌뽕대기 다섯 장을 포개놓구 격파시
범을 보였어.

넌 [표] 남 [예] 부부기간도 헤어지면 넌이 되는 거여.

넌부끄럽다 [표] 남부끄럽다 [예] 결혼도 안허구 애부터 낳다니, 동네 넌부끄러
워서 못살겠네.

네려가다 [표] 내려가다 [예] 지난번 산이서 비탈길을 네려가다가 발목을 빠
끗했어.

네리다₁ [표] 내리다 [예] 오늘은 하루종일 비가 네리는구먼.

네리다₂ [표] 내리다 [예] 어제 다리를 빠끗해서 통통부었던 자리가 오늘은 많
이 네렸네.

네리다₃ [표] 내리다 [예] 저기 산꼭대기서 내려오는 사람덜이 우리 팀이구먼.

네림굿 [표] 내림굿 [예] 신이 들린 사람은 네림굿을 해야 낫는다구 허던디.

넥이다 [표] 녹이다 [예] 그 사람 노래가 사람 애간장을 넥이는구먼.

넝기다 [표] 넘기다 [예] 그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그냥 넝기는 뱀이 읏다니께.

넝کم [표] 냉کم [예] 새끼들은 에미가 맥이를 주는대루 넝کم넝کم 받아먹구 있네.

넬 [표] 내일 [예] 너는 꺾간 돈을 맨날 넬 준다구 그짓말만 허냐?

노깅다 [표] 고깅다 [예] 그 한마디 말이 너무 노까워서 목을 놓구 울었지.

노께또 [표] 로케트 [예] 고양늪들이 또 노께또를 쏘아댔구먼.

노나메기 [표] 노느매기 [예] 마을 사람들은 통돼지 한 마리를 잡어서 노나메기
를 했다네.

노나주다 [표] 나눠주다 [예] 옆 집 부모는 자식들한테 재산을 공평히게 노나줬어.

노느다 [표] 나누다 [예] 콩 한쪽이라두 사이 좋게 노느는 형제가 되거라.

노랭이 [표] 노랑이 [예] 아이구, 저 노랭이같은 사람허구는 아예 상대 헐 생각
을 말게나.

노름 [표] 노름 [예] 저 친구 평생 노랭이짓 해서 모덴 재산 노름으루 다 날렸다
는구먼.

노린재 [표] 노른자위 [예] 저 사람이 사는 집은 땅값이 그중 비싼 노린재같은



자리여.

노:타리 [표] 로타리 [예] 여기가 원래 십자로였는디, 작년이 노:타리루 땡글었어.

노타리₂ [표] 우리 밭을 경운기루 노타리 점 쳐주게.

논빼미 [표] 논배미 [예] 저 논빼미는 물이 풍부해서 농사짓기는 그만이지.

놀어나다 [표] 놀아나다 [예] 저사람 요새 읍내 다방 마담허구 놀어난다구 소문이 자자허더구먼.

눔팡이 [표] 눔팡이 [예] 우리동네 김씨는 평생동안 눔팡이처럼 빈둥거리다가 세상 떠났다네.

נות내끼 [표] 노끈 [예] 옛날 으른들은 방안이 얹어서 심심풀이루 נות내끼를 많이 꼬았어.

농진내다 [표] 짓이기다 [예] 강아지들이 콩밭을 아주 농진내구 들어댕기는구먼.

누덜 [표] 너희들 [예] 누덜 중이서 오늘 참이 밭이 들어간 늙은 누구여?

누데기 [표] 누더기 [예] 비록 누데기 옷을 입었어도 행실은 깨끗헌 사람이었어.

누렁이 [표] 누렁이 [예] 우리집 누렁이가 새끼 다섯 마리를 낳았어.

누루가다 [표] 느루가다 [예] 쌀이다가 잡곡을 섞어 먹으면 양식이 누루간다네.

누루수름허다 [표] 누르스름하다 [예] 옷을 너무 오래 입었더니 색깔이 아예 누루수름허게 변했네.

누르미 [표] 빈대떡 [예] 비오는 날은 누르미에 막걸리 한잔이 최고여.

누룽지 [표] 눌은밥 [예] 요즘은 밥을 태워서 일부러 누룽지를 땡글어 갇구 상품으루 팔더먼.

누룽갱이 [표] 눌은밥 [예] 옛날 엄마가 끓여주던 누룽갱이 맛이라니.

누룽밥 [표] 눌은밥 [예] 누룽밥은 부엌이 쭈그리구 얹어서 바가지다가 담어 먹으야 제맛이지.

누비 [표] 루비 [예] 우리누나 결혼선물루 받은 누비반지가 참으로 멋지네.

눈구덩이 [표] 눈구덩이 [예] 우체부 아저씨는 눈구덩이를 헤치구 땡기멘서 편지를 배달허는구나.

눈다락지 [표] 다래끼 [예] 너는 눈다락지가 자주 나는구나.

눈독딜이다 [표] 눈독들이다 [예] 처마에 매단 생선을 꿩이 한 마리가 눈독딜이 구 앓어있구면.

눈여겨보다 [표] 눈여겨보다 [예] 저 아가씨를 우리 메누리감루 눈여겨보구 있는 중이라네.

눈색임 [표] 눈속임 [예] 마술은 눈색임일 뿐이여.

눈텅이 [표] 눈두덩이 [예] 네 눈텅이가 왜 그렇게 푸르딩딩허냐?

놀르다₁ [표] 누르다 [예] 그 친구가 내 몸 위루 올라가서 놀르는 힘이 바윗텅이 갈더라니께.

놀르다₂ [표] 누르다 [예] 이번 축구시합은 숙적 일본을 3:2루 놀렸어.

놀은내 [표] 논내 [예] 애야, 놀은내가 나는 것을 보니께 밥이 타는 모양이다.

눔 [표] 놈 [예] 저눔은 말만 앞스지 실천이 읏단 말여.

눔감뽕감 [표] 눈대중 [예] 저 친구는눔감뽕감 재료를 섞어두 정확하게 맞는 단 말여.

눔개 [표] 누릉지 [예] 우리엄마가 끓여주던눔개가 참 맛있었지.

느:놓다 [표] 넣어놓다 [예] 애야, 그 벧가마니 점 창고 안이다가 느:놓거라.

느닷웁이 [표] 느닷없이 [예] 선생님이 느닷웁이 질문을 허니께 말문이 콧 맥혀서 대답을 못했어.

~느라구 [표] ~느라고 [예] 우털은 동네 사랑방이서 옛날얘기 듣느라구 낱새는 중두 물렸어.

느:마지기 [표] 너:마지기 [예] 우리집 재산은 자갈논느:마지기가 전부여.

느:말 [표] 너:말 [예] 옮겨올 양식으루 콩 한 말허구 보리느말 남았구면.

느이₁ [표] 넷 [예] 그 밭을 느이서 오늘 중으루 땀만 허졌느냐?

느이₂ [표] 너희 [예] 느이 아버지가 오늘은 왜 이렇게 퇴근이 늦는다?

느이덜 [표] 너희들 [예] 느의덜은 나처럼 미련허게 살지 말어라.

느리적느리적 [표] 느적느적 [예] 저 친구 바빠 죽겠는디두 느리적느리적 걸어 오는 꼴 좀 보게.

느리쳐분허다 [표] 느릿느릿하다 [예] 저사람 일처리 허는게 느리쳐분허기 짝이
없구먼.

늑:동 [표] 녁:동 [예] 오늘은 하룻동안 나무를 늑:동이나 헤다 낫지.

늑:섬 [표] 녁:섬 [예] 우리아버지는 벼 늑:섬 받구서 일년 머슴살이 허던 시절
두 있었어.

늑:줄 [표] 녁:줄 [예] 씨앗을 늑:줄벌루 똑고르게 심어라.

늘:뛰다 [표] 널:뛰다 [예] 저 친구는 술만 먹으면 천둥이 미친개 늘:뛰듯 허는
게 다반사여.

늪쟁이 [표] 늪은이 [표] 이 늪쟁이가 거기 가서 무슨 헐 말이 있겠슈.

~늪 [표] ~것 [표] 이늪 버덤은 저기 저늪으루 주세유.

~능겨 [표] ~는겨야 [표] 너는 배울만큼 배운늪이 왜 그런짓을 허능겨!

능구렁이 [표] 능사 [예] 저늪 뱃속은 능구렁이가 열 마리는 들어있다니께.

능쟁이 [표] 칠게 [표] 저사람 걸음걸이가 개펄 능쟁이 겨댕기듯 허는구먼.

늦댕이 [표] 늦둥이 [표] 자네 마흔 넘어서 은은 늦댕이가 벌써 장가를 간단 말여?

눔다 [표] 넣다 [표] 그 쓰레기는 재활용 봉투에눔야 현다.

니 [표] 뉘 [예] 방아를 쪼구나서 니 고르는 것두 큰 일거리라니께.

~(으)니께 [표] ~(으)니까 [예] 집이 와서 다시 따져보니께 돈을 더 받았더구먼.

니끼허다 [표] 느끼하다 [표] 닭튀김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속이 니끼허네.

니아까 [표] 리어카 [표] 이 짐을 니아까에 실어서 가져가야겠네.

니:얼 [표] 내일 [예] 너는 외상값 갚을 생각은 안허구 맨날 니:얼 니:얼 미루구
만 있구먼.

니:얼모리 [표] 내일모레 [예] 니:얼모리부터 비가 온다니께 가을걷이를 서둘
러야겠구나.

니:번 [표] 네:번 [예] 내 발표 순서가 니: 번째여.

니봉 [표] 리본 [예] 옛날 운동회때는 니봉체조가 참 볼만했지.

~닝께 [표] ~니까 [예]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 그 부탁을 도저히 못들어준다닝께.



~다구₁ [표] ~다고 [예] 너 집이 간다구 허더니 왜 안 갔어?

~다구₂ [표] ~다고 [예] 나 지금 집이루 간다구.

다:구 [표] 다:오 [예] 저 물건 좀 이리루 갖다 다:구.

다구지다 [표] 다부지다 [예] 저녀석 몸이 저렇게 약해봐두 일을 헐 때는 아주 다구지다니께.

다구치다 [표] 다그치다 [예] 일을 너무 급하게 다구치면 꼭 문제가 생기더구먼.

~다닝께 [표] ~다니까 [예] 니가 내 말을 듣는다닝께 참말루 마음이 놓이는구먼.

다딤이 [표] 다듬잇돌 [예] 우리집 마루에 옛날 할머니가 쓰시던 다딤이가 그대로 놓여 있어.

다딤질 [표] 다음이질 [예] 어릴적이 할머니와 엄마가 마주앉아서 두드려대는 다딤질 소리는 자장이 같었지.

다람치 [표] 다래끼 [예] 뒷산이서 잘 익은 상수리를 다람치다가 주워담을 때는 기분이 흐뭇했어.

다름웁다 [표] 다름없다 [예] 나한테 그는 참말루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여.

달치근허다 [표] 달착지근하다 [예] 오늘 만든 감주가 아주 달치근허구 맛있네.

다랭이논 [표] 다랑이논 [예] 요즘은 그림처럼 이쁜 다랭이논을 보기가 힘들어.

다:면 [표] 다:만 [예] 오늘 회의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 다만 회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

다시웁다 [표] 다시없다 [예] 아랫집 김씨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다시웁을 거여.

다:허다 [표] 다:하다 [예] 오늘 우리팀이 지기는 했어두 끝까지 최선을 다 한

정기였어.

단도리₁ [표] 단속 [예] 밖으루 나갈 때는 집 단도리를 단단히 허구 나가거라.

단도리₂ [표] 채비 [예] 날씨가 몹시 추우니께 옷 단도리를 잘허구 나가거라.

단임 [표] 담임 [예] 우리들은 지금두 스승의 날이 되면 옛날 단임선생님을 찾아간다네.

달기장 [표] 닭장 [예] 날이 어둡기 전이 달기장으루 가서 알을 끄내 오너라.

달기똥 [표] 닭똥 [예] 애기가 엄마를 찾으면서 달기똥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구 있네.

달근거리다 [표] 답작거리다 [예] 니가 엄마한테 달근거리는 걸 보니께 뭐가 아쉬운 게 있는 거지?

달달하다 [표] 달다 [예] 아이들은 달달한 과자를 좋아해서 충치가 많이 생기지.

달러붙다 [표] 달라붙다 [예] 애기가 퇴근 한 엄마품으루 바짝 달려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르네.

달르다 [표] 다르다 [예] 우리 속담이는 아 달르고 어 달르다는 말이 있어.

달코롬하다 [표] 달콤하다 [예] 사기꾼 말은 항상 듣기 좋구 달코롬 허지.

달버지다 [표] 달라지다 [예] 저사람 옛날이는 천방지축이더니 요즘은 판사람처럼 달버졌어.

달팽이 [표] 달팽이 [예] 저사람 걸음걸이가 오쩌면 저렇게 달팽이처럼 느린지 몰르겠구먼.

담다 [표] 담그다 [예] 오늘 엄마가 다가오는 추석때 먹을라구 막걸리를 담겼어.

담박이 [표] 단박에 [예] 내 고향친구를 뗏십 년 만이 만났는디두 담박이 알아봤어.

담박질 [표] 달음박질 [예] 재는 어릴적이 담박질을 잘해서 학교 대표루 나가기 두 했어.

담빠락 [표] 담벼락 [예] 우리집 담빠락이다가 오면 늪덜이 낙서를 잔뜩 해놔네.

담:이 [표] 다음에 [예] 오늘은 늦었으니께 그 일은 담이 험세.

담푸추럭 [표] 덤프트럭 [예] 담푸추럭이 한번 지나갈 때마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울리네.

당까 [표] 담가 [예] 오늘 핵교서 소방훈련을 했ندی 내가 당까에 실려 나가는 역할을 했어.

당그다₁ [표] 담그다 [예] 빨래는 비눗물이다가 한참 당졌다가 빨어야 때가 잘 빠져.

당그다₂ [표] 버무리다 [예] 오늘 엄마가 나박김치를 당졌ندی 아주 맛이 좋아.

당근질 [표] 단근질 [예] 쇠는 숯불이다가 당근질을 많이 혈수록 단단해진다네.

당체 [표] 당최 [예] 저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서 당체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께.

대가리 [표] 머리 [예] 대가리는 동물의 머리를 말하는 거니께, 사람한테 쓰면 욕이나 마찬가지로여.

대공 [표] 대 [예] 저 꽃대공이 참 굵기도 허구먼.

대뜨름 [표] 대뜸 [예] 재는 내말을 듣자마자 대뜨름 승질부터 부리네.

대리다₁ [표] 다리다 [예] 엄마가 내 바지를 잘 대려서 주름이 아주 칼날처럼 잼혔어.

대리다₂ [표] 달이다 [예] 어제 엄마가 간장을 대렸ندی, 오늘까지두 집안 가득 냄새가 배어있네.

대리미 [표] 다리미 [예] 우리동네 세탁소 아저씨는 한여름이두 대리미질을 허 느라구 얼굴이 땀범벅이여.

~**대루** [표] ~대로 [예] 너는 그 일을 내가 시키는대루만 허면 탈이 읍어.

대목쟁이 [표] 대목수 [예] 우리동네 제일 멋진 기와집 주인은, 옛날이 소문 난 대목쟁이였어.

대바구리 [표] 대바구니 [예] 우리 할머니가 쓰던 대바구리는 엄마가 말린꽃을 담아서 거실에 놔뒀어.

대:번이 [표] 단번에 [예] 경찰 아저씨는 범인을 보자마자 대:번이 제압허구 수 갑을 채웠어.

~**대유** [표] ~대요 [예] 오빠가 이번 시험을 잘 봤대유.

~**대유?** [표] ~대요? [예] 저 사람 허는 말이 맞대유?

대중웁다 [표] 대중없다 [예] 저사람 대중웁이 일허는 거 같어두, 끝나구 보면



아귀가 맞어.

대:창말래 [표] 대:청마루 [예] 우리동네 기와집 대:창 말래는 노인들이 자주 놀리가는 장소여.

댕겨오다 [표] 다녀오다 [예] 애야, 여름 해가 짧으니께 서둘러서 장이 댕겨와라.

댕기다 [표] 다니다 [예] 맨날 공부는 안허구 그렇게 씩댕기다가 대학은 가졌느냐?

댕이다 [표] 다니다 [예] 요즘 코로나 때미 핵교 댕이는데 힘들지 않느냐?

때마두 [표] 때마다 [예] 우리 엄마는 친정동네 으른들을 만날 때마두 친정집 안부를 묻곤 허지.

댕기다₁ [표] 당기다 [예] 우리들이 밧줄을 힘껏 댕겼더니 물쿵댕이 속으루 빠진 차가 끌려나왔어.

댕기다₂ [표] 돋우어지다 [예] 요즘은 입맛이 댕겨서 밥을 잘 먹었더니 살만 잔뜩 찼어.

댕일 [표] 당일 [예] 이번 일은 댕일루 처리헐 수 있을 거 같구면유.

댕일치기 [표] 당일치기 [예]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서 홍성서 서울까지 댕일치기루 갖다 오는 세상여.

~더니먼 [표] ~더니만 [예]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댕기더니 집사가 되었다구 좋아하시네.

~더라면 [표] ~더라면 [예] 저친구가 핵교만 제대루 댕겼더라면 큰 일꾼이 되었을 텐디 아깝구면.

~더라두 [표] ~더라도 [예] 우리가 비록 돈은 읍더라두 이세상 기죽어 살지는 말자구.

~더락 [표] ~도록 [예] 너는 점더락 오디를 그렇게 쏘다니다가 오는거냐?

더웁이 [표] 더없이 [예] 아버지 회갑은 외국으루 나갔던 큰오빠가 참석해서 더웁이 즐거웠어.

더떡 [표] 덥석 [예] 아무거나 주는대루 더떡 받아먹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

더한칭 [표] 더한층 [예] 우리가 어렵게 취직을 했는디, 앞으루 더한칭 노력해

- 서 승승장구 허세.
- 더혀₁ [표] 더해 [예] 아버지 술주정이 갈수록 더혀.
- 더혀₂ [표] 더해 [예] 아직 시간이 남았는디 일을 더혀.
- 더혀₃ [표] 더해 [예] 배고플텐디 술 한 잔 더혀
- ~던디 [표] ~던데 [예]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허던디, 너는 왜 놀구만 있는 거여?
- ~덜 [표] ~들 [예] 오늘은 그만덜 허구 나머지는 내일 허세.
- 덜랭이 [표] 덜렁이 [예] 재는 덜랭이라서 눈 깜짝허면 사고를 치니께 항시 잘 살펴보게.
- 덤테기 [표] 덤터기 [예] 이 자리에 읊다구 그 사람한테 애꿎게 덤테기를 씌우면 안되지.
- 덧읏다 [표] 덧없다 [예] 나이를 많이 먹으니께 지나온 인생이 참으루 덧읏다는 생각만 드네.
- ~덩가 [표] ~든가 [예] 그 일을 허덩가 말덩가 자네 맘대루 허게.
- 덮어놓구 [표] 덮어놓고 [예] 이사람아, 덮어놓구 도장을 찍으라구 억박질르면 누가 순순허게 응허겄나?
- 데게 [표] 되게 [예] 오늘 날씨 한번 데게 덤구면.
- 데구말구 [표] 되고말고 [예] 자네 부탁인디 당연히 들어주야지, 데구말구가 오디 있다나?
- 데꾸오다 [표] 데려오다 [예] 우리 아들이 학교 끝나구 친구덜을 잔뜩 데꾸왔어.
- 데꾸댕기다 [표] 데리고다니다 [예] 우리반 엄마는 몸이 불편헌 아들을 맨날 학교까지 데꾸댕기느라구 고생이 많어.
- 데넌대루 [표] 되는데로 [예] 이눔아, 반찬투정 허지말구 데넌대루 아무거나 먹어.
- 데넵기다 [표] 되넵기다 [예] 옛날 시장은 시골의 농산물을 사서 상회루 데넵기는 장사두 많었다.
- 데다₁ [표] 되다 [예] 우리 딸이 선생님이 데었다네.
- 데다₂ [표] 되다 [예] 이제 추운 겨울이 데었구면.

- 데:다₃** [표] 되:다 [예] 이게 올마나 되는지 데뻥으루 한번 데 보게.
- 데다₄** [표] 되다 [예] 오늘 일은 너무 데서 죽는 줄 알었구먼.
- 데:다₅** [표] 되:다 [예] 반죽이 데:니께 물을 더 많이 놓거라.
- 데도록₁** [표] 되도록 [예] 반죽이 완전허게 숙성 데도록 시기를 잘 맞추야 허네.
- 데도록₂** [표] 되도록 [예] 너는 훌륭한 사람이 데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헐다.
- 데도록₃** [표] 되도록 [예] 오늘 비가 올 모양이니께 데도록 일을 빨리 서둘러 끝내세.
- 데미** [표] 더미 [예] 우리집 바깥마당 거름데미 속은 지렁이들 천국이여.
- 데배** [표] 도배 [예] 우리집은 오늘 방 데배 허느라구 정신이 얹어.
- 데버러지다** [표] 되바라지다 [예] 어린놈이 벌써버텀 저렇게 데버러져서 앞으루 뭐가 될라나 몰르졌구먼.
- 데부뚝** [표] 냇뚝 [예] 옛날 우리동네 데부뚝은 젊은 남녀들 데이트 장소였지.
- 데살긔다** [표] 데설긔다 [예] 우리 아들은 데살긔기가 다른애들 뭇뭇을 헐다니께.
- ~데야** [표] ~대 [예] 저 사람 이번이 국회의원 출마한데야.
- 데지뭇허다** [표] 되지뭇허다 [예] 으른 앞에서 담배나 꼬나물구 땡기는게 데지뭇헌 놈이구먼.
- 덴:서리** [표] 된:서리 [예] 주식이 좋다구 생각윹이 투자했다가 덴:서리 맞은 사람덜이 많어.
- 덴:장** [표] 된:장 [예] 저 식당 음식은 여주인 손맛두 좋지면 덴:장 맛이 좋은 게 비법이라.
- 데미박** [표] 뒤통박 [예] 옛날 속담이 여자팔자는 데미:박 팔자라는 말두 있어.
- 데미다** [표] 땀비다 [예] 저 찢끄만 강아지가 커다란 개한티 겁도 윹이 데미구 있네.
- 데미다** [표] 땀히다 [예] 애야, 할머니 방이 추우니께 방구들 점 데미히거라.
- 데미박** [표] 땀박 [예] 곡물상은 데미박질이 후해야 손님들이 찾아오는 거여.
- 데미그마니** [표] 덩그러지 [표] 내방은 아무것두 윹구 책상 하나만 데미그마니 놓여있어.

뎡여매다 [표] 동여매다 [예] 오늘 낫질 허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상처를 대충 뎡여매구 일했어.

뎡이 [표] 덩이 [예] 동물원 짐승들이 사육사가 던져 주는 게기 한뎡이를 정신 없이 뜯어먹구 있네.

도가지 [표] 독 [예] 우리집 쌀도가지에 쌀이 가득 들어있으니께 안먹어도 배가 불른 기분이구먼.

도구통 [표] 절구통 [예] 그사람 몸집이 너무 뚱뚱해서 도구통 같다니께.

도굿대 [표] 절굿공이 [예] 할머니는 도굿대질을 해서 보리방아 찼던 젊은 새댁 시절이 엇그제 같다구 허서.

도:도허다 [표] 도:도하다 [예] 저 아가씨는 너무 코가 세구 도:도해서 좋아히는 친구가 읍어.

도독눔 [표] 도둑눔 [예] 엇그제 우리 가게에 도독눔이 들어왔었어.

도때기시장 [표] 도떼기시장 [예] 애들아, 왜 이렇게 교실이 도때기시장처럼 난장판이냐?

도라무통 [표] 드럼통 [예] 도라무통을 짤러서 화덕으루 쓰니께 아주 안성맞춤이구먼.

도랭이 [표] 도롱이 [예] 옛날이는 우비 대신 도랭이를 쓰고 다닌 적두 있었지.

도루 [표] 다시 [예] 너 아까 갖고왔던 물건을 도루 그 자리에 잘 갖다 놓거라.

도리깨 [표] 도리캐 [예] 콩 타작은 도리깨루 뿌디리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어.

도마도 [표] 토마토 [예] 요즘은 도마도가 약으루 쓰인다고 인기가 아주 좋더구먼.

도:송허다 [표] 닦다 [예] 저 애는 아버지허구 도:송해서 부자간이 쌍뎡이라구 해두 되겠네.

도실르다 [해] 다듬다 [해] 오늘 이발소에 들러서 머리를 도실르구 올테니께 그렇게 알아.

도야지 [표] 돼지 [예] 옛날 시골 잔칫집은 도야지 잡는 것이 큰 구경거리였지.

도:치 [표] 도:끼 [예] 나는 아침마두 도:치질을 해서 장작을 빼게는게 중요한 일과여.



도투리 [표] 도토리 [예] 가을에는 뽕나무니헤두 도투리묵으루 간식을 헤먹는 맛이 최고지.

독: [표] 돌: [예] 우리 산밭은 독:이 많어서 쟁기질을 못허구 일일이 사람 손으로 땅을 팠어.

독:뎡이 [표] 돌덩이 [예] 저 친구는 운동으루 다져진 팔 근육이 독:뎡이 같다니께.

독:절구 [표] 돌절구 [예] 우리집은 증조할머니 때버텨 쓰던 독절구가 보물처럼 전해온다네.

돌구다 [표] 돌우다 [예] 옛날이는 술을 마시면서 젓가락장단으루 흥을 돌구기두 했어.

돌너물 [표] 돌나물 [예] 한창 봄이 무르익을 무렵은 돌너물 김치가 입맛을 돋구지.

돌베기 [표] 돌보기 [예] 나두 나이를 먹으니께 돌베기가 읊으면 글씨를 못읽겼구먼.

돌량 [표] 돌림병 [예] 우리 형제들은 어릴적이 돌량으루 일찍 세상을 떠나구 나만 혼자 남았어.

돌:막 [표] 돌(石) [예] 우리동네는 유난히게 돌:막이 많아서 마을 이름두 돌팡 피라구 불러.

돌:무데기 [표] 돌:무더기 [예] 성황당 고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갖다놓은 돌:무데기가 무덤처럼 쌓여있어.

돌버개 [표] 돌베개 [예] 한여름이 돌버개를 잘못 비고 자면 입이 뻐뽕어지기두 한다네.

돌어가다 [표] 돌아가다 [예] 사람이 죽어서 대자연의 품속으루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순리여.

돌어댕기다 [표] 돌아다니다 [예] 우리집 수캐는 하루정일 오디를 그렇게 돌어댕기다 돌아오는지 몰러.

돌좡이 [표] 돌잡이 [예] 우리 손주는 돌좡이 헐 때 오만원짜리 돈을 집어들

더구먼.

돌:팍 [표] 돌(石) [예] 길을 걸으면서 한 눈 팔다가는 돌:팍이 걸려 넘어지기 십상여.

동구리 [표] 반진고리 [예] 우리 할머니 동구리는 실, 바늘, 가위, 홍չ 등 벨벨 물건들이 다 들어 있어.

동상 [표] 동생 [예] 나는 내 밑으루 남동상이 시 명이나 있어.

동세 [표] 동서 [예] 저 집은 동세들찌리 정이 참 좋아.

동지슴달 [표] 동지선달 [예] 동지슴달 긴긴밤이 잠 못드는 쓸쓸한 내 팔자여.

동투 [표] 동티 [예] 우리 동네 오래된 느티나무는 가지 하나두 잘못 근대리면 동투 난다구 신처럼 받들어 모신다니께.

동투잡이 [표] 동토잡이 [예] 우리 할머니는 지금두 식구들이 아프면 무당을 데려다가 동투잡이를 헌다니께.

동아배암 [표] 도마뱀 [예] 동아배암이 침대 밑으로 들어와서 식구들이 한바탕 난리를 피웠어.

되메기장사 [변] 떠맡기다변천 [예] 옛날 농촌이서 갖구 나온 곡식을 싸게 사서 상회루 냉기는 장사를 되메기장사라구 불러.

된둥만둥 [표] 대충대충 [예] 너는 오째서 허는 일마두 된둥만둥 개같이 안나는 거냐?

뵈대 [표] 도리어 [예] 방구 편 늪이 뵈대 큰소리 치네.

두구두구 [표] 두고두고 [예] 저사람 친구한티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두구두구 욱먹구 있어.

두께비 [표] 두꺼비 [예] 내 친구가 오늘 두께비같은 손주를 봤다구 기분 좋게 술 한 잔 샀어.

두데지 [표] 두더지 [예] 요즘 두데지가 밭을 모두 파헤치는 바람이 올해 밭농사는 망쳤어.

두드레기 [표] 두드리기 [예] 요새 음식을 잘못 먹구서 온몸이 두드레기가 나구 가려워서 죽겠구먼.



두랭이 [표] 두령이 [예] 옛날 우산이 읊던 시절은 짚으루 두랭이를 땀글어서 우
비처럼 입구 땀겼어.

두루매기 [표] 두루마기 [예] 속이 검은사람일수록 비단두루매기를 입는다는 속
담이 있지.

두릅 [표] 두릅 [예] 봄철은 자연산 두릅을 살짝 데쳐서 초꼬치장이다가 찍어먹
는 맛이 최고지.

두리몽실 [표] 두루몽수리 [예] 이번 일은 두리몽실하게 은근슬쩍 그냥 지나갈
수가 읊겼넌디.

두:말얹이 [표] 두:말없이 [예] 오늘 친구가 돈을 꺾달라니 거절했더니 두:말
얹이 가버렸어.

두세두세 [표] 두런두런 [예] 그 사람들 조금 전까지두 두세두세 떠들더니 오디
루 가구 읊어졌네.

뒤란 [표] 뒤뜰 [예] 우리 고향집 뒤란은 오래된 감나무허구 배나무 한그루가
서있어.

둔: [표] 돈: [예]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디는 둔:이 최고라구 말들 허지.

둔:사다 [표] 돈:사다 [해] (물건을) 팔다. [예] 오늘 장이 가서 쌀 점 둔사갖구
오야졌구먼.

둔:줄 [표] 돈:줄 [예] 요즘은 코로나때미 둔:줄이 말려서 사는게 팍팍허구먼.

둔:푼 [표] 돈:푼 [예] 그 친구 둔:푼 깨나 있다구 어지간히 빼기구 땡기더니,
요새는 아퍼서 꼼짝두 못허구 누워만 있다는구먼.

둘러리 [표] 둘러리 [예] 우리팀은 맨날 시합이 나가봤자 다른 팀 둘러리만 스
다가 오는 꼴이구먼.

둘르다 [표] 두르다 [예] 재는 치마를 둘르구 있으니까 여자 같지만, 허는 짓은
남자나 마찬가지여.

둑병 [표] 웅덩이 [예] 저 산 아래는 자연인이 자주 내려와서 낚시허는 둑병
이 있어.

둥굴다 [표] 둥글다 [예] 보름이 가까워서 그런지 달이 제법 둥굴게 커졌구먼.

둥굴둥굴₁ [표] 둥글둥글 [예] 너는 맨날 둥굴돌굴 허멘서도 밥먹구 사는 게 참 말루 옹허구나.

둥굴둥굴₂ [표] 둥글둥글 [예] 저사람은 행동이 모난 곳이 옹구 둥굴둥굴해서 사람덜이 좋아하지.

둥구수름허다 [표] 둥구스름하다 [예] 오늘 만난 아가씨 얼굴이 둥구수름헌게 아주 달땡이처럼 이쁘더라구.

둥굴리다 [표] 굴리다 [예] 너는 물건을 함부루 둥굴리니께 쓸때는 여기저기 찾아머기구 난리잖여.

둥어리 [표] 둥지 [예] 새들두 저녁이 되니께 제 둥어리를 찾아가구 있네 그려.

똥지다 [표] 죽다(의 속된 표현) [예] 너 나한티 함부루 까불다가는 온젠가 똥지는 줄만 알어.

뒤꺄 [표] 뒤꺄 [예] 우리집 뒤꺄이는 엄마가 소중허게 간수허는 장팡이 있어.

뒤:루 [표] 뒤:로 [예] 우리학교 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루는 더 이상 입상자가 한 명두 옹었어.

뒤:루허다 [표] 뒤:로하다 [예] 우리를 태운 빠쓰는 전송 나온 친구들을 뒤:루허구 촌촌히 출발했어.

뒤배끼다 [표] 뒤바뀌다 [예] 이번 시험은 지난번 1등과 2등이 서루 뒤배졌어.

뒤송송허다 [표] 뒤송송하다 [예]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허구 하루쟁일 날씨가 뒤송송허구먼.

뒤꺄기다 [표] 뒤쫓기다 [예] 요새는 일이 뒤꺄기니께 하루가 오치게 지나가는지 몰르겠어.

똥:모냥 [표] 똥:모양 [예] 오늘 일을 갱실히 마치기는 했어두, 오쩐지 똥:모냥이 개운치 았구먼.

똥간 [표] 변소 [예] 옛 속담이는 똥간 갈 적 마음 달르구 나올 적 마음 달르다는 말이 있지.

똥구녕 [표] 똥구멍 [예] 재는 옛날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떨어지구 똥구녕으루 들어갔다더구먼.



뒷바쿠 [표] 뒷바퀴 [예] 오늘 내 차가 뒷바쿠에 못이 백혀서 빵꾸를 때우느라
구 늦게 출근했어.

드:럽다 [표] 더:럽다 [예]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드:럽구 치사헌 꼴두 볼
때가 더러 있다네.

드므딱드므딱 [표] 드문드문 [예] 요새 일이 너무 바빠서 드므딱드므딱 가뭍에
콩나듯 한번씩 집이 들어간다네.

드잡이 [표] 드잡이 [예] 술 취헌 사람덜이 드잡이허면서 었치락뒤치락 싸우구
있구먼 그려.

들다못해서 [표] 듣다못해서 [예] 엄마는 두 남매가 싸우는 소리를 들다못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

들:데다 [표] 덜:되다 [예] 저 친구 생긴 거는 멀쩡헌디, 허는 짓을 보면 뭔가
들:덴 사람 같어.

들:떼기 [표] ? [예] 너는 들:떼기마냥 하루 한날두 집이 붙어있는 날이 읍으니
한심허구먼.

들:떨어지다 [표] 덜떨어지다 [예] 아직두 허는짓 보면 한참 들:떨어진 늬이 벌
써 으른 행세는 허구싶은가 보네.

들리다₁ [표] 들르다 [예] 오늘 장이 갔다가 형님한테 들렸다가 올겨.

들리다₂ [표] 들리다 [예] 저 친구가 요새 신병 들렸다는 소문이 났어.

들리다₃ [표] 들리다 [예] 너 요즘 좋은 사람 생겼다는 말이 들리더라.

들어스다₁ [표] 들어서다 [예] 선수들이 운동장 안으루 들어스구 있네.

들어스다₂ [표] 들어서다 [예] 오늘이 입춘이니께 계절이 벌써 봄으루 들어섰구먼.

들어스다₃ [표] 들어서다 [예] 오늘 전화를 받았는디, 우리 메뉴리한테 얘기가
들어섰다는구먼.

들어스다₄ [표] 들어서다 [예] 우리동네루 어린이집이 들어스다구 허더구먼.

들:지름 [표] 들:기름 [예] 오디서 이렇게 들:지름 냄새가 고소하게 난다?

들:허다 [표] 덜:하다 [예] 어제 다친 다리가 하룻밤 자구 났더니 통증이 들:허
구 많이 좋아졌어.

- 듬:** [표] 덤: [예] 사과를 열 상자나 샀으니까 듬:으루 뗏 개만 더 주슈.
- 등어리** [표] 등 [예] 우리아버지는 젊은시절 지게질을 너무 많이 해서 등어리가 바짝 굵었어.
- 등말이빼** [표] 등뼈 [예] 돼지 등말이빼루 진뺨국을 끓이면 참으루 맛이 좋지.
- 등신** [표] 병신 [예] 너는 힘두 좋은 놈이 등신같이 매일 맞구만 땡기네?
- 등생이** [표] 등성이 [예] 우리 외갓집은 월산 등생이 너머에 있지.
- 등치** [표] 덩치 [예] 저 사람 등치가 인왕산이네.
- 등결** [표] 그루터기 [예] 옛시절 나무가 귀할 때는 나무 등결을 캐다가 땔감으루 썼지.
- 디게** [표] 되게 [예] 재 요즘 시험성적 올라갔다고 부모님이 디게 좋아하신다.
- ~디끼** [표] ~듯이 [예] 너는 공부하는 것두 놀디끼 허면 우등생이 될거여.
- 디리다₁** [표] 드리다 [예] 나는 안방이 누워계신 할아버지께 물을 떠다 디리구나왔어.
- 디리다₂** [표] 드리다 [예] 오늘 우리집 창고를 헐어내고 내 공부방을 디렸어.
- 디:밀다** [표] 들이밀다 [예] 내 친구가 방안으루 갑자기 머리를 디:밀구 뛰어 들어왔어.
- 디주** [표] 뒤주 [예] 우리집은 증조할머니때부터 쓰시던 디주에다가 지금두 쌀을 담어놓는다네.
- 딜여놓다** [표] 들여놓다 [예] 엄마는 내 방문을 열더니 슬그머니 음료수를 딜여놓구 나갔어.
- 딜여다보다** [표] 들여다보다 [예] 우리 누나 방안을 누가 배깁이서 몰래 딜여다보구 서있네.
- 딜여보내다** [표] 들여보내다 [예] 요즘 코로나 19 때미 아무나 건물 안으루 딜여보내면 안되여.
- 딜이다₁** [표] 들이다 [예] 오늘 내 방에 침대를 딜여놓았어.
- 딜이다₂** [표] 들이다 [예] 아버지가 식당을 개업허느라구 돈을 많이 딜였대.
- 딜이다₃** [표] 들이다 [예] 사람은 어릴적버텀 습관을 잘 딜이는데 대단히 중

요하지.

딜이다₄ [표] 들이다 [예] 오늘 엄마허구 손톱이다가 봉숭아 꽃물을 딜었어.

딜이다₅ [표] 들이다 [예] 우리 애기가 계기루 입맛을 딜이구버텨은 밥을 잘 먹네.

딜이대다 [표] 들이대다 [예] 괴한이 총부리를 딜이대구 돈을 뺏어가는 연속극 장면을 보닝께 식은땀이 나더구먼.

딜이마시다 [표] 들이마시다 [예] 저사람은 무슨 웬수가 져다구 술을 저렇게 병째루 딜이마신다?

딜이밀다 [표] 들이밀다 [예] 구경꾼들이 우르르 딜이밀구 들어오논디 정신을 못차리꼰더라니께.

딜이박다 [표] 들이박다 [예] 운전사가 한눈 팔구 운전허다가 차를 전봇대다 딜이박었어.

딜이붓다 [표] 들이붓다 [예] 비가 올마나 많이 오는지 아예 양동이루 딜이붓는 거 같었어.

딜이받다 [표] 들이받다 [예] 황소들이 뿔루 상대방을 거칠게 딜이받으먼서 싸우구 있구먼.

딜이쉬다 [표] 들이쉬다 [예] 화가 난 김씨는 숨을 딜이쉬구 마음을 가다듬었어.

따개꾼 [표] 소매치기 [예] 눈 깜짝할 순간인디 따개꾼이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훔쳐갔어.

따개맞다 [표] 소매치기당하다 [예] 옆집 아저씨가 어제 광천장이서 소판돈을 따개맞았다.

따깁 [표] 뚜껑 [예] 야야, 병 따깁을 열어두면 냄새가 나니께 잘 점 닫어라.

따땃허다 [표] 따뜻하다 [예] 방바닥이 따땃허니께 얼었던 몸이 스르르 녹는구먼.

따러가다 [표] 따라가다 [예] 내동생은 엄마가 홍성장이 가논디 손을 잡구 따러갔어.

따러댕기다 [표] 따라다니다 [예] 애기가 엄마를 졸졸 따러댕기먼서 업어달라구 졸르구 있네.

따러서₁ [표] 따라서 [예] 산유국 원유값이 올라갔다. 따라서 우리나라두 조만

간 지름값이 올라갈꺼.

따러서₂ [표] 따라서 [표] 강아지들이 어미를 따러서 멍멍 짖기 시작하네.

따러오다 [표] 따라오다 [예] 너는 내 뒤만 잘 따러오면 되는 거여.

따러잡다₁ [표] 따라잡다 [예] 우리나라 기술두 선진국을 바짝 따러잡어서 경쟁
혈만 혀.

따루 [표] 따로 [예] 인저버텀은 너두 언니만 따러댕기지 말구 따루 떨어져서
노는 법을 배워야 혀.

따링개 뛰다 [표] 다랑귀 뛰다 [해] 높은 곳에 매달리다 [예] 애기가 엄마 팔에 따
링개 뛰면서 칭얼거리구 있네.

따박따박 [표] 토박토박 [예] 직장생활을 허니께 매달 따박따박 월급이 나와서
종구먼.

따시다 [표] 따습다 [예] 내 손은 차거운디 자네 손은 참 따시구먼.

딱부러지다 [표] 똑떨어지다 [예] 저 친구는 승격이 딱부러지는 사람이라서 상
대허기가 참 종구먼.

딱쟁이 [표] 따지 [예] 어제 다친 상처에 딱쟁이가 생긴걸 보니께 금방 낫겼구먼.

땀다 [표] 땀다 [예] 애기가 밥 먹다 옆질른 국물 자국을 잘 점 땀어라.

판시상 [표] 판세상 [예] 모처럼 홍성읍내를 나와봤더니 판시상으루 변했구먼.

팔라 [표] 달리 [예] 요즘은 1팔라가 한국 돈으루 얼마나 된다?

팔리다₁ [표] 달리다 [예]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일을 해두 힘만 팔리구
여럽구먼.

팔리다₂ [표] 달리다 [예] 농촌은 해마두 농번기가 되면 일손이 팔려서 죽을 지
경이라니께.

팔이감나무 [표] 비단풀 [표] 땅바닥으루 누워서 퍼져나가는 비단풀을 우리동네
어른들은 팔이감나무라구 불러.

пам구녕 [표] пам구멍 [예] 몸을 자주 팍어야 пам구녕이 안맥혀서 피부가 좋아지
는 거여.

пам떼기 [표] пам띠 [예] 우리 애기 엉덩이에 пам떼기가 나서 약을 발려주야졌네.



땅개비 [표] 방아깨비 [예] 요즘은 농약 때미 그렇게 흔하던 땅개비 구경하기도 힘들어.

땅뎡이 [표] 땅덩이 [예] 우리나라는 땅뎡이가 족어두 국민들이 부지런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

땅때기 [표] 땅뽕기 [예] 옆집은 아들 공부시키느라구 손바닥만헌 땅때기까지 팔어넣겼어.

때꿀₁ [표] 짜리 [예] 우리들은 짜리 때꿀을 따서 입에 물구 오물오물 풍선 장난 두 많이 했었어.

때꿀₂ [표] 딸기 [예] 오월이 되면 우리밭 여기저기 때꿀이 붉게 익어서 간식으로 따먹곤 했지.

때꼬 [표] 거위 [예] 내 친구네는 때꼬가 개처럼 집을 지켜주구 친구처럼 지낸 구 있다.

때때루 [표] 때때로 [예] 우리 엄마아빠는 때때루 큰소리를 내면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여.

때려부시다 [표] 때려부수다 [예] 저 친구는 술주정을 하면서 아무거나 때려부시는 버릇이 있어.

~때마두 [표] ~때마다 [예] 우리동네 청년들은 무료봉사로 명절때마두 공동묘지 산소를 별초해주구 있어.

~때미 [표] ~ 때문에 [예] 어제는 옆반 애들 때미 우리반이 선생님한테 대신 혼나구 왔어.

때웁이 [표] 때없이 [예] 우리 손주는 밤낮 때웁이 울어대면서 식구들을 힘들게 하여.

때타다 [표] 때문다 [예] 흰옷은 색깔 있는 옷버덤두 때가 잘 타서 빨아 입기 바빠.

땡기다₁ [표] 당기다 [예] 이번 모임은 명절이 겹쳤으니 날짜를 땡기세.

땡기다₂ [표] 당기다 [예] 요즘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런지 입맛이 자꾸 땡기네.

땡기다₃ [표] 당기다 [예] 어부들이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팽팽하게 땡기구 있네.

- 땡뻔** [표] 땡벌 [예] 농부들이 한여름 땡뻔 아래서 힘들게 일을 허구 있네.
- 떠다박질르다** [표] 떠다박지르다 [예] 누가 내 등을 갑자기 떠다박질러서 앞으로 고꾸러지면서 얼굴을 다쳤다.
- 떠넝기다** [표] 떠넝기다 [예] 재는 지가 잘못허구서두 넘덜한티 죄를 떠넝기구 있네.
- 떠맥기다** [표] 떠맡기다 [예] 본의 아니게 자네한테 일을 떠맥기구 가는 내 맘이 편치 않구먼.
- 떡두꺼비** [표] 떡두꺼비 [예] 내 친구가 엇그제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은었다구 술 한 잔 샀어.
- 떨그지** [표] 떨거지 [예] 부동산 투기꾼과 그 떨그지놈들이 조용허던 우리동네를 뒤집어놔어.
- 떼꾼허다** [표] 떼꾼하다 [예] 우리 애기가 메칠 앓구 나더니 눈이 떼꾼해졌어.
- 떼:놈** [표] 되놈 [예]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구 불러. 제비꽃이 필 때 쯤 떼:놈덜이 쳐들어왔다고 붙여진 이름이라.
- 떼똑허다** [표] 되똑하다 [예] 그림 속 언덕배기 높은 쪽으루 높은 집 한 채가 떼똑허게 서있네.
- 떼밀다** [표] 떠밀다 [예] 동네사람들은 물콩덩이루 빠진 차를 힘껏 떼밀어서 밖으루 빼냈어.
- 떼약뻔** [표] 피약벌 [예] 우리가 쌀밥을 먹는 것은 한여름 떼약뻔 아래서 일헌 농부들의 수고 덕분이지.
- 떼쩍이** [표] 떼 [예] 저사람들 떼쩍이루 몰려댕기면서 억지를 쓰는 디는 당힐 수가 읍다니께.
- 땡그랑다** [표] 동그랑다 [예] 저 색시 얼굴이 보름달처럼 땡그랑구 이쁘구먼.
- 땡깡** [표] 생떼 [예] 우리 집 막내땡이 땡깡은 당힐 수가 읍어.
- 또랑** [표] 도랑 [예] 밤새 비가 오더니 맑던 또랑물이 온통 흙탕물루 변했어.
- 똑고루다** [표] 고만고만하다 [예] 이번 입학생들은 실력이 똑고루게 고만고만한 것이 특이허네.



똑뻑이 [표] 똑똑히 [예] 너는 말을 점 똑뻑이 알아듣게 해라.

똑바루 [표] 똑바로 [예] 호랭이한테 물려가두 정신만 똑바루 차리면 살어날 구녕이 있다는구나.

뜰 [표] 도랑 [예] 이번 비루 쓰레기가 밀려와서 집앞 뜰이 맥혔으니께 청소 점해야졌더라.

뜰강 [표] 도랑 [예] 뜰 참조

뜰구랑 [표] 도랑 [예] 뜰 참조

똥구덩이 [표] 똥구덩이 [예] 저 강아지가 똥구덩이에 빠졌다 왔는지 온몸이서 냄새가 코를 찔르네.

똥골똥골 [표] 둥글둥글 [예] 오늘 아침은 잎새마두 똥골똥골 맺힌 이슬이 햇빛을 받어서 반짝반짝 빛나구 있네.

똥그래미 [표] 동그라미 [예] 우리 손주 시험지마두 작대기버덤 똥그래미가 훨씬 많아서 좋구나.

똥아리 [표] 파리 [예] 뱀 한 마리가 논뚝 한가운데서 똥아리를 틀구 꼼작달짝 안허구 있네.

뚜디럭대다 [표] 두드럭대다 [예] 재는 뭐허느라구 하루정일 망치를 뚜디럭대구 앉어있다?

뚜덜기다 [표] 두드리다 [예] 오늘 하루정일 도리캐루 콩다발을 뚜덜졌더니 팔이 아프네.

뚝 [표] 둑 [예] 이번 폭우루다가 마을앞 개울 뚝이 터져서 한바탕 물난리가 났었어.

뚝생이 [표] 둑 [예] 저 아래 동네는 이번 태풍 때 뚝생이가 무너져서 큰 물이 닳쳤다는구먼.

똥땡이 [표] 똥땡이 [예] 우리 아빠는 똥땡이고 엄마는 홀쭉이라네.

뛰어나다 [표] 달아나다 [예] 우리집 소 한 마리가 뛰어나서 붙잡으려 땡기느라 구 한바탕 흥역을 치렀어.

뛰어댕기다 [표] 뛰어다니다 [예] 첫눈이 오자마자 강아지털이 눈속을 펄쩍펄쩍

뛰어댕기구 있네.

뜨끔하다 [표] 따끔하다 [예] 그 말을 듣구 걸으루는 태연했어두 비밀을 들킨 것 같어서 속으루 뜨끔 했었어.

뜨뜻하다 [표] 따뜻하다 [예] 우리동네에 여름이는 시원허구 겨울이는 뜨뜻한 샘물이 한 곳 있지.

뜨뜨미지근하다 [표] 뜨뜻미지근하다 [예] 너는 무슨 일을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처리허능겨?

뜨물 [표] 진땀물 [예] 우리 채소밭은 농약을 안했더니 뜨물이 잔뜩 끼었네.

뜰:팡 [표] 뜰 [예] 밤새 바람이 불더니 뜰:팡 주변이 떨어진 낙엽으루 정신 읊구먼.

뜯다 [표] 뺏다 [예] 감이 보기는 익은 것 같어두 아직은 뜯어서 먹을 수가 읊어.

뜸:딜이다₁ [표] 뜸:들이다 [예] 그렇게 뜸:딜이지 말구 묻는 말이 빨리 대답 점 해봐라.

뜸:딜이다₂ [표] 뜸:들이다 [예] 혼사는 그렇게 번개불이 콩 귀먹디끼 후딱 허는게 아니구 한참 뜸을 딜이야 허는 거여.

뜸:딜이다₃ [표] 뜸:들이다 [예] 밥이 지금 한참 뜸:딜이기 시작했으니께 찌꺼만 있으면 다 되여.

뜸베기 [표] 뜸부기 [예] 우리 논두렁 사이루 뜸베기 한쌍이 사이 좋게 노니는구먼.

뜸허다 [표] 뜸하다 [예] 요즘은 생쥐 풀방구리 드나들 듯 허던 옆집 총각 발길이 뜸허구먼.

뜸금웁다 [표] 뜸금없다 [예] 그녀가 뜸금웁이 내뱉은 말을 듣구 나는 한동안 어리둥절 했었어.

뜯기다₁ [표] 뜯기다 [예] 우리들은 핵교서 집으루 올때마다 두 깡패들한티 돈을 뜯기군 했어.

뜯기다₂ [표] 뜯기다 [예] 산이 올라 갔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바지가랭이가 뜯겼어.

뜯기다₃ [표] 뜯기다 [예] 지난밤 살랭이한티 물려간 닭 한 마리가 털이 뜯긴 채



죽어있었어.

떨기다 ㉠ 뜯기다 ㉡ 우리 애기가 밤새 모기한테 떨어져서 굶어대느라구 정신 없네.



ㄹ

- ~ㄹ깨미 [표] ~ㄹ까봐 [예] 형이 내가 감춰 둔 과자를 꺼내 먹을깨미 걱정했어.
- ~ㄹ라구₁ [표] ~ㄹ라고 [예] 오늘은 아침버팀 비가 올라구 하늘이 잔뜩 흐리구먼.
- ~ㄹ라구₂ [표] ~ㄹ려고 [예] 나두 한번 넘부럽지 않게 살어볼라구 죽을똥살똥
물르구 일만 했다네.
- ~라구다가 [표] ~려고 하다가 [예] 나는 공무원 시험을 볼라구다가 실력이 안
되서 포기했어.
- ~라구넌디 [표] ~려고하는데 [예] 내가 모처럼 공부 점 혈라구넌디 동생이 자
꾸만 시끄럽게 구네.
- ~라나 [표] ~려나 [예] 아버님 생신날 모처럼 차린 음식 맛이 오떨라나 물르
졌네유.
- ~라남 [표] ~려나 [예] 너 이놈 자식, 엄마 속을 또 썩일라남?
- ~라넌디 [표] ~려는데 [예] 내가 숙제 점 혈라넌디 동생이 말썽을 피우네.
- ~라네 [표] ~려네 [예] 나 지금 우리집에 갈라네.
- ~ㄹ라나? [표] ~려나 [예] 저사람 오늘 집에 갈라나?
- ~라니께 [표] ~라니까 [예] 오늘 그사람이 헛 말은 사실이 아니라니께.
- ~라능겨 [표] ~라는거야 [예] 그 사람 말은 네 맘대루 실컷 한번 해보라능겨.
- ~ㄹ쳐 [표] ~ㄹ래 [예] 나 오늘 집이 갈라구 허넌디 너두 오늘 갈쳐?
- ~ㄹ터 [표] ~ㄹ래 [해] ~ㄹ쳐 참고
- ~랑사리 [표] ~는커녕 [예] 오늘 하루쟁일 밥일랑사리 죽도 못 먹었구먼.
- ~래유 [표] ~래요 [예] 저애 말은 입만 뽕끗허면 거짓말이라유.

~루₁ [표] ~로 [예] 애야, 집이 갈때는 저쪽으루 가야 한다.

~루₂ [표] ~로 [예] 나는 오늘 감기루 병원이 땡겨왔어.

~루₃ [표] ~로 [예] 우리학교 선수들이 우리나라 야구팀 대표루 출전했어.

~루₄ [표] ~로 [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시험 전교 1등으루 붙었어.

~루₅ [표] ~로 [예] 이번 일은 오늘루 모두 끝났으니께 그렇게들 알어.

~루₆ [표] ~로 [예] 어제는 참말루 하루쟁일 후덕지근헌 날씨였어.



마구잡이 [표] 마구잡이 [예] 젊었을 때 앞날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살면 늙어서 후회한다네.

~마냥 [표] ~처럼 [예] 할머니는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어린애마냥 배꼽을 잡구 웃었어.

마늘 [표] 마늘 [예] 우리나라 마늘은 암 예방을 해주는 최고로 좋은 식품이라네.

~마두 [표] ~마다 [예] 우리집 대밭 올라리는 식전마두 참새들이 널러와서 재 잘거리면서 놀다가지.

마른버듬 [표] 마른버짐 [예] 한창 젊은 사람 얼굴이 못먹어서 그런지 마른버듬만 잔뜩 피었구먼.

마른지침 [표] 마른기침 [예] 아버지가 어제 밤샘작업을 하시더니 쿨럭쿨럭 마른지침을 많이 하시네.

마마 [표] 홍역 [예] 그사람 얼굴 흉터는 어릴 때 앓은 마마 자국이라.

마빡 [표] 이마 [예]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은 이마가 넓어서 별명이 마빡이었어.

마이나쓰 [표] 마이너스 [예] 우리부모님은 마이나쓰 통장으로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가서.

마:지못하다 [표] 마:지못하다. [예] 나는 친구가 통사정히는 바람이 마:지못해서 보증을 서줬어.

막데기 [표] 막대기 [예] 저사람은 막데기마냥 키만 질쭉하게 크구먼.

막댕이 [표] 막둥이 [예] 우리집 막댕이가 이번 행정고시를 합격했구먼유.

막무가네 [표] 막무가내 [예] 저사람은 아무리 말려두 막무가네루 제 고집만 부리는 사람여.

만만하다 [표] 만만하다 [예] 옆집 사람은 내가 만만해 보니까 특허면 시비를 걸어와.

만침 [표] 만큼 [예] 하늘은 사람덜이 노력헌 만침 복을 준다구 했어.

말괄랭이 [표] 말괄량이 [예] 우리 엄마는 처녀 때 동네서 소문난 말괄랭이였다는구먼.

~말:구 [표] ~말:고 [예] 옛날버텀 자식은 재산 물려주지 말구 공부 시키라구 했어.

말그머리 [표] 말거머리 [예] 저사람은 지가 아쉬워서 부탁히는 일은 말그머리 달리볼듯 끝까지 쫓아 땡겨.

말금저리 [표] 말그머리 참고

말:래 [표] 마:루 [예] 우리동네 기와집 말:래는 주인할머니가 깔끔해서 항상 거울처럼 반들거려.

말랭이 [표] 산마루 [예] 애야, 말랭이 피짱발이 가서 콩밥을 해먹게 풋콩 점 꺾어오너라.

말라깽이 [표] 말라깽이 [예] 나는 어린시절 너무 말려서 별명이 말라깽이였어.

말러불다 [표] 말라불다 [예] 방바닥이 떨어뜨린 국물을 그냥 놔뒀더니 바짝 말러불었네.

말르다₁ [표] 마르다 [예] 오늘 체육시간이 달리기를 했더니 목이 말르구먼.

말르다₂ [표] 마르다 [예] 우리 손자가 몸살을 호디게 앓구 나더니 몸이 바짝 말렸네.

말르다₃ [표] 마르다 [예] 요즘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너나없이 주머니가 말렸어.

말:뵈 [표] 말:법 [해] 사람은 어릴 때버텀 말:뵈를 잘 가르쳐야 반듯하게 크는 거여.

말시피다 [표] 말썽부리다 [예] 우리 손자가 미운 시살이 되더니 말시피는 일만 늘었네.

말쌩꾸레기 [표] 말쌩꾸러기 [예] 저 집은 말쌩꾸레기 큰아들 때미 항시 걱정이 태산이라.

말:쑤 [표] 말:수 [예] 요즘 젊은사람 답지 않게 자네는 말:쑤가 즘잖구 제법 이구먼.

말어먹다₁ [표] 말아먹다 [예] 저 사람은 그 많던 부모 재산을 전부 말어먹었다 구 소문이 났어.

말어먹다₂ [표] 말아먹다 [예] 찬밥은 나면 국물이다가 말어 먹어야 제격이지.

말:장냥 [표] 말:장난 [예] 요즘 애들은 말:장냥이 으른들 뺨치게 능수능란 혀.

말짱 [표] 멀쩡 [예] 오늘 시내빼쓰가 맞은편 차와 부딪혔는디 승객덜은 모두 말짱했어.

말짱₂ [표] 모두 [예] 그사람 허는 말은 말짱 그짓말 뿐이여.

말:챙견 [표] 말:참견 [예] 그 친구는 남의 말에 끼어들구 말:챙견을 자주해서 욕먹는다니께.

말:허다 [표] 말:하다 [예] 이사람아, 자네는 말:허는게 느려서 듣기 답답허구먼.

말:허자면 [표] 말:하자면 [예] 네 아들이 취직했다는 회사가, 말:허자면 무역 회사 같은 거냐?

맘:대루 [표] 맘:대로 [예] 오늘 일은 내가 참견을 안헐테니께 네 맘:대루 한번 해보거라.

맘:뽀 [표] 맘:보 [예] 사람이 넘들허구 어울려서 살어갈라면 맘:뽀를 잘 쓰야 되는 거여.

맛깔시럽다 [표] 맛깔스럽다 [예] 오늘 담근 김치는 보기만 해도 아주 맛깔시럽게 생겼구먼.

맛뵈기 [표] 맛보기 [예] 이 물건은 맛뵈기루 드리는 거니께, 맘이 들거든 이따이 하나 사가세유.

망:녕 [표] 망:령 [예] 우리 할머니가 요새 헛소리를 많이 허시는디 혹시 망:녕은 아닌지 몰르겠네.

망칙하다 [표] 망측하다 [예] 네 옷차림새가 그게 뭐냐? 엄마는 망칙해서 차마

못봐주겠네.

~만큼 [표] ~만큼 [예] 세상 이치는 노력한 만큼 댓가가 돌아오는 법여.

맞불이 [표] 맞벌이 [예] 부모님이 맞불이를 허느라구 우리들을 할머니가 키웠어.

맞스다 [표] 맞서다 [예]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탄압 속이서두 당당히 맞스면서 독립운동을 했어.

맞슨: [표] 맞선: [예] 우리 누나가 오늘 맞슨:을 보러 나갔어.

맞은짜 [표] 맞은편 [예] 오늘 아침 우리를 태운 빠쓰가 맞은짜이서 오던 트럭 허구 부딪쳤어.

맞쥬? [표] 맞지요? [예] 아저씨, 군청을 찾아가는디 저쪽으로 가는 길이 맞쥬?

맞추맞게 [표] 알맞게 [예] 지금 저녁을 먹을 참인디 마침 맞추맞게 잘 오셨네유.

매가리웁다 [표] 맥없다 [예] 저사람들 일 나가는 모습이 왜 저렇게 매가리가 웁다.

매기 [표] 밀천 [예] 나는 아버지 유산을 매기 삼어서 가게를 열었지.

매깁혀다 [표] 매끈하다 [예] 오늘 웬일루 그렇게 옷을 매깁혀게 입구 나간다?

매련 [표] 마련 [예]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두 시간이 지나구 나면 따뜻한 봄이 오기 매련이지.

매렵다 [표] 마렵다 [예] 우리 애기가 발을 동동 굴르는걸 보니께 오줌이 매려운가 보네.

매양₁ [표] 매형 [예] 우리 매양은 등치가 크고 성격두 서글서글 허구 사내다워서 좋아.

매양₂ [표] 항상 [예] 너는 허는 일마두 매양 변함웁이 돈 타령이구나.

매웁다 [표] 맵다 [예] 아이구 청양꼬추가 찢꼬만헤두 매웁기는 엄청나구먼.

매코롬혀다 [표] 매콤하다 [예] 우리집 꼬추장이 매코롬허구 맛이 좋아서 인기여.

맥물르다 [표] 맥모르다 [예] 저친구는 맨날 맥물르는 소리만 허니께 주책이라구 무시당허지.

맥웁다 [표] 맥없다 [예] 우리핵교 선수단이 야구시합 나갔다가 첫판버팀 맥웁이 지구 왔다.

맥히다 [표] 막히다 [표] 이번 추석 때는 연휴 첫날버팀 전국 고속도로가 팍

맥혔어.

맨날 [표] 매일 [예] 자네 맨날 먹구 놀면서 처자식을 위치게 맥여 살리나?

맨몸뎡이 [표] 맨몸뚱이 [예] 처음 맨몸뎡이루 시작한 사업을 이만큼 일궜으니 참말루 대견허구먼.

맨이루 [표] 맨으로 [예] 그렇게 힘든 일을 품삯두 안주구 맨이루 해달라면 되겠는가?

맨질맨질허다 [표] 만질만질하다 [예] 오늘 날씨두 춥구 빙판길이 맨질맨질허니 께 조심해서 가게.

멤 : [표] 마음 [예] 사람 멤이 그렇게 팔죽 끓듯이 빈덕스러우면 안되는 뱌여.

멤:껏 [표] 마음껏 [예] 그 일은 니가 눈치보지말구 멤:껏 한번 해보거라.

멤:씨 [표] 마음씨 [예] 그 아가씨 멤씨가 비단결 같어서 좋은 신랑 만나서 복받을 겨.

맹쟁이 [표] 맹꽁이 [예] 이번 비루 논마두 물이 출렁거리구 맹쟁이는 좋아서 맹쟁맹쟁 우는구먼.

맹글다 [표] 만들다 [표] 옛날 생각이 나서 아들녀석 허구 팽이를 하나 맹글어 봤어.

맹인 [표] 망인(亡人) [예] 오늘 돌아가신 맹인이 올해 뭇 살이신가?

맹기다 [표] 맡기다 [예] 저사람 한티 일을 맹기면 영락웁으니께 아무 염려마세유.

머 [표] 뭐 [예] 너, 지금 나더러 머라구 했지?

머더러 [표] 뭇허러 [예] 아이구, 이렇게 귀한 음식을 집어서 잡수시지 머더러 갖구 오셨대유?

머라구 [표] 뭐라구 [예] 재가 지금 머라구 떠드느디 한 마디두 못알어듣겠구먼.

머리끄댕이 [표] 머리끄덩이 [예] 그 여자한티 잘못 걸리면 머리끄댕이 쥘허구 망신 당허니께 조심혀.

머물르다 [표] 머무르다 [예] 서울서 오신 손님들이 3일 동안 머물르다가 오늘 떠나셨어.

머심 [표] 머슴 [예] 우리집은 옛날이 머심을 여러명씩 두구 농사짓는 부자였다.

머심살이 [표] 머슴살이 [예] 우리동네 박씨 아저씨는 머심살이 허던 찐집 딸허구 결혼했다.

먹 [표] 멍 [예] 어제 넘어지면서 부딪친 정갱이가 옥싯옥싯 아프구 먹이 들었어.

먹구 [표] 먹고 [예] 내일은 아침을 얼른 먹구 영구네루 품 팔러 가야해.

먹지다 [표] 멎다 [예] 옆집 아주머니가 교통사고루 온 몸이 시커멓게 먹지구 통통 부었네.

~먼 [표] ~면 [예] 배가 몹시 고프를 때면 눈앞이서 먹는 것만 아른아른 맴돌어.

먼처 [표] 먼저 [예] 오늘아침은 막내가 제일 먼처 일어났구나.

멀:궂다 [표] 말:궂다 [예] 모처럼 끓인 계기국이 멀국만 멀:궂구 먹을게 읍구먼.

멀국 [표] 국물 [예] 애야, 부엌이 가서 솔 안이 가득헌 멀국 점 퍼와라.

멀킹 [표] 물킹 [예] 야채는 살짝만 삶으야지 너무 익으면 멀킹거려서 맛이 없어.

멀덕국 [표] 국물 [해] 고기 한 점두 읍는 멀덕국으로 물배만 채웠네.

멧대감지 [표] 멧대加里 [예] 우리 남편은 참말루 데이트두 헐줄 몰르구 멧대감이 읍었다니께.

멍감 [표] 청미래덩굴 [예] 요즘 멍감 뿌리가 약이 된다구 모두 캐가는 바람이 씨가 말렸다니께.

멍덕 [표] 누명 [예] 요즘 죄두 읍이 멍덕 쓰구 징역살다가 무죄루 풀려난 사람들 이 가끔 있더라.

멍애 [표] 멍애 [예] 우리 엄마는 종가집 큰메누리라는 멍애를 쓰구 평생동안 조상님 지사 모시느라구 힘드셨다.

멍위 [표] 머위 [예] 봄이 한창일 무렵 멍위나물루 반찬을 헤먹으면 입맛을 돋워주지.

멍:허다 [표] 멍:하다 [예]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구 나서 멍:허게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

멍챙이 [표] 멍챙이 [예] 나는 그녀가 이사 간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텅 비구 멍챙이가 된 느낌이었어.

멧물르다 [표] 멧모르다 [예] 강아지 한 마리가 멧물르구 수돗한티 뎀비다가 된

통 혼이 났어.

메가지 [표] 모가지 [예] 그놈 안오겠다구 고집부리면 메가지라두 잡구서 끌구와라.

메기다 [표] 매기다 [예] 오늘 중으루 시험지 채점과 점수 메기는 일을 끝내주세유.

메꼴지다 [표] 메어꼴다 [예] 덩치 큰 씨름선수가 상대편을 번쩍 들어서 메꼴지구 있네.

메꾸다 [표] 메우다 [예] 이번 달은 살림이 적자가 나서 마이나쓰 통장으로 메꿔어.

메꾸리 [표] 먹둥구미 [예] 오늘 캔 고구마를 메꾸리에 담어서 차있는디까지 옮기거라.

메누리 [표] 며느리 [해] 우리집 메누리는 손이 커서 살림이 험프기만 허여.

메누리밀짚개 [표] 며느리밀씻개 [예] 줄기와 이파리에 까시가 달려서 꺾끄러운 념쿨을 왜 메누리밀짚개라구 이름 붙였을라나?

메다₁ [표] 모이다 [예] 저사람은 돈을 많이 메는 것만 알지 쓸 줄은 몰러.

메다₂ [표] 모이다 [예] 사람들이 많이 메야 공연을 시작한다구 한참 기다리라네.

메다₃ [표] 메우다 [예] 오늘은 굴뚝 옆으루 난 쥐구멍 점 메워야졌구나.

메떼기치기 [표] 자치기 [예] 옛시절 개구쟁이들한테는 메떼기치기가 아주 좋은 놀이였어.

메쌀 [표] 뽕쌀 [예] 올 추석은 엄마허구 나허구 메쌀가루를 반죽해서 송편을 맛있게 맹글었어.

메:지다 [표] 메어지다 [예] 비가 오더니 수채 구멍이 메:져서 물이 안빠져나가네.

메칠 [표] 며칠 [예] 야야, 모처럼 친정이 왔넌디 메칠만 더 폭쉬었다 가거라.

메텡이 [표] 메 [예] 옛날 집터는 메텡이루 무른 땅을 탕탕 두드려서 단단허게 다졌어.

멕이 [표] 먹이 [예] 요새는 대낮이두 고라니가 멕이를 찾아서 동네루 자주 내려와.



멕이다 [표] 먹이다 [예] 애기가 배고퍼서 자꾸 우는 거 같은디 뭐 점 멕이는게 좋겠다.

멕히다 [표] 먹히다 [예] 메칠 앓구 일어났더니 입맛이 떨어져서 밥이 멕히지 않네.

멘도 [표] 면도 [예] 오늘 아침이 멘도를 허다가 얼굴을 살짝 긁혀서 쓰리구 아프네.

멜구 [표] 멸구 [예] 올해 배농사는 장마가 질더니 벼멜구가 극성을 떨어서 숭년이라.

멜치 [표] 멸치 [예] 잔치국수는 굵은 멜치루 국물을 내야 선현 맛이 난다네.

멧돌 [표] 멧돌 [예] 요새 믹서기루 가는 콩국수는 옛날 멧돌루 갈던 맛허구는 비교가 안되여.

멧뿌리 [표] 멧부리 [예] 우리집 뒷산 멧뿌리루 올라가면 멀리 서해 천수만이 아득하게 보이지.

멧의 [해] 명의 [예] 우리 할아버지는 한의원을 허면서 시골동네 멧의루 이름 낳았어.

멧함 [해] 명함 [예] 요즘 사람들은 인사를 허면서 멧함을 주구받는 것이 흔한 풍경이여.

멧개 [표] 멧개 [예] 감이 많이 열렸었는데 태풍으루 모두 떨어지구 멧개 안남었네.

멧또금 [표] 얼마 [예] 저사람 이사와서 춤이는 옆집허구 친허더니 멧또금 못가서 틀어졌다.

멧해 [표] 멧해 [예] 자네 유학 갔다더니 멧 해 만이 귀국헌겨?

며:지다₁ [표] 미어지다 [예] 오늘 우리 논 탈곡을 했더니 자루마두 베가 며:지게 담겨있어.

며:지다₂ [표] 미어지다 [예] 엄마는 애기가 손가락만 다쳐두 가슴이 며:지는 것 같다.

며:터지다 [표] 미어터지다 [예] 아버지는 방앗간이 가서 뽕겨를 자루가 며:터지게 담어오셨어.

먹감다 [표] 목욕하다 [예] 어린시절 냇물에서 물장구 치구 먹감던 추억이 새롭구먼.

먹국 [표] 미역국 [예] 오늘은 엄마가 내 생일이라구 먹국을 끓여주셨어.

모냥 [표] 모양 [예] 옆집 처녀는 스머슴처럼 허구맹기더니 모냥을 내니께 이쁘구먼.

모냥내다 [표] 모양내다 [예] 너는 멋지게 모냥내구 위디를 그렇게 급허게 가능겨?

모냥새 [표] 모양새 [예] 맡은 일을 그렇게 대충대충 허면 모냥새가 빠지는 뱀어.

모:다 [표] 모:터 [예] 우리동네 방죽이서 으른들이 모:다루 물을 퍼내구 물계기를 잡었어.

모대다 [표] 모오다 [예] 저축은 한푼두푼 모대서 뭇돈을 맏그는 재미가 있어.

모데미 [표] 무더기 [예] 오늘 캔 고구마를 모데미루 놔야 앵길 때 일이 쉬워진다.

모데미밥 [표] 무더기밥 [예] 옛날이는 들판이서 모데미밥을 가운데 놓구 둘러앉어서 맛있게 먹었어.

모리 [표] 모레 [예] 오늘 낼까지는 날씨가 맑구 모리버텨는 비가 온다.

모랭이 [표] 모통이 [예] 우리동네루 들어오는 산모랭이는 옛날 성황당이 있던 자리라.

모새 [표] 모래 [예] 우리동네 개울가 금빛모새는 고향사람들한테 아련한 추억으루 남아있어.

모시 [표] 모이 [예] 애야, 아침마두 잊지말구 닭 모시 좀 챙겨 주거라.

모:이 [표] 묘(墓) [예] 지난 한식 때 조상님 모:이에 심은 잔디가 잘 살구 있는지 궁금허네.

모이뻘데기 [표] 묘언덕 [예] 우리동네 뒷산 모이뻘데기는 동네 개구쟁이들 놀이터였지.

모지락시럽다 [표] 모지락스럽다 [예] 저집 안식구는 인정머리가 얹구 모지락시럽다구 소문났어.

모태다 [표] 모오다 [예] 요새는 돈을 모태서 집을 산다는게 참말루 힘든 일어.

모탱이 [표] 모통이 [예] 저 산 모탱이를 돌아가면 점쟁이루 용허다는 무당집



이 있어.

목간 [표] 목욕 [예] 오늘 하루쟁일 땀흘렸더니 목이 끈적거리서 목간 점 허구
오야졌네.

목갈리다 [표] 목메다 [표] 고구마를 급하게 먹었더니 목갈려서 숨쉬기가 어
려우네.

목구녕 [표] 목구멍 [표] 옛말이 목구녕이 포도청이라는 말두 있어.

목마치다 [표] 목마르다 [표] 어제 저녁밥을 짜게 먹었더니 밤새 목마쳐서 잠두
제대루 못 잤네.

목말르다₁ [표] 목마르다 [예] 군인덜이 피약뿔 아래서 훈련을 받느라구 목이말
르졌구나.

목말르다₂ [표] 목마르다 [예] 일찍 긴급헌 우리과장은 지금두 승진때미 목이
말른 사람여.

몬지 [표] 먼지 [예] 오랜 가뭄으루 사람만 지나가두 몬지가 날릴 지경이네.

몬지투생이 [표] 먼지투성이 [예] 집안을 오래 비워뒀더니 구석구석 몬지투생이네.

몰려댕기다 [표] 몰려다니다 [예] 재들 맨날 저렇게 몰려댕기다가는 무슨 일을
저질을깨미 걱정이네.

몰치다 [표] 몰리다 [예] 여름휴가를 댕겨와서 밀린 일을 한꺼번이 몰쳐서 헐라
니께 힘들구먼.

몸닿다 [표] 애닿다 [예] 어제버텨 송아지를 따루 떼냈더니 에미품이 그리워서
몸닿구 있네.

몸뎡이 [표] 몸뚱이 [예] 가진거 읍 는 사람덜은 건강한 몸뎡이 하나가 큰 재
산인겨.

몽달구신 [표] 몽달귀신 [예] 이세상 제일 가여운 거는 장가 못가구 죽은 몽달
구신이라.

몽댕이 [표] 몽둥이 [예] 이눔덜, 자꾸만 말썽을 피우면 이 할애비가 몽댕이 찼
질 헐겨여.

몸살허다₁ [표] 몸살하다 [예] 우리 아들 주말부부여서 손자를 데려왔더니 부모

가 그리워서 몸쌀허네.

몸쌀허다₂ [표] 몸살하다 [예] 지난 봄 앵겨 심은 소나무가 뿌리를 못잡어서 몸쌀허네.

몸지 [표] 먼지 [예] 먼지 참고

못꼬쟁이 [표] 못 [예] 지동 못꼬쟁이를 못 보구 지나가다가 옷소매가 걸려서 찢어졌어.

몽덕쓰다 [표] 누명쓰다 [예] 저 사람 억울하게 절도범으루 몽덕쓰구 징역을 살았다.

무감자 [표] 고구마 [예] 가난허던 시절이는 무감자두 겨울 양식이었지.

무데기 [표] 무더기 [예] 짐장무를 뽑어서 무데기루 싸놔더니 생각버텨 많어 뵈네.

무수 [표] 무: [예] 밥맛이 읍을 때 무수밥을 지어서 간장으루 비벼 먹으면 입맛이 절루 살아나지.

무식날 [표] 평일 [예] 오늘은 무식날이라 장날만침 살만한 물건이 읍을겨.

무잘르다 [표] 모자라다 [예] 오늘 갖구 나온 돈이 무잘러서 내일 다시 사러 오야졌네.

무지게 많다 [표] 무척 많다 [예] 요즘은 야생동물이 무지게 많어서 함부루 산속이 들어가면 안되여.

무지렝이 [표] 무지렁이 [예] 그사람 어릴적이는 무지렝이라구 놀림받았ندي, 지금은 용이 뵈어.

무질근허다 [예] 은근하다 [예] 어제밤 버텨 배가 무질근허게 아팠ندي, 왜 그런지 병원 점 가보야졌네.

무르춤하다 [표] 주춤하다 [예] 산속이서 나랑 마주친 노루가 잠깐 무르춤허더니 쏜살같이 사라졌어.

무르팍 [표] 무릎 [예] 내동상은 어릴 때 너무 짓궂어서 무르팍 성혈 날이 읍었어.

무해무덕 [표] 무해무덕 [예] 저 공사가 우리한테는 무해무덕허니께 너무 반대힐 것두 읍어.

묵근허다 [표] 묵직하다 [예] 돼지가 보매 보기는 별 거 아니더니, 저울루 달어



보니께 꽤 묵근허네.

문꼬리 [표] 문고리 [예] 요즘은 문꼬리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권력으루 상징되
는 단어여.

문댕이 [표] 문둥이 [예] 어릴적이는 문댕이라는 말만 들으면 겁이 나서 배같이
두 못나갔어.

문제없다 [표] 문제없다 [예] 이번 사업을 성사시키는 거는 문제 없으니께 걱
정 말게.

문주방 [표] 문지방 [예] 옛날 집털은 부엌이건 방이건 문주방이 높어서 넘나들
기 힘들었지.

물거름 [표] 물거품 [예] 올해는 풍년농사가 될 줄 알었넌디, 가을 태풍으루 물
거름이 되었네.

물것 [표] 무는 해충 [예] 나는 녀들버덤 물것들을 잘 타서 여름이 오는게 겁 나.

물게기 [표] 물고기 [예] 우리 고향 냇물이는 붕어와 송사리 등 물게기가 참말
루 많이 살었어.

물구녕 [표] 물구멍 [예] 비가 오더니 파이프 물구녕이 맥혀서 뚫어야졌구먼.

물구신 [표] 물귀신 [예] 저놈은 지가 잘못허구서두 꼭 녀를 끌구 들어가는 게
영락없는 물구신이라니께.

물꼬쌔: [표] 물꼬싸움 [예] 옛부터 가물 때 물꼬쌔:은 사둔찌리두 현다구 했어.

물꾸댕이 [표] 물구덩이 [예] 오늘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 여기저기 물꾸댕이가
생겼으니께 운전 조심혀.

물논 [표] 무논 [예] 우리 동네는 저수지 물이 풍부해서 천수답이 없는 물논이여.

딜이다 [표] 물들이다 [예] 예나 지금이나 여자애들은 손톱이다가 봉숭아 물딜
이는 걸 좋아허여.

물:러 [표] 물:라 [예] 열길 물속은 알어두 한 길 사람 속은 물:른다구 했어.

물:러주다 [표] 물:라주다 [예] 자네는 오쎄서 그렇게두 내 맘을 물:러주나?

물랭이₁ [표] 물렁이 [예] 저친구 보매는 물랭이 같어두 대가 센 사람이여.

물랭이₂ [표] 흥시 [예] 감나무에 열린 감을 미리 따냈더니 먹음직스런 물랭이

가 되었네.

물:류: [표] 몰라요 [예] 아저씨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물:류:.

물:르다 [표] 모르다 [예] 그건 나두 물르는 일이라네.

물르다 [표] 무르다 [예] 김치를 잘못 보관했더니 벌써 물러버렸네.

물맥이 [표] 물막이 [예] 올해 물맥이 공사를 튼튼하게 잘해야 가뭄이 들어두
모내기를 할 수 있어.

물베락 [표] 물벼락 [예] 차가 물웅덩이를 썸 지나가는 바람이 길가던 사람덜은
물베락을 맞았어.

물사마구 [표] 물사마귀 [예] 나는 눈 주변으루 물사마구가 나서 거울을 볼 때
마두 신경이 쓰여.

물색없다 [표] 물색없다 [예] 저사람은 보매는 야무져 뵈두 허는 짓은 물색없다
구 소문났어.

물어놓다 [표] 물어넣다 [예] 오늘 물건을 팔구 계산이 안맞아서 내 돈을 물어놓
구 말었네.

물웅덩이 [표] 물웅덩이 [예] 논 주변 물웅덩이마두 올챙이덜이 오글오글 모
여있네.

물통벙이 [표] 물메기 [예] 물통벙이는 한겨울 사람들 입맛을 돋우는 일등 생
선이여.

물탱이 [표] 물고추 [예] 올해는 긴 장마루 고추가 제대루 여물지 못허구 물탱
이루 많이 떨어졌어.

물컷 [표] 물 것 [예] 한여름 물컷이 극성일 때는 복더위에두 문을 제대루 열어
놓지 못혀.

물콩덩이 [표] 물웅덩이 [예] 이동네는 지대가 얇어서 비만 오면 길바닥이 물콩
덩이가 된다.

물키다 [표] 물켜다 [예] 저녁을 짜게 먹었더니 밤새 물키느라구 잠을 설쳤어.

못그이 [표] 참게 [예] 못그이장은 바삭거리는 꽃그이장허구는 또 다른 맛이 있어.

못난이 [표] 못난이 [예] 나는 어릴 때 사람덜 앞이서 말두 제대루 못허던 못난



이였어.

못:내 [표] 못내 [예] 할머니는 고무가 시집가던 날 못:내 아쉬워히면서 눈물을 흘리셨어.

못마땅하다 [표] 못마땅하다 [예] 엄마는 아빠가 술을 마시구 들어올 때마다 못마땅해서 바가지를 긁었어.

못살다 [표] 못살다 [예] 옆집 아저씨 술주정으루 아주머니는 못산다는 말을 입이다 담구 살었어.

못생기다 [표] 못생기다 [예] 김씨네 딸은 생김새는 못생겼어두 마음씨가 착해서 메누리깁으루 탐내는 사람덜이 많다.

못쓰다 [표] 못쓰다 [예] 그사람, 자식덜이 속을 많이 썩이더니 얼굴이 못쓰게 상했더구먼.

못허다₁ [표] 못하다 [예] 저 집은 다섯 아들이 딸 하나만두 못허다구 그러더구먼.

못허다₂ [표] 못하다 [예] 남의 엠병이 내 고뿔만 못허다는 말이 있어.

못허다₃ [표] 못하다 [예] 이번 시험은 아무리 못해도 중간은 허졌지.

몽텅이 [표] 몽치 [예] 청소부 아저씨가 길이 떨어진 돈몽텅이를 좇어서 주인을 찾아줬다구 방송이 나왔어.

뭐가 [표] 무엇이 [예] 너는 내 말이 뭐가 틀렸다구 트집을 잡는 거여?

뿔루 [표] 무엇으로 [예] 오늘 신세를 크게 졌는디 뿔루 갚어야 될지 몰르겠구먼유.

미깁맞다 [표] 밍살스럽다 [예] 재는 입으루만 떠들구 실천하는게 옳어서 사람들이 미깁맞다구 상대를 안허여.

미련텅이 [표] 미련통이 [예] 나는 사람덜의 부탁을 거절 못해서 손해만 보는 미련텅이여.

미섬타다 [표] 무서움타다 [예] 내동생은 미섬을 많이 타서 밤이면 배깁이루 한 발짝두 못나가.

미섬다 [표] 무섭다 [예] 요즘은 혼저 낯선 사람을 마주치면 미서워서 걸음이 빨려져.

미수꾸리 [표] 마무리포장 [예] 택배루 보낼 물건은 미수꾸리를 단단히 해야 터지지 않는다네.

미은:장 [표] 면:장 [예] 미은:장님은 민원인의 삿대질에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어.

미은:회 [표] 면회 [예] 이번 토요일은 군대 간 아들 미은:회 가는 날여.

미응: [표] 명 [예] 부대원들은 소대장의 미응:에 따라서 순찰을 나갔지.

미응: [표] 명 [예] 그 사람은 젊을 때버텼 고롱고롱 앓더니 친구들 중이서 미응:이 켈루 길어.

미응:령 [표] 명:령 [예] 이진 내 미응:령이니께 그대루 따르기 바러네.

미쟁이 [표] 미장이 [예] 우리아버지 직업은 집 지을 때 벽을 바르는 미쟁이였어.

미저지 [표] 밀천 [예]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을 미저지 삼어서 사업을 시작했어.

미주알 [표] 창자끝(똥구멍) [예] 그 사람은 미주알고주알 남의 얘기를 참 많이 헐다니께.

민:도 [표] 면:도 [예] 메칠동안 너무 바빠서 민:도두 못했더니 얼굴이 생편 읍구먼.

민메누리 [표] 민머느리 [예] 옛날이는 민메누리루 팔려가서 고생헌 여인들이 많았다고 허더구먼.

밀대방석 [예] 밀짚방석 [예]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밀대방석 깔어놓고 옛날애기 듣던 때가 좋았어.

밀빵 [표] 멜빵 [예] 나는 어릴 때 바지에 허리띠 대신 밀빵을 달어서 입구 땡겼어.

밀어제끼다 [표] 밀어제치다 [예] 소방관 아저씨는 불난집의 방문을 밀어제끼구 안으루 들어갔어.

밀지울 [표] 밀기울 [예] 술을 빚을 때는 밀지울루 맵근 누룩이 꼭 필요한 거여.

밍기적거리다 [표] 뭉기적거리다 [예] 저사람 뭐가 못마땅 해서 일을 안허구 저렇게 밍기적거리구 있다?

밍근하다 [표] 미지근하다 [예] 오늘 끓인 국 맛은 밍근헌 게 양념 한 가지가 빠진 느낌이네.



밀구녕 [표] 밀구멍 [예] 그사람 바른소리를 헤덜 때는 내 창자 밀구녕까지 속
이 후련허더구먼.

밀똥 [표] 밀둥 [예] 그 늙은 소나무는 밀똥버텨 가지까장 아주 멋지게 모양새
가 짹혀있구먼.

밀짚개 [표] 밀씻개 [예] 줄기와 이파리에 가시가 도돌도돌 붙어있는 풀을 메누
리밀짚개라구 불러.



- 바:게미** [표] 바:구미 [예] 쌀을 잘못 간수했더니 바:게미가 났네.
- 바구리** [표] 바구니 [예] 오늘 뜯어온 쑥이 바구리를 가득 채웠네.
- 바누질** [표] 바느질 [예] 우리 어머니는 솜씨가 좋아서 평생 바누질루 자식들 공부시켰어.
- 바눌** [표] 바늘 [예] 실 가는데 바늘이 따라가는 거는 당연헌 이치라.
- 바람잡이** [표] 바람잡이 [예] 내 친구는 젊을 때 바람잡이한테 흘려서 놀음이 빠진 적이 있어.
- 바람텅이** [표] 바람둥이 [예] 저 친구 젊을 때는 바람텅이라구 소문 났었지.
- 바랑** [표] 배낭 [예] 요즘은 바랑 메구 탁발 땡기는 스님을 보기가 힘들어.
- 바래다₁** [표] 바래다 [예] 우리집 책꽂이는 빗바랜 책이 많이 꽂혀있어.
- 바래다₂** [표] 바라다 [예] 이번 취직 시험은 꼭 합격하기를 바랜다.
- 바리보다** [표] 바라보다 [예] 엄마는 군대간 아들이 생각날때면 저 멀리 언덕길
을 바리보구 서있지.
- 바루** [표] 바로 [예] 어제 허던 일을 끝내야 되니까 핵교 끝나거든 바루 와야 된다.
- 바루잡다** [표] 바로잡다 [예] 잘못된 일은 그때그때 바루잡으야 뒤탈이 죽은 거여.
- 바루손** [표] 오른손 [예] 어제 낫질을 허다가 바루손을 크게 다쳤어.
- 바뿌다** [표] 바쁘다 [예] 오늘은 벨루 현일두 읊는 것 같은디, 하루쟁일 바뿌기
만 했어.
- 바숨** [표] 바심 [예] 날 굿기전이 빨리 빨리 베바숨을 서둘러야겠다.
- 바시락** [예] 바스락 [예] 나는 신경이 예민해서 바시락 거리는 소리에두 잠이

깨곤 험다네.

바지개 [표] 발채 [예] 이사람 하품 허는 입이 덕산바지개 만큼 크구먼.

바지랑댕이 [표] 바지랑대 [예] 가을날 바지랑댕이 끝으루 고추잠자리가 얇은 모습을 모처럼 보네.

바지저구리 [표] 바지저고리 [예] 명절날 바지저구리를 입구 공원으로 나온 젊은이들 모습이 참 이쁘네.

바짓가랭이 [표] 바짓가랑이 [예] 빗속을 걸어왔더니 바짓가랭이가 흠뻑 젖었어.

바쿠 [표] 바퀴 [예] 우리 손자 자전가 앞바쿠에 바람이 빠졌구먼.

바키 [표] 바퀴 [예] 바쿠 참조

바탱이 [표] 항아리 [예] 저 사람 똥똥허기가 바탱이만 허네.

바투₁ [표] 아주 가까이 [예] 두 남녀는 눈과 코처럼 바투 앉어서 사랑을 속삭이 구 있네.

바투₂ [표] 아주 짧게 [예] 두 씨름 선수가 살바를 바투 잡은채 버텨기구 서있네.

박허다₁ [표] 박하다 [예] 그 생선 장사는 인심이 박허다구 소문이 났어.

박허다₂ [표] 박하다 [예] 이번 장사는 고생만 허구 이문이 너무 박허게 났어.

반굉일 [표] 토요일 [예] 이번 반굉일은 친구들이랑 용봉산으루 등산을 가자구 약속했어.

반댕이 [표] 빈댕이 [예] 속이 좁은 사람을 반댕이 소갈딱지라구들 흔히 말허.

반지락 [표] 바지락 [예] 반지락은 5월이 잡은 게 젤루 영글구 맛있어.

반어넝기다 [표] 받아넘기다 [예] 그 친구는 남의 농담을 반어넝기는 솜씨가 여간이 아녀.

반어덜이다 [표] 받아들이다 [예] 나는 늙은 반려건의 생명이 올마 남지 았었다는 수의사의 말을 받더덜이가 힘들었어.

발꼬락 [표] 발가락 [예] 나는 무좀이 있어서 발꼬락 양말을 신구 땀기지.

발르다 [표] 바르다 [예] 한여름 배깁으루 나갈 때는 썬크림을 잘 발르야 살이 들 탄다.

발목쟁이 [표] 발목 [예] 바지가 짧으니까 발목쟁이루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

는구먼.

발:써 [표] 발:써 [예] 그사람 발:써 집을 떠났다네.

발자옥 [표] 발자국 [예] 포수들이 멧돼지 발자옥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
있구나.

발자치 [해] 발자취 [예] 우리마을 언덕길은 바쁘게 오가던 아버지의 발자치가
서려있다네.

발질 [표] 발길 [예] 서릿바람 부는 가을이면 발질 닿는대루 건구 싫은 날이 있지.

발키다 [표] 좋아하다 [예] 재는 먹는걸 너무 발켜서 배 꺼질 날이 얹어.

밤낮얹이 [표] 밤낮없이 [예] 저사람 농사가 잘된 걸 보니까 밤낮얹이 일 현 보
람이 있구먼.

밤마두 [표] 밤마다 [예] 우리 닭장은 밤마두 살쾡이가 들어갈라구 해서 망을
단단히 쳐놔어.

밤생이 [표] 밤송이 [예] 엇그제 꺾꼬망던 밤생이가 벌써 저렇게 영글었네.

밤정가 [표] 밤샘 [예] 옛날 초상집은 이웃들이 밤정가를 허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었지.

밤그룩 [해] 밥그릇 [예] 부모유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옳은 사람버덤두 밥그
룩 싸움을 더허네.

밤풀떼기 [표] 밥풀 [예] 우리애기 얼굴이 온통 밤풀떼기 범벅이구먼.

방:구 [표] 방:귀 [예] 요즘 보리밥을 먹었더니 방:구가 자주 나온다.

방:구다 [표] 살피다 [예] 내가 방:귀 둔 산너물을 누가 먼저 뜯어가 버렸네.

방구들 [표] 구들장 [예] 애야, 한숨 점 그만 셔라. 방구들 무너질라.

방:덩이 [표] 궁둥이 [예] 저 친구는 게을러서 방:덩이가 무겁다구 소문났다니께.

방맹이 [표] 방망이 [예] 옛날이는 으른들한티 방맹이루 은어맞는 일두 흔허게
있었어.

방아깽이 [표] 방앗공이 [예] 옛날 속담이는, 외손자를 안느니 방아깽이를 안는
다는 말두 있었어.

방:장 [표] 모기장 [예] 방장을 단단히 여미지 않으면 모기 들어오능겨.



방:짜 [표] 으뜸 [예] 저친구 됴뜸이가 방:짜라구 소문난 사람이여.

방:콩 [표] 밤:콩 [예] 맛으루 치자면 방:콩이 밤:버뜸두 더 맛있어.

방패맥이 [표] 방패막이 [예] 인저버뜸 내가 당신 인생의 방패맥이가 되어줄 테
니께 나만 믿어.

발곡석 [표] 발곡식 [예] 발곡석은 논곡석버뜸두 금이 들혀여.

발뚜렁 [표] 발둑 [예] 발뚜렁이다가 심은 콩이 제법 잘 영글었네.

배깁 [표] 바깁 [예] 젊은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배깁 출입두 못허구 누워만
있으니 안됐구먼.

배고푸다 [표] 배고프다 [예] 아침을 굶었더니 즘심 때두 안됐넌디 슬슬 배고
푸구나.

배꼬 [표] 배코 [예] 재는 스님처럼 머리를 배꼬 치구 땡기네.

배꼽참이 [표] 배꼽참외 [예] 참이 중이서는 못났어두 배꼽참이가 훨씬 달구
맛있어.

배넛저구리 [표] 배넛저고리 [예] 예전이는 갓난애기 배넛저구리를 엄마가 직접
맹글어서 입혔어.

배:다₁ [표] 배우다 [예] 새로운 기술을 배야 오래오래 써먹는다네.

배:다₂ [표] 배:다 [예] 기술은 완전허게 몸이 배야 제대로 배운거여.

배:다₃ [표] 배:다 [예] 짐치냄새가 웃으루 배서 못 입겼구먼.

배:다₄ [표] 배:다 [예] 옆집 개가 새끼를 배서 힘들어 보이네.

배불떼기 [표] 배불뚝이 [예] 저사람은 배불떼기인다가 머리까지 뱃겨져서 나이
버뜸 늙어 뵈여.

배불르다 [표] 배부르다 [예] 오늘 즘심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불러서 힘들구먼.

배암 [표] 뱀 [예] 한여름 풀숲을 돌어댕길 때는 배암을 조심해야 된다.

배차 [표] 배추 [예] 올해는 배차농사를 망쳤으니 짐장 걱정이 크구먼.

배턱 [표] 나루터 [예] 저 강 언저리가 옛날 바다를 건너오던 배턱 자리여

배팅기다 [해] 배통기다 [예] 저 사람 돈 점 죄끔 벌더니 인저는 배팅기멘서 장
사허는구먼.

백무리 [표] 백설기 [예] 아기 돌잔치에 백무리가 빠지면 안되지.

백이다₂ [표] 박이다 [예] 나는 겨울만 되면 손발 얼음이 백여서 고생을 많이 한다네.

백일지침 [표] 백일기침 [예] 나는 태어나서 백일지침을 앓구 죽을 고비를 갱실히 넘겼다.

배 [표] 부아 [예] 동생이 말썽 부릴 때마두 나만 형이라구 혼나니께 배가 나서 죽겠어.

베개 [표] 베개 [예] 베개는 낮게 비구 자야 건강이 좋다구 허더구먼.

버갯머리 [표] 베갯머리 [예] 옛날버텀 버갯머리송사라는 말이 있다네.

버덤 [표] 보다 [예] 어제버덤 오늘 날씨가 더 좋구먼.

버떡 [표] 얼른 [예] 애야, 꾸물거리지 말구 버떡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해라.

버르장머리 [표] 버릇 [예] 너는 네 고집대루 행동허는 버르장머리를 고쳤으면 좋겠어.

버르쟁이 [표] 버르장이 [예] 버르장머리 참고

버릇없다 [표] 버릇없다 [예] 으른들 앞이 가서 버릇없이 행동허면 안되는 뱌여.

버리적거리다 [표] 버르적거리다 [예] 올무에 걸린 고라니가 힘이 빠져서 버리적거리구 있었어.

버버거리다 [표] 버벅거리다 [예] 저 친구 사람들 앞이서 긴장되는지 버버거리구 말을 잘 못허네.

~버텀 [표] ~부터 [예] 오늘은 너버텀 먼저 해보거라.

버팅기다 [표] 버티다 [예] 저사람 금방 쓰러질 거 같더니 끝까지 잘 버팅기구 있네.

벌거지 [표] 벌레 [예] 올해는 장마두 길은디다가 벌거지까지 기승을 부리는구먼.

벌거쟁이 [표] 벌거숭이 [예] 옛날은 벌거쟁이던 산덜이 지금은 나무가 뽕뽕허게 우거졌어.

벌레텅이 [표] 벌레통이 [예] 유기농으루 가꾼 과일이 모두 벌레텅이 뿐일세.

베 [표] 벼 [예] 올해두 베가 누렇게 익은걸 보니께 풍년농사인거 같구먼.



베기싫다 [표] 보기싫다 [예] 그사람 허는 짓이 얄미워서 말을 섞기는커녕 얼굴 두 베기싫어.

베꺼럭 [표] 벼까라기 [예] 베바심을 허구 왔더니 옷속으루 들어간 베꺼럭이 살을 파구드네.

베끌 [표] 벼그루터기 [예] 엇그제 모내기를 헨 거 같은디, 벌써 베를 비구 베끌만 남었네.

베니다판 [표] 베니어합판 [예] 닭장 문을 베니다판으루 대충 막었더니 태풍으루 떨어져 나갔네.

베다 [표] 촌충하다 [예] 나무를 베개 심었더니 키만 쟁충허게 컸네.

베락 [표] 벼락 [예] 내 말이 그짓말이면 베락을 맞는다구.

베락부자 [표] 벼락부자 [예] 그친구 고향 떠날 때는 빈몸이었는디, 뗏 년 만이 베락부자가 뒀다.

베락치기 [표] 벼락치기 [예] 이번 시험은 베락치기루 공부했더니 성적이 신통치 않구먼.

베랑₁ [표] 별로 [표] 이번 장사는 은은 것이 베랑 읊구먼.

베랑₂ [표] 벼랑 [예] 베랑이 높으니께 조심해서 올라가게.

베랑간 [표] 별안간 [예] 자네 베랑간 그제 무슨 말이라?

베루 [표] 벼루 [예] 그 박물관은 옛날 선비덜이 쓰던 베루가 많이 전시뒀어.

베룩 [표] 벼룩 [예] 베룩도 낮짜이 있다는디, 너는 잘못허구서두 뻔뻔허게 큰 소리냐?

베름빱 [표] 벽 [예] 우리집 베름빱이는 달력허구 가족사진이 붙어있어.

베리다₁ [표] 버리다 [예] 여름철이는 오래된 음식을 베리는 것두 지혜라네.

베리다₂ [표] 버리다 [예] 이번 일은 베리구 말었으니께 다음이나 잘 헤보세.

베리다₃ [표] 버리다 [예] 장날 대장간이 가서 톱날을 베려갓구 올라네.

베슬 [표] 벼슬 [예] 우리 집안은 대대루 높은 베슬을 지낸 조상이 많다네.

베쟁이 [표] 벼쟁이 [예] 저 친구는 마누라 덕으루 평생 베쟁이처럼 사는 사람이어.

베토매 [표] 벳단 [예] 의종은 형제 공원은 베토매를 짊어진 두 형제들의 동상이 서있다네.

베트름허다 [표] 뽇다 [예] 도토리 묵이 약간 베트름헌 맛이 나는구먼

벤니삭 [표] 벵이삭 [예] 삼복더위가 지나면 금방 벤니삭이 나올 시기여.

벤소 [표] 변소 [예] 옛날 벤소는 대부분 울타리 배깅으루 있었어.

벤소간 [표] 변소 [예] 벤소 참조

벨:것 [표] 벨:겇 [예] 너는 벨:겇두 아닌 일을 가지구 그렇게 난리를 치구 아단이나?

벨:꼴 [표] 벨:꼴 [예] 요새는 잘못된 늑덜이 더 큰소리를 치는 세상이니 참말루 벨:꼴을 다보겄구먼.

벨일 [표] 벨일 [예] 츠녀가 애기를 낳다니 참말루 벨일이구먼.

벨루 [표] 벨루 [예] 오늘 하루는 벨루 헌 일두 읍이 후딱 지나갔구먼.

벨르다 [표] 버르다 [예] 오늘은 벨르구 벨르던 강아지 집을 맹글어 줘서 기분이 좋구먼.

벵씨 [표] 벵씨 [예] 못자리루 쓸 벵씨를 잘 골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네.

벵가리 [표] 낱가리 [예] 옛날 추수철이는 논둑마다 낱가리가 일렬루 세워져 있었어.

벵기다₁ [표] 벳기다 [예] 애기 옷버텨 벵기구서 재우거라.

벵기다₂ [표] 벳기다 [예] 그사람 이번 재판으루 누명이 벵겨졌다네.

벵기다₃ [표] 벳기다 [예] 오늘 목욕탕이 가거들랑 네동생 때를 깨끗허게 벵겨줘라.

벵단 [표] 벳단 [예] 우리 어릴적이는 소 등에다 벵단을 얹어서 집 앞 마당까지 실어 날렸어.

벵섬 [표] 벳섬 [예] 저 집은 벵섬이나 허던 부자였는디, 자식들 가르치느라구 전부 팔어 읍었어.

벵짚 [표] 벳짚 [예] 농촌이서는 탈곡을 허구 난 벵짚을 소여물루 제일 많이 쓰지.

벨 [표] 벨 [예] 오늘은 모처럼 벨이 나니께 배깅이 점 나갔다 오야졌구먼.



- 벨들다** [표] 별들다 [예] 쥐구멍이두 벨들날이 있다니께 죄끔만 더 참구 견더보세.
~**보구** [표] ~보고 [예] 우리 부모님은 나보구 자꾸만 결혼허라구 성화를 부려서 구창어 죽졌네.
- 보거리채다** [표] 보고리채다 [예] 너 자꾸만 보거리채구 속썩이면 그냥 안들겨.
- 보넌디** [표] 보는데 [예] 오늘은 모처럼 연속극을 재미있게 보넌디 자꾸만 친구들 전화가 오네.
- 보다못해서** [표] 보다못해서 [예] 엄마는 애기가 앓는 모습을 보다 못해서 엉엉 흐느껴 울었어.
- 보리콩** [표] 완두콩 [예] 초여름이는 보리콩을 농구 지은 밥이 참으루 맛있단네.
- 보리방개** [표] 물땅땡이 [예] 저사람 보리방개처럼 물속을 잘두 헤집구 땡기는구먼.
- 보릿저** [표] 보릿겨 [예] 우리 조상님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보릿저루 죽을 끓여 먹기두 했다더먼.
- 보매** [표] 걸보기에 [예] 그사람 보매 보기는 안그런디, 왜 그렇게 멍청헌지 물르졌구먼.
- 보맥이** [표] 보막이 [예] 올 봄이 모내기를 잘 할라면 보맥이버텨م 해서 물을 많이 가뒀두야 허네.
- 보새기** [표] 보시기 [예] 애야, 보새기에다가 새우젓 점 썰끔만 담어갓구 오거라.
- 보십** [표] 보습 [예] 쟁기는 보십이 읊으면 밭을 갈 수가 읊는 거여.
- 복숭아빠** [표] 복사빠 [예] 할머니가 빙판이서 넘어지는 바람이 복숭아빠를 다 치셨어.
- 보아허니** [표] 보아하니 [예] 네 얼굴을 보아허니 오늘 무슨 잘못을 저질른 거 같구먼.
- 보재기** [표] 보자기 [예] 옛 시절이는 가방이 읊어서 보재기루 책을 싸갓구 땡겼어.
- 보텡이** [표] 보통이 [예] 그녀는 보텡이 하나만 딸랑 들구서 집을 나왔단네.
- 보:허다** [표] 보:하다 [예] 내가 몸이 약해져서 몸을 보:허구 싶은디 무슨 약이 좋을라나 물르졌네.

복걸복 [예] 복불복 [예] 이사람아, 세상만사 모든게 복걸복이니께 너무 계산허구 따지지 말게.

복달음 [표] 복달임 [예] 올여름 복더위 때는 장어탕으루 복달음 점 해볼까?

복실복실 [표] 복슬복슬 [예] 우리 강아지가 살이 찌서 복슬복슬헌게 올마나 이쁘지 몰르졌네.

복쟁이 [표] 복어 [예] 당신은 허는 일마두 실속은 읍구 복쟁이 헛배 부르듯 허는구면유.

복덩이 [표] 복덩이 [예] 우리 형님은 복덩이 메누리를 은었다구 올마나 좋아허는지 몰러.

본디웁다 [표] 본데웁다 [예] 이사람아, 그렇게 본디웁이 행동허면 자네 부모님 옥맥이는 짓일세.

볼텡이 [표] 볼통이 [예] 메칠을 굶은 사람마냥 볼텡이가 미어터지게 정신웁이 밥을 먹구 있네.

부담시럽다 [표] 부담스럽다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두 부담시럽기만 허네.

부루쌈 [표] 상추 [표] 한여름 입맛이 떨어졌을 때는 부루쌈허구 썩갓이 최고여.

부르도자 [표] 불도저 [예] 저사람은 일을 헐 때 부르도자처럼 밀어붙이는 승격이라네.

부비다 [표] 비비다 [예] 날씨가 추우니께 짐승들두 서루 붙어앉어서 몸을 부비구 있구면.

부비적거리다 [표] 비비적거리다 [예] 닭들이 모새 위를 나뉘굴멘서 온몸을 부비적거리구 있네

부슬목 [표] 부스럼 [예] 가난헌 나라 애기들이 못먹어서 온몸뎡이가 부슬목 투생이네.

부시시 [표] 부스스 [예] 네 머리가 까치집마냥 부시시허게 흐트러졌구나.

부시다₁ [표] 부수다 [예] 저사람은 술만 마시면 살림을 때려 부신다니께.

부시다₂ [표] 씻다 [예] 잔치가 끝나구 나면 음식그릇 부시는 일이 제일 힘들어.



- 부실부실** [표] 부슬부슬 [예] 오늘은 새벽버텐 가랑비가 부실부실 내리구 있구먼.
- 부애나다** [표] 부아나다 [예] 부인은 남편의 술주정때미 부애나서 죽기살기루 텨벼들었어.
- 부엌짐이** [표] 부앗짐에 [예] 내동생은 엄마한테 혼나구서 부엌짐이 강아지를 걷어차구 나갔어.
- 부엌이** [표] 부엌이 [예] 우리집 뒤꼍 소나무에 부엌이가 한 마리 들어와서 살 구 있어.
- 부주** [표] 부조 [예] 가을이 오니께 애경사가 많어져서 부주돈이 많이 나가는구먼.
- 부:지다** [표] 버:지다 [예] 너는 조심성이 얹어서 툇허면 손가락을 칼루 부:지 구 땡기는구나.
- 부지땡이** [표] 부지깽이 [예] 우리 어릴적이 말썽을 피우면 엄마가 부지땡이를 들구 쫓어댕겼지.
- 부질없다** [표] 부질없다 [예] 젊은 날 죽을똥 살똥 일헌 것두 늙구 보니께 다 부질없는 거 같어.
- 부치기다** [표] 부추기다 [예] 네 동생이 치킨 먹구 싶다구 폐를 쓰는 거는 니가 자꾸만 부치긴 탓어.
- 부칭개** [표] 부침개 [예] 비오는 날은 부칭개 안주 삼어서 막걸리 한잔 마시는 게 최고여.
- 부폐** [표] 뷔폐 [예] 요즘 예식장이 가면 부폐 음식이 유행이여.
- 부프래기** [표] 보푸라기 [예] 털옷이 오래되니께 부프래기만 많이 생기는구먼.
- 북감자** [표] 감자 [예] 그 시절은 늘 식량이 부족해서 북감자로 즈심을 때웠지.
- 분:수없다** [표] 분:수없다 [예] 너는 맘만 앞서서 분:수없이 나서니께 실수를 자주 허는 거여.
- 분질르다** [표] 부러뜨리다 [예] 저사람 굶은 작대기를 가느다란 막대기 분질르 듯 허네.
- 분:허다** [표] 분:하다 [예] 아랫집 할머니는 어릴 때 잘못두 얹이 도둑 누명쓴 걸 생각허면 지금두 분:허다.

- 불:** [표] 벌: [예] 꽃이 만발한 걸 보니께 불:들이 살판 났졌구먼.
- 불:떼** [표] 벌:떼 [예] 승: 난 사람들이 떼루 몰려댕기는 게 불:떼 같었어.
- 불구덩이** [표] 불구덩이 [예] 소방대원은 위험을 무릅쓰구 아이를 구하러 불구덩이 속으루 뛰어들었어.
- 불:기** [표] 불:기 [예] 할머니는 손녀가 이뻐서 불:기를 찰싹찰싹 토닥였어.
- 불기다** [표] 벌리다 [예] 자루 아구리를 넓게 불기야 곡식을 안 흘리구 담을 수 있어.
- 불:다₁** [표] 벌:다 [예] 이땅은 부모님이 어렵게 불:어서 장만헌 거여.
- 불:다₂** [표] 벌:다 [예]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만큼 시간을 부:는 거여.
- 불:다₃** [표] 자백하다 [예] 그 범:인이 저질른 죄를 순순히 불:기 시작했다.
- 불르다₁** [표] 부르다 [예] 할머니가 손짓하는 게 나를 불르는 것 같어.
- 불르다₂** [표] 부르다 [예] 선생님이 학생들의 출석을 불르구 있구먼.
- 불르다₃** [표] 부르다 [예] 음악시간은 노래를 맘껏 볼를 수 있어서 좋아.
- 불르다₄** [표] 부르다 [예] 시장허던 참인디 밥을 맘껏 먹었더니 배가 불르네.
- 불:리다₁** [표] 벌:이다 [예] 저 사람들은 모이기만 허면 술판을 불:리는게 일이어.
- 불:리다₂** [표] 벌:리다 [예] 저사람 입을 덕산바지게 만큼 불:리구 하품 허네.
- 불무간** [표] 대장간 [예] 요즘은 공장이서 농기구를 대량생산 허는 바람이 대대루 내려오던 불무간이 거의 다 읊어졌어.
- 불베락** [표] 불벼락 [예] 너 그렇게 놀다가는 아버지 불베락 떨어질라.
- 불불대다** [표] 벌벌대다 [예] 재 불불대는걸 보니께 뭐가 또 속상헌 일이 생긴 모양이구먼.
- 불살르다** [표] 불사르다 [예] 이곳은 내 청춘을 불살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일터여.
- 불아퀴** [표] 부라퀴 [해] 몹시 야물고 암팡스러운 사람. [예] 저 친구 젊을 때는 불아퀴처럼 일을 해대더니, 요새는 늙구 병들어서 골골거린다.
- 불:어지다₁** [표] 벌:어지다 [예] 저 아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걸보니께 무슨 일이 불어진 모양여.



- 불:어지다₂** [표] 벌:어지다 [예] 밤생이가 짝 불어진걸 보니께 가을이 깊었구먼.
- 불:어지다₃** [표] 벌:어지다 [예] 저 남자 어깨가 짝 불:어진걸 보니께 힘깨나 쓰
졌는걸.
- 불:어지다₄** [표] 벌:어지다 [예] 재들 밤낮웁이 불어댕기더니 요즘은 따루따루
댕기는걸 보니께 사이가 불어진거 같구먼.
- 불여수** [표] 불여우 [예] 그 여자는 빈덕스러워서 불여수라구 소문이 났다.
- 븜:** [표] 범(虎) [예] 하룻강아지 븜: 무서운 줄 몰른다더니, 꼭 너 같은 뇨 보
구 허는 말이구먼.
- 불어댕기다** [표] 불어다니다 [예] 이눔아, 엄마한테 자꾸만 불어댕기지 말구 그
만 나가놀거라.
- 불종하다** [표] 붙잡히다 [예] 엇그제 방송으루 나왔던 그 사건의 븜:인이 붙종
했다는구먼.
- 븜:** [표] 벳: [예] 나는 요즘 산속으루 들어와서 자연을 븜: 삼어 산다네.
- 븜:허다** [표] 벳:하다 [예] 내 친구는 정년퇴직을 허면 산속으루 들어가서 자연
과 븜:허구 산다.
- 븜떼기** [표] 부엌떼기 [예] 나는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븜떼기를 벗어나본 적
이 읍어.
- 븜:제** [표] 범:죄 [예] 우리 마을은 븜:제 없는 살기 좋은 곳이지.
- 븜:행** [표] 범:행 [예] 엇그제 뉴스에 나왔던 그 사건은 남편 븜:행이라.
- 비객** [표] 비각 [예] 우리동네 이사 온 두 집은 뭇가 틀렸는지 서루 비객 관계
라니께.
- 비뺄다** [표] 내:뺄다 [예] 한번 비뺄은 말은 다시 좇어답을 수가 없는 뺄이지.
- 비눌** [표] 비늘 [예] 어물전 신성헌 생선들이 비눌을 번뜩이구 있구먼.
- 비듬** [표] 비늘 [예] 저 친구 웃웃 뒗덜미루 하얀 비듬이 잔뜩 떨어져 있구먼.
- 비니루** [표] 비닐 [예] 올 여름 태풍으루 하우스를 덮은 비니루가 몽땅 찢겨
나갔어.
- 비:다₁** [표] 비:다 [예] 가을이 오구 찬바람이 부니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갈구먼.

비:다₂ [표] 베:다 [예] 오늘 아침 칼루 손가락을 살짝 비었는디 쓰리구 아프구먼.

비:다₃ [표] 베:다 [예] 버개는 낮게 비구 자야 건강이두 좋다구 허더구먼.

비듬너물 [표] 비름나물 [예] 비듬너물은 산너물 버듬두 영양가가 많다구 알려졌어.

비랭이 [표] 거지 [예] 비랭이찌리 자루 찢는다는 옛 속담두 있다네.

비벼대다 [표] 비비대다 [예] 어미소허구 새끼가 코뽕배기를 맞대구 사랑스럽게 비벼대구 있네.

비스무리 허다 [표] 비슷하다 [예] 우리 부부는 생각이 비스무리 해서 평생 부부 싸움을 해 본 적이 읍지.

비알 [표] 비탈 [예] 예전이는 민동산이던 산비알이 지금은 들어가기가 어렵게 소나무 숲으루 뒤덮였어.

비어먹다 [표] 베어먹다 [예] 가뭄 오이가 써서 한입 비어먹구는 내뺐졌어.

비우 [표] 비위 [예] 우리 식구는 비우가 약해서 비린내 나는 음식은 못먹어.

비웃장머리 [표] 비위 [예] 저 친구 비웃장머리가 좋아서 오지 말라구 해두 머리 딜이밀구 올 사람이여.

비은:덕 [표] 변:덕 [예] 윗집 할머니 비은:덕은 팔죽 끓듯 험다구 소문이 났어.

비은:덕스럽다 [표] 변덕스럽다 [예] 우리 과장님은 비은:덕스럽기가 속을 알 수 읍는 사람이여.

비은:소 [표] 변소 [예] 그집 비은:소는 참 깨끗허더라.

비은:전소 [표] 변:전소 [예] 우리집은 비은:전소 바로 옆이여.

비은:장 [표] 변:장 [예] 별레들은 계절따라서 비은:장을 기가막히게 잘헐다네.

비은:호사 [표] 변:호사 [예] 이번 사건을 맡어줄 비은:호사가 필요허구먼.

비을: [표] 별(星) [예] 우리가 춤 만나던 날은 비을:이 쏟아지는 밤이었어.

비을:말쌈 [표] 별:말쌈 [예] 저는 도리를 했을뿐인디, 으르신께서는 비을:말쌈을 다허십니다.

비을:사람 [표] 별:사람 [예] 이렇게 좋은 조건을 거절허다니, 참말루 비을:사



람 다 보겼구먼.

비을:일 [표] 별:일 [예] 자네 오늘 비을:일 읍으면 우리집 일 점 하루 도와주게.

비을:수 읍다 [표] 별 수 읍다 [예] 너두 그렇게 말허는 걸 보니까 비을:수 읍구먼.

비응: [표] 병(病) [예] 젊은사람이 심장비응:을 앓구 있다니까 참말루 안되었네.

비응:인년 [표] 병:인년 [예] 우리 어머니는 비응:인년 생이라네.

비응:신 [표] 병:신 [예] 제발 정신 점 차려라, 이 비응:신 같은 늙아.

비응:원 [표] 병:원 [예] 몸이 아프면 얼른 비응:원부터 가는게 상책이여.

비응:환 [표] 병:환 [예] 건너집 할아버지 창백헌 얼굴색을 보니까 비응:환이 깊은 것 같어.

비젓허다 [표] 비슷하다 [예] 우리동네 여러 집을 지었는디 서루 비젓허게 지었어.

비짜락 [표] 비 [예] 낙엽 떨어진 마당은 대나무 비짜락으 쓰는 게 그중 좋아.

비:치 [표] 비:취 [예] 결혼예물 가운데는 비치반지두 갠찮여.

빈충맞다 [표] 빙충맞다 [예] 어려서는 빈충맞다구 놀림받던 애가 온제 이렇게 든든한 장군감이 됐을까?

빈:툼읍다 [표] 빈툼:없다 [예] 우리 할머니는 새댁시절 버텨 살림 솜씨가 빈:툼 읍다구 소문났어.

빔:새 [표] 뱀:새 [예] 빔: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구 했어.

비응: [표] 병: [예] 옛부터 긴 비:응이는 효자가 읍다구 했어.

빙아리 [표] 병아리 [예] 선생님을 졸졸 따라 땡기는 유치원 애기들이 꼭 빙아리 떼 같구먼.

빚데미 [표] 빚데미 [예] 옛날 알부자라구 소문났던 그 집이, 요즘은 빚데미에 올라 앉었다구 허네.

빠꼼허다 [표] ? [예] 우리동네 이장은 집집마두 일어나는 일을 빠꼼허게 다 알구 있어.

빠꾸 [표] 후진 [예] 나는 운전을 할 때 뒤빠꾸가 제일 힘들더구먼.

빠리빠리허다 [표] 빠르고 날쌔다 [예] 이:응감, 겨울은 해가 짧으니까 빠리빠리허게 좀 움직이슈.

빠수다 [표] 뿔다 [예] 이번 추석은 송편을 사지 말고 쌀을 빠수다가 집어서 땡
글어야겠네.

빠:치다 [표] 빠뜨리다 [예] 오늘 홍성장이 가서 콩치를 샀는데, 집이 와서 보
니께 빠:치구 왔네.

뽕뽕하다 [표] 반듯하다 [예] 저 친구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뽕뽕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여.

뽕쓰 [표] 팬티 [예] 우리 할머니는 팬티를 뽕쓰라구 불러서 식구들이 깔깔 웃
을 때가 있어.

뽕짜 [표] 반짜 [예]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햇빛이 잠깐만 뽕짜 해두 반갑더구먼.

뽕:가지다 [표] 뽕:개지다 [예] 내 친구는 나이를 먹었어도 우스갯소리에 얼굴
버텨 뽕:가진다니께.

뽕개벗다 [표] 발가벗다 [예] 김홍도의 풍경화는 뽕개벗구 목욕하는 아낙네를
흠쳐보는 악동들두 나와.

뽕르다 [표] 빠르다 [예] 우리집 고물 자전거를 타는 거 버텨두 내 걸음걸이가
더 뽕르다니께.

뽕뿌리 [표] 뽕부리 [예] 아빠는 엄마가 수술실루 들어갔을 때, 배같이서 담배
뽕뿌리만 뽕뽕 뽕어대구 서있었어.

뽕구다 [표] 뽕다 [예] 오늘 방앗간으로 떡가루 점 뽕구러 가자.

뽕꾸 [표] 핑크 [예] 오늘 아빠는 차 바쿠가 뽕꾸 난 것두 물르구 운전을 했다
는구먼.

뽕데리 [표] 배터리 [예] 내 시계가 자꾸 늦는걸 보니께 뽕데리를 갈아야겠구먼.

뽕달이 [표] 서랍 [예] 엄마가 금반지를 여기저기 찾아 헤매더니, 안방 화장대
뽕달이에 잘 보관허구 있었구먼.

뽕₁ [표] 백(bag) [예] 군인들 뽕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담겨있어.

뽕₂ [표] 뽕 [예] 재는 뽕이 좋아서 시험도 안 치르고 취직했어.

~뽕이 [표] ~밖에 [예] 이세상 사람들 중이서 제일 믿을만한 사람은 너뽕이 읊
는 것 같구먼.



뽕이 [표 뽕이 [예 옛날 아이들의 놀이는 뽕이치기가 제일 신났지.

뽕때기 [표 뽕따귀 [예 술 취한 늙한티서 뽕때기를 한 대 은어 맞았더니 정신이 얼얼허구먼.

뼈개다 [표 뼈개다 [예 오늘 혈 일은 엇그제 가져온 통나무를 겨울 땀감으로 잘게 뼈개는 거라네.

뼈그리다 [표 어기다 [예 자네 말여, 내일 약속 뼈그리면 안되네.

뼈스 [표 버스 [예 뼈쓰 시간 늦지 않게 빨리빨리 서둘러야겠다.

뼈드름허다 [표 뽕하다 [예 저 녀석은 어린 것이 눈치가 올마나 뼈드름헌지 물러.

뼈팅기다 [표 버티다 [예 황소가 우리 안에서 끌려 나오지 않으려구 뒤루 뼈팅기구 있네.

뽕덕지 [표 비탈 [예 저 산 뽕덕지에 우리 조상님 산소가 있다네.

뽕데기 [표 번데기 [예 저 친구는 뽕데기 앞서서 주름잡는 소리만 허구 있네.

~뽕지다 [표 ~버리다 [예 그렇게 갖구만 있지 말구 얼른 읍에 뽕져라.

뽕 [표 갯벌 [예 서해바다 드넓은 뽕은 조개들이 지천으루 깔려있다네.

뽕거생이 [표 벌거숭이 [예 어릴적 뽕거생이루 뛰어놀던 옛 친구들이 그립구먼.

뼈: [표 뼈: [예 메칠동안 아무것두 못 먹구 앓았더니 뼈:만 앙상하게 남었네.

뼈빠지다 [표 뼈빠지다 [예 우리 아빠는 평생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자식들을 가르쳤어.

뽕히다 [표 뽕히다 [예 이 풀은 뿌리가 깊어서 잘 안 뽕히는구먼.

뽕골 [표 뽕골 [예 요즘 감기는 올마나 호된지 뽕골까지 쭉쭉 쭈신다니께.

뽕끼 [표 페인트 [예 오늘 우리집 대문을 고치면서 녹색 뽕끼를 칠했어.

뽕다구 [표 뼈다귀 [예 너 거기 가서 까불었다가는 뽕다구두 제대루 못찾어 갖구 오는줄 알거라.

뽕:새 [표 본새 [예 그사람 말 뽕:새를 보니께 가정교육을 제대루 받은 사람이더구먼.

뽕:때 [표 본:때 [예 애들이 함부루 행동허지 못허게 춤부터 뽕:때를 잘 뽕주

야 험다네.

뽕:뜨다 [표] 본:뜨다 [예] 훌륭한 예술품은 남의 것을 뽕:뜨지 말고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담겨 있어야 해.

뽕뿌 [표] 펌프 [예] 뽕뿌루 물을 퍼 올릴 때는 마중물을 한바가지 미리 뽕뿌야 험다네.

뿌러지다 [표] 부러지다 [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이 멀쩡한 이빨이 뿌러졌어.

뿌래기 [표] 뿌리 [예] 버려진 나무 뿌래기가 예술가의 손을 거치더니 멋진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어.

뿌시다 [표] 부시다 [예] 옛날부터 전해오는 멀쩡한 기와집을 뿌시다니, 참으로 생각없는 사람들이구먼.

뽕질르다 [표] 분지르다 [예] 옛날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애들이 말썽을 피울 때마다 다리몽텅이를 뽕질른다구 소리소리 지르셨어.

뽕딱지 [표] 화딱지 [예] 차시간이 급헌디 저렇게 꾸물거리니께 뽕딱지만 나는구먼.

뽕:다₁ [표] 뿌리다 [예] 오늘은 앞밭이 가서 시금치 씨앗을 뽕:야졌구먼.

뽕:다₂ [표] 뽕:다 [예] 그 친구 엇그제 발목을 뽕:는 바람이 비:응원으루 수술허러 갔다.

뽕:다₃ [표] 뽕:다 [예] 내가 젊을 때 눈이 뽕:는 바람이 당신한테 반했지.

뽕뽕뽕뽕 [표] 비뽕비뽕 [예] 이눔아, 글씨를 뽕뽕뽕뽕 쓰지 말고 바르게 좀 써봐라.

뽕비 [표] 뽕기 [예] 양지바른 논둑이 앉아서 뽕비를 뽕먹던 추억이 떠오르는구먼.

뽕: [표] 비잉 [예] 유치원 애기들이 선생님 주변으루 뽕: 둘러 앉아서 옛날 얘기를 듣구 있네.





사그러들다 [표] 사그라들다 [예] 장맛비에 녹어서 어린 배추가 전부 사그러 들었네.

사넌디₁ [표] 사는데 [예] 나는 지금 홍성이서 사넌디.

사넌디₂ [표] 사는데 [예] 내가 사넌디는 고개 너머 산속이라네.

사둔 [표] 사돈 [예] 이보게, 자네 시집보낼 딸이 있다구 들었는데 나허구 사둔 맏으면 오떨까?

사덜이다 [표] 사들이다 [예] 우리 애엄마는 뭘 저렇게 허구헌날 물건을 사덜이 는지 몰르겠네.

사러지다 [표] 사라지다 [예] 우리 아들녀석은 이번 취직시험을 합격해서 집안 걱정이 사라졌다네.

사로잡히다 [표] 사로잡히다 [예] 요새 내맘은 자나깨나 앞집 순이 생각으루 사로잡혀 있단다.

사마구 [표] 사마귀 [예] 사마구는 식탐이 아주 강한 곤충이란다.

사발시계 [표] 탁상시계 [예] 잠이 안오는 밤은 사발시계의 찰칵찰칵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

사빈 [표] 사부인 [예] 요즘 사빈이 편찮으시다는디 문병을 한번 땡겨오야졌구먼.

사우 [표] 사위 [예] 우리 사우는 열 아들 부럽지 않아.

사:죽 [표] 사:죽(四足) [예] 저 사람은 돈 앞에서는 사:죽을 못쓰는구먼.

사:춘 [예] 사:춘 [예] 옛날부터 사:춘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두 있지.

사팔떼기 [예] 사팔뜨기 [예] 나는 사팔떼기여서 핵교당길 때 친구들한테 술허

게 놀림을 받았지.

삭갈리다 [표] 석갈리다 [예] 이늙저늙 서루 잘났다고 떠들어대는디, 나는 정신이 삭갈려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몰르겠네.

삭월세 [표] 사글세 [예] 우리부부는 결혼허구 신희생활을 김씨네 문간방이서 삭월세루 시작했어.

삭쟁이 [표] 삭정이 [예] 옛날이는 소나무 가지에서 꺾어온 삭쟁이가 아주 좋은 핼감이었어.

산꼬랑 [표] 산골짜기 [예] 요새는 산꼬랑 깊은 곳으루 자연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터구먼.

산너물 [표] 산나물 [예] 봄이 오면 뒷산으루 산너물을 뜯으러 가는 재미가 쏠쏠허지.

산내끼 [표] 새끼 [예] 아버지는 밤마두 사랑방이서 산내끼를 꼬았어.

산떼미 [표] 산더미 [예] 오늘 하루두 헐 일들이 산떼미처럼 쌓였구나.

산똥생이 [표] 산등성이 [예] 초롱산 산똥생이루 올라가면 광천 독배가 보여.

산말랭이 [표] 산마루 [예] 우리 뒷산 산말랭이는 나만 아는 다래나무가 있어.

산모랭이 [표] 산모롱이 [예] 우리동네루 탁발을 나왔던 시님이 산모랭이를 돌어가구 있네.

산모텅이 [표] 손모통이 [예] 저 산모텅이만 돌아가면 우리 밭이 있어.

산비얄 [표] 산비탈 [예] 뒷산 다랭이밭이 그 전이는 산비얄이었어.

산수갑산 [표] 삼수갑산 [예]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우선 원허던 뱃놀이버팀 허구 보세.

산테끼 [표] 산토끼 [예] 산테끼 욕심부리다 집테끼마져 놓치는 수가 있다더라.

살가지 [표] 샅쟁이 [예] 뒷산 살가지가 밤마무 우리집 닭을 노리는 바람이 여간 성가신 게 아녀.

살강 [표] 찬장 [예] 우리집 부엌 살강 밑은 옛날 알밤구텅이가 남아있어.

삼베질쌈 [표] 삼베길쌈 [예] 우리 할머니는 젊은시절 삼베질쌈으루 밤을 지새우기가 일쑤였다.



삼시판 [표] 삼세판 [예] 오늘 식사당번은 가위바위보 삼시판으루 결정허세.

삼십육개출행랑 [표] 삼십육계출행랑 [예] 싸움이 불리헐 때는 삼십육개출행랑 두 좋은 방법이란다.

삼오제 [표] 삼우제 [예] 아무리 일이 급해두 할아버지 삼오제는 지내구 가거라.

삼춘: [표] 삼춘: [예] 우리 삼춘은 나버덤두 나이가 한참 어려.

삼태미 [표] 삼태기 [예] 애야, 삼태미다가 흠 좀 담어와라.

삼바 [표] 살바 [예] 씨름선수들은 삼바싸움을 심허게 허다가 심판한티 경고를 먹었어.

삼짝 [표] 사립문 [예] 우리집 삼짝 밖이서 시님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시주를 부탁허구 있구먼.

상관없다 [표] 상관없다 [예] 이 일은 너허구 상관 읏는 일이니께 신경쓰지 말어.

상긋하다 [표] 향긋하다 [예] 이디서 이렇게 상긋헌 냄새가 나는지 몰르졌네.

상:냥 [표] 상:량(上樑) [예] 우리 옛집을 헐었더니 대들보 위루 백오십년 전 상:냥 글씨가 남아 있더구먼.

새기다₁ [표] 삭이다 [예] 아무리 속상해두 잘 새기지 않으면 네 몸만 축간단다.

새기다₂ [표] 사귀다 [예] 오늘 춤으루 만난 사람인디 한번 새기구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먼.

새기다₃ [표] 새기다 [예] 가야산 기슭 옥병계 계곡 절벽은 옛사람들의 글씨가 새겨져 있어.

새금파리 [표] 사금파리 [예] 옛날은 소꿉장난 깎으루 그릇 깨진 새금파리 백이는 읏었지.

새꼽맞다 [표] 뜯금없다 [예] 너는 새꼽맞게 그런 소리를 허느냐?

새납 [표] 태평소 [예] 사물놀이 중간중간 불어대는 새납 소리가 청송맞기 그지 읏구먼.

새:다₁ [표] 새:다 [예] 집이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두 샌다는 속담이 있다네.

새:다₂ [표] 새:다 [예] 놀음꾼들은 밤이 새:는 것두 몰르구 여전히 화투장만 붙들구 있구먼.

새:다₃ [표] 새우다 [예] 어젯밤 애들 걱정으로 날밤을 샐터니 하루정일 몸이 피곤하네.

새루 [표] 새로 [예] 우리동네 새루 이사 온 사람이 한턱 낸다구 이웃들을 모두 불렀다네.

새약시 [표] 색시 [예] 우리동네는 시집 갈 새약시가 세 명이나 된다네.

새얌₁ [표] 샘: [예] 아랫집 할머니는 늙어서두 여전히 새얌이 많아.

새얌₂ [표] 샘: [예] 우리동네 공동새얌은 물맛 좋기루 멀리까지 이름났어.

새얌내다 [해] 샘내다 [예] 우리집 큰 손주가 아수를 보더니 새얌내는 일이 많어졌다네.

새양쥐 [해] 생쥐 [예] 저 친구는 허는 짓이 너무 약삭빨라서 사람들이 새양쥐 닮았다고 하여.

새웅개 [표] 새우 [예] 우리 동네 방죽은 새웅개가 많이 살어.

새침떼기 [표] 새침데기 [예] 새침떼기루 소문난 아랫집 딸이 오늘은 웬일루 다 정스레 아는데 허네.

색히다 [표] 삭히다 [예] 여름이는 잘 색힌 새우젓이 최고 반찬이지.

생그짓말 [해] 생거짓말 [예] 저 친구는 생그짓말 퍼뜨린다구 소문 난 사람이니께 조심하게.

생때갈다 [표] 생때갈다 [예] 아랫집 할머니 생때같은 자식을 앞세우더니 폭삭 늙어버렸어.

생여 [표] 상여 [예] 요즘은 초상집이서 생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생여집 [표] 상여집 [예] 요즘은 옛날이 동네마두 있던 생여집 구경허기두 힘들어.

생이루₁ [표] 생으로 [예] 여름철은 해산물을 생이루 먹지말구 익혀서 먹어라.

생이루₂ [표] 생으로 [예] 세상일은 순리대루 헤야지 생이루 밀어 붙이면 탈 나느 벵어.

생일꾼 [표] 막일꾼 [예] 내가 생일꾼한티 시집와서 평생 고생만 허구 사는구먼.

생키다 [표] 삼키다 [예] 애야, 음식을 급하게 생키다가는 배탈나기 쉽단다.

생티집 [표] 생트집 [예] 저 사람은 술만 마시면 아무한티나 생티집을 잡구 술



주정이 심허다네.

삭시 [표] 색시 [예] 삭시가 이쁘면 처갓집 오양간 말뚝한티두 절헌다는 말이 있다네.

상철 [표] 양철 [예] 우리집 지붕은 상철이라서 비가 올 때마두 소리가 요란 허다네.

상철지붕 [표] 양철지붕 [예] 상철지붕 위루 새떼들이 조잘거리면서 한 줄루 앉 어있구먼.

서글푸다 [표] 서글프다 [예] 올해두 벌써 연말이 가까워지구 덧없는 인생살이가 서글푸구먼.

서낭댕이 [표] 서낭당 [예] 동네 고개마다 한두개씩 있던 서낭댕이를 요즘은 민속촌이나 가야 구경할 수가 있다네.

서둘루다 [표] 서두르다 [예] 암만 일이 급헤두 너무 서둘루지 말구 촌촌히 생 각 점 허구 시작허세.

서루서루 [표] 서로서로 [예] 누털은 형제끼리 싸우지 말구 서루서루 돕구 살어라.

서슴웁다 [표] 서슴없다 [예] 그는 서슴웁이 허구 싶은 말을 모두 허더구먼.

서운허다 [표] 서운하다 [예] 니가 나한티 그런 말을 허다니 서운허구먼.

서이 [표] 셋 [예] 우리 서이가 힘을 합치기만 허면 무슨 일은 못허졌는가?

석수쟁이 [표] 석수장이 [예] 저 부처님의 온화하신 웃음이 예사 석수쟁이 솜씨가 아니구먼.

선상님 [표] 선생님 [예] 우리아들 선상님은 다음 달이 결혼을 한다는구먼.

선볼르다 [표] 선부르다 [예] 사업을 할라면 선볼르게 대들지 말구 신중헤야 한다네.

설그지 [표] 설거지 [예] 우리 엄마는 밥을 먹구 설그지 허는게 그중 귀찮다는구먼.

~설랑은 [표] ~서는 [예] 우리아들은 늦게까지 잠만 자구설랑은 온다간다 말 두 읊이 나갔다니께.

섬의 [표] 혐의 [예] 그 청년이 절도 섬의루 경찰서루 붙들려 갔다는구먼.

섬의지다 [표] 혐의지다 [예] 이웃허구 섬의 지구 산다는 건 피차가 괴로운 뱀이지.

섬찍허다 [표] 섬뜩하다 [예] 우리동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마다 등골이 섬찍 허구 진땀이 난다네.

성: [표] 형: [예] 우리 형제들 중에는 큰 성:이 공부를 쉼루 잘했어.

성가시다 [표] 괴롭다 [예] 우리누나는 맨날 성가시게 쫓아 땡기는 남자때미 아예 이민을 갔어.

성국 [표] 형국 [예] 저 산은 장수가 말을 타구 달려가는 성국이어서 명당이라구 소문 났어.

성냥 [표] 성냥 [예] 내동생은 성냥으루 불장난 허다가 바깥마당 집누리를 태운 적이 있지.

성냥각 [표] 성냥갑 [예] 내가 살던 산언덕은 작은 집들이 성냥각처럼 촘촘허게 붙어있는 달동네였지.

성냥개비 [표] 성냥개비 [예] 옛날이는 성냥개비루 재미있는 놀이를 많이 했어.

성님 [표] 형님 [예] 우리 성님은 어제 출장을 가면서 메칠 걸린다구 했어.

세: [표] 쇠: [예] 그사람 팔뚝은 단단헌 세:처럼 온통 근육으루 뭉쳤어.

세다₁ [표] 쇠다 [예] 우리 애기는 감기가 세서 병원에 갔다왔어.

세다₂ [표] 쇠다 [예] 우리밭이다가 심은 열무가 김치를 담기에는 너무 쟤구면.

세다₃ [표] 쇠다 [예] 올이는 कोरो니 때미 명절을 세러 고향집이두 못가구 집이 서만 쟤어.

세다₄ [표] 세우다 [예] 태풍으루 쓰러진 나무를 똑바르게 세놔야겠구면.

세빠닥 [표] 혀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빠닥을 잘못 놀리면 큰 낭패를 당할 때가 있다네.

세월웁이 [표] 세월없이 [예] 강태공들이 세월웁이 낚싯대를 드리우구 앉어서 시간만 보내구 있네.

세타 [표] 스웨터 [예]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께 세타를 두툼허게 걸쳐입구 나가거라.



섹경 [표] 석경 [예] 우리집 안방은 할머니가 시집 올 때 버텼 쓰던 섯경이 그대 루 있어.

섹유 [표] 석유 [예] 등잔불은 섯유가 있어야 불을 붙이는 거여.

섹이다 [표] 속이다 [예] 사람은 섯여도 하늘은 못 섯이는 뻔여.

센:네 [표] 쉼:네 [예] 일자무식인 센:네가 그런 어려운 얘기를 오치게 알아 듣겠슈?

생기다 [표] 섬기다 [예]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생기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여.

생이 [표] 송이 [예] 활짝 핀 백합꽃 생이생이 사이를 벌들이 신나게 돌아 댕기는구먼.

생묘 [표] 성묘 [예] 올 추석은 부모님 산소 생묘두 못가게 생겼구먼.

생편₁ [표] 형편 [예] 요즘 장사가 잘 안되서 우리집 생편이 별루 안좋다네.

생편₂ [표] 송편 [예] 올해 추석이는 집이서 생편을 맛있게 빚어먹자구.

생편웁다₁ [표] 형편없다 [예] 이번 시험은 벼락공부를 했더니 생편웁이 망쳤어.

생편웁다₂ [표] 형편없다 [예] 그 사람 메칠 앓구 나더니 얼굴이 생편웁이 틀렸네.

셋바닥 [표] 헛바닥 [예] 너는 즘잖은 자리서 셋바닥을 그렇게 함부루 놀려두 되는 거냐?

션션허다 [표] 시원시원하다. [예] 그친구 말허는게 션션허구 믿을만헌 사람 같 더구먼.

션참다 [표] 시원찮다 [예] 저사람 얼굴빛을 보니께 결과는 보나마나 션참을 거 같구먼.

섬: [표] 시험 [예] 어제 섬:을 봤넌디 결과는 두구 봐야 헐거 같구먼유.

섬: [표] 수업 [예] 요즘은 젊은사람두 섬:을 길르구 댕기는게 유행인 모양여.

섬섬 [표] 쉬엄쉬엄 [예] 오늘은 일거리가 많지 앓으니께 섬섬 해두 저녁때는 모두 끝내졌구먼.

성:아들 [표] 수양아들 [예] 김회장은 평생동안 일궈온 논밭을 성:아들한테 물 려줬더는구먼.

소:갈빼기 [표] 소:갈머리 [예] 저사람 소:갈빼기는 뻔뻔이 속만두 못허다니께.

- 소금** [표] 소금 [예] 가난허던 옛날은 소금 한가지루 밥을 먹은 집두 있었다네.
- 소꿉장냥** [표] 소꿉장난 [예] 어릴 때 소꿉장냥허던 친구들을 만나니께 너무나 무 반갑구먼.
- 소내기** [표] 소나기 [예] 오늘처럼 더운 날은 소내기라두 한줄금 뿌려주면 좋겠구먼.
- 소내기밥** [표] 소나기밥 [예] 밥을 규칙적으루 먹지 았구 소내기밥을 먹으니께 건강이 안좋지.
- 소당** [표] 솔뚜껑 [예] 저사람 손이 얼마나 큰지 소당만허다니께.
- 소똥** [표] 쇠똥 [예] 아프리카 사람들은 소똥을 연로 대신 사용허더구먼.
- 소똥벌레** [표] 쇠똥구리 [예] 요즘은 옛날처럼 소똥벌레 구경허기두 힘들더구먼.
- 소:름** [표] 소:름 [예] 어젯밤 뒷산 부엉이 우는 소리에 소:름이 확 끼쳤어.
- 소리쟁이** [표] 소루쟁이 [예] 소리쟁이 어린 싹을 된장국으루 끓여먹어두 맛있지.
- 소리개** [표] 솔개 [예] 소리개가 하늘을 빙빙 맴돌면서 병아리들을 노리고 있네.
- 소래기** [표] 질그릇 [예] 엄마는 아침마두 소래기를 머리에 이고 마을 공동샘으로 몰뜨러 나갔어.
- 소시랑** [표] 쇠시랑 [예] 홍주의병들은 총칼 대신 소시랑과 팽이를 들구 싸은 사람두 있었어.
- 소의:경** [표] 소:경 [예] 그 사람 교통사고 후유증으루 소의:경이 났다더구먼.
- 소:자** [표] 효:자 [예] 저사람 아버지가 소:자였는디, 아들두 세상이 둘두 읊는 소:자라는구먼.
- 소지** [표] 청소 [예] 오늘은 귀헌 손님이 오니께 마당 소지를 깨끗허게 허거라.
- 소핵교** [표] 소학교 [예] 예전이는 초등학교를 소핵교라구 불르기두 했어.
- 속** [표] 속마음 [예] 저 친구는 말이 읊어서 속을 알 수 읊는 사람이여.
- 속꼬뱅이** [표] 속고갱이 [예] 김장 담그면서 먹던 배추 속꼬뱅이 맛이 그립구먼.
- 속심** [표] 속셈 [예]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어두 진짜 속심은 따로 있을 거여.
- 속절없다** [표] 속절없다 [예]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좇어담는 것은 속절읊는 짓이여.

손꾸락 [표] 손가락 [예] 애기 손꾸락이 참말루 양증맞구먼.

손사레 [표] 손사래 [예] 그는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구 손사레를 치면서 부인했어.

손장냥 [표] 손장난 [예] 마술은 일종의 눈색임으루 손장냥이라구 볼 수가 있다네.

손잡이 [표] 손잡이 [예] 빠스가 너무 흔들려서 손잡이를 꼭 붙잡구 있었어.

손타다₁ [표] 손타다 [일] 귀한 물건일수록 손타기가 쉬우니까 잘 간수허게.

손타다₂ [표] 손타다 [예] 저렇게 이쁜 얼굴은 밖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손타기 쉬워.

손타다₃ [표] 손타다 [예] 갓난애기가 벌써 어른들 손타서 안어달라고 보채구 있어.

손툰 [표] 손툰 [예] 우리 딸은 어려서버텀 손툰 물어뜯는 습관을 여태까장 못 고치구 있어.

솔겔 [표] 솔가리 [예] 옛날이는 밥을 지을 때 솔겔이 최고 좋은 땀감이었어.

송방 [표] 구멍가게 [예] 우리동네 송방은 할머니가 딸허구 둘이 살었어.

송아치 [표] 송아지 [예] 우리 암소가 오늘 새벽이 틈실헌 송아치 한 마리를 낳았다네.

송아가루 [표] 송화가루 [예] 봄철 송아가루가 날릴 때면 온 동네가 누런 먼지 구덩이에 갇힌 것 같어.

송챙이 [표] 송충이 [예] 누에는 뽕잎을 먹구 송챙이는 솔잎을 먹구 살어가는 뱀이라네.

쇠망 [표] 소입마개 [예] 소를 배갈이루 끌구 나갈 때는 입에 쇠망을 씌워야 허여.

쇠때 [표] 열쇠 [예] 그사람, 인색허기가 쇠때 콧구멍 같구먼.

쇠뎡이 [표] 쇧덩이 [예] 저 운동선수 팔뚝은 세뎡이처럼 단단허더구먼.

수구맥이 [표] 수구막이 [예] 수구맥이는 풍수지리적으루 부족헌 부분을 보완허기 위해서 인위적으루 조성한 숲이지.

수냉이 [표] 순 [예] 봄철이 금방 나온 칩 수냉이는 약으루두 쓴다네.

수랑 [표] 수렁 [예] 경운기가 논 가운데 수랑이 빠져서 갱신히 끄냈구먼.

- 수랑배미** [표] 수렁배미 [예] 우리동네는 논들마두 수랑배미가 유난히 많어.
- 수수팽이** [표] 수숫대 [예] 수수팽이를 꺾어서 잠자리를 쫓어댕기던 어린시절이
그립구먼.
- 수:웁이** [표] 수:없이 [예] 날씨가 후텁지근허니께 모기떼만 수:웁이 템벼드
는구먼.
- 수합살** [표] 조갯살 [예] 우리동네는 조갯살을 수합살이라고도 불르는구먼.
- 숙끼웁다** [표] 숙기없다. [예] 사내녀석이 그렇게 숙끼가 웁어서야 되겠느냐?
- 숙:내** [표] 숙:내 [예] 저사람은 좀처럼 숙: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상대허기가
까다롭다니께.
- 순댕이** [표] 순둥이 [예] 이눔은 사내아이가 너무 순댕이구먼.
- 순사** [표] 일본경찰 [예] 아버지는 독납운동을 허다가 순사한테 잡혀가서 고생
을 많이 했다.
- 술레** [표] 술래 [예] 나는 어릴 때 술레잡기를 할 때마두 맨날 술레가 되곤 했어.
- 술찌거미** [표] 술지게미 [예] 옛날이는 배가 고파서 술찌거미루 배를 채우기
두 했지.
- 술찜이** [표] 술김에 [예] 저 친구는 술 한잔 마시구서 술찜이 주막집 아낙한테
사랑고백을 했다는구먼.
- 술푸대** [표] 술고래 [예] 저 사람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별명이 술푸대여.
- 숨:맥히다** [표] 숨:막히다 [예] 선생님이 통지표를 건네줄 때 너무 긴장해서
숨:맥히는 줄 알았어.
- 숨:죄이다** [표] 숨:죽이다 [예] 우리들은 친구의 실종소식을 숨:죄인채 듣구
있었어.
- 숫갈** [표] 손가락 [예] 아침버텐 숫갈을 떨어뜨리구 오늘은 하루정일 조심허야
쓰겠구먼.
- 송보다** [표] 흥보다 [예] 옛말이 송보면서 배우구 싸우면서 배운다구 했어.
- 송₁** [표] 흥 [예] 저 사람은 허는 짓마다 송거리구먼.
- 송₂** [표] 흥 [예] 내 얼굴에는 마마를 앓구 난 송이 있어.



송년 [표] 흥년 [예] 올해는 날이 너무 가물어서 논농사가 송년일세.

송님 [표] 송능 [예] 저친구는 송질이 얼마나 급헌지, 우물이 가서 송님 달라구
힐 사람여.

송내 [표] 흥내 [예] 저사람 유명가수 송내를 기가맥히게 잘 내는구먼.

송악하다 [표] 영악하다 [예] 그놈 허는 짓이 여간 송악하지 않구먼.

송잡다 [표] 흥잡다 [예] 사람들 모여서 이우지 송잡는 얘기를 자주 허는 것두
나쁜 버릇이여.

송잡히다 [표] 흥잡히다 [예] 오늘 생일잔치 가져든 친구 부모님한테 송잡히지
않게 츠신 잘허거라.

송척하다 [표] 흥척하다 [예] 오늘 출근하다가 차에 치여서 송척하게 죽은 동물
사체를 봤다네.

송터 [표] 흥터 [예] 내 팔뚝은 베트남 전쟁터서 총알을 맞은 송터가 아직두 남
어있어.

송허다 [표] 흥하다 [예] 요즘 병을 앓구 일어났더니 몸이 너무 말려서 보기가
송허구먼.

송허물었다 [표] 흥허물었다 [예] 우리들은 남남지간이라두 서루가 송허물 읊이
지내구 있다네.

술허다 [표] 술하다 [예] 우리주변이는 아직두 복지 혜택을 못받는 이웃들이 술허.

스:거 [표] 서:거 [예] 방금 전 초등학교 단임선생님께서 스: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스:기 [표] 서:기 [예] 그사람 눈빛은 예사롭지 않은 스:기가 빛나구 있더구먼.

스:광 [표] 서:광 [예] 이제버텀 자네 앞길은 하늘의 스:광이 밝게 비칠 거를 믿네.

스다 [표] 서다 [예] 여기 도착하는 순서대루 줄을 스거라.

스먹거리다 [표] 서먹거리다 [예] 집안치들이 모처럼 만나서 분위기가 스먹거리
는구먼.

스:산 [표] 서:산 [예] 해가 벌써 스:산너머로 넘어가구 있구먼.

스스럼없다 [표] 스스럼없다 [예] 우리 둘은 옛날버텀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여.

- 스속 [표] 조 [예] 스속 밭이루 참새떼들이 우르르 몰려오구 있네.
- 스물거리다 [표] 스멀거리다 [예] 벌레가 내 목덜미를 스물거리면서 기어댕기는 바람이 나두 물르게 비명을 질렀어.
- 스:약 [표] 서:약 [예] 오늘 결혼헌 부부들이 결혼 스:약을 허구 있네.
- 스이 [표] 셋 [예] 오늘은 너희들 스이서 그 일을 끝내거라.
- 스:자 [표] 서:자(庶子) [예] 홍길동은 스:자로 태어났어.
- 스:족 [표] 서:족(庶族) [예] 옛날 스:족 출신은 베슬하기도 힘들었어.
- 스:툴다 [표] 서:툴다 [예] 아직은 일이 스:툴러서 능률이 제대루 안나나면.
- 스:동 [표] 석:동 [예] 오늘 웃놀이는 스:동을 먼저 내구두 상대방한테 지구 말었네.
- 스삼년 [표] 석삼년 [예] 그사람 동네서 떠나더니 스삼년이 지나가두 소식 한번 읊구먼.
- 스:섬 [표] 석:섬 [예] 올해 논농사는 벼 스:섬이 전부일세.
- 스: [표] 선: [예] 우리 부모님은 동네 할머니가 중매를 서서 스:을 보구 첫눈이 반해서 결혼했다.
- 스:거 [표] 선:거 [예] 올해는 대통령 스:거와 국회의원 스:거를 동시에 실시 한다네.
- 스:거리 [표] 선:거리 [예] 우리동네는 여자무당을 스:거리라구 불른다네.
- 스:걸음 [표] 선:걸음 [표] 자네가 모처럼 찾아왔ندي 그냥 스:걸음으루 가게 해서 미안하구먼.
- 스:머슴 [표] 선:머슴 [예] 저집 딸은 허는 짓마다 스:머슴 같구먼.
- 스:물 [표] 선:물 [예] 스:물은 액수버덤두 마음이 중요허지.
- 스:별 [표] 선:별 [표] 오늘 따온 과일들을 크기대루 스:별허는 일이 남아있구먼.
- 스:보다 [표] 선:보다 [표] 우리 누나가 오늘 읍내루 스:보러 나갔어.
- 스:사 [표] 선:사 [표] 우리나라 태권도 스:수가 금메달의 영광을 모든 국민한테 스:사 했구먼.
- 스:수 [표] 선:수 [표] 국가대표 스:수가 되는 것은 참으루 큰 영광이지.



슨:양 [표] 선:양 [표]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선수들이 국위슨:양을 허구 씹씩하게 돌아왔네.

슨:연허다 [표] 선:연하다 [표] 자네 젊은시절 패기넘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슨:연허구먼.

슨:하품 [표] 선:하품 [예] 저사람 슨:하품을 허는거 보니께 몸살기운이 있는가벼.
슨:허다 [표] 선:하다 [표] 우리 누나 결혼식 모습이 지금두 눈앞이 슨:허게 떠오르네.

슬:달 [표] 선:달 [예] 내 생일은 정신없이 바쁜 슬:달 그믐여.

슬: [표] 설: [예] 올해 슬:은 우리끼리 여행이나 가자구.

슬그먼치 [표] 슬그머니 [표] 그 많던 사람들이 슬그먼치 빠져나가서 자리가 텅 비었네.

슬:날 [표] 설날 [표] 요즘은 슬:날두 옛날 같은 명절 분위기가 아녀.

슬:비슴 [표] 설:빔 [표] 우리 형은 올해 슬:비슴으루 처가에서 양복 한 벌 은어 입었다.

슬:세다 [표] 설:쇠다 [표] 올해 명절은 코로니 19 때미 슬:세러 고향가기가 어렵게 뒀어.

슬:익다 [표] 설:익다 [예] 감이 겉만 빨갭게 익어뵈지 실지는 슬:익구 푹어서 못먹어.

슬푸다 [표] 슬프다 [예] 오늘은 작년 이맘때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으루 하루쟁일 슬푸구먼.

슴: [표] 섬:(島) [예] 요즘은 만사가 구찮기만 허구 조용헌 슴:이나 가서 메칠만 살았으면 좋겄네.

슴슴허다 [표] 싱겁다 [예] 오늘 담근 김치는 국물이 슴슴허구 맛이 그전 같지않구먼.

승: [표] 성:(姓) [예] 내가 헛 말이 틀리면 승:을 갈겄네.

승:격 [표] 성:격 [예] 자네는 승:격이 좋아서 아무디나 가두 칭찬받구 살겨.

승:깁 [표] 성:깁 [예] 그사람 생긴건 순허게 보이는데 승:깁은 보통 아니더먼.

승:나다 [표] 성:나다 [예] 그렇게 자꾸 골려대면 승:나지 않을 사람이 오디 있다나.

승:질 [표] 성:질 [예] 그사람 나이를 먹더니 승:질 많이 죽었더라.

승:질머리 [표] 성:질 [예] 그사람 승:질머리 고약헌거는 동네사람들이 더 잘 알구 있다네.

승:질빠기 [표] 성:질 [예] 자네 그 지랄맞은 승:질빠기 못고치면 평생 장가가 기 힘들겄.

승패 [표] 성패 [예] 오늘 경기의 승패는 실력버덤두 정신력으로 결정날 것 같구먼.

승허다 [표] 성하다 [예] 전염병이 가라앉기는 커녕 자꾸만 승허네.

시갈래길 [표] 세거리 [예] 그 가게 이름은 시갈래길 앞이 있다구 해서 시거리 상점이여.

시개 [표] 세개 [예] 이번 태풍으로 사과가 모두 떨어지구 한 낭구에 시개만 달랑달랑 매달려있구먼.

시:거리 [표] 세:거리 [예] 매년 정월대보름날은 우리동네 시:거리 앞이서 거리제를 지내곤 했지.

시골떼기 [표] 시골뜨기 [예] 저 시골떼기가 서울 가더니 물러보게 멋쟁이루 변했구먼.

시님 [표] 스님 [예] 오늘은 시님이 우리동네루 탁발을 나오셨네.

시다₁ [표] 쉬다 [예] 오늘 운동을 허멘서 너무 떠들었더니 목이 시었어.

시다₂ [표] 쉬다 [예] 엇그제 엄마가 맹들어다 주신 반찬이 모두 시었네.

시:다₁ [표] 세다 [예] 그녀석은 어린애가 힘이 장사처럼 시다는구먼.

시:다₂ [표] 세다 [예] 저기 전기줄이 얹어있는 새털이 뿔마리나 되는지 시어봐라.

시:다₃ [표] 세다 [예] 무슨 고민을 허느라구 젊은사람이 벌써 머리카락이 하얗게 시었네.

시:다₄ [표] 쉬다 [예] 오늘은 힘든 일을 허느라구 피곤헐테니께 그만들 폭 시어라.

시:다₅ [표] 쉬다 [예] 나이를 먹으니께 등산을 허멘서 숨 시는 것도 어렵구먼.



시덥잖다 [표] 시답잖다 [예] 오늘 시장이 나온 물건들은 모두 시덥잖아서 살만
헌게 읊구먼.

시락지 [표] 시래기 [예] 장국밥은 시락지가 들어가야 먹는 맛이 나는거여.

시렁 [표] 선반 [예] 부엌 시렁이다가 얹어놓은 그릇 점 들구 오거라.

~시럽다 [표] ~스럽다 [예] 내가 젊은시절을 허투루 보낸 것이 너무나무 한시
럽구먼.

시럽다 [표] 시리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께 손발이 시럽구먼.

시루뻔 [표] 시룻뻔 [예] 시루떡을 찔 때 시루 가생이에 붙은 시루뻔 떼먹는 맛
두 좋았지.

시방 [표] 지금 [예] 자네 시방 나한티 뭐라구 허는 말여?

시:배 [표] 세:배 [예] 이번 설날은 할아버지한티 큰절루 시:배를 허거라.

시:번 [표] 세:번 [예] 우리 아들은 시:번만이 취직시험을 봐서 붙었다네.

시부정찮다 [표] 시원찮다 [예] 요새 저사람 허는 일이 시부정찮은 모양여.

시:상 [표] 세상 [예] 요즘은 시:상 살아가는 재미가 옛날같지 않구먼.

시:상만사 [표] 세:상만사 [예] 요즘은 코로나 때미 배깁아두 못나가구 시:상만
사가 구찮기만 허네.

시:상살이 [표] 세:상살이 [예] 우리네 시:상살이가 더두 말구 들두 말구 오늘
만 같었으면 좋겄네.

시:상천지 [표] 세:상천지 [예] 시:상천지에 허구많은 사람들이 있어두 나한티
는 당신이 최고여.

시:수 [표] 세:수 [예] 오늘은 올마나 바쁜지 시:수두 제대루 못허구 들어댕
겼구먼.

시웁다 [표] 쉽다 [예] 그런 일은 누워서 떡먹기 버덤두 시웁지유.

시으른 [표] 시어른 [예] 자네 께까드런 시으른을 모시느라구 고생이 많더구먼.

시적부적 [표] 흐지부지 [예] 그집 얘기가 한참동안 떠들썩허더니 지금은 시적
부적 읊어졌어.

시절 [표] 바보 [예] 자네는 허는 말마두 시절같은 소리만 허는구먼.

시파리 [표] 쉬파리 [예] 생선 썩는 자리마두 시파리가 떼로 몰려드는구먼.

시크름하다 [표] 시름하다 [예] 김치찌개가 맛이 시크름헌게 약간 상헌거 같구먼.

신:내 [표] 신:내 [예] 이 반찬은 신:내가 나서 못먹겼구먼.

신소리 [표] 흰소리 [예] 이보게, 내가 바보천치인줄 아는가? 그 쓸디웁이 신소리 점 그만 허게나.

신통하다 [표] 신통하다 [예] 그 약을 발르구 잤더니 신통허게 어깨통증이 가셨구먼.

실갱이 [표] 실랑이 [예] 경찰 아저씨는 술주정뱅이들허구 실갱이허는게 제일 힘들다.

실겁다 [표] 살갑다 [예] 톱니바쿠마두 지름을 쳤더니 아주 실겁게 잘 돌아가는구먼.

실:내끼 [표] 실오라기 [예] 저 여자는 몸에 실:내끼 하나두 안걸치구 사진을 찍었네.

실새웁이 [표] 실새없이 [예] 농촌은 일년 내내 실새웁이 일을 해야 살어갈 수가 있어.

실웁다 [표] 실없다 [예] 자네는 왜 그렇게 실웁는 소리만 허구 땡기는겨?

실지루 [표] 실제로 [예] 저사람 겉보기가 싸나워되지 실지루는 순허기가 이렇디 읍구먼.

실컨 [표] 실컷 [예] 나 혼저 화장실서 실컨 올구 나왔더니 속이 후련허구먼.

심술꾸레기 [표] 심술꾸레기 [예] 우리 큰손주가 동생을 보더니 심술꾸레기루 변했어.

심: [표] 셈: [예] 그 사람 심:이 흐려서 다시는 상대 못허겼구먼.

심심하다₁ [표] 심심하다 [예] 오늘은 하루쟁일 놀어줄 사람도 읍구 혼저서 심심허게 지냈어.

심심하다₂ [표] 심심하다 [예] 담배를 끊었더니 입이 심심허구 자꾸 먹는거만 생각나는구먼.

심심하다₃ [표] 싱겁다 [예] 오늘저녁 찌개 맛이 심심헌디 조금 좀 더 쳐봐유.



- 심웁다** [표] 썸없다 [예] 사람이 심웁으면 신용두 잃구 세상 살어가기 힘들어.
- 심키다** [표] 애먹이다 [예] 저사람 꺾간 돈을 안주구 여간 심키는 게 아녀.
- 심:판** [표] 썸:판 [예] 저사람 무슨 심:판으루 저러는지 알 수가 없구먼.
- 심:판웁다** [표] 썸:판없다 [예] 그렇게 심:판웁이 한세월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허자는 거유?
- 심껏** [표] 힘껏 [예] 이번 일은 내가 심껏 도와줄테니께 걱정말게.
- 싯** [표] 셋 [예] 이번 일은 우리 싯이서만 알구 비밀루 허세.
- 싱건지** [표] 반찬 [예] 수많은 김치 중에서 할머니가 담가주던 싱건지는 맛이 일품이었어.
- 싸가지** [표] 싸수 [예] 저늬 허는 짓이 참말루 싸가지가 되게 없구먼.
- 싸게싸게** [표] 빨리빨리 [예] 새벽버텐 싸게싸게 서둘러야 기차시간 늦지 않겠어.
- 싸구랴** [표] 싸구려 [예] 요즘은 싸구랴 물건두 잘만 골르면 쓸만 허더구먼.
- 싸그리** [표] 깡그리 [예] 그 나쁜 놈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징역이나 보냈으면 좋겼구먼.
- 싸:납다** [표] 사:납다 [예] 싸나운 개 얼굴 성헌날 읊다구 했어.
- 싸:대기** [표] 뽕 [예] 그사람 술집 여전한티 술주정허다가 싸:대기만 한대 맞구 갔다.
- 싸:댕기다** [표] 싸:다니다 [예] 너는 하루쟁일 위디를 그렇게 싸:댕기다 오는 거냐?
- 싸래기** [표] 싸라기 [예] 쌀뜨물 속이 싸래기가 잔뜩 썩었으니께 함부루 내다버리먼 안되여.
- 싸래기눈** [표] 싸락눈 [예] 오늘은 아침버텐 싸래기눈이 흘날리는구먼.
- 싸립문** [표] 사립문 [예] 요즘은 민속촌이나 가야 싸립문을 구경힐 수가 있어.
- 싸이렝** [표] 사이렌 [예] 싸이렝이 급허게 울리는 걸 보니께 오디서 불이 난 거 같유.
- 싸인** [표] 사인 [예] 요즘은 서류에 도장 대신 싸인을 받을 때가 많어.
- 쌀끔** [표] 쌀값 [예] 이번 장은 쌀끔이 올마씩이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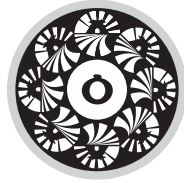
- 쌀방개** [표] 물방개 [예] 저애는 동작이 쌀방개처럼 빠르기도 허구먼.
- 쌀저** [표] 쌀겨 [예] 쌀저는 영양분이 많아서 닭한테 줘도 좋다.
- 쌀푸대** [표] 쌀부대 [예] 농협창고는 여기저기 쟁여놓은 쌀푸대가 산데미여.
- 쌈박질** [표] 싸움질 [예] 재털은 눈만 뜨면 쌈박질이구먼.
- 쌍눔** [표] 상눔 [예] 에이, 천하에 쌍눔 같으니라구.
- 쌍뎡이** [표] 쌍둥이 [예] 우리 동네 쌍뎡이 형제는 얼굴이 똑같어서 구분할 수가 읍다니께.
- 쌍판때기** [표] 상판대기 [예] 그 사람 쌍판때기가 왜 그 모양이랴?
- 쌔구쌔다** [표] 아주많다 [예] 그런 물건은 시장이 가면 쌔구쌔다니께.
- 쌔리다** [표] 때리다 [표] 너는 왜 애덜을 그렇게 쌔리구 땡기능겨?
- 쌔:다** [표] 많다 [예] 요즘은 비수기라서 관광지에 빈방이 쌔다.
- 씩은새** [표] 삭은 이엉 [예] 한용운 생가 초가지붕 켜은새를 걷어내구서 이엉을 다시 헤서 없었네.
- 썰멍허다** [표] 썰렁하다 [예] 맨날 떠들썩허던 집안이 오늘은 오썰 이렇게 썰멍허다?
- 썰:다** [표] 세:다 [예] 이번 태풍은 차가 넘어갈 정도루 썰:다구 허던디 과수원 텈이 걱정이구먼.
- 씩이다₁** [표] 속이다 [예] 이사람아, 가짜를 진짜라구 켜이는 것두 한 두번이지 맨날 통헐 줄 아남?
- 씩이다₂** [표] 켜이다 [예] 우리 할머니는 아까운 음식을 켜이면 벌루간다구 입버릇처럼 말씀허셨어.
- 쏘내기** [예] 소나기 [예] 오늘같은 폭염 날씨는 쏘내기라두 한 줄금 내려주면 참 좋겄넌디.
- 썩주** [표] 소주 [예] 오늘은 목이 켜켄헐디 썩주나 한잔 마시구 들어가세.
- 썩수** [표] 수수 [예] 애기 백일잔치는 썩수팍단지가 빠지면 안되는 거여.
- 썩맥** [표] 숙맥 [예] 나두 인저는 너한테 맨날 당허구만 살던 썩맥이 아니라구.
- 쓰겼는디** [표] 하겠는데 [예] 생선을 사야 쓰겼는디 장사가 아직 안왔구먼.



- 쓰:레질** [표] 써:레질 [예] 모내기는 쓰:레질을 잘해야 모가 잘 크는 거여.
쓰레박 [표] 쓰레받기 [예] 나느는 방을 쓸구 나서 쓰레기를 쓰레박이다가 담어서 버렸어.
쓰리꾼 [표] 소매치기 [예] 옛날이는 장날마두 쓰리꾼들이 많이 들끓었어.
쓰리맞다 [표] 소매치기당하다 [예] 오늘 아버지는 장이 갔다가 마늘 판 돈을 쓰리맞구 왔다.
쓰유₁ [표] 써요 [예] 이 약은 오째 이렇게 쓰유?
쓰유₂ [표] 써요 [예] 이번이는 저것으로 갖다가 쓰유.
쓰유₃ [표] 써요 [예] 우리 할아버지 산소를 뒷산이다가 쓰유.
쓰유₄ [표] 써요 [예] 한여름이는 논이서 일헐 때 이런 모자를 쓰유.
쓰유₅ [표] 써요 [예] 저 애는 글씨를 참 예쁘게 쓰유
쓰잘데기없다 [표] 쓸데없다 [예] 자네는 그 쓰잘데기 없는 소리 점 작작허구 땡기게.
쓰물 [표] 썰물 [예] 저 습은 쓸물 때라야 걸어서 드나들 수가 있어.
쓸다₁ [표] 쓸다 [예] 오늘은 마당을 깨끗허게 쓸었구나.
쓸다₂ [표] 쓸다 [예] 이번 물건은 김씨가 모두 모두 쓸어갔어.
쓸다₃ [표] 쓸다 [예] 김장양념으로 버무릴 무수를 아주 고르게 쓸었구먼.
쓸다₄ [표] 쓸다 [예] 날마두 쥐가 들락거리더니 자루를 못쓰게 쓸어놔네.
쓸다₅ [표] 쓸다 [예] 장독마두 파리가 쉬를 쓸어서 지저분허구먼.
쓸디없다 [표] 쓸데없다 [예] 이사람아, 자네는 왜 그렇게 쓸디없는 일을 땡글구 땡기나?
쌌배기 [표] 쌌바귀 [예] 쌌배기는 맛이 쓰긴 허지만 원기를 돋우는데 좋은 먹거리여.
씨:다 [표] 씨우다 [예] 저 가게는 손님한티 바가지를 씨:구 물건값두 비싸다구 소문 났어.
씻나락 [표] 범씨 [예] 일년 벼농사는 씻나락 소독이 중요허.
씨라리다 [표] 쓰라리다 [예] 아침이 넘어져서 생긴 상처 위루 물이 닿으니께

씨라리구 아프네.
씻치다 [표] 씻다 [예] 오늘 니가 뜯어온 산너물을 깨끗하게 씻쳐서 넣어놓거라.





- 아구리** [표] 아가리 [예] 이눔아, 이젠 그만 아구리 점 닥치구 있어라.
- 아갈빼기** [표] 아가리 [예] 너 참마루 아갈빼기 다물지 못혀졌네?
- 아개미** [표] 아가미 [예] 생선 맛의 으뜸 부위는 아개미 부근이란 말이 있어.
- 아까아까** [표] 아까 [예] 그사람 아까아까 집이서 떠났는디?
- 아까침** [표] 아까 [예] 아까침 물르는 사람한테 아빠를 찾는 전화가 왔었슈.
- 아까시아** [표] 아카시아 [예] 5월은 아까시아 꽃향기가 좋은 계절이여.
- 아구** [표] 아귀 [예] 이집 아구찜은 맵지두 앓구 먹을만 허네.
- 아구리** [표] 아가리 [예] 이눔아, 자꾸만 나불거리지 말구 아구리 점 닥치구 있어라.
- 아구창** [표] 아가리 [예] 너 아구창 널러가기 전이 입 다물구 있는게 좋을겨.
- 아궁지** [표] 아궁이 [예] 사랑방 아궁지다가 군불 점 때놓거라.
- 아국쟁이** [표] 아궁이 [예] 아궁지 참고
- 아금니** [표] 어금니 [예] 한번 들어온 돈은 아금니 애끼듯허야 돈이 메지는 겨.
- 아금팍스럽다** [표] 아금박스럽다 [예] 저 아즈매는 젊을때버텼 아금팍스럽기루 소문난 사람여.
- 아년체하다** [표] 알은체하다 [예] 쥐뿔두 물르는 늙이 아는 체는 제일 먼저 허는구먼.
- 아녀** [표] 아니야 [예] 자네 손님들한테 그렇게 무뚝뚝허게 대허는게 아녀.
- 아뉴** [표] 아니오 [예] 내가 나이 어리다구 그렇게 함부루 말썽허시는 것두 아뉴.
- 아니니께** [표] 아니니까 [예] 니가 들은 말은 사실이 아니니께 쓸디없이 오해허

지 말어.

아닌말루 [표] 아니할말로 [예] 아닌말루 나는 참 불효막심헌 늬이여.

아닝께 [표] 아니까 [예] 그 일은 내가 잘 아닝께 더 이상 두말 허지 말게.

아들내미 [표] 아들 [예] 저집 아들내미는 나이가 벌써 사십줄인디 아직두 결혼
소식이 읍네.

아래께 [표] 접대 [예] 너는 용돈을 아래께 줬네티 벌써 다썼다구?

아랫두리 [표] 아랫도리 [예] 우리애기 아랫두리가 축축헌거 보니께 오줌을
쌌구먼.

아랫먹 [표] 아랫목 [예] 할멈, 여기 뜨뜻헌 아랫먹으로 내려와서 앉어.

아리까리허다 [예] 아리송하다 [예] 저 남자 낫면은 있는디 오디서 봤나 아리까
리허구먼

아마두 [표] 아마도 [예] 아마두 그 과수덕 바람났다는 소문이 맞을지두 몰리.

아베 [표] 아버지 [예] 저 집 아들덜은 직 아베를 하늘처럼 받든다.

아사리판 [표] ? [예]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꼴이 원통 아사리판이라니께.

아삼육 [표] 단짜 [예] 철수와 배준이는 아삼육이라는 소문이 났어.

아시 [표] 애벌 [예] 우리 모심은 논이 아시매기를 헐 때가 된 거 같은디.

아수 [표] 아우 [예] 저 집은 한 살 먹은 손자가 또 아수를 봤다.

아수타다 [표] 아우타다 [예] 우리 손자가 연년생 동생을 보더니 아수타느라구
어리광이 더 심해졌어.

아이구 [표] 아이고 [예] 아이구, 이사람아, 이게 올마만인가?

아직 [표] 아직 [예] 아침 일찍 도착헌다더니 아직까정 소식이 읍네

아즈매 [표] 아주머니 [예] 저 윗동네 혼저 사는 아즈매는 동네 간접 다허구 땡
긴다구 소문났다.

아퍼허다 [표] 아파하다 [예] 이번 시험을 망쳤다구 너무 마음 아퍼허지 말어.

아푸다 [표] 아프다 [예] 오늘 아침버팀 머리가 아푸더니 저녁때는 참을 수가
없었슈.

악마구리 [표] 악머구리 [예] 오늘 공연장은 모여든 사람들이 악마구리처럼 떠



들어서 정신 읊었어.

안두란 [표] 안뜰 [예] 우리집 안뜰란 장팡 옆으루 감나무 한그루가 서있어.

안안팍 [표] 안팍 [예] 저집은 안안팍이 알뜰해서 재산을 많이 불렸어.

안지다 [표] 았다 [표] 그렇게 빨쭈머게 서있지만 말구 일루 와서 편히 았게.

안짜 [표] 안쪽 [표] 이걸 창고 안짜이다가 잘 놔두구 와라.

알간 [표] 아느냐 [표] 우리 남편 때미 속썩어서 문드러진 내 맘을 누가 알간?

알간디 [표] 아느냐 [해] 알간 참고

알깁쟁이 [표] 알깁쟁이 [예] 저 가겟집 여주인은 알깁쟁이라 장사두 야물딱지 게 잘현다.

알딸딸허다 [표] 알딸딸하다 [예] 어제 모처럼 술을 뗏잔 마셨더니 정신이 알딸 딸허더먼.

알맹이 [표] 알맹이 [해] 오늘 행사는 걸만 뺌지르르 했지 알맹이는 별루 읊었어.

알몸뎡이 [표] 알몸뎡이 [해] 나는 가진 것이 알몸뎡이 뺨이는 읊는 사람이라네.

알어보다 [표] 알아보다 [해] 나는 고향친구를 오랜 만이 만났어두 금방 알어볼 수 있었어.

암:껏 [표] 아무것 [해] 우리 엄마는 암:껏두 읊는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구먼.

암:디 [표] 아무데 [해] 오늘은 암:디라두 무조건 여행을 떠나구 싶구먼.

암마: [표] 안마: [예] 오늘 어깨가 아파서 암마:를 받았더니 움직이기가 행결 부드럽네.

암시렁참다 [표] 아무렇지 않다 [예] 나는 자식 잃는 아픔을 겪었어두 암시렁참 으니께 걱정말어.

암:제 [표] 아무때 [예] 니가 필요허면 암:제라두 와서 얘기 허여.

암체면 [표] 아무려면 [예] 내가 암체면 네 돈을 떼먹구 도망가졌느냐?

암치게나 [표] 아무렇게나 [예] 옷을 여기저기 암치게나 벗어놓구서 입을 때는 찾느라구 난리여.

암:튼지 [표] 아무튼지 [예] 암:튼지 오늘은 니가 잘못했으니께 그런줄 알어.

앗쌀허다 [표] 확실하다 [예] 저 사람은 승격이 앗쌀허구 맬구 끝는게 확실해서 좋아.

양통허다 [표] 애통하다 [예]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맴이 올마나 양통혈까?

앞스다 [표] 앞서다 [예] 우리 팀은 전반전을 앞스다가 후반전에서 역전패했어.

앞세다 [표] 앞세우다 [예] 저 사람은 말만 앞세우니께 그런줄 알구 상대허게.

앞잡이 [표] 앞잡이 [예] 저사람 할아버지는 왜정 때 일제의 앞잡이었다는구먼.

앞지락 [표] 오지랍 [예] 남 일에 앞지락 넓게 여기저기 끼어들지 말어.

앞질 [표] 앞길 [예]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으니, 네 앞질이 훤히 내다 보이는구먼.

애기 [표] 아기 [예] 우리 애기 눈이 별처럼 초롱초롱 허구먼.

애끼다 [표] 아끼다 [예] 우리 부모님은 젊을 때버텼 물 한방울두 애끼는게 습관이 배었어.

애김없이 [표] 아낌없이 [예] 두 선수는 링 위에서 모든 힘을 애김없이 쏟아부었어.

애리다 [표] 아리다 [예] 그녀한테 실연당한 생각을 허면 지금도 가슴이 애리지.

애멕이다 [표] 애먹이다 [예] 그사람 꺾간 돈을 빨리 안갠구 몇 년째 나를 애멕이구 있네.

애생이 [표] 애승이 [예] 저 애생이가 너한테 댜버서 본전이나 찾을라나 물르겼구먼.

애비 [표] 아비 [예] 애야, 너는 배깁이 나가서 애비웁는 호로자식 소리 안듣게 츠신을 잘혀.

애시당초 [표] 애당초 [예] 애야,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은 애시당초버텼 꺾들 생각을 말어.

애저녁 [표] 초저녁 [예] 저 사람 허는 꼴이 애저녁부터 틀려먹었구먼.

애처럽다 [표] 애처롭다 [예] 어려서 부모잃구 떠돌어댁기는 어린것들을 애처러워서 못보겼구먼.

애:편 [표] 아:편 [예] 젊은시절 멋물르구 애:편이 손땀다가 신세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녀.

앵:경 [표] 안:경 [예] 나는 앵:경이 읊으면 글자를 한 자두 읽을 수가 읊어.

앵기다 [표] 안기다 [예] 금방 태어난 애기가 엄마 품속에 앵겨서 앙앙 울구 있네.

야물딱지다 [표] 야무지다 [예] 이번이 들어온 신입사원을 보니께 일처리가 아주 야물딱지더구먼.

야:중이 [표] 나:중에 [예] 식대는 우선 외상으로 먹구 야:중이 계산허세.

야짓잡다 [표] 야젓잡다 [예] 나는 그 친구 허는짓이 야짓잡어서 상대하기가 싫구먼.

야코 [표] 콧대를 속되게 이르는 말 [예] 내가 언젠가 저 사람 야코를 한번 꺾어 놓을 때가 있을겨.

야:매 [표] 뒷거래 [표] 물건값이 싸다구 야:매루 사왔다가 제대루 써보지두 못허구 버렸다니께.

야:허다 [표] 야:하다 [표] 너는 무슨 옷을 그렇게 야:허게 입구 나가는 거냐?

약빙아리 [표] 약병아리 [표] 아버지는 약빙아리를 여러마리 사서 닭장이다가 느꼈어.

약삭빨르다 [표] 약삭빠르다 [예] 저친구 약삭빨르기가 새양쥐 같은 사람이여.

약어빠지다 [표] 약아빠지다 [표] 저사람은 허는짓마두 너무 약어 빠져서 친구들이 싫어 허여.

약오르다₁ [표] 약오르다 [예] 애덜이 오징어루 강아지를 약올리다가 장판지를 물렸어.

약오르다₂ [표] 약오르다 [예] 가을이 깊어지니께 고추가 약이 올라서 무척 맵구먼.

약장사 [표] 약장수 [예] 저사람 말이 하두 많어서 별명이 약장사랴.

약허다 [표] 약하다 [예] 나는 몸이 약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운동을 열심히 허구 있어.

알잘읏다 [표] 절대없다 [예] 너 오늘은 한번 봐준다마는, 다음부터는 알잘읏는 줄 알어.

암잔허다 [표] 암전하다 [예] 오늘 새루 들어온 직원은 암잔허구 쓸만한 사람

갈구먼.

얌체 [표] 얌치 [예] 나는 저렇게 얌체웁는 사람은 춤 본다니께.

양발 [표] 양말 [예] 나는 발가락이 유별나서 양발만 신으면 금방 구멍이 난다니께.

양식 [표] 양식 [예] 요새두 양식이 떨어져서 굶는집이 있다는구먼.

양중이 [표] 나중에 [예] 양중이 보자는 사람 치구 별거 아니더라구.

양짱 [표] 양쪽 [예] 누털 서루 잘현 거 읊이 양짱이 모두 똑같이 잘못이구먼.

애덜 [표] 애들 [예] 애덜이 전부 오디를 가서 여태까지 안들어오는겨?

어거지 [표] 억지 [예] 저 친구 어거지는 어느 누구두 당할 사람이 읊다니께.

어긋장 [표] 어긋장 [예] 그는 회의 때마두 어긋장을 놔서 상대하기 힘들어.

어기똥허다 [표] 차이나다 [예] 저 사람 키는 또래버덤두 어기똥허게 크네.

어덕쟁이 [표] 언덕 [예] 저 산 어덕쟁이에 우리집안 조상 묘가 있어.

어른내 [표] 어린애 [예] 애야, 어른내가 젓달라구 양양 우는거 같어.

어리비리허다 [표] 어리바리하다 [예] 그사람 가끔씩 어리비리힐 때가 있더구먼.

어린냥 [표] 어리광 [예] 네 나이가 똬살인디 아직까장 어린냥을 헌단 말여?

어린빔 [표] 얼레빔 [예] 머리 서캐는 어린빔으루는 쓸어낼 수가 읊어.

어림웁다 [표] 어림없다 [예] 그따위 실력으루 우승을 허졌다는 건 어림웁는 일이여.

어물쟁 [표] 어물쩍 [예] 너 오늘 일을 어물쟁 넘어갈 생각일랑 아예 말어.

어여 [표] 어서 [예] 화장실 갈라먼 기차시간 늦기 전이 어여 땡겨 와.

어중떠다 [표] 어중간하다 [예] 지금 시간이 저녁을 먹으러 가기가 어중떠구먼.

어질르다 [표] 어지르다 [예] 아이구, 여기저기 어질르지만 말구 청소 점 허여.

어푸러지다 [표] 엎어지다 [예] 우리집이서 핵교까지는 어푸러지면 코당을 거리어.

언내 [표] 어린애 [예] 엄마 빨래하구 올테니께 언내 올리지 말구 잘 보구 있야 헌다.

언챙이 [표] 언챙이 [예] 코가 안찢어졌으면 누가 언챙이라고 허졌네?

언태 [표] 아직 [예] 너는 언태 집이두 안가구 뭇허구 있는겨?

언치다 [표] चे하다 [예] 저녁을 급하게 먹었더니 속이서 언친거 같구먼.

언능 [표] 얼른 [예] 오늘 일을 언능 끝내구 일찍 집으루 가자구.

언지다 [표] 었다 [예] 선반위루 무거운 물건을 자꾸 언지면 매단 줄이 버틸까
몰르겠네.

얼때기 [표] 얼뜨기 [예] 이사람아, 그렇게 얼때기처럼 서있지만 말구 정신
점 채려.

얼라 [표] 아 [해] 기쁘거나, 칭찬할 때 내는 감탄사 [예] 얼라! 저사람이 웬일루
이렇게 빨리왔다?

얼릉 [표] 얼른 [예] 언능 참고

얼메다 [표] 짓궂다 [예] 저사람 예나 지금이나 얼멘 짓 허는거는 똑같구먼.

얼맹이 [표] 어레미 [예] 옛날이 냇가루 송사리를 잡으러 갈라면 얼맹이를 갖
구 갔어.

얼음백이다 [표] 동상걸리다 [예] 나는 한겨울만 되면 손구락마두 얼음백이는게
연중행사라니께.

얼음강 [표] 얼은강 [예] 옛날 시골동네서 한겨울 동안 넓은 논이다가 물을 가
득 담어 놓구서 쾡쾡 얼리면 훌륭한 놀이터로 변했어. 이 얼음 놀이터를
얼음강이라구 불렀어.

얼추 [표] 거의 [예] 이제 일이 얼추 끝나가니께 걱정하지 말어.

엄니 [표] 어머니 [예] 우리 엄니가 해주시는 반찬은 참으로 맛있어.

영간이 [표] 어지간히 [예] 저놈 어릴 때 나한테 영간이 까불어대더 아주 으젓
해졌네.

영글다 [표] 성글다 [예] 돛자리를 그렇게 영글게 짜면 누가 사가겠네?

영아 [표] 형 [예] 영아는 핵교갈 때마두 나를 떼 놓구 먼저 달려갔어.

영설 [표] 언저리 [예] 옛날 회관이 있는 영설루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었다구
허던디.

에기다 [표] 우기다 [예] 너두 그만 점 에기구 내말 점 들어봐라.

앵기다 [예] 저 물건 좀 한쪽으로 한갓지게 앵기면 좋겠구먼.

- 앵기다₂** [표] 엉겨붙다 [예] 도토리묵을 쏘 때는 잘 젖어주야 앵기지 않는거여.
- 에리** [표] 옷깃 [예] 옷을 입을 때는 에리가 단정해야 되여.
- 에미** [표] 어미 [예] 이 에미가 진정으루 너한테 사정허넌디, 지발 정신 점 차려 구 살거라.
- 에상** [표] 외상 [예] 에상이면 소두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어.
- 에지간히** [표] 어지간히 [예] 애야, 에지간히 점 먹어라. 배 터지겠다.
- 에말무지** [표] 어림짐작 [예] 올해 수확량을 에말무지루 계산해봐두 작년버텀은 많을 것 같네.
- 에톨이** [표] 외톨이 [예] 너무 똑똑헌체 허다가는 에톨이 신세가 되여.
- 엮히다** [표] 엮히다 [예] 애기가 내 등에 엮혀서 새록새록 잠이 들었네.
- 엥간허다** [표] 엥간하다 [예] 내가 엥간허면 참을라구 했더니 도저히 안되겠네.
- 여게** [표] 여보게 [예] 여게, 오늘은 집으루 일찍 들어가세.
- 여니** [표] 여느 [해] 보통 [예] 청양고추가 여니고추버텀두 훨씬 칼칼허구 매웁구먼.
- 여니날** [표] 여느날 [예] 오늘은 여니날버텀두 날씨가 청명허구 가을날씨 답구먼.
- 여물통** [표] 구유 [예] 애야, 오양간 여물통이다가 사료 점 더 갖다주구 와라.
- 여북허다** [표] 오죽하다 [예] 저사람이 여북허면 남편허구 떨어져 살겠다구 선언을 했겠네?
- 여우다₁** [표] 여의다 [예] 우리친구가 올마 전이 아버지를 여웠어.
- 여우다₂** [표] 여의다 [예] 우리 엄마는 큰누나만 여우구 나면 소원이 읊다구 입 버릇처럼 말씀허셨어.
- 여우살이** [표] 결혼생활 [예] 부모님들은 나이 먹은 자식들 여우살이 시키는 것 두 큰 걱정이여.
- 여적지** [표] 여태껏 [예] 개는 아침이 나가서 여적지 안들어오네
- 역부러** [표] 일부러 [예] 너 지금 일 허기 싫어서 역부러 몸을 피헌 지지?
- 연목가래** [표] 서까래 [예] 기와집의 멧은 연목가래가 제격이여.
- 연자새** [표] 열레 [예] 이번 연싸움이는 그 목수가 만들어 준 연자새를 써보 야졌어.

연태까장 [표] 아직까지 [예] 나는 연태까장 세상을 헛살은 것 같구먼.

염생이 [표] 염소 [예] 너는 염생이처럼 웬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네?

염장지르다 [표] 화를 돋우다 [예] 너는 왜 자꾸만 옆에서 염장 지르는 소리만 허구 그러?

염체웁다 [표] 염치없다 [예] 나는 그사람 보기가 염체웁어서 더 이상은 부탁을 못혀졌어.

옛질금 [표] 옛기름 [예] 감주를 색힐 때는 옛질금이 적당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여.

예서제서 [표] 여기저기에서 [예] 저 집 아들은 기술이 좋으니께 예서제서 서루 오라구 난리라너먼.

옛날이 [표] 옛날에 [예] 옛날이는 동네마두 애덜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넌디.

옆댕이 [표] 옆 [예] 우리동네 옆댕이루 쓰레기장이 들어온다구 동네가 발각 뒤 집혔어.

예겨보다 [표] 여겨보다 [예] 우리엄마는 내가 새기는 남자친구를 항시 예겨보구 있다.

예기다 [표] 여기다 [예] 그때 자네가 나한테 잘해준 일을 항시 잊지않구 고맙게 예기구 있다네.

예펜네 [표] 여펜네 [예] 노름속이 빠지면 예펜네두 팔어 먹는다는 속담이 있어.

염병 [표] 염병 [예] 옛날옛적 염병 걸린 사람은 십중팔구 죽는 수백이는 읊었다.

오강 [표] 요강 [예] 우리집은 할머니가 쓰던 낫오강이 다락 속이 그냥 놓여있어.

오곰탱이 [표] 오곰 [예] 핵교서 무릎꿇구 벌을 섰더니 오곰탱이가 저려서 한참 동안 못 일어났어.

오곰다리 [표] 오곰 [예] 오곰탱이 참고

오대 [표] 오디 [예] 올이는 뒷산 뽕나무마두 오대가 풍년이여.

오도방정 [표] 오두방정 [예] 너는 무슨 큰 일이 생겼다구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구 난리여?

오디께 [표] 어디쯤 [예] 아침 일찍 장사 나간 우리 엄마는 오디께 쯤 오고 있

을라나?

오따가 [표] 어디에다가 [예] 너 지금 오따가 눈을 부릅뜨구 대드는 거여?

오떻게 [표] 어떻게 [예] 오빠가 사고를 치구서 경찰서루 불러갔다넌디 오떻게 현대유?

오떠 [표] 어때 [예] 오늘 내가 입은 옷이 오떠?

오라간만이 [표] 오래간만에 [예] 오늘은 오라간만이 친구들허구 술을 한잔 마셨어.

오래비 [표] 오라비 [예] 저 사람은 옷을 멋지게 입구 멩겨서 기생오래비라는 별명이 붙었어.

오메 [표] 어머니 [예] 얘야, 너는 오메 잘 만나서 고생 안허구 크는 중만 알어.

오삼춘 [표] 외삼춘 [예] 우리 오삼춘이 취직시험 붙었다고 전화가 왔어.

오양간 [표] 외양간 [예] 오양간이 질척거리니께 북데기 점 더 갖다가 깔어줘라.

오여손 [표] 왼손 [예] 저놈은 누굴 닮아서 오여손 잡이랴?

오:이가 [표] 외가 [예] 너는 오:이가를 갈 때마두 오:이할머니가 기셔서 좋겠네.

오:이할머니 [표] 외할머니 [예] 우리 오:이할머니는 나만 보면 입이 함지박만 허게 벌어지셔.

오재미 [표] 오자미 [예] 옛날 운동회는 오재미루 바꾸니 터뜨리기가 참 재미 있었어.

오지다₁ [표] 옹골지다, 움팡지다 [예] 저 애는 생김새허구 다르게 속이 오지구먼.

오지다₂ [표] 옹골지다, 고소하다 [예] 그놈 어깨에 힘깨나 주더니 쫓딱 망했다 니께 오지구먼.

오째서 [표] 어째서 [예] 너는 오째서 나만 보면 눈이다가 쌍심지를 키구 시비를 거네?

오쩌다가 [표] 어쩌다가 [예] 내 신세가 오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한심허기만 허네.

오치게 [표] 어떻게 [예] 이렇게 발이 푹푹 빠지는 눈속을 헤치구 오치게 먼길 까지 찾아 왔다?

옥수깡이 [표] 옥수수 [예] 우리엄마가 따온 옥수깡이가 광우리에 가득 담겨있어.

온디간디웁다 [표] 온데간데없다 [예] 아침까지만해도 집안에서 잘 놀던 강아지가 온디간디 웁네.

온제 [표] 언제 [예] 지금 가면 온제나 또 올 수 있는 거냐?

올개미 [표] 올라가미 [예] 뒷산이는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개미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땡겨.

올갱이 [표] 다슬기 [예] 우리동네는 청정지역이라서 냇같이 올갱이들이 많이 살어.

올러가다 [표] 올라가다 [예] 열심히 공부했더니 시험성적이 아주 많이 올러갔구먼.

올마나 [표] 얼마나 [예] 여기서 올마나 더 가야 목적지가 나온다?

올마여? [표] 얼마야? [예] 자네 아들이 땡기는 학교 수업료는 올마여?

올마만여? [표] 얼마만이야? [예] 아이구, 친구야! 이게 올마만여?

올바루 [표] 올바로 [예] 니가 정신이 올바루 백힌 놈이라면 그런짓은 허면 안되는 거여.

옴마 [표] 엄마 [예] 우리옴마는 젊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허리가 몹시 굽었어.

옴씩달씩 [표] 움썩달썩 [예] 오늘은 몸살감기루 옴썩달썩 못허구 하루정일 누워만 있었어.

옣빠시 [표] 땅벌 [예] 저놈들은 옣빠시처럼 떼로 달려든다니께.

옣짓 [표] 옷짓 [예] 젓상 앞에서는 옣짓을 여미고 정숙해야 되는 거여.

옹배기 [표] 옹기 [예] 옛날 우리동네는 옹배기를 굽는 가마터가 많았다고 허대.

옹쳐매다 [표] 동여매다 [예] 신발 끈을 너무 꼭 옹쳐 매서 끈을 수가 얹구먼.

와룽개 [표] 탈곡기 [예] 와룽개루 베바심을 헐 때 와룽와룽 기계 들어가는 소리가 듣기 좋았지.

와이루 [표] 와이로(蛙利鷲) [해] 뇌물의 뜻 [예] 요즘은 세상이 맑어져서 와이루를 잘못 쓰면 패가망신한다네.

*와이로의 유래 : 옛날 꾀꼬리와 까마귀가 노래시합을 했다. 노래를 잘하는 꾀꼬리가 승리를 장담했지만, 심판인 백로는 노래를 못하는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다. 백로는 까마귀가 잡아다 준 개구리를 얻어먹고 뒤를 돌
봐준 것이다. ‘개구리 와(蛙)’, ‘이로울 이(利)’, ‘백로 로(鷺)’. 불법으로 뇌
물을 갓다 바친 자에게만 기회를 주어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라를 비유(比
喩)해서 생겨난 말이다.

왁새 [표] 억새 [예] 가을 오서산은 왁새가 멋지구 서해바다두 발 아래루 내려
다 봐여.

왕탱이 [표] 말벌 [예] 산소 벌초허다가 왕탱이한테 썩먼 생명이 위험허다구.

왕겨 [해] 왕겨 [예] 왕겨불은 그냥 놔두야지 자꾸 근대리면 불이 안피어난다구.

왕잇대 [해] 가늘고 기다란 대 [예] 왕이낫을 왕잇대 끝이다가 단단히 묶어 매
야 일허기 좋아.

왕이낫 [해] 왕잇대 끝에 묶어 맨 무쇠낫 [예] 높은 나무에 매달린 죽은가지를
잘르는 디는 왕이낫이 최고여.

외려 [표] 오히려 [예] 방구 낀 늪이 외려 큰소리 친다는 속담두 있어.

원:갓 [표] 온갓 [예] 그 젊은이 얘기가 원:갓 소문으루 세상을 떠들썩허게 허
구 있네.

원:종일 [표] 온종일 [예] 너는 새벽이 집나가더니 원:종일 뭍허다가 들어오
는 거여?

원:칭일 [표] 온종일 [예] 원:종일 참고

원:통 [표] 온:통 [예] 한동안 집을 비웠더니 마당이 원:통 풀밭으루 변했구먼.

요맨치 [표] 요만치 [예] 당신은 평소에 내 생각을 요맨치라두 허는 사람인가유?

요맨큼 [표] 요만큼 [예]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 허는 바람이 일을 요맨큼뻑이 못
했다네.

요사바사허다 [표] 오사바사하다 [예] 저사람은 요기조기 땡기멘서 요사바사 허
는 승격이 아녀.

욕심꾸레기 [표] 욕심꾸러기 [예] 우리 손주는 어린놈이 벌써부터 여간 욕심꾸
레기가 아녀.

요짹 [표] 요쪽 [예] 그 짹은 킴킴허니께 요짹으루 모여앉지 그려.

용구새 [표] 용마름 [예] 빈집 초가지붕이다가 얹어놓은 용구새가 서서히 썩어
가고 있네.

용천배기 [표] 문둥이 [예] 우리 어릴적이 용천배기가 동냥을 오면 무서워서 도
망가기 바빴어.

우덜 [표] 우리들 [예] 지금 우덜보구 그 일을 허란 말여?

우두거니 [표] 우두커니 [예] 여보게, 자네는 왜 그렇게 우두거니 서있기만
허는겨?

우렁 [표] 우렁이 [예] 새콤달콤한 우렁 무침은 술 안주루는 그만이여.

우사리 [표] 우수리 [예] 우사리 돈이라구 하시보지 말구 잘 챙겨서 받아오
야 허네.

우:섭다 [표] 우:습다 [예] 그 코미디언 옷차림이 참말루 우:섭구먼유.

우:이 [표] 위(上) [예] 우:이 물이 맑어야 아랫물도 맑어지는 뱀이여.

웁싹거리다 [표] 옥싹거리다 [예] 어제 빼끗헌 다리목이 웁싹거려서 밤새 잠을
설쳤다니께.

울간 [표] 우렁간 [예] 돼지울간 지붕 위루 조롱박이 주렁주렁 매달렸네.

웁말 [표] 윗마을 [예] 우리동네 웁말은 나이가 500년두 더 넘었다는 은행나무
가 있어.

웁먹 [표] 윗목 [예] 나무를 선창게 뺏더니 웁먹은 미적지근두 앓구먼.

웁묵허다 [표] 우묵하다 [예] 집앞으루 차가 많이 땡겨서 길 가운데가 웁묵허게
땡겼어.

웁방 [표] 윗방 [예] 우리집 웁방 한쪽엔 고구마 통가리가 차지허구 있다.

웁적거리다 [표] 움직거리다 [예] 애야, 이발할 때 머리를 자꾸 웁적거리면 위
험하니께 조심혀.

웁덩이 [표] 웁덩이 [예] 물웁덩이 물이 썩어서 장구벌레만 바글바글허네.

웁큼 [표] 움큼 [예] 한나절 내내 줏은 벤니삭이 한웁큼뺨이 안되네.

웁:다 [표] 없:다 [예] 오늘은 아침버텨م 기차를 놓치구 참말루 재수가 웁:는 날
이구먼.

웁어지다 [표] 없어지다 [예] 아침까지 집앞에서 놀던 강아지가 감쪽같이 웁어졌네.

웁에다 [표] 없애다 [예] 남녀 차별 허는 나쁜 관습은 빨리 웁에는 게 좋은 일이어.

위디서 [표] 어디서 [예] 당신은 지금 위디서 오는 길유?

위떻게 [표] 어떻게 [예] 나보구 지금 위떻게 허란 말여?

위떠 [표] 어때 [예] 오늘 내가 입은 옷맵시가 위떠?

위서 [표] 어디서 [예] 위디서 참고

위째서 [표] 어째서 [예] 너는 위째서 눈만 뜨면 돈을 달라구 그레쌌느냐?

위편지 [표] 어쩐지 [예] 저사람 말투가 오늘 따라서 위편지 부드럽다구 생각했지.

위치게 [표] 어떻게 [예] 너 오늘 갔던 일은 위치게 해결허구 왔네?

위편다? [표] 어떻게하나? [예] 젊은 사람이 벌써 죽었으니 남은 처자식들은 위편다?

원생이 [표] 원숭이 [예] 원생이두 나무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께 매사를 조심조심 헤라.

원적 [표] 소풍 [예] 옛날 으른들은 소풍가는 것을 원적 간다구 했어.

원:제 [표] 언:제 [예] 나는 원:제나 친정이 한번 땡겨올 수 있으려나 물르겠네.

원체 [표] 워낙 [예] 저사람은 원체 고지식해서 그 말이 통혈지 물르겠구먼유.

월마나 [표] 얼마나 [예] 올해 농사가 풍년이라니께 월마나 기분이 좋은지 물르겠구먼.

월만큼 [표] 얼마만큼 [예] 우리는 슬금슬금 걸어가다가 공동묘지를 월만큼 냉겨두구서 죽어라구 뛰어갔어.

웬:수 [표] 원:수 [예]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 뽕편이 아니라 웬:수라구 꾸념을 허셨지.

윗두리 [표] 윗도리 [예] 어제 입었던 위두리버텀두 오늘 입은 것이 행걸 이뻐 보이네.

육간 [표] 정육점 [예] 우리 옆집이 육간을 허는디, 주인아저씨가 인심이 좋아서 손님들이 많어.

- 육모초** [표] 익모초 [예] 여름이 더위 먹었을 땐 육모초즙을 마셔야 좋다.
- 육시럴** [표] 육시랄 [예] 세상이 저런 육시럴 놈이 있나? 제 부모한테 행패를 부리구 지랄이네.
- 울멕이** [표] 화사 [예] 발뚧 풀을 깎는디 울멕이가 지나가는 걸 보구서 기절하느줄 알었다니께.
- 으둔허다** [표] 어둔하다 [예]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 으둔현줄 알구 약올렸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이 많어.
- 으:른** [표] 어:른 [예] 야, 이눔아! 어디 으:른 앞이서 담배를 피우구 그려?
- 으봏오메** [표] 의붓어머니 [예] 그녀는 참 복받을 사람여. 으봏오메 표두 안내구 전실자식을 친자식 이상으루 잘 키웠어.
- 으봏애비** [표] 의붓아버지 [예] 그 사람 으봏애비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서 칭찬이 자자허다네.
- 으쟁이뜨쟁이** [표] 어중이떠중이 [예] 우리동네 잔칫집으루 으쟁이뜨쟁이 모두 모이구 있구먼.
- 으젓잘다** [표] 의젓잘다 [예] 저 사람은 나이값두 못허구 으젓잘은 짓만 허구 땡긴다니께.
- 으젓허다** [표] 의젓하다 [예] 저 집 손자는 나이가 어려두 여간 으젓현 게 아녀.
- 으시대다** [표] 으스대다 [예] 저사람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다구 으시대는 꼴 좀 보라지.
- 으시시** [표] 으스스 [예] 산모텔이 생여집 앞을 지날 때마두 으시시 해서 걸음이 빨려져.
- 으시러지다** [표] 으스러지다 [예] 젊은 연인들이 으시러지게 껴안구서 떨어질 줄을 모르는구먼.
- 으실으실** [표] 으슬으슬 [예] 내가 으실으실 추은게 감기몸살에 걸린거 같구먼.
- 은:제** [표] 언:제 [예] 지금 헤어지면 은: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나?
- 은:다** [표] 언:다 [예] 저사람 느지막히게 은:은 아들 장가보낸다구 싱글벙글허구 땡겨.

은:어맞다 [표] 얻어맞다 [예] 때리는 사람버덤두 은:어맞는 사람이 맘 편허다 구 허대.

음:석 [예] 음식 [예] 으른들 말쑤이 먹는 음;석을 냉기구 버리면 죄루 간다 구 했어.

옴다 [표] 없다 [예] 오늘 온쟁일 밥을 굶었더니 힘이 하나도 옴네.

응:댕이 [표] 엉덩이 [예] 응댕이를 썰룩거리구 건지말어. 사람이 방정맞게 보 이니께.

응치 [표] 엉덩이 [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응치뺨가 자주 아프고 건기가 힘들구먼.

응큼하다 [표] 엉큼하다 [예] 저사람은 응큼해서 속을 알 수가 옴어.

의나다 [해] 의가 벌어지다 [예] 저집 형제들은 부모님 유산 다툼 허다가 의나서 왕래두 안허는 눈치여.

의뎡스럽다 [표] 엉큼하다 [예] 재는 어린애가 으른들 뺨치게 의뎡스러워.

이거뺨이 [표] 이거밖에 [예] 오늘은 물건이 이거뺨이는 안남었네.

이걸루 [표] 이것으로 [예] 오늘은 이걸루 저녁 반찬 점 망글어 볼터?

이눔 [표] 이것 [예] 이눔이 훨씬 실패 보이네유. 이눔으루 가져갈게유.

~이 [표] ~에 [예] 옛날이 우리동네는 사람덜이 굶기를 밥먹듯 했어두 이웃버텀 챙겼어.

~이는 [표] ~에는 [예] 옛날 애기책이는 호랭이가 담배 먹던 시절두 있었다 구 허대.

~이루 [표] ~으로 [예] 누털은 부모님 사랑 덕분이루 훌륭허게 클 수 있었다구 생각혀.

이더러 [표] 이쪽돌아 [해] 가까운 거리를 가리킬 때 사용함 [예] 이더러 발이 가서 상추 점 뜯어오져라.

이물옴다 [표] 허물옴다 [예] 우리 둘은 서루가 이물옴이 지내는 사이여.

이빠리다 [예] 잊어버리다 [예] 너는 덜렁거리는 버릇때미 톡허면 물건을 이빠리구 땡기는 거라구.

- 이쁘다** [표] 예쁘다 [예] 오늘 네 모습이 왜 그렇게 이쁘냐?
~이서 [표] ~에서 [예] 오늘은 মানুষ라가 잔소리를 안하는 걸 보니까 해가 서쪽
 이서 땀나?
이슬캥이 [표] 이슬비 [예] 그 사람은 이슬캥이 맞으먼서 워디를 그렇게 싸다난다?
이야말루 [표] 이야말로 [예] 이야말루 고래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꼴이구먼.
이우지 [표] 이웃 [예] 먼 사춘버덤두 가까운 이우지가 났다.
이으:수 [표] 여:우 [예] 저 여자 허는 짓이 이으:수란 말여.
이은:구 [표] 연:구 [예] 국가발전은 정책을 잘 세우는 이은:구가 필수여.
이은:설 [표] 연:설 [예] 오늘 국회의원 후보들 이은:설 장소를 땡겨왔구먼.
이음:보다 [표] 엿보다 [예] 누가 저녁마두 우리집을 이음:보는 사람이 있다
 구 허네.
이음:불 [표] 염:불 [예] 너는 지금 이음:불 버덤두 잣밥이 더 생각나는 모냥
 이구먼.
이음:허다 [표] 염:하다 [예] 유족들은 할머니 이음:허는 동안 울음을 참구
 있었어.
이응: [표] 영: [예] 그사람은 나한티서 이응: 마음이 떠난 거 같여.
이응:감 [표] 영:감 [예] 윗집 이응:감은 늙어서두 욕심이 그대루여.
이응:이응 [표] 영:영 [예] 우리 할머니는 이제 이응:이응 오지 못할 곳으루 떠
 나셨어.
이응:락웁다 [표] 영락없다 [예] 저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이응:락웁어.
이응:판 [표] 아주 [예] 저사람 허는말허구 허는 짓은 이응:판 다르다니께.
이전 [표] 예전 [예] 저사람 이전이는 동네서 알려주는 멋쟁이였어.
이 짹 [표] 이쪽 [예] 그 짹은 차겨우니께 이 짹으루 땡겨서 앉게.
이태 [표] 두해 [예] 우리 오빠는 군대 가서 이태만이 제대 했어.
인이 백이다 [표] 습관되다 [예] 어릴적부터 피운 담배가 인저는 인이 백여서
 끊을 수가 읍구먼.
인저 [표] 이제 [예] 나두 인저 늙어서 농사일을 그만둘 때가 된 것 같구먼.

~일껴 [표] ~일거야 [예] 그사람이 너한테 관심을 두는 거는 사랑일껴.

일:나다 [표] 일:나다 [예] 재들 저렇게 천방지축으루 몰려댕기다가 일:나게 생겼구먼.

일르다₁ [표] 이르다 [예] 우리는 아직 출발 시간이 일르니께 좀 더 쉬자구.

일르다₂ [표] 알아주다 [예] 그사람 효자라는 것은 동네에서 일른다.

일루 [표] 이리로 [예] 글루 가지말구 일루 가야 빨르다니께.

일쎬다 [표] 일으키다 [예] 태풍이 지나간 논덜마다 엮어진 벼들을 일쎬느라구 바쁘구먼.

임절미 [표] 인절미 [예] 우리손자는 콩코물 묻힌 임절미를 젤루 좋아 혀.

있슈 [표] 있어요 [예] 저 가게는 싸구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슈.

잊어먹다 [예] 잊다 [예] 내 정신 좀 보게나. 오늘 약속을 깜빡 잊어먹었네.

잊어뻘지다 [표] 잊어버리다 [예] 우리 어머니 정신이 이전 같지 않구 똬 자꾸만 잊어뻘지네.

앞새기 [표] 앞 [예] 올해 콩농사는 벌레가 앞새기를 모두 갉어먹어서 흉년이네.





- 자그매** [표] 어지간히 [예] 애야, 지금두 똥똥해서 걱정인디 자그매 점 먹어.
- 자마리** [표] 잠자리 [예] 고추자마리가 하늘이 가득한걸 보니까 벌써 가을인가베.
- 자봉침** [표] 재봉틀 [예] 그 전통시장 한복집은 지금두 삼대 째 사용허는 자봉침이 있어.
- 자빠지다** [표] 자빠지다 [예] 나는 덩병거리는 버릇때미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질 때가 많아.
- 자빠띠리다** [표] 자빠뜨리다 [예] 작달막 현 씨름 선수가 멋진 기술루 등치 큰 선수를 자빠띠렸어.
- 자수통** [표] 개수통 [예] 우리집은 할머니 때부터 쓰던 나무 자수통이 지금두 있어.
- 자숙** [표] 자식 [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읍다더니, 자숙 많은 우리집은 걱정이 떠날 새가 읍네.
- 자쌔다** [표] 자랑하다 [예] 저사람 재산 좀 있다구 자쌔는 건 봐주기 힘들구먼.
- 자리개질** [표] 패대기질 [예] 옛날 베바심 헐 때, 절구통이다가 베토매를 자리개질 허는 모습이 볼만 했어.
- 자지잘다₁** [표] 자디잘다 [예] 올해는 가물어서 감자 밑이 자지잘구먼.
- 자지잘다₂** [표] 자디잘다 [예] 저 사람 등치는 인왕산 호랭이만헌디 허는짓은 쯔생이마냥 자지잘다니께.
- 자징거** [표] 자전거 [예] 자징거를 배울 때는 균형잡기를 잘해야 허는 거여.
- 자치다** [표] 제치다 [예] 할머니가 아침마두 창문을 활짝 열어 자친다구 늦잠

자는 손주덜이 성화여.

작기장 [표] 잡기장 [예] 가게방 할머니 작기장은 동네사람 외상값이 빼곡허게 적혀있어.

작신 [표] 흙신 [예] 중학교 때 이웃마을루 참이서리 갔다가 붙잡혀서 작신 은어 맞은 적이 있다네.

작음마 [표] 작은엄마 [예] 우리 작음마 시집을 때 나는 코홀리개였어.

잔내비 [표] 잔나비 [예] 잔내비떠루 태어난 사람들은 남달르게 재주가 좋다는 말이 있어.

잔댕이 [표] 잔등이 [예] 저놈 어릴 때 우리 마누라 잔댕이서 컸어.

잔전 [표] 잔돈 [예] 잔전을 애끼구 모으다 보면 목돈이 되는 뱀여.

잔챙이 [표] 잔챙이 [예] 오늘 고기잡이는 잔챙이만 걸려서 별거 아니구먼.

잘람거리다 [표] 잘름거리다 [예] 술잔은 잘람거리게 가득 따려야 마시는 기분 이 나는거여.

잘못허다 [표] 잘못하다 [예] 니가 기죽어 있는걸 보니께 잘못헌거는 아는 모냥 이구먼.

잠뱅이 [표] 잠방이 [예] 오늘 모인 사람들이 배잠뱅이 방구 새듯 슬금슬금 모 두 빠져나갔네.

잠꾸레기 [표] 잠꾸러기 [예] 옛날부터 미인들은 잠꾸레기라는 말이 있어.

잠바 [표] 점퍼 [예] 우리 아들 작년이 사준 잠바가 죽어서 입을 수가 읍구먼.

잡어가다 [표] 잡아가다 [예] 옛날이 으른들은 애들이 울때마두 호랭이가 잡어 간다구 겁을 줬어.

잡어멕히다 [표] 잡아먹히다 [예] 지난밤 우리집 닭 한 마리가 쪽제비한테 잡어 멕혔어.

жат막대 [표] 대자 [예] 옛날 엄마들은 집이서 жат막대루 옷을 재단했어.

장:개들다 [표] 장:가들다 [해] 우리동네 노총각이 늦장개를 들더니 신희재미 에 폭 빠졌어.

장:꽝 [표] 장독대 [예] 울긋불긋헌 채송화 꽃이 장:꽝 돌틈으루 이쁘게두 피

있구먼.

장낭 [표] 장난 [예] 애들 불장냥이 큰 불로 번질 때가 많으니까 잘 챙기야지.

장뎡이 [표] 잔등이 [해] 우리 할머니는 해필 시집가던 날 장뎡이에 꼬무락지가 낫었다.

장돌배기 [표] 장돌뱅이 [해] 장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장터는 장돌배기들이 집을 정리허구 있네.

장:두리 [표] 장:도리 [해] 장:두리는 나무에 백힌 못을 뽑을 때 젤루 많이 쓰는 연장이어.

장:레쌀 [표] 장:리(長利)쌀 [해] 옛날 가을추수 끝나구 장:레쌀 줏구 나면, 겨울 날 일이 큰 걱정이었어.

장적데미 [표] 장작데미 [해] 나뭇간이다가 장적데미를 수북허게 쟁여놓으면 겨울날 걱정이 얹어.

재님 [표] 대님 [해] 남자 한복의 발목을 묶는 끈 [예] 한복을 입을 때는 재님 치는 법을 제대루 배우야 혀.

재떼미 [표] 잿데미 [예] 지난 봄 산불루 오래된 절간이 재떼미가 났어.

재별허다 [표] 자별하다 [예] 저사람들은 핏줄이 아닌디두 형제처럼 재별허게 지낸다네.

재양 [표] 재행 [예] 옛날 새신랑이 신부집으루 재양을 가면 동네청년들이 몰려와서 짓궂게 장난했어.

재:추 [표] 재:취 [예] 그 양반은 부인과 일찍 사별허구 재:추를 은었어.

잡히다 [표] 잡히다 [예] 오늘 저녁은 친구한테 잡혀서 꿈쩍 못허구 늦게까장술을 마셨어.

잿데미 [표] 잿데미 [예] 재떼미 참고

쟁기다 [표] 잠기다 [예] 장대비가 쏟아지더니 다리가 쟁겨서 냇물을 건널 수가 읍네.

쟁끼 [표] 장끼 [예] 우리집 뒷산이는 쟁끼허구 까투리 한쌍이 사이 좋게 살구 있어.

쟁변 [표] 장변(場邊) [해] 이자 [예] 아들 등록금으루 과부 쟁변이라두 은어야 혈 판이구먼.

쟁이다 [표] 쌓다 [예] 장작을 열심히 패더니 많이두 쟁여놔네.

쟁인₁ [표] 장인 [예] 널 모리가 쟁인 제삿날이라서 처가에 가야 되어.

쟁인₂ [표] 장인 [예] 우리 아저씨 짚신을 열심히 삼더니 짚풀공예 쟁인이 되셨다.

자우똥 [표] 가우똥 [예] 저사람 뭐가 못마땅 해서 고개만 자우똥거리구 있는겨?

저 [표] 겨 [예] 옛날 보릿고개 시절이는 저를 가지구두 개떡을 맹글어 먹었어.

저구리 [표] 저고리 [예] 저구리는 어깨가 좁으장헌 여자가 입으야 맵시가 나 는겨여.

저급때 [표] 저번때 [예] 이사람 저급때두 손을 벌리더니 오늘 또 손을 내미네.

저대루 [표] 저대로 [예] 아랫집 부부싸움이 심헌디 저대루 놔둬두 될라나?

저더러 [표] 저쪽돌아 [해] 약간 떨어진 거리를 가리킬 때 사용함 [예] 저더러 아 저씨네 집으루 심부름 점 갖다 오너라.

저드랑 [표] 겨드랑 [예] 전설 속이서 힘센 장사의 비밀은 저드랑 밑으루 달린 비늘 때문이라.

저러면 [표] 저러면 [예] 저친구들 생각두 얹이 자꾸면 저러면 안될텐디.

저려 [표] 저래 [예] 그사람 허는 짓은 늘 저려.

저를 [표] 겨를 [예] 오늘 하루쟁일 바빠서 물 한모금두 마실 저를이 읊었네.

저마두 [표] 저마다 [예] 저마두 잘났다구 떠들어대니께 배가 산으루 올라가지.

저만침 [표] 저만큼 [예] 코로나 19를 예방혈라면 저만침 떨어져서 앉아.

저범 [표] 젓가락 [예] 재는 다 큰 애가 아직까지두 저범질이 서툴르네.

저지난달 [표] 지지난달 [예] 그사람 저지난달이 빌려간 돈을 잊은 건 아니겠지.

저 짹 [표] 저쪽 [예] 나는 이짹을 살필 테니께, 너는 저짹을 잘 살피.

저쳐놓다 [표] 제쳐놓다 [예] 그사람 막내아들은 집안이서 저쳐놓은지 오래여.

적쇠 [표] 석쇠 [예] 삼겹살은 적쇠에 구워야 맛 좋게 제대루 익어.

전 [표] 부침개 [예] 오늘은 비두 오구 전이나 부쳐 먹자구.

전디다 [표] 견디다 [예] 저친구 풀죽을 먹으멘서두 병고를 전디구 살아난 사람여.

절판나다 [표] 결판나다 [예] 이번 태풍이루 애써 가꾼 복숭아가 모두 절판 났다는구먼.

절:루 [표] 저리로 [예] 엄마가 귀찮으니께 너 점 절:루 멀찌감치 떨어져서 앉어라.

절리다₁ [표] 결리다 [예] 힘들게 일했더니 담이 들었는지 옆구리가 절리네.

절리다₂ [해] 저리다 [해] 무릎꿇구 오래 앉어 있었더니 발등이 절리는구먼.

점 [표] 줌 [예] 애야, 그렇게 빈둥거리니만 말구 지발 공부 점 해라.

점니불 [표] 겹이불 [예] 옛날 엄동설한이는 옷방허구 사랑방은 점니불을 뒀구 갱실히 견뎠어.

점드락 [표] 저물도록 [예] 아침 일찍 장보러 간 사람이 점드락 안오니 별 걱정 이 다되네.

점상 [표] 겸상 [예] 오늘 아침은 모처럼 아들허구 점상을 허는구먼.

점것 [표] 겹것 [예] 엄동설한이는 배깁으루 나갈 때 점것을 입으야 들 춥다구.

점:때 [표] 저번에 [예] 너 점:때두 돈을 타가더니, 메칠이나 뒀다구 또 달라구 허네?

점점이 [표] 겹겹이 [예] 동학농민군들이 탐관오리 집을 점점이 둘러싸고 있었어.

점질르다 [표] 점질리다 [예] 자네 점:때 빼끗허구 점질른 다리가 아직두 아픈겨?

점치다 [표] 겹치다 [예] 우리동네는 이번 토요일날 혼인이 두집이나 점쳤어.

젓밥 [표] 결두리 [예] 한여름 들판이서 일허다가 먹는 젓밥은 꿀맛이여.

젓방살이 [표] 결방살이 [예]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허면서 우리집은 젓방살이를 시작했어.

젓어주다 [표] 젓다 [예] 목을 쏘 때는 고루고루 쉬지않구 잘 젓어주야 늘어불지 않는겨.

정갱이 [표] 정강이 [예] 오늘 누나는 정갱이가 툭 튀어나오는 짧은 바지를 입구 나갔어.

정그다 [표] 담그다 [예] 야채는 끓는 물이다가 오래 정그면 영양소가 파괴되여.

정내미 [표] 정나미 [예] 저 사람은 허는 짓마두 정내미가 툭툭 떨어진다니께.

정읽다 [표] 경읽다 [예] 너한테 귀가 닳게 정을 읽었는데두, 엄마 말을 벌써 잊어먹은 거여?

정치다 [표] 경치다 [예] 그사람 경찰 앞이서 그짓말 했다가 정치게 생겼어.

정황없다 [표] 경황없다 [예] 저 집은 요새 애기가 아파서 정황없을 겨.

젓탱이 [표] 젓무덤 [예] 옛날 엄마들은 아들 낳은 자랑으루 젓탱이를 내놓구 땡겼다는구먼.

제금나다 [표] 분가하다 [예] 우리 작은애를 인저는 제금 내줄 때가 된 것 같어.

제끼다₁ [표] 제치다 [예] 저 선수가 수비수 한두 명 제끼는 것이 식은 죽 먹기여.

제끼다₂ [표] 젓히다 [예] 아침마두 창문을 열어 제끼면 시원헌 공기가 확 밀려들어오지.

제:다 [표] 죄:다 [예] 한 명두 빠지지 말구 제:다 모이야 허네.

제대루 [표] 제대로 [예] 저사람 맨날 엉터리더니 오늘은 일을 제대루 했구먼.

제우 [표] 겨우 [예] 애기가 잠투정이 심허더니 제우 잠이 들었어.

제육 [표] 저육(豬肉) [예] 오늘 저녁 메뉴는 제육볶음이라구.

제제 [표] 계제(階梯) [예] 아야, 오늘 집이 온 제제에 맞슨 좀 보구 가거라.

쩍히다 [표] 적히다 [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이름이 장부에 모두 쩍혀있어.

쟁일 [표] 종일 [예] 오늘은 쟁일이라서 쟁일 잠만 잤더니 허리가 아프구먼.

저:뜯다 [표] 쥐어뜯다 [예] 재는 화가 날 땐 제 머리를 저:뜯구 몸부림 친다니께.

저:박다 [표] 쥐어박다 [예] 선생님은 애들 머리통을 한 대씩 저:박었어.

절 [표] 곁 [예] 저 사람 절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어.

절가지 [표] 곁가지 [예] 과일나무는 절가지를 잘 쳐줘야 튼실헌 열매가 맺히는 뱌여.

절눈질 [표] 곁눈질 [예] 우리 아버지는 평생동안 절눈질 한번 허지 았구 열심히 사셨어.

절방살이 [표] 곁방살이 [예] 우리는 절방살이 십년 만이 제우 내집을 매련했어.

조대루 [표] 저대로 [예] 우리 아들이 조대루만 잘 커주면 더는 바라는 게 았겼넌디.

조근조근 [표] 조곤조곤 [예] 우리 아내가 조근조근 따지구 들면 말문이 맥힌 다니께.

조:랭이 [표] 조리 [예] 요즘은 방아기계가 좋아져서 쌀을 딱으면서 조:랭이질을 안해두 되여.

줄 [표] 부추 [예] 줄은 고장마두 불르는 이름이 달버서 헛갈린다니께.

줄갱이 [표] 줄경 [예] 저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된통 줄갱이 치르구 왔어.

줄르다₁ [표] 조르다 [예] 아버지는 아침이 허리띠를 단단히 줄르구 길을 나섰어.

줄르다₂ [표] 조르다 [예] 내동생은 용돈을 더 달라구 하루정일 엄마를 줄렸어.

줄루 [표] 저리로 [예] 우리 집은 줄루 쪽 가면 첫 번째 골목에 있어.

줄읍식 [표] 졸업식 [예] 내일은 우리 귀여운 큰손녀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구먼.

좀체루 [표] 좀처럼 [예] 오늘 시험은 좀체루 승부가 결정되지 않는구먼.

좁박 [표] 쪽박 [예] 사람 속이 그렇게 좁박 같어서 오디다 쓴다나?

종다리 [표] 종달새 [예] 봄철 보리누름이 되니께 종다리 울음소리가 청아하게 들리너면.

종애글리다 [해] 약오르게 하다 [예] 어릴 때 애덜이 나보구 난쟁이라구 종애글려서 학교 가기 싫었지.

종재기 [표] 종지 [예] 진간장은 하얀 종재기에 담어야 맛있어 보여.

좋겠다 [표] 좋겠다 [예] 너는 취직시험이 합격해서 참말루 좋겠다.

징일 [표] 종일 [예] 오늘 징일 비가 와서 친구들허구 술타령만 했네.

주구장창 [표] 주야장천 [예] 우리 엄마는 주구장창 군대 간 아들 걱정뿐이라니께.

주덩이 [표] 주둥이 [예] 저 친구는 물에 빠져두 주덩이는 떠있을 사람이여.

주먼지 [표] 주머니 [예] 주운 알밤이 애덜 주먼지마두 가득허네.

주모스럽다 [해] 집안살림을 적절히 하다 [예] 저집 메뉴리는 살림을 아주 주모스럽게 잘 한다구 소문 났어.

주물르다 [표] 주무르다 [예] 생편 반죽은 잘 주물르야 쫄깃거리구 맛이 좋은져.

주언부언 [표] 증언부언 [예] 저사람 말은 주언부언 앞뒤 조리가 읍구먼.

주왕 [표] 조왕 [해] 부역을 맡은 신 [예] 옛날 우리 할머니는 눈뜨기 무섭게 샘물

을 길어다가 주왕이다가 바치곤 허셨어.

죽겠네 [표] 죽겠네 [예] 요새 하루두 못 쉬구 일만 했더니 삭신이 아퍼 죽겠네.

죽을심껏 [표] 죽을힘껏 [예] 오늘 죽을심껏 일헌 덕분에루 베바심을 잘 끝냈어.

줄거리 [표] 줄기 [예] 호박 줄거리는 끓는 물이다가 살짝 데쳐야 먹기가 좋은 거여.

줄깨미 [표] 줄까봐 [예] 저 강아지가 맥이를 또 줄깨미 계속 따라댕기네.

줄창 [표] 줄곧 [예] 저사람 아침버팀 저녁까지 줄창 술타령이네.

줏다 [표] 줍다 [예] 밤나무 밑에서 알밤을 줏다가 뱀이 지나가는 바람이 뒤루 나자빠졌어.

줏어담다 [표] 주워담다 [예]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좇어담을 수가 읍는 뱌여.

줏어먹다 [표] 주워먹다 [예] 닭들이 마당이다가 뿌려준 모시를 신나게 좇어먹구 있구먼.

중도막 [표] 중간도막 [예] 그 친구 고시공부 열심히 허더니 중도막이서 그만뒀다.

중핵교 [표] 중학교 [예] 우리집 앞으루 남자 중핵교가 들어온다구 허네.

죵이다 [표] 죽이다 [예] 부처님은 하찮은 생명이라두 함부루 죵이지 말라구 허셨어.

죵네 [표] 주인 [예] 죵네 읍는 집이라구 함부루 들어가지 말어.

즈:금 [표] 저:금 [예] 즈:금을 많이 헤야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거여.

즈:당 [표] 저:당 [예] 나는 돈이 급해서 전당포에 금가락지를 즈:당 찻했어.

즈:럼허다 [표] 저:럼하다 [예] 열무값이 지난 장버팀두 오늘이 훨씬 즈:럼허네.

즈이 [표] 자기 [예] 재는 욕심이 많아서 즈이 것만 잔뜩 챙겨갔어.

즈내 [표] 겨우내 [예] 즈내 들어앉아서 놀기만 했더니 살만 많이 켜어.

죽 [표] 겨울 [예] 올 죽은 눈: 구경두 못했구먼.

죽:다₁ [표] 작:다 [예] 우리 아파트는 큰집이다가 비허면 아주 죽:어.

죽:다₂ [표] 적:다 [예] 이번이 들어온 물건 양은 지난번버팀두 훨씬 죽:네.

죽은집 [해] 작은집 [예] 나는 고등학교를 서울 죽은집이서 땡겼어.

죽잡다 [표] 적잡다 [예] 이번 태풍으루 과수농가들이 죽잡게 피해를 입었다.

- 즌:기** [표] 전:기 [예] 옛날이는 즈:기가 얹어서 등잔불로 불을 밝혔어.
- 즌:나무** [표] 전:나무 [예] 즈:나무는 키가 크구 곧아서 전봇대루두 사용했어.
- 즌방** [표] 가게 [예]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담배와 술을 파는 즈방이 있었어.
- 즌:쟁** [표] 전:쟁 [예] 사람이 먹구 사는 일이 즈:쟁처럼 힘들 때가 많아.
- 즐:기** [표] 겨울 [예] 지난 즐:기는 너무 춥서 전디기 힘들었어.
- 즘:심** [표] 점:심 [예] 벌써 즈:심 시간이랴구? 참 시간이 빨리두 지나가는구먼.
- 즘:잖허다** [표] 점:잖하다 [예] 이사람아, 즈:잖헌 개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는 말두 있다네.
- 증:말루** [표] 정말로 [예] 너 증:말루 내말 안들구 판짓만 헐터?
- 증:반대** [표] 정:반대 [예] 저사람이 허는 말은 증:반대루 들어야 맞는다니께.
- 증:오** [표] 정:오 [예] 시계가 귀허던 옛날이는 증:오 싸이렌을 불어서 시간을 가르쳐 주었어.
- 지** [표] 계(契) [예] 이번달이는 우리가 지를 탈 차례여.
- 지객웁다** [표] 지각없다 [예] 그런 일루 싸움박질을 허다니, 참마루 지객웁는 사람들이구먼.
- 지구녕** [표] 쥐구멍 [예] 그날 내가 말을 잘못허구 넘부끄러서 지구녕이라두 들어구 싶었어.
- 지끌거리다** [표] 지금거리다 [예] 밥이 지끌거리는 게 모래가 쉼었나 벼.
- 지끔** [표] 지금 [예] 지난 일은 잊어버리구 지끔 일만 생각허자구.
- 지느레미** [표] 지느러미 [예] 물게기는 지느레미가 있으야 물속을 마음대루 헤엄치구 땡겨.
- 지다랗다** [표] 기다랗다 [예] 지네는 몸이 지다랗구 다리가 많아서 징그럽게 생겼어.
- 지대다** [표] 기대다 [예] 친구야, 우리 힘들 땐 서루가 어깨를 지대며 이겨나가세.
- 지** [표] 쥐 [예] 요새 지털은 팽이두 안무서워 헐 정도루 배짱이 좋다니께.
- 지뎛** [표] 쥐뎛 [예] 요새 지들은 약어빠져서 지뎛을 놔두 잘 안걸려 들어.
- 지들르다** [표] 기다리다 [예] 어젯밤 남편 지들르다가 잠을 설쳤더니 피곤허네.

- 지둥** [표] 기둥 [예] 저 집은 딸 시명을 시집보내느라구 지둥뿌리가 뻗혔을겨.
- 지뜰기다** [표] 쥐어뜰기다 [예] 저사람 오디서 지뜰졌간디 얼굴이 저모양이라?
- 지랑** [표] 간장 [예] 옛날이 지랑과 고추장만 농구서 밥을 먹던 시절도 있었어.
- 지력지** [표] 길이 [예] 한 나무이서 열린 오이두 지력지가 저마두 다른 겨어.
- 지력지력허다** [표] 질척질척하다 [예] 예전이는 우리동네 질이 비만 오면 지력지력해서 땀기기가 힘들었어.
- 지랭이** [표] 지렁이 [예] 낚시 미끼로는 지랭이가 켈루 좋다구.
- 지름** [표] 기름 [예] 우리나라는 지름 한 방울 안나오는데두, 오쩌면 저렇게 물 쓰듯 헌다?
- 지름챙이** [표] 기름챙이 [예] 아이구 지름챙이같은 놈 온제 빠져나갔다?
- 지름허다** [표] 가름하다 [예] 그 색시 얼굴이 지름허니 이쁘장허구먼.
- 지에미** [표] 지어미 [예] 저놈은 지에미 지샷날인디두 술타령이구먼.
- 지:발** [표] 제:발 [예] 너 지금버텀이라두 지:발 공부 점 해라.
- 지병** [표] 지붕 [예] 초가집 지병 위서 둥그런 박이 탐스럽게 여물구 있네.
- 지병거리다** [표] 집어먹다 [예] 으른덜이 상 앞이 앞기 전이는 반찬을 손으루 지병거리지 말어라.
- 지:변머리** [표] 주:변머리 [예] 저사람 지:변머리 갖구는 그 일을 절대루 못 할겨여.
- 지:사** [표] 제사 [예] 올해 지:사는 전염병때미 우리 두 부부찌리만 지내기루 했어.
- 지:수** [표] 제:수 [예] 우리 지:수씨는 엄마랑 성씨가 똑같어.
- 지새다** [예] 지새우다 [예] 어제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잠이 안와서 뜬눈으루 밤을 지새웠구먼.
- 지시루** [표] 질그릇시루 [예] 시루떡은 양은시루버덤두 지시루이다가 찢 것이 더 부드러워.
- 지왕이면** [표] 기왕이면 [예]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단다. 지왕이면 생편을 이쁘게 빗어라.
- 지와집** [표] 기와집 [예] 민속문화재는 돈많구 양반덜이 살던지와집이 대부분



이더구먼.

지올다₁ [표] 저물다 [예] 오늘두 벌써 하루해가 뉘엿뉘엿 지올었구먼.

지올다₂ [표] 기울다 [예] 저사람은 한쪽으루만 짐을 들더니 어깨가 지우똥허게 지올었어.

지올다₃ [표] 기울다 [예] 그집 살림살이가 평평거리던 예전버덤두 많이 지올었어.

지올다₄ [표] 기울다 [예] 그사람 마음은 진작부터 김씨한티 지올었어.

지올다₅ [표] 기울다 [예] 우리팀 실력은 저쪽팀버덤두 많이 지우는 게 사실이여.

지웃거리다 [표] 기웃거리다 [예] 그 사람 여태 안오는걸 보니께 여기저기 지웃거리느라구 늦는 모양이여.

지지다 [표] 파마하다 [예] 엄마가 모처럼 미장원이 가서 머리를 지지구 오더니 이뻐졌네.

지지배 [표] 계집애 [예] 우리 할머니는 나허구 여동생허구 지지배라구 올마나 구박했는지 몰러.

지지미 [표] 지짐이 [예] 오늘 저녁은 무수 지지미 점 얼큰허게 끓여봐.

지집 [표] 계집 [예] 우리 할머니는 툇허먼 딸들보구 지집년들이라구 무시했어.

지침 [표] 기침 [예] 이번 감기는 지침을 많이 허는 게 특징이여.

지팽이 [표] 지팡이 [예] 앞집 아저씨 올마전이 앓구 나더니 지팽이를 짚구멍기네.

지푸다 [표] 값다 [예] 저 개울물이 보기버덤은 지푸니께 함부루 들어가면 안되여.

진뇨국 [표] 진요국 [예] 푸성귀를 절인 진요허구 돼지 등말이뻘을 능구 끓인 진뇨국이 참 맛있지.

진역 [표] 징역 [예] 저사람 진역 갔다 오구서두 저렇게 정신 못차리구 있네.

진장 [표] 김장 [예] 초겨울이 되면 진장을 담그는 것이 우리나라 오래된 풍습이여.

질:다 [표] 긴:다 [예] 아침마두 마을 공동샘이는 물을 질:는 여인들이 모여들어서 정신없어.

질 [표] 길 [예] 풀이 우거져서 질을 덮으니께 땡기기가 힘들구먼.

질걸 [표] 길 [예] 사람 사는 동네는 질걸 정리를 잘해놔야 드나들기가 좋은 거여.

질쟁이 [표] 질경이 [예] 질쟁이는 질경질경 밟아서 질쟁이라구 불른다.

질:다 [표] 길:다 [예] 그사람 다리가 황새마냥 참 질:기두 허네.

질르다 [표] 기르다 [예] 우리집은 알낳는 닭 시 마리허구 집 지키는 개 한 마리를 질르구 있어.

질쌈 [표] 길쌈 [예] 옛날 여인들은 질쌈으로 긴긴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어.

짐:1 [표] 김: [예] 소풍 갈 때마다 엄마가 싸주는 짐:밥이 제일루 맛있었지.

짐:2 [표] 김: [예] 밥술이서 짐: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불을 그만 때거라.

짐:매기 [표] 김:매기 [예] 엄마는 피약별 내리쬘는 콩밭이서 원종일 짐:매기를 했지.

짐:밥 [표] 김:밥 [예] 소풍가는 날 엄마는 새벽버텨 짐:밥을 싸느라구 힘들었지.

짐:빠지다 [표] 김:빠지다 [예] 일을 시작두 안했는디, 짐: 빠지는 소리 좀 작작 허게.

짐장 [표] 김장 [예] 올이는 배차금이 비싸서 짐장 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구먼.

짐치 [표] 김치 [예] 여름 국수말이는 열무짐치가 젤루 좋아.

집안치 [표] 일가불이 [예] 다음 일요일은 산소 별초때미 집안치들이 모이기로 했어.

짓다 [해] 나무나 풀이 무성하게 나다 [예] 밭마두 풀이 너무 많이 짓었네. 어서 빨리 풀을 매주야겠구먼.

짓돈 [표] 겹돈 [예] 우리동네는 동갑네 짓돈 떼먹구 도망간 사람때미 난리여.

징상맛다 [표] 증상맛다 [예] 쥐나 뱀은 보기만 해도 징상맛다니게.

짚다 [표] 짚다 [예] 여인의 원한이 짚으면 오뉴월이도 서릿발이 네린다구 했어.

짚세기 [표] 짚신 [예] 옛날 으른들은 신발 대신 짚세기를 신구 땡겼어.

짚토매 [표] 짚단 [예] 베를 빌 때는 단단히 묶은 짚토매가 엉기기두 좋은 거여.

짜징나다 [표] 짜증나다 [예] 하루쟁일 집이만 틀어백혀 있느니께 짜징만 나는구먼.

짜투리 [표] 자투리 [예] 가위질을 잘 해야 짜투리가 남지 않는겨.

짹다 [표] 작다 [예] 이 통나무는 기동감으루 너무 짹구먼.



- 잘르다** [표] 자르다 [예] 우정은 무처럼 그렇게 딱 잘르는 것이 아니라구.
~ 짝이 없다 [표] ~이를 데 없다 [예] 저 친구는 말두 느린디다가 일히는 것두
 굼뜨기 짝이 없어.
짹치다 [표] 놀리다 [예] 오늘 공연장이는 사람덜이 올마나 많은지 짹쳐 죽는줄
 알었다니께.
짹짹하다₁ [표] 짹짹하다 [예] 여름 짹지는 짹짹현 맛으루 먹는거여.
짹짹하다₂ [표] 짹짹하다 [예] 오늘은 장사가 잘되서 수입이 짹짹허네.
짹짹이 [표] 낱날이 [예] 엄마는 뭇 년 만이 만난 아들의 얼굴을 짹짹이 살펴보
 구 있네.
짹아 [표] 장어 [예] 나 어릴적이는 동네 으른들이 냇갈 보막은 디서 짹아를 많
 이 잡었어.
쩔뚝발이 [표] 절름발이 [예] 자네 교통사고루 발을 크게 다치구두 찰뚝발이가
 안된게 올마나 다행이여?
쩔매다 [표] 묶다 [예] 태풍이 심허게 분다니께 단단허게 찔매야 허네.
쩔장 [표] 막장 [예] 요즘은 시골이서두 찔장은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
 되었어.
쩌끼다 [표] 쫓기다 [예] 이사람아, 날마두 일에 쯤겨서 허둥거리지말구 쉬엄쉬
 엄 좀 허게나.
쩨:다 [표] 끼었다 [예] 어수선헌 분위기가 물을 차:진 것처럼 조용해졌네.
쩨:지다 [표] 끼었다 [예] 차:다 참고
쩌끄말다 [표] 조그말다 [예] 팔죽이다가 놓는 새알심은 아주 차끄말구 땡그렁
 게 뭉치야 좋은 거여.
쩌입다 [표] 끼입다 [예] 날씨가 춥서 옷을 차입었더니 몸이 둔허네.
쪼각 [표] 조각 [예] 천 쪼각이루 조각보를 맹글었더니 참말루 이쁘구먼.
쪼글치다 [표] 쪼그리다 [예] 한참동안 쪼글치구 앉었더니 오금다리가 저리네.
쪼끔 [표] 조금 [예] 오늘 국이 싱거워서 소금을 쪼끔만 더 타야겠네.
쪼두리 [표] 족두리 [예] 우리엄마는 시집올 때 가마 타구 쪼두리 쓰구서 왔다.

찌끔 [표] 조금 [예] 찌끔 참고

쪽대 [예] 족대 [예] 우리는 비가 올 때마다 쪽대를 들구서 송사리를 잡으러 넷 갈루 나갔지.

쪽때기 [표] 졸때기 [예] 제대 말년이 되니까 쪽때기 시절이 생각나는구먼.

쪽밀쪽밀 [표] 조마조마 [예] 오늘 숙제를 안해 가서 하루종일 쪽밀쪽밀헌 게 까시방석 같았어.

쫄매다 [표] 잡아매다 [예] 쫄매다 참고

쫄글거리다 [표] ? [예] 엄마는 얼굴 주름이 쫄글거리다구 성형수술을 허러 갔어.

쫄쟁이 [표] 쫄정어 [예] 올이는 밤톨이 쫄쟁이 뺨이는 읍구먼.

쫄다 [표] 좁다 [예] 여기는 너무 쫄어서 회의장소루는 적당하지 않구먼.

쫄어댕기다 [표] 쫄아다니다 [예] 애기가 몸이 아픈지 징징거리면서 엄마만 쫄어댕기네.

쫄글치다 [표] 쫄그리다 [예] 쫄글치다 참조

쫄께미 [표] 주꾸미 [예] 오늘 점심은 얼큰헌 쫄께미 볶음으루 해먹어보자구.

쫄끔하다 [표] 뻔쫄하다 [예] 사내녀석이 당당하지 못허구 쫄끔하게 서있을 게 뭐랴.

쫄쟁이 [표] 죽정어 [예] 올 농사는 가물어서 벳니삭이 쫄쟁이만 잔뜩 매달렸어.

쫄매다 [표] 잡아매다 [예] 쫄매다 참고

찌끄레기 [표] 찌꺼기 [예] 우리나라는 음식찌끄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탈여.

찌다 [표] 부족하다 [예] 그 여자 조금 찌 모양여. 사리판단두 제대로 못허구 말여.

찌리 [표] 또래 [예] 재떨 찌리찌리 어울려 댕기더니 기어코 일을 저질렀네.

~찌리 [표] ~끼리 [예] 애들아, 으른들 일허넌디 방해되니까 누털찌리 나가서 놀어라.

찌우똥 [표] 기우똥 [예] 엇그제 태풍이 심하게 불더니 나무가 한쪽으로 찌우똥 해졌네.

찌울다 [표] 기울다 [예] 아랫집 혼사는 암만해두 신랑쪽이 찌우는거 같어.

찌웃거리다 [표] 기웃거리다 [예] 지웃거리다 참고

찔르다 [표] 찌르다 [예] 눈꺼풀이 쳐졌는지 눈썹이 자꾸만 눈을 찔르네.

찔쪽하다 [표] 길쪽하다 [예] 올해 고구마는 장마가 길어서 찔쪽하기만 허구 단
맛두 얹어.

찜기다 [표] 낱기다 [예] 옷자락이 문틈으루 찜겨서 옴싹달싹 못허겄네.



차 [표] 것 [해]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물건’을 뜻함. [예] 그쪽 차루 갖구 와라.

차갑다 [표] 차갑다 [예] 그사람 따뜻한 구석은 한점두 읍구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혀.

차거우니께 [표] 차가우니까 [예] 그 짝은 차거우니께 이 짝으루 얹게.

차구넘친다 [표] 차고넘친다 [예] 그 모임은 사람들이 차구넘치는데 뭐허러 나까지 간다?

차돌백이 [표] 차돌박이 [예] 소고기 중이서는 약헌 불에 살짝 구워낸 차돌백이가 제일루 맛있어.

~**차람** [표] ~처럼 [예] 우리동네 이장차람만 허면 걱정헐 게 읍어.

차부 [해] 정류소 [예] 저 건물이 옛날 차부 자리여.

차지차다 [표] 차디차다 [예] 방바닥이 차지차서 엉덩이를 붙일 수가 읍네.

차침차침 [표] 차츰차츰 [예] 그사람 춤이는 까칠허더니 차침차침 부드럽게 변허는구먼.

착허다 [표] 착하다 [예] 동네사람덜이 하나같이 아랫집 메뉴리 착허다구 칭찬이 자자혀.

찬찬허다 [표] 찬찬하다 [예] 재한티는 뭇 땀겨두 찬찬해서 믿을만 혀.

찰그머리 [표] 철거머리 [예] 찰싹 달라 붙는게 찰그머리 뽀치게 질기구먼.

찰무리 [표] 찰시루떡 [예] 배고플 때는 찰무리 한 텅이만 먹어두 속이 든든혀.

찰박 [표] 갑오징어 [예] 보리누름이는 찰박이 제일 맛있을 때여.



찰베 [표] 찰벼 [예] 요새 찰베는 볏구 검은게 가지각색이더라구.

찰:영 [표] 찰:영 [예] 영화 찰:영허는 걸 구경했는디, 애들 연극처럼 시시허 더구먼.

참말루 [예] 정말로 [예] 참말루 앵간허면 몰르는척 헐라구 했는디, 지금버텀은 헐말을 허야졌어.

참:먹다 [표] 간식먹다 [예] 그늘 아래서 먹는 참:은 농사꾼이 아니면 맛을 물르는 겨.

참그이 [표] 참게 [예] 그이장은 참그이루 담근게 젤루 맛있지.

참대미 [표] 긴막대 [예] 감이 높은 곳으루 매달렸으니께 참대미를 갖구 와서 파야겠네.

참이 [표] 참외 [예] 장마철 참이맛은 오이버덤두 더 맛이 얕어.

참이막 [표] 원두막 [예] 느닷없이 쏘내기가 쏘어질 때 참이막을 만나면 제일 반가웠지.

창관 [표] 창견 [예] 여보게, 요즘 애들은 창관허는 걸 젤루 싫어 현다.

창깨 [표] 참깨 [예]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창깨농사를 엉망으로 지었어.

창새기 [표] 창자 [예] 저사람 노래는 창새기가 미어지는 슬픔이 묻어난다니께.

~채₁ [표] ~째 [예] 나는 지금 운동장을 여덟바퀴채 도는 중이여.

~채₂ [표] ~째 [예] 약초는 뿌리채 먹어야 효과가 뛰어나다구 허더먼.

채:다 [표] 채우다 [예]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을 채:기 버텀은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은겨.

채림새 [표] 차림새 [예] 그 노인네 오늘 채림새가 아주 말쑥허게 뵈네.

찾어댕기다 [표] 찾아다니다 [예] 우리집 강아지가 읊어져서 한나절이나 찾아 댕겼네.

채곡채곡 [표] 차곡차곡 [예] 애야, 장작데미 좀 보기 좋게 채곡채곡 쟁여 놔라.

채뜨리다 [표] 채프리다 [예] 남이 말을 헐 때는 나서서 채뜨리구 꺾드는게 아닐세.

채리다 [표] 차리다 [예] 옷을 제대루 채려입구 나서니께 아주 멋져 보이는구먼.

- 채알** [표] 차일 [예] 저기 마당이다가 채알을 쳐놓은 집이 잔칫집이구먼.
- 채들다** [표] 채다 [예] 채떠리다 참고
- 책임지다** [표] 책임지다 [예] 부모는 자식 양육을 책임지는게 마땅헌 도리어.
- 챔빔** [표] 참빔 [예] 엄마는 아침마다 챔빔으루 내 머리를 곱게 빗겨주곤 했지.
- 챙견** [표] 참견 [예] 너는 으른들 허는 말에 왜그렇게 챙견허구 나서는 거여?
- 챙지름** [표] 참기름 [예] 너물 문힐 때는 챙지름이 고소허구 좋아.
- 챙피허다** [표] 창피하다 [예] 너는 치마를 그렇게 짧게 입구서 창피헌 줄두 물르는겨?
- 처백히다** [표] 처박히다 [예] 자동차 바구가 물쿵덩이루 처백혀서 못 빠져나오네.
- 척척허다** [표] 축축허다 [예] 아침이 널어놓구 나간 빨래가 아직두 척척허네.
- 천상** [해] 하는 수 없이 [예] 그 일은 천상 내똥이구먼.
- 천상연분** [표] 천생연분 [예] 니 부부는 한눈으루 봐두 하늘이 맺어준 천상연분이여.
- 천애웁이** [표] 천하없이 [해] 천애웁이 고약헌 놈이라두, 제 부모한티 그러면 못쓰는 뱀여.
- 철딱쟁이** [표] 철딱서니 [예] 재는 철딱쟁이 읊는 게 허는짓이 제 동생만두 못허네.
- 철물르다** [표] 철모르다 [예] 엄마는 철물를 때 일찍 시집 와서 나를 낳았다.
- 철푸데기** [표] 철퍼덕 [예] 재는 땅바닥이 철푸데기 앉어서 슬프게두 우는구먼.
- 칭츠짐** [표] 칭쳐짐 [해] 동작이 느림 [예] 저 노인 걸음걸이가 칭츠짐해서 답답허구먼.
- 체:신머리** [표] 채신머리 [예] 너는 체:신머리 읊이 아무디나 그렇게 나대지점 말어.
- 체양₁** [표] 차양 [예] 집 처마 밑으로 덧 댄 체양이 좁으니까 비가 들이치는구먼.
- 체양₂** [표] 창: [예] 모자 체양이 좁으니까 손등만큼두 햇빛을 못가리네.
- 쳐나다** [해] 비키다 [예] 애야, 저리 좀 쳐나라. 이 짐 점 옮기야겠다.
- 초가삼칸** [해] 초가삼칸 [예] 초가삼칸이면 어떠하리, 내가 이렇게두 행복헌걸.
- 초사** [해] 일을 꾸민다는 의미로 사용됨 [예] 가만히 보니께 이번 일은 그 사람

초사로구먼.

초생달 [표] 초송달 [예] 산등생이 너머루 눈썹같은 초생달이 떠오르구 있구먼.

초쌈대다 [표] 출쌈대다 [예] 이사람아, 작작 초쌈대구 즘잖게 좀 있게.

초아래 [표] 초아흐레 [예] 내일이 초아래 할머니 제삿날이구먼.

촌놈 [표] 촌놈 [예] 너는 아무리 품 잡어 봤자 촌놈이여.

촌떼기 [표] 촌뜨기 [예] 재는 지난번이 서울 가서 촌떼기 노릇만 실컷 허구 왔다.

촌시럽다 [표] 촌스럽다 [예] 너는 암만 멋을 부려봤자 때깔두 안나구 촌시럽기 만 허구먼.

총뿌리 [표] 총부리 [예] 일제 앞잡이는 독립군의 등 뒤루 총뿌리를 들이댔어.

총쟁이 [표] 포수 [예] 저 사람은 사냥을 나갈 때마두 백발백중 허는 유명한 총 쟁이라.

총책임자 [표] 총책임자 [예] 이번 마을잔치의 음식담당 총책임자는 내가 맡기 루 했어.

추녀물 [표] 낙숫물 [예] 물이 부족해서 양동이다가 추녀물을 받아갖구 빨래 허 는 섬지역두 많아.

추념 [표] 추렴 [예] 우리마을은 명절 때마두 젊은사람덜이 돈을 추념해서 경노 잔치를 허여.

추력 [표] 트럭 [예] 추력이 짐을 잔뜩 싣구서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가구 있네.

추미 [표] 취미 [예]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추미생활을 요령껏 잘해야 한다네.

추실르다₁ [표] 추스르다 [예] 할아버지는 길가다가 바지춤을 한번 추씩 추실러 올렸어.

추실르다₂ [표] 추스르다 [예] 이제는 부모님 돌아가신 것을 잊어뻘지구 빨리 마음을 추실르게.

추실르다₃ [표] 추스르다 [예] 그 사건을 문제없이 추실을 사람은 너뻘이 옳는 거 같어.

추엄타다 [표] 추위타다 [예] 나는 추엄을 많이 타서 겨울이 오는 게 싫어.

추적지근하다 [표] 추적지근하다 [예] 너는 시수두 안허구 머리두 안감구 추적

지근해서 못봐주겠어.

축 [표] 차례 [표] 나는 오늘 뒷동네루 엄마 심부름을 세 축이나 멩겨왔어.

충그리다 [표] 지체하다 [예] 기차시간 늦으니께 시간만 자꾸 충그리지 말구 빨리 서둘르세.

츠:녀 [표] 처:녀 [예] 요즘 시골은 츠:녀가 읍어서 장가를 못가는 노총각이 많어.

츠:사 [표] 처:사 [예] 그때 당신의 쌀쌀허던 츠:사가 지금두 내 가슴에 상처루 남아있다구.

츠:서 [표] 처:서 [예] 입추두 지났구 츠:서두 지났는디 날씨는 여전이 뜨겁구먼.

츠:세 [표] 처:세 [예] 난세를 이겨낸 영웅은 츠: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어.

츠:신 [표] 처:신 [예] 그 누구라두 올바른 츠:신을 해야 제대루 된 대접을 받는 거여.

츰: [표] 천: [예] 예전이는 옷두 포목점에서 츰:을 꿰어다가 집이서 멩글어 입었어.

츰:덕꾸레기 [표] 천덕꾸레기 [예] 그는 어려서버텀 츰:덕꾸레기루 컸어두 홀랑허게 성공했어.

츰:데기 [예] 천더기 [예] 그는 어려서 일찍 부모를 여의구 삼촌댁이서 츰:데기루 컸어.

츰:대 [표] 천:대(賤待) [예] 당신은 나를 뭇루 보구 이렇게 츰:대 허는겨?

츰:민 [표] 천:민 [예] 요즘시상이 양반과 츰:민을 따지는 사람두 있다?

츰:박허다 [표] 천:박하다 [예] 저사람 꺾보기는 즘잖헤 뵈는디, 허는 짓은 츰:박허기 이룰디 읍네.

츰츰이 [표] 천천히 [예] 찰떡은 츰츰이 씹어 먹으야 목구멍이 맥히지 않아.

츰: [표] 처음 [예] 어떤 일이라두 츰:부터 잘허는 사람은 그렇게 흔허지 않아.

츰하허다 [표] 차별하다 [예] 우리 할머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아들 딸을 츰하했는지 몰르겠어.

치 [표] 키 [예] 어린시절 오줌싸구서 치를 둘러 쓰구 옆집으루 소금받으러 갔던 적두 있어.

치다 [표] 맺다 [예] 우리는 어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쳤어.

치:다₁ [표] 치이다 [예] 어제 친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과속하는 자가용 한티 쳤:다.

치:다₂ [표] 치우다 [예] 손님이 오기 전이 안마당 쓰레기 점 빨리 치:야졌구먼.

치레기 [표] 찌꺼기 [예] 일년내 애써 농사지었는데, 치레기라구 함부루 내빠리 먼 안되여.

치지레기 [표] 찌꺼기 [예] 치레기 참고

치질 [표] 키질 [예] 할머니의 콩바심 마지막 순서는 치질루 쪽쟁이를 널려보내는 거여.

치켜세다 [표] 치켜세우다 [예] 잘헌다 잘헌다 치켜췌더니 곧잘 따라허네.

칙간 [표] 측간 [예] 옛날 속담이 칙간허구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구 했어.

칙갈맞다 [표] 칙살맞다 [예] 그사람은 사내대장부가 허는짓마두 칙갈맞기가 이틀디 읊어.

칠떼기 [표] 칠삭둥이 [예] 저눔은 누가 칠떼기 아니랄까봐서 허는짓마두 저모냥이여.

칭계 [표] 층계 [예] 우리 고향집은 마당허구 토방 사이 칭계가 너무 높어서 불편했어.

칭나다 [표] 층나다 [예] 한 뱃속이서 태어난 자식들두 두루두루 칭지게 매련이여.

칭지다 [표] 층지다 [예] 칭나다 참고

칭칭대 [표] 층층대 [예] 할머니, 칭칭대가 가파르니께 조심조심 내려가셔유.

칭하허다 [표] 차별하다 [예] 층하허다 참고

침쟁이 [표] 침의(鍼醫) [예] 옛날 우리 할아버지는 근동이서 알려주는 침쟁이였다.



- 카라** [표] 칼라 [예] 예전 여고생 교복은 흰색 카라가 매력포인트였다고.
- 카브** [표] 커브 [예] 운전자는 특히 카브 돌 때 속도두 줄이구 조심해야 하여.
- 칸맥이** [표] 칸막이 [예] 요즘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 사무실마두 칸맥이를 설치했더면.
- 칼구녕** [표] 칼구멍 [예] 자연인은 멧돼지 다리를 칼구녕 내서 기둥이다가 매달어 났네.
- 칼잡이** [표] 칼잡이 [예] 저사람은 정육점을 오래 허더니 칼 다루는 솜씨가 칼잡이 버딤두 낫구먼.
- 칼끔하다** [표] 칼끔하다 [예] 한여름 입맛 읍을 때는 꼬치장이다가 찍어먹는 청양꼬추가 칼끔허지.
- 깜깜하다** [표] 깜깜하다 [예] 집앞 골목이 킴킴해서 가로등이라두 있었으면 좋겠구먼.
- 캥기다** [표] 켁기다 [예] 저 사람 대답을 제대루 못허는게 뒤가 캥기는 구석이 있는 모양여.
- 커드렇다** [표] 커드랑다 [예] 저 집 개는 등치가 송아치만큼이나 커드렇네.
- 커드말다** [표] 커드랑다 [예] 커드렇다 참고
- 커리** [표] 켄레 [예] 우리집 신발장이는 애들 구두가 멧 커리나 있는지 셀 수 두 읍어.
- 케** [표] 켜 [예] 요즘이는 시루떡을 시루채 아니래두 한두케씩만 주문해두 되더면.
- 케케이** [표] 켜케이 [예] 창틀 먼지가 케케이 쌓인걸 보니께 청소헌지 오래된

모냥이구먼.

켁허다 [표]? [예] 요즘 메칠 앓구 일어나더니 눈이 켁허구먼.

코빠기 [표] 코의 비속어 [표] 너는 요새 얼마나 바쁘간디 산소 벌초허넌디 코 빠기두 안비치네?

코쫑배기 [표] 코의 비속어 [표] 옛말이 싸나운 개 코쫑배기 성혈날 읊다구 했어.

콧시염 [표] 콧수염 [표] 내 생각으루는 콧시염 질른 사람들이 모두 예술가처럼 보이더먼.

콧짐 [표] 콧김 [표] 방바닥 온기가 소 콧잔탱이 콧짐만큼두 못허네.

콩꼬물 [표] 콩고물 [예] 인절미는 콩꼬물 문힌게 재일루 고소허구 맛있어.

콩너물 [표] 콩나물 [예] 술 먹은 다음날 속풀이는 콩너물국이 최고여.

콩지름 [표] 콩기름 [예] 뭐니뭐니헤두 티김을 헐 때는 콩지름이 제일루 좋다네.

깡이 [표] 깡이 [표] 뿌레기 짚은 풀을 뽑을 때는 호미버덤두 깡이가 일허기 훨씬 좋은겨.

크럽 [표] 클럽 [예] 우리 옆집 아저씨는 노래크럽이서 피아노를 치는 연주가랴.

큰질 [표] 큰길 [예] 경로당이 가신 할머니를 저 아래 큰질까지 마중 가서 모셔 오너라.

클나다 [표] 큰일나다 [예] 저 승질 팔팔헌 사람을 근디렸으니 클났구먼.

키다₁ [표] 켜다 [예] 칠흙같은 방이다가 불을 키구 나니께 대낮처럼 밝아서 좋구먼.

키다₂ [표] 켜다 [예] 이 통나무를 잘만 키면 튼튼헌 선반을 만들 수 있겠구먼.

키다₃ [표] 켜다 [예] 어제 저녁을 짜게 먹구서 밤새 물만 키느라구 잠을 설쳤어.

키:다₄ [표] 키우다 [예] 요즘이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키는 사람들두 많더먼.

키타 [표] 기타 [예] 나이 먹어서 키타를 배울라니께 손구락이 잘 안돌아가는구먼.



- 타구나다** [표] 타고나다 [예] 저 사람 손재주는 날 때부터 타구난게 틀림없어.
타게다 [표] 닳다 [예] 재는 오쩌먼 저렇게 허는 짓마두 제 할아버를 타겟을까.
타래박 [표] 두레박 [예] 저 샘은 깊어서 타래박이 있어야 물을 뜰 수 있어.
타을 [표] 타월 [예]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타을을 깨끗이 빨았어두 냄새가 나네.
타이루 [표] 타일 [예] 우리집 욕실은 타이루가 깨져서 빨리 바꾸는게 좋겠어.
타이야 [표] 타이어 [예] 내 차 타이아가 못으루 찢려서 펑크가 났어.
타일르다 [표] 타이르다 [예] 그애는 걸으루 쌍스럽게 행동헤두 잘 타일르면 순헌 양이여.
타승바지 [표] 타성바지 [예] 저 동네는 집성촌이라서 타승바지는 발붙이기 힘들다.
탁각 [표] 술고래 [예] 아랫집 머슴은 술탁각이라두 농사일은 영글게 잘혀.
탁배기 [표] 막걸리 [예] 일꾼들이 들판이서 설참으루 마시는 탁배기는 기운을 북돋우지.
탐세기 [표] 먼지 [예] 추수마당이는 탐세기가 서말이라는 속담두 있어.
탕:나다 [표] 곰팡이 나다 [예] 한여름이는 음식을 잘못 보관헸다가 탕:나기 쉬워.
태국기 [표] 태극기 [예] 이번 국경일은 집집마두 태국기를 달도록 협시다.
태:다₁ [표] 타고나다 [예] 저집은 사주팔자가 아들이 태지 않았으니께 줄줄이 딸만 다섯을 두었지.
태:다₂ [표] 신다 [예] 네 차에 이 친구 점 태:갓구 가져라.
태:다₃ [표] 태우다 [예] 그 쓰레기는 불루 태:서 읍에는게 좋겠구먼.

- 태:다** [표] 태주다 [예] 다음달이는 저사람헌티 지를 태줄 차례여.
- 택두웁다** [표] 턱없다 [예] 네 실력으루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는 택두웁는 일이지.
- 터구리** [표] 터울 [예] 우리집은 삼형가 똑같이 세 살 터구리루 태어났어.
- 터떠리다** [표] 터뜨리다 [예] 저 방송국은 이번이 큰 사건을 하나 터떠리구 대박났다.
- 터무니웁다** [표] 터무니없다 [예] 자네가 지금 허는 얘기는 사리에두 안맞는 터무니웁는 부탁일세.
- 터:치다** [표] 터뜨리다 [예] 뽕어터진 종기를 터:치니께 통증이 가려얏기 시작허네.
- 턱주가리** [표] 아래턱 [예] 너 자꾸만 버릇웁이 굴다가는 턱주가리 부서지는 줄 알어.
- 털구녕** [표] 털구멍 [예] 털구녕으루 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니께 피부를 잘 관리허게.
- 테끼** [표] 토끼 [표] 산테끼 잡을라구 허다가 집테끼까지 놓친다는 말이 있어.
- 테비** [표] 퇴비 [표] 농사지를 비료가 웁던 시절이는 테비를 땡글어서 거름으로 썼어.
- ~텐디** [표] ~텐데 [예] 너허구 하냥 갔으면 좋았을 텐디 아쉽게 뒀구나.
- 텡께** [표] 테니까 [예] 나 먼저 갈텡께 자네는 뒤따라서 오게.
- ~텡이** [표] ~통이 [예] 저사람 왜 저렇게 미련 곰텡이처럼 구는지 몰르졌네.
- ~르터** [표] ~르테야 [예] 오늘은 하루쟁일 긴장했더니 피곤해서 그만 쉴터.
- 터나다** [표] 튀어나오다 [예] 나는 앞니가 앞으루 툭 터나와서 입이 잘 안다물 어지구 불편혀.
- 터나오다** [표] 튀어나오다 [예] 너 오디 숨어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터나오는겨?
- 토끼다** [표] 도망가다 [표] 싸움판이서 불리힐 때는 토끼는게 제일 상책여.
- 토매** [표] 단, 못 [예] 애들아, 비가 오기 전이 얼른 쪼토매를 창고 안으루 영겨놔라.
- 토백이** [표] 토박이 [예] 앞집은 우리동네서 삼대째 살구있는 토백이여.

토춧대감 [표] 터춧대감 [예] 박씨는 우리동네 이사오는 사람들헌티 토춧대감 행세를 허구 땡겨.

톡차다 [표] 가득차다 [예] 콩이 꼬투리 속으루 톡차게 여물었네.

~통구리에 [표] ~바람에 [예] 우리 엄마 잔소리허는 통구리에 누나 부탁을 깜빡했네.

통채 [표] 통째 [예] 저 자루속이 들어있는 밤을 나누지 말구 동생헌티 통채루 갖다 줘라.

통털어 [표] 통틀어 [예] 우리동네 가구수는 통털어 스무집두 안되여.

퇴끼 [표] 토끼 [예] 나 어릴적인 핵교갔다 와서 퇴끼풀 뜯어다 주는 게 일이었어.

퇴:주다 [표] 거슬러주다 [예] 구멍가게 할머니는 가끔씩 물건값을 받구 거슬름 돈 퇴:줄 생각을 안혀.

퇴침 [표] 목침 [예]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버개 대신 퇴침을 비구 주무셔.

투가리 [표] 독배기 [예] 외할머니가 투가리에 끓여주는 된장찌개는 기가맥히게 맛있어.

~투성이 [표] ~투성이 [예] 우리 강아지가 배같이서 놀다가 흙투성이루 들어왔네.

툑허면 [표] 푹하면 [예] 철수는 친구들허구 사이 좋게 놀다가두 푹허면 싸움박질을 허여.

통새적다 [표] 통어리적다 [예] 옆집 아주머니는 앞뒤 생각두 얹이 나대는 통새 적은 사람이여.

통태 [표] 굶기 [예] 김장무수가 이파리는 무성헌디 뽐아보니께 통태는 별루네.

통통장 [표] 청국장 [예]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도 어린시절 잡숫던 통통장을 제일 좋아허셔.

트:름 [표] 트:림 [예] 무수 먹구 나오는 트:름은 냄새가 아주 고약허지.

틀림없다 [표] 틀림없다 [예] 우리동네 이장은 일처리가 틀림없는 사람이여.

틀어백히다 [표] 틀어박히다 [예] 저 친구는 늦장가 가더니 원종일 집안이만 틀어백혀 있다네.

틈새기 [표] 틈 [예] 창문이 들 닫힌 틈새기루 황소바람이 들이치는구먼.

틈실허다 [표] 틈실하다 [예] 저 집 손자는 할아버지 닮아서 아주 틈실허게 생겼어.

틀켜쥐다 [표] 틀어쥐다 [예] 우리동네 이씨는 돈을 쓸줄은 몰르구 틀켜쥔 줄만 아는 사람여.

티각 [표] 튀김 [예] 우리엄마 갯잎 티각은 동네에서 맛있기루 소문났어.

티각태각 [표] 티격태격 [예] 우리집 개허구 팽이는 눈만 마주쳐두 티각태각 싸 음박질이네.

티기다 [표] 튀기다 [예] 통닭을 조각내지 말구 통째루 티겨야 맛이 더 좋은겨.

티김 [표] 튀김 [표] 요즘 아이들은 삶은 것 버덴두 티김을 참으로 좋아헌다니께.

티검불 [표] 티끌 [예] 방청소를 열심히 했는디두 티검불이 그대로 있네.

티집 [표] 트집 [예] 우리 과장은 결재가 올라갈 때마두 티집 잡을 궁리부터 먼 저 헌다니께.

팅기다₁ [표] 통기다 [예] 가야금 줄을 한번씩 텅길 때마두 아름다운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네.

팅기다₂ [표] 뒹기다 [예] 용수철을 땅바닥이다가 떨어뜨렸더니 오디루 텅기쳤는지 찾을 수가 없네.

팅기다₃ [표] 거절하다 [예] 자꾸만 배짱 텅기지 말구 어지간허면 계약을 맺지 그러?

팅팅 [표] 통통 [예] 국수가 텅팅 불어서 먹을 수가 읍구먼.



- 파다** [표] 후비다 [예] 귓속을 잘못 파다가는 중이염에 걸리기 쉬워.
- 파게** [표] 파괴 [예] 옛날 건물들을 쉽게 파게하는 것은 한번 깊이 생각해볼 일 이라구.
- 파구들다** [표] 파고들다 [예] 저 선수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구들어서 끝장을 봐.
- 파다허다** [표] 파다하다 [예] 우리동네 놀기 좋아 허는 김씨가 춤바람 났다는 소문이 파다허구면.
- 파리허다** [표] 파리하다 [예] 네 얼굴이 병자처럼 왜 그렇게 파리허냐?
- 파:토** [표] 파:투 [예] 저 건너집 큰딸 무르익어가던 혼담이 무슨 사연인지 파: 토나구 말었다.
- 파허치다** [표] 파헤치다 [예] 지금 와서 한참 지난 옛날 일을 파허치면 오쩌자는 거여?
- 판백이** [표] 판박이 [예] 저 늙은 아빠얼굴을 그대루 빼다 박은 판백이로구면.
- 판자때기** [표] 판때기 [예] 쥐구멍을 막을라니께 널찍헌 판재때기가 필요허네.
- 팔버개** [표] 팔베개 [예] 어릴 적이는 엄마 팔버개를 비구 잠잘 때가 제일 행복했어.
- 팔삭덩이** [표] 팔삭둥이 [표] 저늙은 팔삭덩이루 태어났어두 공부는 항상 1등 만 현다.
- 패대기치다** [표] 팽개치다 [예] 저늙이 무슨 심통이 나서 장난감을 마당에 패디 기치구 있다?

패째다 [표] 쪼들리다 [예] 요즘은 전염병 때미 장사두 못허구 패째서 살기가
힘드는구먼.

팽기다 [표] 파이다 [예] 이번 폭우루 동네 안길이 모두 팽겨서 지나땡기기가
힘들구먼.

퍼개다 [표] 포개다 [예] 발랫줄이다가 넣어놓은 빨래 점 건너다가 착착 개서
보기 좋게 퍼개놓거라.

퍼대기 [표] 포대기 [예] 엄마가 업은 애기 발이 길어서 퍼대기 사이루 빼꼼 빼
져 나왔네.

퍼떡 [표] 빨리 [예] 아범아, 지금 에미가 진통이 심허니께 퍼떡 병원으루 달려
가야겠어.

퍼:띠리다 [표] 퍼:프리다 [예] 그 소문을 누가 퍼:띠리구 땡기는지 사람들은
다 알구 있어.

퍼치다 [표] 퍼뜨리다 [예] 저 축새같은 사람이 옆집 부부싸움 얘기를 동네방네
퍼치구 땡기는구먼.

페:놓다 [표] 퍼:놓다 [예] 시장 보러 나온 장사치들이 좌판이다가 물건들을 주
욱 페:놓구 앉어있네.

펜펜찮다 [표] 편편찮다 [예] 나는 지난번 취직시험이 떨어져서 죄지은 사람마
냥 맘이 펜펜찮구먼.

평풍 [표] 병풍 [예] 우리집은 조상 대대루 유명헌 그림이 그려진 열두폭 평풍
이 전해오구 있어.

포강 [표] 방죽 [표] 영자네 논 가운데 있는 포강을 품으면 이무기가 나온다는
전설이 있어.

포등포등 [표] 포동포동 [예] 우리애기 백일이 되니께 포등포등허게 살이 올르
구 있네.

폭쌈 [표] 폭삭 [예] 저 부잣집이 아들 사업자금 대주다가 폭쌈 망했다더구먼.

폭팔 [표] 폭발 [예] 공장 안에서 갑자기 화약 폭팔 소리가 들리더니 불길이 솟
어올랐어.

- 푸대** [표] 자루 [예] 오늘 타작한 콩들을 모두 푸대에 담아서 보관해놓게.
- 푸대허다** [표] 부대하다 [예] 저 친구 나이를 먹더니 몸이 많이 푸대해졌네.
- 푸장나무** [표] 잎나무 [예] 옛시절이는 가을만 되면 푸장나무를 잘 말려서 땀감으루 쓰곤 했어.
- 푼수띠기** [표] 푼수데기 [예] 너는 오째서 허는 짓마두 푼수띠기 같으냐?
- 폴데미** [표] 폴더미 [예] 햇빛을 받구 바짝 말른 폴데미 속에서 새들이 둥지를 틀구 사네.
- 폴르다** [표] 폴다 [예] 자루 주둥이를 너무 꽁꽁 묶어 매서 폴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구먼.
- 폼메다** [표] 폼을 허비하다 [예] 오늘은 아침버팀 비가 오는 바람이 하루 일을 폼메구 말었네.
- 풍신** [표] 모양새 [예] 저 늙 쥐뿔두 물르는게 잘난 체 떠들구 땡기는 풍신 좀 보라구.
- 풍장** [표] 풍물놀이 [예] 명절 때는 뽀니뽀니헤두 풍장을 치구 놀어야 명절 기분이 나는 뽀여.
- 풍지박산** [표] 풍비박산 [예] 우리집은 아버지가 노름으루 재산을 날리구 집안두 풍지박산 났지.
- 풍편** [표] 소문 [예] 요즘 풍편으루 들으니까 젊어서 부인과 사별헌 친구가 새장가를 갔다는구먼.
- 피기** [표] 딸꾹질 [표] 너는 뭇 흠쳐 먹었길래 피기를 그렇게 계속 허네?
- 피:농** [표] 폐:농 [예] 해마두 농사짓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피:농이나 헐까 생각중이구먼.
- 피다** [표] 피다 [예] 저사람 젊어서 고생 많이 했는디, 지금은 생편이 많이 피구 사는디두 큰 어려움이 읊다.
- 피리** [표] 피라미 [예] 우리동네 개울은 피리가 많이 살아서 사람덜이 많이 잡어가지.
- 피:백** [표] 폐:백 [예] 결혼식 마치고 피:백을 드리는데 신혼여행 가면서 쓰라

구 봉투를 하나씩 주시더구먼.

피은:지 [표] 편:지 [예] 엄마는 아빠허구 연애시절 주고받던 피은:지를 지금까지 간직허구 있어.

풀술 [표] 귀알 [예] 장판지는 풀술질을 제대루 해야 잘 들어붙어.

필림 [표] 필름 [예] 어제 술을 너무 무셨더니 필림이 끊겨서 아무 기억두 안 나는디.

핏덩이 [표] 핏덩이 [예] 부모님은 한국전쟁 때 백일두 안 지난 핏덩이를 들쳐 안구 죽을 고비를 냉기멘서 피난왔다.



하꼬방 [표] 가게 [예] 우리동네는 산골이라서 작은 물건 하나라도 살라면 면소
재지 하꼬방까지 가야 혀.

하나 [표] 가득 [예] 우리 엄마 시장바구니는 과일들이 하나 들어있네.

하냥 [표] 함께 [예] 너허구 너허구 하냥 가서 얼른 일을 끝마치구 오자.

하늘 [표] 하늘 [예] 나쁜짓을 허구싶을 때는 하늘을 먼저 한번 올려다 보면 생
각이 바뀔거여.

하두 [표] 하도 [예] 애기가 하두 보채구 울어서 바람 좀 쐬구 오야겠다.

하루나 [표] 유채 [예] 제주도는 요새 하루나 꽃이 활짝 폈다니께 남쪽버텨 봄
이 시작된 모양이네.

하루쟁일 [표] 하루종일 [예] 오늘은 하루쟁일 눈만 오네.

~허먼 [표] ~하면 [예] 우리엄마가 오죽허면 너한테 그런 말을 허겠네.

하시보다 [표] 앞잡아 낮추다 [예] 사람을 겉만 보구서 하시보다가 큰 코 다칠
때가 있다네.

하염없다 [표] 하염없다 [예] 어린 형제가 장이 간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마당가에 서있네.

학상 [표] 학생 [표] 이봐, 학상! 내가 시계가 뛴어서 그러는디, 지금 뻗어나 왔냐?

한꺼번이 [표] 한꺼번에 [예] 저 물게기들을 한꺼번이 싹 잡어딜일 방법은 없
을라나?

한디 [표] 한데 [예] 핵교서 올 때는 동생들을 한디 모이게 해서 데꾸 와.

한:디 [표] 바깥 [예] 지금 날씨가 차가워서 한:디 나가면 감기 걸리기 십상이여.



한앞이 [표] 한사람 앞이 [예] 그 사과를 한 앞이 시 개 씹만 갖구 가라.

한티 [표] 한테 [예] 저사람은 특허면 나한티 와서 돈자랑을 한바탕씩 허구 가
는구먼.

한량없다 [표] 한량없다 [예] 그사람한티 신세를 많이 저서 고맙기가 한량없구먼.

한심하다 [표] 한심하다 [예] 나는 지금까지장 세상을 헛살은 것 같어서 한심허기
가 짝이 읊네.

한:없다 [표] 한:없다 [예] 그애 어린냥을 자꾸 받아주다가는 한:없는 줄만 알어.

한치 [표] 함께 [예] 어린 것 혼저 보내지 말구, 에미가 한치 갔다 오거라.

~한티 [표] ~한테 [예] 너, 지금, 그게 나한티 허는 말버릇이냐?

할메 [표] 할머니 [예] 저 건너집 할메가 어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이루 실려
갔다는구먼.

함부루 [표] 함부로 [예] 사람이 녀 말을 함부루 허면 못쓰는 뱀이여.

함:진애비 [표] 함:진아비 [예] 함:진애비가 오징어 가면을 쓰구서 신부댁으루
들어가네.

해:꼬지 [표] 해:코지 [예] 불량배들이 해:꼬지를 헐라구 쫓어와서 정신없이 도
망왔어.

해다가다 [표] 저물다 [예] 그렇게 꾸무럭거리다가는 해다가두 마무리를 못허졌네.

해마두 [표] 하마다 [예] 우리동네는 해마두 정월보름날 뒷산 산제당으루 올라
가서 산신제를 지내여.

해바래기 [표] 해바라기 [예] 오늘두 해바래기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구 있는
것 같구먼.

해:방뎡이 [표] 해:방둥이 [예] 우리오빠는 해방되던 해 태어나서 별명이 해:방
뎡이여.

해:산간 [표] 해산구완 [예] 엄마는 막내딸 해:산간을 헐라구 서둘러서 집을
나섰어.

해필이면 [표] 하필이면 [예] 오늘 장이는 물건들이 많이두 나왔더구먼, 해필이
면 한물 지나간 짓을 사왔다?

핵교 [표] 학교 [예] 어머니, 핵교 잘 땡겨왔구먼유.

행결 [표] 한결 [예] 오늘 모처럼 산이 땡겨왔더니 행결 몸이 개벼워진 거 같구먼.

행결같다 [표] 한결같다 [예] 저사람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행결같이.

햇구 [예] 햇살 [예] 아직두 햇구가 많이 남었으니께 허던 일을 조금만 더허세.

행길 [해] 한길 [예] 행길 갓으루 코스모스가 울긋불긋 탐스럽게두 피었구먼.

햇쌀 [표] 햅쌀 [예] 올해 벌써 햇쌀이 나왔네 그러.

허게허다 [표] 하계하다 [예]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일을 틀림없이 허게 헐테니께 걱정 말어.

허구말구 [표] 하고말고 [예] 암, 자네가 부탁헌 일을 내가 틀림없이 허구말구.

허구 많다 [표] 하고많다 [예] 공판장 허구 많은 생선들 중이서 해필 못생긴 쫄뚜기를 사왔다?

허길랑살이 [표] 하기는커녕 [예] 저사람 아침버텨 일을 허길랑살이 술타령으루 시간만 보내는구먼.

허능겨 [표] 하는거야 [예] 아침이 나허구 약속한 거 지금 바로 허능겨?

허니께 [표] 하니까 [예] 지금 아버지가 텃밭 경운기질을 허니께 음료수 점 갖다 드리구 오거라.

허다가 [표] 하다가 [예] 그 일을 해가 저물 때까지만 허다가 집으루 들어오게.

허송애비 [표] 허수아비 [예] 저사람은 실권두 읊는 허송애비 사장이어.

~**허슈** [표] ~하세요 [예] 오늘 해떨어지기 전이 빨리빨리 좀 허슈

~**허여** [표] ~해 [예] 어이, 시간 읊는디 빨리빨리 좀 허여.

~**허다** [표] ~하다 [예] 그렇게 허다가는 날이 저물어두 끝을 못 내겼네.

허다허다 [표] 하다하다 [예] 내가 허다허다 저런 쟁피헌 꼴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구먼.

~**허멘서** [표] ~하면서 [예] 나이를 먹을수록 운동두 적당히 허멘서 지내야 건강이 좋아.

허잘것없다 [표] 하잘것없다 [예] 나는 허잘 것 읊는 먼지같은 사람이지유.

허풍쟁이 [표] 허풍선이 [예] 옆집 허풍쟁이 아저씨가 또 무슨 짓을 꾸미구 땡기는지 몰르겠네.

허치다 [표] 헤치다 [예] 저 닭덜이 마당이다가 널어놓은 곡식들을 죄 다 허치구 땡기네.

현출허다 [표] 현칠하다 [예] 엇그제 우리 딸이 손 본 총각은 키가 현출허구 잘 생겼다.

~**헌티** [표] ~한테 [예] 그 친구 다른 사람헌티는 쌀쌀해두 나헌티는 아주 다정하게 대허더라.

~**헐라구** [표] 하려고 [예] 너 지금 뭐 헐라구 돈을 그렇게 많이 꺾달라는 거여?

헐거 [표] 할거야 [예] 이번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두 꼭 성공헐거.

헐테니께 [표] 할테니까 [예] 여기 일은 내가 맡아서 헐테니께 그쪽 일은 니가 맡아서 헤라.

헐텐디 [표] 할텐데 [예] 이번 취직시험은 꼭 붙으야 헐텐디 걱정이구먼.

험대벗다 [표] 허물벗다 [예] 뱀이나 매미는 험대벗기를 허면서 더욱 튼튼하게 거듭나는 거여.

헛물키다 [표] 헛물켜다 [예] 그 아가씨 애인이 있다는디, 헛물키지 말구 그만 점 따러 땡겨.

헛적허다 [표] 헛걸음하다 [예] 오늘 친구 만나러 갔다가 헛적허구 느냥 왔어.

헤갈리다 [표] 헛갈리다 [표] 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허는지 헤갈리기만 허구 못알어 듣겠어.

헤두헤두 [표] 해도해도 [예] 저친구 돈 좀 있다구 어깨에 힘주는 꼴이 헤두헤두 너무 허네.

~**헤유** [표] ~해요 [예] 이번 일은 오라버니가 좀 헤유.

~**헛다** [표] 헛다 [예] 친구 사이라 곤란했지먼 눈 딱 감구 바른말을 헤웠어.

~**헤쌌다** [표] 해대다 [예] 재는 찌끔만 수틀리면 쌍욕을 헤쌌는다니께.

해주다 [표] 해주다 [예] 여보, 이것 점 빨리 해주세유

호디다 [표] 호되다 [예] 이번 감기는 증말루 호디게 앓았어.

호띠기 [표 호드기 예] 우리 어린 시절은 물 오른 버드나무 꺾데기루 호띠기를 맥글어서 붙었어.

호랑 [표 호주머니 예] 그 아이 색동마고자 호랑 속이는 먹을게 가득 들어있어.

호랭이 [표 호랑이 예] 너는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애기를 지금꺼정 허구 땡기는구먼.

호각 [표 호루라기 예] 우리들은 선생님의 호각소리에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행진 했어.

호로자식 [예 호래자식 예] 이눔아, 호로자식 티 내느라구 그렇게 버릇 얹어 구는 거냐?

호여먹다 [표 회쳐먹다 예] 바다 낚시루 잡은 생선을 그 자리서 호여 먹던 맛은 생각만 해도 침이 나와.

호차리 [표 회초리 예]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한테 호차리루 손바닥을 맞은 기억이 나는구먼.

호파 [표 대파 예] 호파를 송송 썰어 농구 끓인 육개장 맛이 일품이네.

혼넝 [표 화살나무잎 예] 이른 봄마두 뒷산에서 따다 먹는 혼넝 너물은 참 맛있어.

혼저 [표 혼자 예] 나는 요즘 혼저 낚시 땡기는 게 취미생활의 전부여.

홀홀단신 [표 혈혈단신 예] 우리아버지는 육이오 전쟁 때 홀홀단신으루 피난 오셨다.

홍재 [표 횡재 예] 어젯밤이 똥꿈을 꿔넌디, 오늘 무슨 홍재 만날 일이 생길라나.

화젓가락 [표 부젓가락 예] 할머니는 고구마를 꼬낼라구 화젓가락으루 화룻불을 이리저리 뒤적였어.

화루 [표 화로 예] 옛날 겨울이는 화루 속이다가 숯불을 담아서 방 한쪽이다가 난로처럼 놔뒀어.

화투 [표 화토 예] 우리 할머니는 요즘 경노당에서 친구들허구 화투치기 허시느라구 바빠.

화툇불 [표 화툇불 예] 옛날 초상집에서 한겨울 밤을 지새울 때는 밤새 화툇



불을 피웠어.

황발이 [표] 농게 [예] 황발이 다리 집게는 단단허구 강해서 물렸다가는 살이 찢어지기 십상이여.

햇대 [표] 햇대 [예] 배깁이서는 꿈쩍두 못허구 집안이서만 큰소리 치는 사람을, 햇대 밑에서 호랭이 잡는다구 했어.

햇:짐이 [표] 햇:김에 [예] 옛날버텀 햇:짐이 서방질 현다는 속담두 있어.

훈꾸녕나다 [표] 훈꾸멍나다 [예] 저렇게 싸가지 읊는 녀석은 훈꾸녕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니께.

홀에미 [표] 홀어미 [예] 홀에미 밑에서 큰 자식이라구 버릇없다는 소리 듣지 않게 행동해라.

홀태 [표] 벼홀이 [예] 가을걷이 체험학습으루 옛 농기구인 홀태를 사용해서 베를 탈곡했어.

후끄름허다 [표] 무섭다 [예] 공동묘지 앞을 지날 때마두 마음이 후끄름허구 머리가 곤두선다니께.

후끈허다 [표] 후끈하다 [예] 졸업생덜이 취직시험 공부허느라구 도서관이 후끈하게 달아올랐네.

후덕지근허다 [표] 후덥지근하다 [예] 오늘 아침버텀 후덕지근헌 걸 보니께 비가 올 거 같구먼.

후듯허다 [표] 훗훗하다 [예] 자네가 다시 돌아온다니께 우리들 마음두 후듯허네.

후루다가 [표] 이후로 [예] 나허구 다정했던 친구는 시집간 후루다가 소식이 한 번두 읊어.

후여잡다 [표] 휘어잡다 [예] 저 불떼처럼 왕왕거리는 집단을 후여잡을 방법은 읊는거여?

후젓다 [표] 휘젓다 [예] 태풍이 온 세상을 한바탕 정신없이 후젓구 지나갔어.

후질근허다 [표] 후줄근하다 [예] 집이루 오다가 비를 만나서 옷이 후질근허게 젖었어.

후질르다 [표] 휘지르다 [예] 너는 오늘 배깁이서 뭇허구 들어맹겼간디 옷을 그

렇게 후질르구 들어왔네?

후제 [표] 나중 [예] 부인한테 젊었을 때 잘 해야 후제 늙어서 구박받지 않는다.

후청거리다 [표] 휘청거리다 [예] 어제 밤새 잠을 못잤더니 다리가 후청거리구 힘들구먼.

흐:이프다 [표] 헤프다 [예] 돈을 몰쓰듯 너무 흐이:프게 쓰면 못쓰는디.

흔:구 [표] 험:구 [예]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틀려서 앉기만 하면 옆집 흔:구를 해췄는다?

흔덩거리다 [표] 혼텡거리다 [예] 어린내 이빨은 혼덩거릴 때 얼른 빼주야 새이빨이 이쁘게 나온다.

흔:병 [표] 현:병 [예] 저사람 군대 있을 때 흔:병 출신이라구 자부심이 대단허다네.

흔:신짜 [표] 현:신짜 [예] 저사람 착헌 부인을 흔:신짜 내뻘지듯 이혼허구 새장가 들었다네.

흔:웃 [표] 현:웃 [예] 흔:웃을 입었다구 해서 근본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네.

흔허다 [표] 흔하다 [예] 요새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아무한티나 너무 흔허게 쓴다니께.

흔해빠지다 [표] 흔해빠지다 [예] 이걸 아무디나 흔해빠진 풀인디 암예방이는 최고라네 그려.

흘르다 [표] 흐르다 [예] 그때가 엇그제 같은디 세월이 벌써 50년이나 흘려갔구먼.

흘벗다 [표] 헐벗다 [예] 우리 어릴 때는 볼품없이 흘벗었던 산이 저렇게 푸른 산으루 변했네.

흙덩이 [표] 흙덩이 [예] 엇그제 비바람으루 산비탈 흙덩이가 집앞까장 밀려 내려왔네.

흙투성이 [표] 흙투성이 [예] 저놈의 강아지가 워디서 놀었간디 흙투생이가 되어서 들어왔다.

흙:담 [표] 험:담 [예] 사람이 남의 흙:담을 자주 허는 것두 못된 버릇이여.



흙:허다 [표] 험:하다 [예] 옛날이는 저 흙:헌 길을 오치게 넘어댕겼는지 물
르겼어.

흥:끓 [표] 형:끓 [예] 내일 가정 시간이는 흥:끓 쪼각으루 보재기 만드는 수업
을 헐 거여.

흥기다 [표] 행구다 [예] 빨래는 깨끗헌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흥기야 되여.

흥텅물 [표] 흙탕물 [예] 밤새 비가 오구 나서 냇물이 흥텅물루 변했네.

흰떡 [표] 가래떡 [예] 설날 흰떡이다가 달콤헌 엿을 발러먹던 맛은 최고였지.

히망 [표] 희망 [예] 무슨 일이 닥치더라두 끝까장 히망을 버리지 말거라.

히파람 [표] 휘파람 [표] 으른들이 밤중이 히파람을 불면 뱀이 들어온다구 했어.



언어는 그 민족, 그 국가의 상징이요,
열이며 정신이다.

홍성지역 사투리

1부 : 홍성지역 사투리의 특징

2부 : 홍성지역 사투리 모음

3부 : 홍성지역 사투리 사용의 실제

홍성지역 사투리 사용의 실제



1. 새끼줄과 엽전

옛날이, 일꾼을 셋을 두구서 사는데, 쥘 양반이 일을 인저 시키다가, 하루는 그날이 노는 날인데,

“누덜 오늘두 일 좀 해라.”

그랬다. 저기, 쥘이 일꾼들 보구서. 그러니까 김씨라는 일꾼이

“오늘 노는 사람이 무슨 일을 험니까?”

그러더라. 그레두 쥘 양반이 쥘 세 토매를 갖다 놓구서

“내가 시키는대루 허거라.”

허구서는 산내끼(새끼)를 아주 가느다랗게, 뿔 십발씩 짜 놓으라구 그랬다. 그랬더니, 이놈덜이 인저 일을 허기 싫으니께, 산내끼를 굵다랗게 엉망진창으루 짜 놓구, 한 사람만 쥘네가 시킨대루 가늘게 짜서 뵈더라. 인저 쥘네가 인저, 그 이튿날,

“늬덜 어제 일 했네?”

허구 물으니께,

“했슈.”

허구 대답을 허더라.

“그러면 새끼를 갖구 와 봐라.”

그러니까

“예, 여기 있슈.”

그러면서 탁 던져 놓더라. 그러디 보니까, 두 사람은 엉망진창으루 짜서

쓰들 못허게 생겼구, 한 사람은 권네가 허라는 대루 헤 났거든. 그걸 보구서는, 권네가 옆전을, 돈꾸러미를 한 보따리를 갖고 와서

“닉덜 전부, 닥덜이 끈 산내끼에다 엽전을 전부 꿰라. 그러구 산내끼에다 꿰 돈은 모두 가져 가져라. 그제 닥덜 품삯이다.”

그랬거든. 그런디 굵게 파 놓은 놈은, 그제 엽전 구멍이다 꿰져야 가져 가지. 권네 말을 안들어서, 그래서 둘은 하나두 가져 가지 못허구, 권네 말을 잘 들은 사람은 잔뜩 꿰 가지구 가서 부자가 났다네. 그러니까 언제던지, 권양반 말을 섬기구, 진실하게 살면, 그 보답이 있다는 걸 명심허자는 얘기에.

- 채록 일시 : 1996. 10. 12. 18:00~18:10
- 구연자 : 안노수(여, 66세, 보통학교 졸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29-2
- 나서 자란 곳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 채록 장소 : 구연자 자택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구연자는 채록자(김정현)의 어머니이다. 집에서 구연을 부탁하자 즉석에서 구연해 주었다.
- 청중 : 없음.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어른들에게서 들었음.
- 구연 경력 : 옛날에 집에서 더러했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2. 아내의 불효를 고친 남편

옛날이, 홀아버지가 있구, 또 아들은 하나구, 인저 메느리를 은어 갓구 사 نن디, 그 아들이 지금으루 말헐 것 같으면은, 먼 곳으루 직장을 나간 거여. 그런디 아들이 쉬는 날이 되서 집이를 와 보면은, 아버지가 옛날 같지가 앓구 지꾸만 쇠약해져. 그런디 이웃에 있는 아버지 친구들은, 한동갑이라두 아주 건강덜 허구 말여. 그런디 하두 쇠약해지니께, 우리 아버지가 워째서 이런가, 큰 걱정을 헐 거여.

그러다가 한번은 집이 가서 피를 낸 거여. 워치게 피를 냈느냐면, 자기 부인이 워치게 우리 아버지에게 해주나 알아 보구서 갈라구 피를 냈넌디, 식구덜 보구서는 직장이루 간다구 해 놓구서는, 뒤 인저, 올안이 가서 자기 부인이 아버지한테 허는 행동을 가만히 본 거여. 그런디 가만히 보니께는, 그 부인이 워치게 허느냐면, 자기가 있을 적이는 조금 잘해 주는 척 허더니, 읊을 때는 밥두 이렇게 뚱그랴게 말어서 던져 주구, 방이 불두 안때 주구 그렇게 허더라.

그레서는 ‘어허 이저 안되졌구나.’ 허멘서 탄식을 헐 거여. 그렇다구 마누라를 때려 주면 이웃이 부끄럽구, 이혼을 허자니 애덜 허구 신세가 안되졌구, 오치게 헐 도리가 읊더라. 그러다가 한가지 피를 냈어. 워치게 꿔를 냈느냐면, 직장이루 가다가 다시 집으루 오는 척허구 왔어. 그러구 집이루 들어 오니께,

“웬일이냐?”

구 깜짝 놀래더라. 애덜 허구 부인이. 그레서

“여보게, 좋은 일이 있더구먼.”

그러니께,

“그게 뭐여?”

그러더라.

“시장이를 가다 보니께, 노인네덜을 살찐 노인네를 파넌디, 무지게(매우)

돈을 많이 받더라. 우리 아버지두 잘 좀 헤 드려서 살찌걸랑 갖다 팔어서
부자 좀 되자.”

그랬거든. 그러니께 이 미련헌 여자가,

“그러자, 아주 좋다.”

구 그러더라. 그러구서는, 이 아들이 고기랑 반찬이랑 잔뜩 사 갖구서 왔
거든.

“이걸루, 밥이랑 반찬이랑 잘 좀 해서, 애덜두 주지 말구 아버지만 드리
구, 방두 불 좀 따땃히게 때서 헤드리구, 나중에 살이 많이 찌면 내가 와
서 장이루 모시구 나가서 팔란다.”

구. 그러니께

“아이 그러라.”

구. 그러더니 이 여자가 불두 뜨끈뜨끈히게 때주구, 고기두 애덜은 한 점
두 안 주구, 전부 해서 할아버지만 드리구 헤 갖구, 할아버지가 정신이 난
거여, 그냥, 기운두 많이 났어. 그러니께, ‘애덜이 이게 웬일인가?’ 허구 갑
자기 너무 잘허니께 걱정이 되여. 그리구서 속이루만 걱정을 허구 있었지.
그런디 아들이 일주일이 되니께 왔어. 와보니께 자기 아버지가 아주 건강해
진 거여. 그러니께 속으루는 얼마나 좋겠어. 하루 저녁 자구서는

“나 오늘은 우리 아버지 시장으루 팔러 나갈테니께 그런줄 알아. 그러니
께 오늘 아침 좀 잘 헤 드리구, 빨래 좀 깨끗이 헤 드려.”

그러구 허니께는,

“그렇게 해야지유.”

허구 좋아 허더라.

그래서 인저, 자기 아버지를 데리구서 장이를 갔어. 장이를 가넌디 옛날
이는 산이 이렇게 고개가 있잖은감. 그 고개를 넘넌디 아버지를 앞세우고
가니께는, 아버지가 생각 허기를 떠다 밀어서 꺾일 것 같더라. 너무 잘허다
가 이렇게 데리구 나오니께는. 그래서,

“니가 앞이 가거라. 나는 뒤 가겠다.”

그러니께는,

“아버지 왜 그러세유?”

“아녀. 그럴 일이 있어.”

그러구서는 아들을 앞세 놓구, 아버지는 뒤쫓아 간 거여. 그렇게 무진 가니께는 장이 나오거든. 장이 다 도착 허니께는 아들이,

“아버지, 여기는 극장이유. 여기는 무슨 음식집이유. 여기는 뭇허는 디유.”

이렇게 다 데리구 다니면서 구경을 시키구는, 음식점이 가서 자기 아버지를 점심을 잘 대접을 했어. 자기 아버지를. 그레두 아버지는 속으루 얼떨떨 헤여. 잘 읊어 먹구 했어두. 그레 갖구서는, 또 인저, 집으루 모시구 오거든. 그러니께 애덜을 데리구 메느리가 집 앞이 나와서, 아버지를 팔어서 돈을 얼마나 벌어 갖구 오나 기들르구 있는 거여. 그러구 있넌디 아버지를 앞세 갖구 도로 오거든. 그러니께,

“에이, 속상혀.”

허구서는 애덜 허구 쭈르르 들어 가서는 방이 가서 웅크리구 앉었더라. 그러니께는 신랑이 와 갖구서,

“여보게, 왜 그러구 있나? 오늘 우리 아버지 돈 많이 준다구는 허대. 그런디 한 파수만 더 헤드리면 무지허게 돈 받겠더라. 그러니께 더 점 잘헤 드려.”

그러니께

“그려? 그럼 그렇게 헤야지.”

그러구서는 또 먼저처럼 잘했어. 그러니께는 또 일주일이 지나서 아들이 왔거든. 와서는, 아버지를 팔어 갖구 온다구, 장이 모시구 간다구 허니께는,

“아녀. 우리 아버지, 불두 때 주구, 아궁이 재두 담어서 내 버려 주구. 애들두 봐 주구, 아주 일을 잘 돌봐 주니께 팔지 말유. 동네 샘이루 물을 길러 가먼은 사람덜이 오치게 해서 아버지를 낫게 헤냈느냐구 찬송들을

허느걸 보니께 너무 좋다.”

구. 아버지 팔지 말라구. 당체 그런 소리 허지 말라구. 마당두 쓸어 주구 다 헐다구. 그레서는 인저, 그 아들이 부인 보구, 여기 와서 앉으라구. 두 무릎 꿇구 앉으라구. 그러니께는 부인이 와서는 두 무릎을 꿇구서 앉었어.

“이 미련한 여자야. 누가 세상이 자기 부모를, 아버지를 파는 사람이 있니? 니가 하두 그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불효 허구 잘못 허기에 내가 꾀를 냈다. 그러니께 이웃 사람들한테두 아무 소리 안허구 있을 테니께, 끝까지 우리 아버지한테 잘 해라.”

구. 그러니께

“그러면유. 끝까지 잘헐테니께 용서해 달라.”

구. 잘못 했다구 그레쫘터랴. 인저는 소견이 나갔구서. 샘이를 가먼은 동네 사람덜이 아무개 엄마,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허간 시아버지가 땡기멘서 메느리 자랑을 헐다구. 동네에서 효부루다가 소문이 나서 상까지 땀다. 그러니께 가정이 얼마나 화목 허구 좋지, 동네에서 일르구, 아주 좋은 가정이 되구, 애덜두 좋은 본이 되게 허구 살었다.

- 채록 일시 : 1996. 10. 12. 18:20~18:30
- 구연자 : 안노수(여, 66세, 보통학교 졸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29-2
- 나서 자란 곳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 채록 장소 : 구연자 자택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에 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없음.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어른들에게서 들음.
- 구연 경력 : 젊어서 집안 아이들에게 더러 했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3. 다람쥐와 눈먼 মানুষ

옛날이, 다람쥐가 한마리 있넌디, 이눔의 다람쥐가 얼마나 약은지, মানুষ라를 수두 얹이 은었다. 가을에. 그렇게 해 갖구서, 겨울이 먹을 도토리 허구, 밤 허구를 많이 줏어다가, 집이다 쌓아 놓구서래미, 겨울 양식을 다 현 거여.

그러구서 인저, 겨울이 났거든. 눈은 하얗게 쌓구, 그러니까는 그 많은 아내를 다 내 보내구, 눈 안 보이는 눈먼 মানুষ라만 놓구서, 그냥 둘이가 인저, 밤을 먹넌디, 다람쥐는 밤을 먹으니께 달구, মানুষ라는 도토리를 먹으니께 쓰거든. 그러니까 মানুষ라가, “쓰구랑 쓰구랑 쓰구랑.” 허니까, 다람쥐 인저 신랑은, “달구랑 달구랑 달구랑.” 그렇게 약다는 다람쥐 얘기여. 그 মানুষ라가 다 눈 보이는 মানুষ라가 있으면, 음식을 헤프구 다 먹을 것 같으니께, 눈 안 보이는 মানুষ라를 그렇게 둔 거여. 그러니까 다람쥐가 그렇게 약다는 거여. 그래서 사람두 약은 사람을 보먼은 다람쥐 같다는 거여.

- 채록 일시 : 1996. 10. 12. 18:30~18:40
- 구연자 : 안노수(여, 66세, 보통학교 졸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529-2
- 나서 자란 곳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 채록 장소 : 구연자 자택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에 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없음.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어른들에게 들음.
- 구연 경력 : 젊어서 집안 아이들에게 더러 했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4. 술내기에서 진 장사

전설가든. 그런디, 그게 워째서, 그렇게 무서운 집이나며는, 고 앞에서 사는 장서방네가 있다. [채록자 : 옛날에 장서방네가 살았대요?] 응, 무지 현 장사라. 사람 여나무시 덤벼도 그 사람을 당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디, 저녁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장씨 보구,

“야, 이 사람아. 오늘은 내기나 하자.”

“그래, 하자.”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못하면, 네가 이 방앗골 술을 다 사주구. 또 네가 그 일을 허며는, 우리가 네가 술을 싣것 먹게 술을 사준다.”

이러거든.

“그래, 하자.”

[채록자 : 술 내기를 헐거지요?] 응, 술내기. 그러자, 참나무 막대 지드란 놈 꺾어서 주면서, 준거여.

“너, 이놈 가지구, 아카시아 밭 켜그만 집이 있는데, 그 아카시아 밭 속에 체분 있지 않느냐?.”

“있지.”

체분은 옛날에 사람 죽으면, 그냥 갖다가 일년을 뒀다가 모이를(묘) 쓰거든. 그러면, 그 체분을 바꿔 가지구 오라구 하니까, 문제 없다구 해서 보내고. 지가 아무리 장사라 하드라도, 거기는 못들어 갈 것 같거든. 원채 험허구 미서운 디라(무서운 곳이라). 그래서, 세 명이 뒤따라 가 봤어.

[옆노인 : 워떡허나?] 응, 워떡허나 허구. 그런데, 체분있는 데 가서, 정말 바꾸거든. 바꾸구서 저도 미서우니까, 아, 돌아 설라니까, 무엇이 꼭 붙드네. 그래서, 이 사람이,

“놔라, 놔라.”

해두 안 놓거든. 그렇게 몇 마디 소리 지르더니, 까물어쳐 버렸어.

[채록자 : 까무러쳤다고요?] 응. 그래, 쫓아 가보니까, 옛날에는 후르매

기들을 입고 다녔거든. 옆드려서 말둑을 박는디, 후르매기 자락이 땅에 닿아, 거기다 대고 말둑을 박았네. [채록자 : 후르매기가 두루마기죠?] 후다닥 올라고 허니께 말둑을 박았으니 붙들 수밖에. 하하하. [옆노인 : 그리 싸잡어 땀으니.] 그러니, 구신이(귀신이) 붙들은 줄 알고

“사람 살려 달라.”

고 소리 지르다가 까무러쳐서, 그 사람이 데려다가, 미음 끓여 먹이구, 주무르구, 허니께 깨나드래요.

- 채록 일시 : 1996. 8. 10. 10:45~10:55
- 구연자 : 이기두(남, 76세, 농업, 보통학교 졸업)
- 나서 자란 곳 : 홍동면 신기리 394.
- 채록장소 : 홍동면 노인회관.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배성진)가 민담 채록을 위해, 노인회관을 찾아, 노인분들과 이야기 판을 벌이고 있을 때, 청중 가운데 한 분이 구연자에게, “당신도 아는 이 이야기가 많지?” 하면서, 구연자에게 이야기 하기를 권하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다.
- 청중 : 노인회원 3명.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약 60여 년 전 동네 사랑방에서 어른들께 들었음.
- 구연 경력 : 오래 전(기억이 잘 안남) 친구들에게 몇 번 한 적이 있음.
- 제목 : 구연자는 ‘술내기’라고 하였는데, 채록자가 바꿨음.

5. 시골 효자와 영조대왕

영조대왕 때, 시골 선비가 하나 있는데, 서울 과천서 장가 들어서 재행을 갔는데, 부모가 뭐라고 하는고 하니,

“너, 재행을 가더라도 과천서 서울 장안이 가깝다(가깝다). 그러니, 거기 가서 서울 구경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오너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하니께,

“서울 가서, 그 변화한 데를 구경하면 상심되서 공부가 안된다. 구경하지 말고 그냥 오너라.”

그런디, 처가 집에서 묵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께, 먼 늪으디를 갔다가 그냥 올라니께, 다리가 떨어지지를 안혀. 부모가 너 서울 장안을 다녀오지 말라고 헛거 생각하면, 구만 두구 오야(와야) 건넌디(졌는데). 또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원제(언제) 생전 구경 못헛 것 같거든

“에이, 버러(빌어) 먹을 것. 부모 말을 에기더라도(어기더라도), 한 번 가 봐야겠다.”

장안까지 거점(거의) 다 가다가, 부모 말씀을 생각허다 보면, 또 돌아서지고. 이렇게 몇 번을 허다가, 심사허구 하니께, 높은 누각을 저 놓구서 장안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영조대왕이 내려다 보니께, 어떤 동자 하나가 나귀를 타구서 문간에 올라서다가 돌아서구, 또 그러구, 이상허단 말여. 도무지 그게 웬일인가 허구서. 별감을 불러서, 별감은 임금 밑에서 심부름 허는 사람여,

“너, 저기 가며는, 어떤 문 앞에 가며는, 어떤 나귀 탄 철업둥이가 하나 있다. 철업둥이가 하나 있으니 데리고 오너라.”

그래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별감 앞에 서니께 꾸벅 꾸벅 대구 있는데,

“너, 뭘해서 가다 말고 오구, 가다 말고 오구. 뭘터게 된거냐? 무슨 이유

나?”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

“부모가 공부허다 말구 서울 장안을 구경허면은, 산만해서 공부 못허니, 그냥 오라고. 그래서 그러니, 내가 여기 왔따가 서울 구경을 못허구 가며는 억울해서 당채 죽졌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

“그럼, 알았다.”

“너, 글을 좀 아내(아니)?”

“애, 글을 조금 배웠습니다. 글을 지가 한 수 지은 게 있는디요.”

허니께,

“그럼, 한 번 해 보라.”

“첫날 저녁에, 여자를 초래지내구 마누라를 끼고 자는디, 가을 달 모양 밝았다. 반은 아리따운 태도를 먹음구, 반은 부끄러운 태도를 먹구 있더라.”

그러니께, 자기 마누라를 첫날 저녁에 자면서 지은 글이라.

“저승은 낮에 익은 소리. 가만히 묻기를, 나를 그 새라도 혼인 걸어놓고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께, 손으로 다가 금비녀를 바로 허면서, 고개를 ‘끄덕 끄덕’, 생각을 헨 일이 있었다.”

“제가 첫날 저녁에 지은 글인디, 그거 한가지 관참을까 생각됩니다.”

가만히 생각허니께 기특허거든. 그러구, 부모 명령을 어기지 았구서, 그렇게 왔다 갔다 허는거 보구서.

“너, 아무날 시험을 볼테냐? 응시를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디, 그게 났단 말여. ‘첫날 저녁’ 과거장에 선비들이 왔는디, 사서삼경에서 난 것두 아니구, ‘첫날 저녁’이라구 해 놓았으니, 이것을 당채 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 급제를 했슈. 과거 급제를 해서 신통허다구, 영조 대왕이 참판까지 시켜 줘어. 시골 사람으로써, 백의 서생에서 부모 말씀 잘 듣고 해서, 이조 참판이 그 때 생겼다는 얘기

지. [채록자 : 이조 참판요?] 응. [채록자 : 부모 말씀을 잘 들어서요?] 응.

- 채록 일시 : 1996. 8. 13. 20:10~20:20
- 구연자 : 주호선(남, 81세, 농업, 한학)
- 나서 자란 곳 : 홍동면 윤월리 창정 282.
- 채록장소 : 구연자 자택 사랑방.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상황 : 구연자의 조카인 주호창(홍동 풀무고 교사)씨와 함께, 저녁 어스름, 구연자를 방문하여 사랑방에서 이야기 판을 벌였다. 채록자(배성진)는 구연자와의 만남을 여러 번 주호창씨를 통해 부탁드렸었다.
- 청중 : 주호창씨.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친구에게 들었다고 함.
- 구연 경력 : 동네 친구와 청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 하였음.

6. 백면서생의 결혼

옛날, 옛적이다. 백년 서생이 촌에서 서울 과거보러 가는데, 지나가다 날이 저물어서 자구가야 되서, 장 안 구경을 허는데, 앵그랑 땡그랑 큰 지와집이 있는데, 위편 이쁜 여자가 어딜 가느라구 가다가 쳐다보는데, 기막히게 이쁘단 말여. 시골서 못보던 그런 여자를 보고서, 그만 반했단 말여. 그래서, 거기서 땃가를(값을) 정해 놓구서 자는데, 이 집을 다니면서 전부 봤지. 워디가 위땡게 생겼나 허구. 그러니께, 참, 초당이 하나 있더라 말여. 초당이라는 것은, 그 전에 여자들 글 가르치느라구 연못을 땡돌어 파구서, 다리 하나 놓구서 집 한 채 진겨. 그 새악시가 거기서 글 배울 거라구 허구서, 한 밤중에 불이 켜진 뒤, 한바퀴 땡 돌어서 가보니께, 아닌게 아니라,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단 말여. ‘그 여잔게다.’ 그러구서, 담 넘어 넘어가서 문을 두드리니께, 깜짝 놀라드니, 이 여자가,

“위땡게 여길 들어왔느냐구, 누구냐”

“사람이지, 내가 짐승이나 도깨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께, 절대루 안심허구서, 내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 주시오. 내가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데, 아까 당신이 여길 지나가는 것을 보구서, 차마 발이 떨어지질 않고 환장이 되서 이러니, 나 허구 상대를 했으면 위땡졌소?”

그러니께, 그 여자도 과부된 여자구. 그래서, 얘기해 보니께 글도 잘 허구. 참, 맘이 든단 말여. 그래서, 거기서 밤새 얘기허다가, 동품이 났어. [채록자 : 같이 잤단 말이죠?] 동품이 되서 잤는데, 그전 같으면 지이 아버지한테 식전이면 꼭 가서, 안녕히 주무셨느냐구 문안 드리는데, 아버지가 생각허니께 문안을 안 온단 말여. 그래서, 하인 불러서,

“오늘은 아씨가 몸이 불편한가 문안허러 안 오니께 가봐라.”

해서, 가 보니께, 위편 남자 신발이 딱 허니 있거든. 그러니, 위터겨(어떻게). 빨리 와서,

“아, 어떤 낫 모르는 신발이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어, 그냥 왔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잡어 오너라.”

그래서, 둘 다 잡혀 왔어. 잡어다 놓구서,

“너, 이놈 워디서 사는 놈이냐? 그런 법이 워디가 있느냐? 결혼식두 안 올 리구서, 남녀가 합방허는 법이 워디 있느냐?”

둘 다 죽이라는 거. 소문이 퍼져 나가면 양반집이 난리 나니께. 남자가 가만히 생각허니께, 참, 그 때는 좋았는디 억울허단 말여. 과거 보러가다 과거는 구만두구, 아가씨 하루 저녁 데리구 자구서 죽는다니. ‘예이, 죽는 마당에 말이나 한마디 허야 되겠다.’ 하구.

“여보쇼, 가만히 있어 보쇼. 말이나 한마디 듣고서, 죽이드래도 죽이쇼.”

“뭐냐? 얘기해 보라.”

“내가 죽기는 죽되, 글 좀 한 수 짓고 죽었으면 위떡졌습니까?(어떻겠습니까?) 내가 20평생을 글 배다가(배우다가) 과거를 볼라고 했는디, 과거를 보두 못 허구서 여기서 죽으면,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께, 글이라두 좀 한 수 지으려고 하니, 시간 좀 주십시오.”

“그래라, 그러면 지어 보라.”

그러니께,

“문과장은 내도상치이요.”

우연히 장안 대도상을 지나넌디, 그러니께, 벼슬헐라구 장안대소를 큰 길로 지나는디,

“도화일진난만이라”

복숭아 꽃 한가지가 빨간하게 붉었더라.

“수과동도 변화지냐?”

누가 과연 변화헌 땅에다 복숭아를 심었느냐? 누가 이런 변화헌 데다 복숭아 꽃 같은 새약시를 내 났느냐?

“절자비냐 종자비냐.”

이걸 꺾은 사람이 그르냐? 내 놓은 사람이 그르냐? 가만히 생각허니께, 그것두 견물 생심헌 사람여. 꺾은 사람도 잘못이고, 내놓은 사람도 잘못이

란 말여. 가만히 생각허니께, 사윗감도 확실허단 말여. 그래서, 한 사람 살려주고서, 과거보라구 해서 과거를 보고 급제한 다음에, 혼인을 시켜가지구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쥬.

- 채록 일시 : 1996. 8. 13. 20:25~20:35
- 구연자 : 주호선(남, 81세, 농업, 한학)
- 나서 자란 곳 : 홍동면 운월리 창정 282.
- 채록장소 : 앞 이야기와 같음.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상황 : 앞 이야기와 같음.
- 청중 : 주호창(구연자 조카)씨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약 60여년 전 동네 어른들께 들었음.
- 제목 : 구연자는 '백면서생'이라고 했는데, 채록자가 바꿨음.

7. 호랑이가 된 효자

황효자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머니를 모시구 있는데, 그 어머니가 중병 인디, 가이고기(개고기)를 여전 잡숴야 혀. 가이고개를 여전 잡숫구 그러야 혀는디, 가난허구 가이를 구허지 못허니깐, 이 어른이 글 문 벽서를 공부헌 양반여. 가이를 구허지 못허니깐, 무슨 책을 하나 갖다 놓구서, 주문을 외면 자기가 호랑이가 되여. 호랑이가 되서, 밤이면 개를 하나 업구 와. 업구 와서, 그 어머니를 해 드리구, 해드리구 그러. 그 어머니가 병이 많이 나섰어(나았어).

그 아들도 있어. 부인이 그걸 보면 떨어. 변신해서 호랑이두 됐다, 사람도 됐다 혀는 걸 보면. 그래서, 호랑이가 되어 가지구 개를 업구 와서, 주문을 외서 사람으로 변신해서, 해드리구 혀는디.

한 번은 호랑이가 되서 나갔는데, 그 글문을 주문혀는 책을 부인이 다 불살라 버렸어. 무섭다구. 그 뒤로, 주문을 못 외기 때문에 깨나지 못허구, 영, 호랑이가 됐구. 인저, 그 어머니는 병이 들어 돌아가시구 그런디.

그 어머니 산소에 가서 여전 옆드려 울어. [채록자 : 호랑이가요?] 응, 울어. 변신을 못해서 울구. 그러구서 호랑이가 됐으니깐 뭘 혀야졌는데, 큰 물 가구허면, 물을 못 건너가면, 업혀 건너주구 그러. [채록자 : 좋은 일 하는데요] 응. 그 호랑이 보고 '황생원' 혀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황생원' 혀면. 그래, 황팔도라는겨. 팔도 다니면서 좋은 일만 혀다가서 돌아간 황효자가 있어. 이 근처서 났다는 겨.

- 채록 일시 : 1996. 8. 14. 16:00~16:10
- 구연자 : 이갑룡(남, 76세, 농업, 한학)
- 나서 자란 곳 : 홍동면 팔괘리 석산부락
- 채록장소 : 팔괘리 구연자 자택 사랑방.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상황 : 구연자는 한학에 밝으시고, 평소에 모든 사람에게 교훈

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분으로, 채록자(배성진)가 전화로 구연을 청하고, 자택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청중 : 없음.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약 60여 년 전 동네 어른들께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 못함.
- 구연 경력 : 아들, 손자에게 몇 번 구연한 적이 있음.
- 제목 : 구연자는 ‘황효자’라 하였는데, 채록자가 바꿨음.
- 비고 : 앞의 ‘황효자’ 이야기와 같은 내용으로 생각되나, 구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록하였음.

8. 도깨비 불

그러니까, 요기 서철네 마당에, 저녁 마실을 와서 잘 놀았거든. 그런데, 어떡허다 보니께, 도깨비 불이 어떻게 났는고 허니, 저기 저 분투굴서 이쪽 하풍으루다가 건너와요. 그께, 빨간 불이나 이런 불이 아니라, 새파란 불인디,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손짓으로 불뚝이 떨어지는 동작을 하며] 떨어져. 새파란께. 촛불이, 그거 뚝 떨어지듯이. 그래서 인제, 여럿이서,
“저것 좀 보라.”

구. 그런데 인제, 얼른 본 사람은 얼른 보는데, 좀 트릿헌 사람은 그걸 못 본다 이겨. 못본 사람은,

“아니, 뭐간 그러?”

“저기 분투굴서 하풍으루다가 건너가며 도깨비 불 떨어지는거 못 봤어?”

그러니까, 인제 거기서 얼른 본 사람은 봤구, 못 본 사람은

“도깨비 불이 워디 있다구 그러. 쓸데 읊는 소리여.”

이러더라구. 그러니까 거기서는 두 번을 봤어. 그런데, 여기서두 지금, 그거 본 사람이 뭇 있을겐디, 이미 다 죽잖았나 모르겠네.

[장재석 할아버지 : 도깨비 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불이 새파란디, 가는 도중에 불덩어리가 새파랗게, 이렇게 똑똑 떨어져. 틀림없이 그러. 이렇게 들구 가는 도중에, 새파랗게 불이 번져. [장재석 할아버지 : 야, 아우야. 자네가 증말 봤어?] 그럼, 내가 두 번 봤어. 틀림 읊어. [장재석 할아버지 : 자네 말 내가 인정허네.]

•채록 일시 : 1996. 8. 19. 14:00~14:05

•구연자 : 정용성(남, 70세, 농업, 보통학교졸업)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1구 467번지

•채록 장소 : 도산리 노인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김정현)가 미리 전화 연락을 하고 찾아갔다. 구

연하는 곳에 다섯 분 할아버지가 탁자를 놓고 서로 마주 앉아 있었고, 안쪽 큰방에서는 네 명의 할아버지가 드러 누워 있었다. 채록자가 찾아 갔을 때는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다. 장재석 할아버지는 술이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 청중 : 장재석 노인 외 8명
- 구연 경력 : 없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9. 지덕이 사는 터

그때, 대여섯 명이 핵교를 지키느라구, 핵교에 가서 저녁마다 잤다 이겨. 그런데, 저녁이면 잘 수가 없어. 왜 잘 수가 없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으루 말하자면, 열한시쯤 되면은 학교를 다 때려 부셔. [장재석 할아버지 : 누가?] 아, 누가 때려 부셔? 공산당이 때려 부시는지, 뭔지가 그냥 다 때려 부시는겨. [장재석 할아버지 : 아, 꿈에?] 꿈이 아니라구. 그때는 잠 두 안자구 있을 때여. 그때는 뭐, 결상이구 뭐구, 다 메부치구, 때려 부시는 소리가 나거든. [장재석 할아버지 : 그러니까 말 하자면 허영이구먼]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 인저, 그때 대여섯명이 자넌디, 내가 인저, 같이 옆방이 있는 사람 보고,

“저 핵교를 다 때려부시는거 같은디, 나만 그런가, 아니면 너도 그러냐?”

허구 물으니께, 저두 그렇다는 얘기여. 그래, 당체 잠을 잘 수가 있어? 미서워서. 그래두 인제, 사람을 안 해치니께, 그냥 자는겨.

그러구 그 이튿날 자구서 일어나 보면, 결상이구 뭐구 하나두 깨딱 안했어. 모두가 털끝 하나도 털 얹이 그냥 있단 말여. 그러면 그제 무슨 이유냐, 이겨. 우리가 거기서 한 열흘 이상 땡기다가, 그때 비가 막 무지게 와 가지구, 다 쓸어 버리다시피 했어. 그 뒤루다가 안 갔는디, 그때 우리 나이가 아마 한 열 여덟살인가 그렇게 먹었을 때였을 겨. [채록자 : 그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모르지.

그런디, 이제 말은 거기가 인저 제일 좋은 터라구 그러는디, 좋은 터에는 지덕이라는 게 있다는겨. 지덕이라는 것은, 이 솔이다가 쇠소당두 솔안에다가 집어 넣구, 자기가 맘대루 끄내구 이렇게 한다는디, 지금 여기 저 교대씨네 집이 지덕이 심혀다구 해가지구, 아무나 못 살었다는 집이거든. 그러면 핵교에서는 지덕이 늘었지 않았느냐, 이 얘긴데. 그래 그것은 이제 실제로 경험한 얘긴데, 그때 거기서 잔 사람은 아마 거진 다 죽은 걸루 알구 있어.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 핵교 터가 제일 좋다는 얘기에. 그 터가 좋은데는 그게 지덕이 논다는겨.

- 채록 일시 : 1996. 8. 19. 14:10~14:20
- 구연자 : 정용성(남, 70세, 농업, 보통학교 졸업)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1구 467번지
- 채록 장소 : 도산리 노인회관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 구연을 끝마친 후에, 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장재석 노인 외 8명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직접 겪은 얘기임.
- 구연 경력 : 없음.
- 제목 : 구연자가 붙임.

10. 도깨비 불

저기, 용심이, 안용샘이네 집 아랫집이 말여, 옛날에는 집이 크구 좋았었어. 연재두 좋구 그랬었는데, 그것을 뜯었을 때 보니까, 연목이 다 탔더라, 이겨. 그 내가 인저, 으른들께 물으니께는, 그 도깨비 불이 거기서 났다는 얘기에. 그래가지구 나무가 다 탄걸 보니까, 모심을 적에 그제 흔히 난다는 구먼 그려. 모심을 때, 모를 심을라면 자꾸 불이 난다.

그래가지구서 들어 와서 꼬구서 올매 있으면 또 나구, 불을 꼬구서 가서 모를 심을라면 또 나구. 그래서 꼭 일주일 동안에 거기서, 그 도깨비 정(甞)을 읽어서, 그제 그 뒤루는 안 났다는 얘기를 들었넌디, 난 보진 못했어. 그 건 원체는 오래 됐기 땀에. 아마 저런 양반 털은 그 불을 봤는지도 모르겠어. 거기 불났는 것을, 저 분은 우리보다 조금 더 자셨는디, [옆 할아버지 : 그래서 겔더깡이가 스르르 그냥 타넌디, 꼬지기는 잘 안 꼬져. 그 겔더깡이는 타는디 선쫄여, 불이. 힘아리가 얹더먼.]

- 채록 일시 : 1996. 8. 19. 14:40~14:50
- 구연자 : 정용성(남, 70세, 농업, 보통학교 졸업)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1구 467번지
- 채록 장소 : 도산리 노인회관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임시철 할아버지의 ‘도깨비 불’ 구연이 끝난 후에 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장재석 노인 외 8명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동네 어른에게서 들음.
- 구연 경력 : 없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1. 어떤 쪽을 가져갈까?

옛날이, 홍성 허구 수덕사 허구는 거리가 한 30리 쯤인디, 결혼을 허면은 멀리루는 온양으루, 그렇지 않으면 수덕사루, 신혼여행을 갔다구, 옛날이네. 그런디, 홍성서 가면은 비포장여, 옛날이네. 그런디, 그 당시만 हे두 택시 타구 신혼여행 가는 사람이 읍었슈.

그런디 어느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옛날이 차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유. 그런디 당꾸샤라구 그걸 은으면은 쌀 한짝 값유. 대절료가. 그런디 어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구 신혼여행을 가넌디, 수덕사루 예정을 잡구, 초저녁이네 친구덜허구 실컷 술 때려 먹구, 늦게 가는 거유, 가까우니께. 차를 은어 놓구 대절현 상태에서, 가다 보니께 차가 펑크가 난 거여. 펑크가 났넌디, 옛날이네 비상으루 스피아 타이어를 안갖구 다녔슈.

그 당시만 हे두. 인가두 읍구. 그런디 공구가 읍으니께, 차 안에서 한 30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유. 그런디 같이 있다 보니께, 이 신혼부부는 빨리 가서 일 좀 저질러야 실질적으루 좋은 건디, 이 불들구 있으니께 참 답답허지. 이놈이 오디 가서 연장이라두 빌려다 때우면은 좋은디, 그것두 못허구 그냥 앓어 있는 거여. 한참 앓어 있다 보니께, 불빛이 저쪽이서 뽐뽐뽐 허더라는 거유. 반짝반짝 허넌디 운전수가 허다 못해서,

“저기 가서 내가 공구 좀 빌려 올테니께 쪼끔만 계쇼. 신혼 첫날밤을 여기서 보낼 수는 읍는거 아닙니까?”

운전수가 연장을 빌리러 가니께, 처음에는 참 좋더라는 얘기여. 들이서만 있으니께. 껴안을 수두 있구 말여. 아, 그런디 그것두 일이십 분이지. 30분이 지나구, 한 시간 걸려 두 시간이 걸려두 안오더라는 거유. 그러니 어거 참 큰일 났지. 밤은 어둡구, 차 안에서 둘이 있다는 게 겁이 나더라는 거유. 그러니께 신랑된 입장에서 신랑이 신부 보구,

“야, 여기서 우리가 첫날밤을 보낼 수는 읍는거 아니냐. 운전수가 뭐허는지 내가 저 집까지 갔다 올테니까 여기서 쪼끔만 있어라.”

구. 아, 그러구 가더니 신랑두 오덜 앓는 거유. 세월 읍이 안오는 거유. 반짝반짝 허는 불빛만 보이구.

그런디 신부두 혼자 있는 것두 어느 정도지, 못 기다리겄더라는 거지. 그레서 신부가, ‘에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께 한번 가보기나 허자.’ 말여. 그러구 신부두 거기를 가보니께, 둘의 몸뚱이를 반으루 똑똑 찢러 놓은거유. 그러니 뭐 정황이 읍지. 두눔을 다. 신랑두 죽이구 운전수두 죽여 놓은 상태인디. 흐트리 놓은 거여. 죽여 놓구서두 시체를 막 흐트리 놓은 상태라구. 옷두 싹 벗겨 놓구서. 그것두. 그런디, 거기 가 갓구서는 막 빌은 거유, 무조건. 수덕사가 가까운 곳이니께, 절터라구 허면 무당절이나 그런 상탠디, 거기서 막 세월 읍이 빌은 거유.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쇼. 우리 남편 이렇게 되넌디 위치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빌구 빌으니께, 뭔가 나타나 가지구,

“네가 정 그러면은 네 신랑을 붙여 갓구 가라. 그러면 살 수가 있다.”

그레서 붙여 보니께, 그 당시는 실지적으루 눈두 뜨지를 못허구서, 하나는 벗었넌디 붙어댕긴 것두 읍구, 하나는 조금 길구 현디, 신랑은 돈이 많은 사람유. 운전수는 돈이 읍구. 그런디 운전수께 크구 신랑께 읍다구. 그런디 이눔을 영겁결에 눈감구 붙여 놓은게, 둘의 상·하체를 꺼꿀루 붙여 놓은 거유. 바뀌서 붙여 났넌디, 위편 걸 가져 가겠느냐는 애기지. 연장이 좋은 눔을 가져 가겠느냐, 돈이 있는 눔을 가져 가겠느냐. 그런디 가끔 아주머니들 보구 가끔 이런 얘기를 허니께, 결론은 무슨 얘기를 허느냐면은, 연장 좋은 걸 가져 간다는 거지, 거기서. 돈두 필요 읍다는 거지, 거기서.

●채록 일시 : 1996. 9. 16. 13:40~13:50

●구연자 : 송도옥(남, 45세, 사업, 고졸)

●나서 자란 곳·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채록 장소 : 홍성군 장곡면 장곡초등학교 휴게실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점심시간에 학교에 다니러 온 구연자에게 구연을 부탁했다. 음담패설 같은 것도 있으면 구연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러번 거절한 후에 겨우 채록에 응했다.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했으나 사양했다.
- 청중 : 학교 직원 4명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옛날에 동네 사람들에게서 들었음.
- 구연 경력 : 없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2. 가랑이에 그린 토끼

옛날이, 저, 의처증과 의부증이 있는 부부가 살았더니, 여자가 나가면은 남자가 바람을 피구, 남자가 나가면은 여자두 바람을 피는 거여. 그러니께 남자가 여자를 믿지를 묻히는 거여. 믿지를 못히는 상태인디, 남자가 나가면 여자가 오히려 바람을 더 피는 거. 어느 사람이구 들어오면 일을, 물건을 주니까. 그러니께 남자가 일두 못나가구 돈두 못 버는 상태라구. 그레두 먹구는 살아야 허니께 위치게 허여. 한 이불이서 열흘씩 같이 드러누워 있으면 뭐 허여.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못 믿으니께, 꼭 뭔가 표를 허구 나가거든.

그날 따라서 아래에다가, 가랑이 사이에다 토끼를 그려 놓구 나갔다구. 토끼를 그려 놓구 나가니께, 옆이서 그 밝히는 놈이 남자가 나가는 걸 보고서, 그냥 일을 저질르는 거여. 그런데 남편은 나오구 보니께 미심쩍은 거여. 오른쪽에 토끼 그림을 그려 놓구 나왔어두. 그래서 나오다 말구 다시 집으루 들어간 거여. 아,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께, 이놈으 오입질 현놈이 급히 나가다 보니께, 여자가 그러는 거여.

“여기다 토끼는 그려 주구 나가야 헐 거 아니냐.”

구 말여. 그러니께 급현대루 오른쪽이다가 그린 토끼 그림을 왼쪽에다 그려주구 도망 나가버린 거. 그레 남자가 딱 들어와서 쳐다 보니께, 이게 오른쪽이 있던 토끼가 왼쪽으루 가서 있단 말여. 그래서,

“여보, 이게 뭇째서 오른쪽에 있던 토끼가 왼쪽에 가 있느냐?”

구 말여. 그러니께 그 여자가 허는 얘기가 참 기가 맥힌 얘기지.

“아, 오른쪽 풀은 다 뜯어 먹구서 왼쪽에 있는 풀 뜯어 먹을라구 건너 갔다.”

구. 그러니께 이 남자가,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구나. 오른쪽에 풀이 옳는 걸 위치게 먹구 살겠느냐? 왼쪽으루 건너간 것이 맞겠다.”

허구 대답 허더란 얘기유. 이진 말두 안되는 얘긴디, 그냥 얘기 좋아 허는

사람덜이 꾸민 얘기유.

- 채록 일시 : 1996. 9. 16. 13:50~14:40
- 구연자 : 송도옥(남, 45세, 사업, 고졸)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 채록 장소 : 홍성군 장곡면 장곡초등학교 휴게실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에 이어 계속 구연했다.
- 청중 : 장곡초등학교 직원 4명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그전에 술친구들로부터 들었음.
- 구연 경력 : 없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3. 보쌈 당해서 장가 간 청년

그 전이, 그 과부 한 분이 있었더라유. 그런디 아들을, 어린 아들을 하나 두구 사넌디, 살 수가 읍으니께, 어느 산골에 가서 산이나 개발이나 해서 먹구 살을까 허구 사넌디. 인저, 산을 개발해 가지구, 스속두 갈구 콩두 심구 해서, 이렇게 생활을 허넌디, 인제 뗏십 년이 났던지, 과부가 늙어서 할머니가 되구, 그 아들은 커서 노총각이 되구. 인저, 그 할머니가 생각할 적에, 인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넌디, 참 한심헌 생각이 들어서, 아들 보구 불러서,

“야, 남의 아들덜은 시장이 가서 고기두 사다 주구, 부모 봉양을 잘헌다넌디, 너는 니 어머니가 아프다넌디, 오치게 약 한 첩두 안사다 주느냐?”

그러니께 이사람은 거기서만 커 버릇해서 뭘 물러. 그래서,

“약이 뭐래유?”

허니께는

“야, 이눔아. 약두 몰르네? 이 아래 동네 내려가면 한약 허는 양반이 있넌디, 거기 가서 약이나 좀 지어 오너라.”

그러니께 말은 잘 듣더라유.

“예.”

허구 대답 허구서는 내려 가서, 한약 간판이 있는데루 들어가 보니께, 아, 이 양반이 건을 쓰구 앉어 있어. 약을 판다는 양반이 말여. 그레 이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는, 약이 그렇게 좋을 거 같으면은 저 분두 어머니 건, 아버지건, 그 약을 먹구 상주가 안똥을 텐디, 생각해 보니께는 약이 아무 필요가 읍어. 말허자면, 약 짓는 양반이 약을 좋은 약을 지어서 죽잖게 했을 텐디, 건을 쓰구 있는 걸 보니께, 약이 아무 소용이 읍는 거여. 그래서 그냥 왔단 말여.

“약은 사 갖구 왔네?”

직 어머니가 그러니께는,

“그냥 왔슈. 그 양반두 보니께는 건 쓰구 았었대유. 그래서 그냥 왔슈.”

그러니께,

“예이, 미친 늑. 나는 인저 메칠 안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께, 니 어머니 죽결랑은 모이를 잘 쓰면은, 너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디 이 너머 고랑 이 가면은 지관이 살구 있다. 니 어머니 죽결랑은 너 부자 될 모이 자리 나 하나 잡어 달라구 해라.”

그러니께 이눔이 픽 웃구서는 갔어. 가보니께는, 그, 집 허구 옷 입은 거 등등을 보니께 저만두 못혀. 그레 그냥 았었다 오는 겨.

“아, 왜 그냥 가느냐?”

구 허니께는,

“뭘, 헐 말 읊네유.”

그러구 그냥 왔어. 집이 왔넌디, 어머니가,

“지관 모시구 왔네?”

“아뇨.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대유. 모이 잘 써서 부자가 될 거 같으면, 왜 그분이 그렇게 가난 허겠쇼? 그래서 그냥 왔네유.”

“예이, 미친늑.”

그러구서 메칠 있다 죽었더라유. 그 어머니가.

그런디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가 입은대루 묶여가지구 쫓어지구 가는 겨. 그레 지가 사는데루 무진 올라가넌디, 고바위가 지구 그러니께는, 쉬어 간다구 쉬었더라유. 그런디 받쳐 놓구 있던 지게 작대기를 잘못해서 발루 툭 찼어. 그러니께는 지게가 푹 엎어지 멘서 송장이 아래루 테굴테굴데굴 둥글었단 말여. 그렇게 굴러 내려가다가는, 직 어머니가 나무에 걸쳐서 멈추거든 그냥. 그레 쫓아 내려가 보니께는 걸쳐 있넌디, 다시 지구 올라갈 근력이 읊어. 그래서, ‘여기다 그냥 파묻으야겠다.’ 허구서는 땅을 파는 겨.

그런디, 그 너머 지관이, 이 산에 명당이 있다는 걸 알긴 아넌디, 찾을 수가 읊어. 산이 크니께. 엇그제 왔던 사람이 이 너머서 사넌디, 좀 본다구.

그러구서 가보니까 아무두 얹어. 그래서 거기를 주춤주춤 올라 오는 거. 그런데 고랑이 달렸던지 저쪽을 넘겨다 보니까, 워편 사람이 일을 허구 있어. 그래서 바짝 가보니까, 워편 사람이 송장을 놔두구서 모이 자리를 파구 있어. 보니까는, 그때서 보니까는, 거기가 명당여. 파넌디가. 그런데 가보니까는 좌향이 틀렸어. 그사람이 파는 게. 그래서, ‘저사람이 워치게 허나 한번 보자.’ 허구서는 말두 안허구서 그냥 앉어서 봤어. 그런데 파구서는 직어머니 신체를 들구 들어가서 맞춰 보니까는 짧어. 판 게. 송장이 길구, 판 게 짧어서 송장이 안 들어가. 그런데 짧은 디를 앞뒤로 더 파서 송장을 놓으니까는, 좌향두 맞구 제대루 뒀어.

“저놈이 알기는 나 보다두 더 잘 아는구나”

말여.

그러구서 송장 위애다 빨간 공포를 덮어야 혈텐디 워치게 허나 본다구. 그냥 앉았어. 그런데 낫을 들구 나오더니만 때가 가을쯤 뒀던지, 그 밑이 왁새가 불그스름한 왁새가 수북허니까는, 그놈을 가서 후두둑후두둑 쥐어 뜯어서, 그냥 흙으루 덮기는 뭘허니까, 그놈을 위애다 덮구 흙으루 파묻으니까, 그게 공포를 덮은 게나 한가지여. 그러구서는 봉분을 만드는 거. 아, 이 총각이 직어머니를 장사 지내구 보니까 아주 허전혀. 워치게 살 도리가 얹어.

“아, 여기서 살게 아니라 나가야겠다.”

그러구서는 처음으로 한 번, 밖에다 밭을 내딴어 보는겨. 옷을 갈아 입으려니 옷이 있나 뭐, 입던 옷을 그냥 입구 나오는 겨. 나와서 무진 걸어오다가는 날이 저물어서, 어느 동네 앞에 이르렀던디, 자구는 가야 혈텐디, 안뒀거든. 그런데 보니까는, 그 전이는 큰 동네건 작은 동네건, 대동샘이라구 해서, 샘 하나를 가지구 대개 사용을 했다구. 그레 이렇게 보니까는, 소복헌 여자가 물을 푹푹 푸구 있던디, 다른 데는 물어 볼래야 물어 볼디두 얹구, 참 남녀가 유별 허다구는 허지만, 혈 수 얹이 물어 봤다 이겨.

“내가 멀리 가는 길에 날이 저물었넌디, 어디 자구 갈 데 좀 읊겼느냐?”

구 말여. 그러니까는,

“나를 따라 오슈.”

그 여자가 그러. 그래서 따라 갔어. 가 보니까는 집두 아주 크구 그런디, 안방으루 들어 가라구 허더라는 겨. 그런디 이사람이 안방으루 들어 가기가 너무 황송혀. 자기 옷폴 허구 말여.

“나, 이, 사랑방이나 워디서 자구 가야 졌다.”

구 말여. 그러니까 아니라구 말여. 걱정 말구 들어 가시라구. 그래서 부득이 들어 갔넌디, 참 아랫목이서 떡 버티구 앉어 있을 수가 읍어. 참 촌놈이 말여. 그런디 보니까 조용혀. 식구두 읍는거 같어. 그레 옷목이서 이렇게 쪼그리구 앉어 있으니까 밥을 해가지구 왔넌디, 참, 잘해 가지구 왔더라. 저는 스스밥만 먹던 놈이, 하얀 쌀밥이다가니 반찬 갖춰서, 거기다 주전자 하나 반주 얹어서, 갖다 잡수시라구 허넌디, 헐 수 읍이 어길 수두 읍어서, 밥을 맛있게 먹구, 술 한잔을 따라 먹었어.

그레 인저, 잘 시간이 났넌디, 말허자면 침구를 이부자리를 갖다 주넌디, 참 좋은 놈을 갖다 준단 말여. 비단 이불을. 그런디 그놈은 덮구 잘 수가 읍어. 자기 처지가. 그래서 그냥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손님이 안 자구 있거든. 그전이는 문이루 불빛이 어릿어릿 비치잖여. 그냥 앉었거든. 그러니까 방 가까이 가서 문은 못 열구서,

“손님, 왜 안 주무시구 앉었습니까?”

“이저 너무 황송해서 잘 수가 읍네유.”

“아닙니다. 걱정 말구 주무십시오.”

그래서 인저, 이사람이 양심은 있어서 그 옷을 입구서는 비단 이불 속에서 잘 수가 읍어. 그래서 훌쩍 벗구서는 잤어. 그러구서 술 한잔두 먹구 헛으니까 잠이 금방 들었던 모양인디. 그런디 인저, 이 여자는 꿈꿉이 속이 있어. 꾀가 있어. 그전이는 과부가 시집을 갈 수가 읍어. 그러니까 후려 갔다구. 후려 간다구 그러잖여.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 자기를 후려갈 줄을 알었어. 그래서 그 총각을 아랫목이다가 재웠단 말여. 그러면 뭐 떠들어 볼 것두 읍이, 저녁이 오면 이불째 둘둘 말아서 들구 가니까. 그 꾀를 먹구서, 그 사

람을 계제에 좋다구 거기다 안방이다 재운 겨. 대신 붙잡어 가라구. 그러구서 자기는 사랑방이서 자는 겨.

그레 참 자네티, 자넸 늬이 뭐 알겠어? 한참 자넸디, 바깥이 두세두세 허니께, 쩌네가 들으니께, 자기를 후리러 온 게 사실여. 그레 움츠리구 앉엿넸디, 안방이루 가더니, 둘둘 말어 가지구는, 그러니께 빨개 벗은 늬이지. 그냥 둘둘 말어 가지구는, 들쳐 엮구서는 그냥 도망 했단 말여. 그런디, 그너머 동네 부자 양반인디, 인저 그 사람두 참 체면은 있지. 늬이 과부를 후려 왔지면, 덩씩 뽀미지는 못허구서, 안방이다가는 모시라구. 인저 돈쥌서 시켰으니께는 안방이다 잘 모시라구. 그런디 딸이 있었더라유. 과년헌 딸이 있넸디, 딸 보구서,

“이만저만해서 닌 어머니 될 분을 이렇게 모셔 왔넸디, 내가 체면상 들어갈 수는 읍구, 니가 들어가서 얘기 좀 잘 허구 하룻밤 같이 자거라.”

이렇게 일렀단 말여. 그러니께,

“예.”

허구서 딸이 안방으루 들어갔단 말여. 인저 이불을 둘둘 말은 늬을 갖다 자빠뜨려 났으니께, 몸뎡이두 못보구, 얼굴두 못보구, 그러구서는 앉어서, 혼자서 나(구연자 자신) 얘기 허듯, 얘기 허구 앉엿는 겨.

“우리 아버지는 맘씨두 좋구, 뭐두 워뎡구, 뭐두 어뎡구, 허니께는 너무 걱정 말구, 편히 주무시구 내일 아침이 일어나서 인사 허구 잘 지내시라.”

구 말이지. 이렇게 혼자서 씨부렁거리구 앉엿는 게지. 그런디 인저 이 총각은 전부 듣구 있어. 이게 여자가 분명헌디, 빨개 벗은 늬이 나올 수두 읍구 난처 허여. 그래서 그냥 있넸디, 그 옆이 와서 드리 눅더라는 게지. 직아버지가 하냥(함께) 자라구 했으니께. 그런디 남녀가 하냥 있으면, 자연히 인저, 마음이 통해서 그런거 있잖은가베. 그게 말허자면은 여자두 과년 허구, 그러구 총각이구 허니께는, 둘이가 서루 통과가 뒹어. 그러니께 서루 피차가 생전이 처음 있는 일이니께, 서루 재미가 있었넸지, 그냥 끼구서 자는

겨, 피차간이. 그러다가 늦잠이 들었던 거.

그런디 이 홀애비 영감이 일어나서 보니께는, 딸이 아침이 밥두 허구 이렇게 해야 혈텐디, 딸이 미동두 안혀. 그 과부는 후려왔으니께는 안나올 것은 분명 허지먼은, 딸은 나와서 밥을 허야 혈 거 아녀. 그런디 안 나와. 해가 이 위까지 올라와두 안 나온단 말여. 그레 기침만 허구 왔다갔다 허다가 딸을 불렀다는 얘기여.

“애, 아무개야.”

허구 불렀넌디두 대답이 읊어. 그거 참 떨떨헌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문을 열구 보니께는, 그냥 머리까지 들쳐 덮구서 자넌디, 들어가서 이불을 떠들구 보니께는 머리가 돌인디, 가만히 보니께는 남자여. 과부가 아니구 남자라는 얘기여. 그러니께는 자기가 장가 들라구 헌 것이 딸을 시집 보내게 뒀다는 얘기여.

그레 인저는, 혈 수 읊으니께는, 일어나라구 깨워서는, 사실을 다 물어보니께는, 총각이 그 사실 얘기를 다 허거든.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가난허게 살다가 오구 갈디가 읊어서 집을 나와서 과부네 집이서 자게 뒀넌디, 이만저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서 이런 일을 당했다.”

구 말여. 그런디 간판을 보니께는 그냥저냥 괜찮여.

“아, 뒀어.”

그레서, 그 즉시 결혼을 시켜서는, 그 집이서, 그 총각이 당대 부자가 뒀다.

●채록 일시 : 1996. 9. 23. 10:50~11:00

●구연자 : 안산옥(남, 78세, 농업, 한학 수학)

●나서 자란 곳·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성리 147번지

●채록 장소 : 장곡초등학교 교장실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구연자는 장곡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농악을 지도해 주던 분이다. 채록자(김정현)가 며칠 전에 부탁하여 이날 일부러 찾아 와서 구연해 주었

다. 황규복 교장선생님은 구연에 방해가 된다면서 교장실에 같이 앉았다가 교무실로 자리를 비켜 주었다.

- 청중 : 없음.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옛날에 동네 어른들에게서 들었음.
- 구연 경력 : 없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4. 적덕해서 부자된 선비

예전이, 위편 학자라구두 허구, 선비라구두 허는 이런 분이 한분 사넌디, 가난허기가 한이 읍어. 그런디 마음씨는 다 좋아서 안팎이가. 아, 이 선비가 먹을 게 읍어서 굶기를 많이 허넌디, 손님만 오면은 그 안식구가 반찬같은 걸 잘 해준단 말여. 그러니께 이 선비가 손님을 모시러 땡겨. 잘 읍어 먹을라구. 그러니께 안이서는 걱정이구, 몸 닳넌 중 물르구 자기 잘 읍어 먹는 재미루 손님을 모시러 땡긴단 말여.

한 번은 그 앞이 큰 길가에 서서, 인저 손님을 기다리구 있는 겨.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을라구. 그러다 보니께는 역시 그 위편 선비가 지나가넌디, 먼 길을 가는것 같어서 그 손님 보구

“위디를 가시느냐?”

구 물으니께는,

“암디암디 가넌디 이겨 날이 저물어서 걱정이다.”

구 그러니께,

“아, 아무 걱정 말구 우리 집으루 가시자.”

구. 이레서 모시구 와서는, 일단 위땡거나 모시구만 오면은 안이서 잘 대접을 허니께. 반찬같은 것을 잘 맨들어서 잘 먹구 이러구서 자넌디.

이 부인은 가난 허기가 한이 읍으니께 먹을 것두 읍넌디, 그날두 역시 나중에 자기 친지 제사를 지낼라구, 참 매달어 놓은 베를 땡개 떼다 쥘어 가지구 아침 저녁을 해 쫘넌디, 즈심부터는 해 줄 식량이 읍어. 그러니께, 걱정이 되넌디, 하필 아침을 먹구 났넌디, 비가 부실부실 와서 손님이 못가게 뒀단 말여. 그러니 걱정이 되는 겨. 뭘 방이나 많은가, 아래 옷방 사인디, 들랑날랑 허면서 걱정을 허구 있넌디, 보니께 자기 남편 신발이 읍거든. 그래서 인저, 생각해 보니께 변소간이 간 게 사실여. 그래서 화장실 앞이 가서,

“여보. 이만저만 해서 어제 저녁허구 오늘 아침을 아무날 제사 지낼라구 뒀던 베를 쥘어 가지구 밥을 지어 드렸넌디, 손님을 보내야지 위치게 헐

라구 붙들구 앉었습니까?”

걱정을 허구 앉었는 겨. 영감이 화장실이 있는 줄 알구. 화장실 앞이 가서. 그런디 이 손님이 듣구 생각허니께, 참 그저 난감 허거든. 참 그럴거 아녀. 인저, 거기서 무슨 기침을 헐 수두 읊구, 나올 수두 읊구. 그러구 인저, 그 소리를 허구서는, 그냥 방문을 열구 들어간단 말여.

그레 인저, 화장실이서 나와서 생각 허니께 참말루 안됐어. 그런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구, 말허자면 암행어사여. 그가 소문을 듣구 일부러 찾아온 사람여. 소문이 났거든. 압디 가면 워편 선비가 행인을 데려다가 잘 대접을 헐다구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났으니께는, 워편 사람이 얼마나 잘 살 간디, 지나가는 행인을 데려다가 잘 맥이구 잘 재워서 보내느냐, 이저를 소문을 듣구서 거리를 찾아오는 셈인디, 마침 만났단 말여.

그래서 자기 피가 생겼어. 그저 남녀가 유별 허다구는 허지만, 선비 안식구 보구서, 그만 간다구 인사를 허넌디, 그때서 서루 성함을 물어 봤어. 성함을 물어 보니께 같은 동성동본여. 그집 안식구 허구 말여.

“아, 그러시냐. 나두 성씨가 아무아무개다.”

그러다 보니께 서루 일가가 났단 말여.

“항렬을 따지면 아주머니가 될지, 누나가 될지, 동생이 될지, 그 지간을 자세히 모르나, 아까 그 사정을 들어 보니께, 참 사정이 딱허게 났다. 내가 지금부터 이 너머 원한티 가서, 이 맥을 부를 테니께, 아주머니가 와서 내가 시키는대루 말대답을 헤라. 내가 사촌 동생이라구 헐 테니께, 오빠라구만 허면 통과가 된다. 사촌간이 오래간만이 만나서 악수를 허구, 이러면 녀미 다 인정이 된다. 그러니께 내가 불르거든, 오해 말구 들어와서, 그렇게 친절허게 대답만 허면 된다.”

그렇게 시키구서, 원한티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구 명함을 내 뵈니께, 이게 썰썰 기지. 인저, 그찍이는 잘못 허는 사람 데려다가 불기 때려서 울켜 먹던 세상여. 그찍이는. 죄가 읊어두 데려다가 때리면 돈 갖다 주구 이러는 세상이란 말여. 말허자면 원 허구 상의를 허멘서, 수소문 해서 누가

이렇구 저렇구, 누구는 효자구, 누구는 불효자, 누구는 빚을 농구를 다 조사를 했어.

다 조사를 허구서는 그 뒷날은 아무개를 데려 오너라. 심부름꾼을 시켜서 말허니께, 서슴 읊이 따러 오는겨.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문을 열구 떡 들어오넌디,

“아니, 사촌동생이 웬일이냐?”

구 말여. 막 쫓아 나가니께는

“아, 오빠가 웬일이시냐?”

구 반갑게 인사를 나눈단 말여. 그러면 거기서 원이나 직원들이 볼 적이 사촌간이라면 참 가깝거든. 그러구서는 인저, 보냈어. 이러구서 갔넌디, 이제는 잘못된 늬을 불러 들이는 겨. 불러 들이먼은 때려 조져 놓으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인저, 와이로를 쓰면 다 되는거 아녀. 와이로만 쓰면 징역 사는 늬두 안 살릴 수 있구, 때릴 늬두 안 때릴 수 있단 말여. 이 소문이 짝 퍼졌어. 그 고을에. 아무아무 암행어사가 출동 했넌디, 그 암행어사의 사촌 동생이 워디 산다. 이게 짝 퍼져 버렸어. 그러니까 죄 지은 늬덜은 거기루 다 찾아와서 비단이구, 쌀이구, 있는건 다 갖다 주구서는, 잘 봐 달라는 거지. 그럼 거기서 선비가 척척 적어서 갖다 주면은 알어서 처리 혈게라구. 그걸 알구서 거기 가서 명함만 읊어 가지구 오면은, 그냥 무사 통과가 된단 말이지.

그레 인저, 이 어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함 가지구 온늬덜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인저는 밥 먹구 살만큼 뵈어. 그래서 인저, 그때서는,

“나는 인저 같길이 멀구, 또 갈 디가 있으니까 그만 중지해라. 인저는 원이 알어서 처리해라.”

그러구 말두 읊이 떠났다는 겨. 그래서 인저, 그 선비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뵈다. 그것두 그레 적덕이지. 지나는 사람 데려다가 밥해 주구, 잠 재워 주구. 넘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부자가 된 겨. 그런 사람두 있었다.

- 채록 일시 : 1996. 9. 23. 11:00~11:10
- 구연자 : 안산옥(남, 78세, 농업, 한학 수학)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성리 147번지
- 채록 장소 : 장곡초등학교 교장실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에 연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없음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동네 어른들에게서 들음.
- 구연 경력 : 없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5. 생물장수가 부자된 비결

그전이, 생물 장수 하나가 생물 장수를 해서 먹구 사넌디, 식구는 자기 어머니가 한 분 계시고, 두 내외 허구, 어린이 하나 허구, 네 식구가 사넌디, 생물을 팔어서 생활을 했더라유.

그런디 하루는 조기를 사가지구 워디만큼 가니께는, 커다란 동네가 있어서 들어가니께는, 동네 입구에 큰집이 하나 있넌디, 그 집에 탕건을 쓴 사람 하나가 앉아서,

“여보게, 이리루 좀 오게.”

허구 불른단 말여. 그러니께는 바짝 갔어.

“그 째어지구 다니는 거는 뭐여?”

그래서,

“조기올시다.”

그랬더니,

“그거 그럼 잘 됴네. 거기 받쳐 놓게.”

그래서 조기 짐을 받쳐 놓으니께는,

“그거 좀 내놔 봐.”

그러니께는 좋은 걸루다가 멧 마리를 내놔단 말여.

“그 값은 얼마여?”

“아무아무만 주쇼.”

아마 베 섬 값이나 달라구 했던 모양여. 그런디 그 늑만 팔면 본전은 되여. 그러면 나머지를 팔면 남는게 되는 거구. 그러니께 인저, 본전될 만큼만 달라구 했던 모양여. 그런디 두말두 앓구 달라는데루 준단 말여. 아주 횡재지. 그러니께 뭐 인저는, 본전은 뺏으니께 아무 걱정이 읍어. 인저 앓었다가,

“그럼 그만 가겠습니다. 그런디 선생님 이거 남은 거 마저 사시죠.”

“그건 얼마여?”

그러니께 인저 또, 그만큼 달라구 험 겨. 그만큼 냉겨(남겨) 먹을라구. 그러니께 그 쥘네가.

“그걸랑은 아무아무만 허지.”

인저, 반을 깎았어. 배섬 값이나 되넌디 반으루 똑 깎엿단 말여. 그러니께 이 사람이,

“선생님, 아까는 달라는 대루 다 주시더니 왜 이번이는 깎으쇼?”

이랬단 말여. 그러니께는,

“응, 그 내력을 들어 봐. 먼저 산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낼러 구 산 것이구, 그러니께, 그건 효도 허는 일이니께, 깎을 수가 없었단 게 여. 그런디 이진 내가 먹을 게여. 그러니께 깎으야지.”

아, 이사람이 그 소리를 듣구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는, 부모에게 참 잘 허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냥 팔았어. 남는 돈이니께.

그렇허구서 집이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는, 이렇게 허면은 탕건두 쓰구 부자가 되는 모양인디, 내가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잘못 했구나. 그런디 이놈이 그동안 어머니께 잘못 허기두 했거든. 장사만 갔다가 오면은 직 어머니가, 밭을 매거나 어린애를 보거나 허면 그냥 아무 소리두 안허는디, 그냥 앉았으면은,

“연태 놀구 뭐헌게 있느냐?”

구 허면서 직 어머니에게 고약허구 심히게 했거든. 그런디 이 조기를 팔구 생각허니께, 인저 판 정신이 들었단 모양여. ‘부모에게다 이렇게 허니께 저 사람들은 부자가 되구 탕건두 쓰게 되는구나.’ 그래서 인저 그날부텀은 직 어머니에게 잘 해야겠다 이계여. 그 부자될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니께. 그러니께 이 어머니는 장사를 갖다 올만 허면 뭘 허던지 해야 허여. 아들한테 안 혼날려면. 그러니께는 호미 가지구 가서 밭을 맨다거나, 그러잖으면 어린애라두 없구 나간다거나, 이래야만 아들한테 혼나지 않지, 앉어 놀면은 혼난단 말여. 이렇게 세월을 보내넌디, 아들이 생선을 사 갖구 와서는, 그중 큰 놈으루 꼬내 놓구서는 어머니에게 헤 드리라 이계여. 그러면 마

누라는

“갓다 팔으야지. 이걸 워치게 어머니를 드리느냐?”

구. 그러면

“아녀. 그중 좋은 놈으루 어머니를 드려야 한다.”

구. 마누라가 말을 안들으면 지가라두 씻어다가 쓸어서 가운데는 어머니를 드리구 앞뒤 콩뎅이는 직털이 먹구, 매일 그렇게 허는 거. 그런디 이상허게 그 뒤루는 장사두 잘되는 거여. 나가기만 허면 다 팔아서 장사가 잘되는 거여.

그런디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허니께는, 이 아들 놈이 안허던 짓을 허니께는, 그전이는 썩은 생선 하나두 안주구 팔기만 허던 놈이 그렇허니께는, 나를 잘 멕여서 직일라구 그러는 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원체는 심허게 했던 모양여. 그레 참 먹기는 먹어두 한심스러워. 무슨 생각을 허구 이렇게 잘 멕이는지. 그레 밖에 나가면 동네 친구들이,

“할메는 그간은 뻘뻘 말렸더니면, 뭘 먹었간디 이렇게 살이 찌느냐?”

구.

“아, 아들 메느리가 잘 멕이구 맘이 편안해서 살이 찌는 모양이다.”

구. 좌우지간 그 뒤루두 아들이 여전히 잘 헤여. 그러구 장사두 잘되구. 장사가 잘 되니께 이사람두 형세가 늘어나는겨.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연만해서 돌아가셔서, 지사 지내는 디두 그중 좋은 놈으루 지내구, 끝까지 그렇게 잘 헤가지구서, 돈을 불어 가지구서, 부자루 잘 살았다.

●채록 일시 : 1996. 9. 23. 11:10~11:20

●구연자 : 안산옥(남, 78세, 농업, 한학 수학)

●나서 자란 곳·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성리 147번지

●채록 장소 : 장곡초등학교 교장실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에 연이어서 구연했다.

●첨중 : 없음.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동네 어른들에게서 들음.
- 구연 경력 : 없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6. 네 귀 달린 구렁이

그, 저,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갈 땐디, 점을 헤 봤어. 점을 헤보니까, 장가를 가다가서, 암만 누가 급헌 소리를 헤두 돌어다 보지 말구 가라구 일러줬어.

그랬넌디, 아, 가다가 보니까, 불이 났넌디, 불 속에서 어떤 여자가 죽는 다구 살려 달라구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내려서 인저, 그 사람을 살렸넌디, 그 여자가,

“너는 내 웬수니까 너를 잡아 먹으야 겠다.”

구. 그래서 장가 가는 길이라구 허니까, 그럼 갔다가 올 적이 잡아 먹는다구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인저 장가를 가서 신방을 꾸몄넌디, 신랑이 아주 죽은 듯이 가만히 밤새 앓었거든. 새댁이 참 화가 나서, 인저 나가서 칼 하나를 갖고 와서

“니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이면 뭐째서 이러냐?”

구. 그러니까 신랑이 약차 이만저만 해서,

“나는 가다가 죽을 사람이니까, 남의 처녀에게 손댈 필요가 없어서 내가 그런다.”

구. 그러니까 새댁이,

“그런건 내가 앞장서서 갈테니까 걱정말라.”

구. 그래서 식전이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새댁이 시집으루 앞장 서서 가넌디, 그제 나서서 신랑을 잡아 먹는다구.

“아, 그제 우리 신랑을 잡아 먹으면 나는 어떻허느냐? 내가 생전 먹구 입구 살 것을 달라.”

구. 그러니까 팔각팔각 허더니, 구렁이가 네 귀달린 구렁이가 보석을 게 내놔어. 게 내놓넌디, 한 구렁이씩,

“금 나와라, 은 나와라, 쌀 나와라.”

그러면서, 한 구렁이는 안일러 주거든.

“한 구텡이는 왜 안 일러주느냐?”

구 허니께,

“그건 미운사람 죽으라구 허면 죽는 귀니께 안 일러 준다.”

구.

“그럼, 너부텡 죽어라.”

구. 그러니께 그 구렝이가 죽더라. 죽었넌디, 큰 네 귀 돌친 구렝이여. 그
레서 그것 갖구 가서 잘 살었다. 두 내외가. 보석 갖구 가서, 허허.

- 채록 일시 : 1996. 10. 4. 17:40~17:50
- 구연자 : 이대연(여, 97세, 무학)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
- 나서 자란 곳 : 충남 청양군 비봉면
- 채록 장소 : 구연자 자택 거실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에 연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조환웅, 조원덕, 김자순 등 집안 식구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집안 어른들에게서 들음.
- 구연 경력 : 젊어서 집안 아이들에게 더러 했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7. 만인적덕을 한 사람의 묘자리

그 옛날, 부모 내외 허구, 아들 하나 허구, 셋이 살았더라. 그 산간에서 산을 일궈야 먹구사는 그런 집여. 아버지는 지리를 볼 줄 알어. 즉 사람이 죽으면 묘자리두 봐주구 허는 명지관여.

그렇게 이제 살다가 자기 어머니가 작고했어. 그랬넌디, 자기 아들되는 사람은 아버지가 지리를 잘 알고 그러니께,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두 걱정 될게 읍거든. 이 아버지가 산소 자리를 잡어서 장사를 잘 지낼테니께 말여.

그런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구 하루 이틀이 지나서 닻새가 되두, 장사 지낼 꿈두 안꾸구 있단 말여. 그러니, 이 아들이 걱정이 되서 마을루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마을루 내려와. 즈이 아버지가 장사 지낼 생각을 허지두 앓으니께 말이지.

그때가 때마침 오뉴월 폭염 때란 말여. 그, 뜨겁고 그런디, 터벅터벅 마을루 내려오다 보니께, 찢끄만 웅덩이가 있는데, 올챙이가 수천 수만 마리가 그냥 거기에 움데움데 모여 있어. 날이 가물어 가지구서 인저, 웅덩이 물두 바짝 말러가지구 있는데, 그냥 놔두면 올챙이가 다 죽게 되어 있어. 물은 바짝바짝 말러가구, 올챙이들은 팔딱팔딱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는 시늉을 허는것 같어.

이걸 이 사람이 보니께,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것두 생명인디 참 안됐어. 그래서 암만 급해두 이것들을 살리구 가야겠다구 말이지. 그 즉시, 이 사람이 두 손으루 땃번이구 올챙이를 떠 담어서, 옆에 물 흐르는 냇물에 다 읍겨 놔 줬어. 그러니께 이 올챙이들이 아주 좋아서,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헤엄쳐 나가느겨.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고통을 씻어줬으니께, 너무 고마워서 꼬리를 치면서, 인사를 허는 것처럼 헤엄을 치다가 제 각각 흩어져 갔어.

이 사람이 그렇게 허구, 동네 내려와서 즈이 어머니 죽은 얘기를 허구 인제 집으루 오는 게여. 그러구 오는데, 즈이 짚 옆에 말이지 덩불이 하나 있

넌디, 사뭇 그냥 가시 덩불여. 이렇게 거기를 지나오다 봤넌디, 거기다가
즈이 어머니를 모시구 싶거든.

“에이, 우리 어머니 여기다가 장례를 모셔야 겠다.”

이렇게 생각허구는 집으루 들어와서는, 연장을 가지구 나가서는 거기를
낮허구 삽으로다가 파헤치구 땅을 판 거여. 그레 인저, 즈이 아버지가 방안
에 앉었다가 이렇게 문구명으루 슬그머니 내다 보니께, 아, 아들이 덩불을
파헤치는 것을 보니께, 거기가 명당 자린디, 그 자리에 산소를 쓸라면 만인
적덕을 한 사람이라야만, 그 자리를 쓸 자격이 있는 자리여.

그런디, 지가 만인적덕은 그만두구, 읍이 산 사람이 한 사람두 구원헌 일
두 읍구, 적선 헌 일두 읍구 허거든. 그거 참 이상허단 말여. 암만 생각해
봐두 말이지. 그레 나중에 아들이 들어 왔넌디,

“너, 대관절 그 자리를 어떻게 헐려구 그러느냐?”

“위똥게 허긴유. 거기에 어머니를 모실라구 그러니다.”

허구 대답헌단 말여.

“아, 그러냐? 그런디 너 오늘 나가서 헌 일이 뭐뭐 허구 들어 왔니?”

허구서 아버지가 다시 물어 봤어.

“예, 나가서 헌 일은 읍구. 집이를 떠나서 가다가 보니께 날이 뜨겁구 그
런디, 조그만 웅덩이 속에 있는 올챙이 수천 수만 마리를, 날이 가물어
서 다 죽게 되넌디, 꼭 사람보구 살려 달라구 애원허는거 같아서, 그
게 안 뵈어서 모두 큰 강물속으루 살려줬습시다. 그것 밖에는 다른 거는
헌 일이 읍습시다.”

허구 대답헌단 말여. 그 대답을 이 아버지가 듣구서는 무릎을 탁 치면서,
“나이(웁지), 그러면 그렇지. 그게 보통 자리가 아니다. 만인적덕을 해야
산소를 쓰는 자린디, 그레 참 이상허다구 생각했더니, 네가 그게 목숨
만 명을 살린거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묘자리가 뵈 거구나. 너 그
산소 자리 잘 잡았다.”

그러구서는 와서 참 묘를 쓰구, 동네 사람이 와서 도와주구 해서 말이지.

그러구서 인넌디, 뭐 있기를 헐가, 읍는 사람이 참 장가두 못들구, 그렇게 보냈는디, 우연찮게 말이 있어 가지구, 나중에 장가두 참 잘 들구. 그러구 참 부인한테 태기가 있어 가지구 아들을 낳았는디, 첫 아들이 정승을 했어. 나중에 그렇게 복을 받아 가지구 잘 살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 채록 일시 : 1996. 8. 21. 12:00~12:10
- 구연자 : 김갑윤(남, 80세, 상업, 한학 수학)
- 나서 자란 곳·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464
- 채록 장소 : 구연자 자택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구연자는 채록자(김정현)의 큰아버지이다. 채록자가 직접 찾아가서 채록하였다. 구연자는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숨을 몰아쉬며 구연해 주었다.
- 청중 : 없음.
- 구연 경력 : 동네 사람들에게 더러 했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8. 세 형제의 공부.

옛날에는 저, 참, 지금은 뭐 발달되서 과학적으루 전부 판명이 되지만,
옛날에는 과학이 읍었구, 참 이럴적에, 삼형제가 모여 가지구 큰 형이,

“나는 의사가 될란다.”

그러니께 둘째는 뭐라구 허는고 허니,

“나는 지사가 돼야 한다.”

이저여. 셋째는,

“아, 난 관상이나 잘 보는 관상쟁이가 되야 허겠다.”

구, 이렇게 얘기를 해여.

“그러면 셋이 나가자.”

그레 오디를 가니께는 네거리가 나와. 그래서,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헤어져서 님들 원하는디로 쫓아가서 위땡게 허든
지 열심히 배워가지구, 참, 십 년을 지냈던지, 얼마를 지냈던지, 정해가
지구, 십 년 후에 메칠날 여기서 생사간 만나자.”

이러구 서로들 헤어졌어.

그레, 참, 십 년후에, 또 인저 그 날짜에 거기서 참 만났어. 삼형제가. 배
움이라는게 실제 시험을 앓구서는 몰러. 시험을 해야 월마나 배웠는지를 알
지. 그레 삼형제가 동행해서 어디만침 가는디, 어느 곳에서, 참, 대가집이
있던지, 참, 요란허. 그저 저물기는 허구, 그집엘 찾아 들어가야겠어. 찾아
들어가니께는 하인이 나와서,

“아, 지금 쥘이 경황중인디 누가 찾느냐?”

그말여. 왜 그러느냐구 허니께는, 이 집 쥘은 메느리였던지, 원 쥘은 부
인이 지금 사경을 헤맨다 그말여. 그 왜 그러냐니께는, 글썽 지금 죽을 사
경에 이르렀다 이게여. 지금 의사들이, 그 옛날에는 그 의사가 한의들이지.
한의들이 와서는 저 야단을 헤두 참 통증을 못 가라 앓히구 저렇게 야단허구
있다구. 그레 형이라는 사람이 인저 의술을 배운다구 나간 사람이니께, 인

저 의술을 났는지 안 났는지(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 인저 동생덜이,

“아, 이 양반이 우리 형님인디, 의술을 잘 배셨다.”

구 말여. 인저 났는지 안 났는지두 물루구. 실험 허기 위해서. 맥 좀 짚어 보라구 허라구. 그러니께 인저, 하인이 권보구 얘기했던시간에, 다급허니께, 그 맥 좀 짚어보라구. 데리구 들어가, 자꾸. 그레 인저 참 지금마냥 이렇게 말래(마루)에 썩 올라가면서 방문을 열라구 허니께, 이 사람이,

“방문을 열지 말라.”

구.

“아, 맥을 짚어 보야 허지 않느냐?”

구 허니께,

“여기 앉어서두 맥을 짚는다.”

구.

“그레 워치게 짚느냐?”

니께,

“그 환자의 손목이다 실을 묶어 가지구, 실 끝을 일리루 내보이쇼.”

말여. 그러니께 권이 곧이를 안 들어.

“왜 허라니께 않느냐?”

구 말여. 그 옛날이는 왕가에서도 그렇게 했어. 아, 실 끝을 묶어서 내보 내라니께, 아 남녀유별인디, 감히 여자의 손목을 잡을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 실 끝을 묶어서라미 실 끝만 내 보내면 내가 맥을 짚겠다구. 그레 인저, 권이 인저 참 묶어서 한 끝을 내 보내니께 맥을 짚더니,

“이 병은 침 한 방이면 돌아가겠다.”

구 그러. 그러면 침을 놔 달라구 허니께는,

“방안이 포장을 치쇼. 포장을 치구 환자를 일째서(일으켜 세워서) 포장에 다 배를 대쇼.”

이런다 이겨. 그레 인저, 이 분이 인저 태중인디, 아마 태중였던 모양여. 태중인디, 산고달이 얼마 안 남았습시다 말여. 그러니 이 포장이다가니 배

를 대라구 말여. 그, 일째서 서서니 이렇게 대니께 말여. 아, 이 사람이 침을 놔. 아, 침을 놓더니 그 통증이 싹 가라 앓여. 권이 좋다구, 참 명의라구. 명의지, 그제. 참, 명의지. 그제 인저, 도대체 무슨 병이냐구 그러니께, 형이,

“산고달이 얼마 안 남어서 태 속이 있는 어린애는 벌써 클대루 다 컸다. 다 컸넌디, 놀어. 놀다가니 어린애털은 쥐면 놓을 줄을 몰려. 자꾸 쥐지. 놀 다가니 어린애가 산모의 명맥을 잡었다. 그러니께 침이 아니면 잡은 손을 안 놔. 그래서 그 잡은 손가락을 침을 뱉다. 그래서 침을 뱉다.”

그래서 거기서 후히 대접을 받구 갔어.

그러구서 얼마를 갔넌디, 소나기가 오네. 비가 오넌디, 워디가 비를 피헐디가 앓여. 그제 보니께는 저 별판이 한 집이 있넌디, 참 조그만 오두막 집여. 거기루 들어갔어. 들어가서 비 좀 피허구 가겠다구 허니께, 노파 하나가, “우리집은 거헐디구 읍구, 방 한 칸 부엌 한 칸인디, 방이루 털 들어 오슈. 노판디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방이루 들어가니께 방에 놀이 하나 있어. 그제 무슨 놀이냐니께,

“내 자식인디, 외동 독자인데, 장가두 못들구 죽었어. 내가 칠십 노파가 나두 죽으면 그만인걸, 놀이라두 이렇게 한 방이서 이렇게 있다가니 죽을라구 여기다 놔 두구 있다.”

는 말여. 그제 이 두째가 인저 지술을 뱀다구 현 늙인디, 두째가 보니께 참 안타깝거든. 외동 독자에 장가두 못들구 손두 끊어지게 생겼넌디. 이 사람이 살아날디를 내가 묘를 써 드리마구. 재생지지를 써 드리마구.

“거기를 잡어줄테니께 묘를 쓰쇼.”

“살어난다구면 뭇 짓을 못허겠느냐.”

구. 그러구서 어느 장소던지 인저 잡어가지구, 거기다 묻어 가지구, 거기 가 꼭 방 아랫묵 당게, 옛날 인저 담집이라구, 이저 그냥 흙이루다가니 쌓은게 담집여.

“여기서 거허구 계쇼.”

그러구 있넌디 며칠후, 어느 행차가 지나는디 마침 소내기(소나기)가 왔어. 마침 같디는 옳구, 그 집이루 들어왔넌디, 한 가족인 모양인디, 참 늙은이두 있구, 뭐 젊은이두 있구, 어느 츠녀(처녀) 하나두 거기 와 있어. 인저, 비를 흠뻑 맞은디다가, 방이 들어 오니께 잠이 들었어. 그, 저, 츠녀가. 잠이 들었넌디, 어떤 말끔헌 참 신사 하나가 저를 껴 안어. 껴 안어서 깜짝 놀라서 보니께, 비 피허러 온 거여. 잠 들어서 깨 보니께.

그런디 그 뒤부텀 이 여자가 태기가 있어. 그레 인저 부모네헌티 막 난리를 참, 혼나는 속이지. 나중이는 끝내 가서 그 얘기를 했어. 거기가서 잠이 들었넌디, 그 어떤 미끈헌 신사가 저를 껴안은 그거 밖이는 옳다 말이지. 그게 꿈이었었다구 말이지.

이제 끝내 그러니께 아버지 자리가 그 집을 탐문 했어. 이 집이 위치게 생긴 집이나구 물으니께는, 어느 지사가 내 자식이 장가두 못들구, 하나 있는 자식이 총각으루 죽으니께는, 어느 지사가 여기에다가 묘를 쓰면은 살어 난다구 해서, 여기에다 묘를 쓰구 여기에다 집을 짓구 있다 말이지.

그러니께 그 아버지 짜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는, 뭐 외간남자 본게 아니구, 지사가 그렇다구 허면은, 이것이 분명히 그 신으루 인해서 자기 딸이 태기가 있잖으나 말이지. 그래서 딸을 그러루 보냈어.

“너 그 집이 가서 살어라. 천륜을 어기면은 사람이 망혀. 이것은 신명이기 땀에 천륜이다. 너 기기 가서래미 사는 수밖에 옳다.”

거기 가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서 참 예지간히 말을 혈만치 컸어. 그런디 삼형제가 지사를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물르니께, 그 집을 가 보야 허여. 그래서 그 집을 가 보니께, 집안에 젊은 여자두 있구, 걸어다닐 만헌 애두 있구 그러. 그 삼형제가 가 보니께. [청중 : 나중에 가 보니께?] 응. 그레 권을 찾으니까 그 노파가 늙은 할머니가 나와.

“아, 누구시냐?”

구.

“아, 여기 당신 아들 재생지지 있는디다가 묘를 써 주구 흠집을 지어주구

간 지사라구.”

허니께는, 하이구 어서 들어 오시라구 말여. 그보다 더 반가운 일이 오디 있겠어. 들어오시라구. 아이고, 메느리 은고 손자두 봤다구 말여. 그런디 아들은 안 살아났어. 그 아드님이 살아났느냐니께, 아들은 안 살아 났슈, 그러.

그럼 워치게 메느리 은구 손자를 봤느냐니께는, 아, 우리 메느리가 그, 저, 참, 비오는 날이 앞이를 지나다가니 비를 피해서 여기를 있을 동안에 꿈을 꾴서, 자기 아들허구 만났다 말여. 그런디 태기가 있어 가지구 내 집이루 천상 와서 참 손자두 낳구. 아들은 안 살아났지만은, 메느리 은구 손자를 봤다구 그러. 지사가 가만히 보니께 죽은 사람이 살아날리는 만무허구,

“이것은 대 잇는 지리다. 재생지지라는게 대는 이을지언정 살아날리는 만무허다.”

그레 쥬이 이저 아무때 그때 지사가 오셨다구, 메느리 보구 자랑을 허구, 대접 좀 잘해야 헐다구. 참 집은 고쳤넌디, 저쪽 방에서 있구, 참 대접 좀 잘해야 헐다구, 그저, 뭇좀 허구 뭇좀 허구, 그저 뭐, 그 할머니 짜리는 그렇지않겠는가베. [청중 : 그렇지유. 은인이지 뭐]

그 메느리 짜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참 꽤쌌혀. 저눔덜만 아니면은 내가 생과부 노릇은 안헐텐디, 저눔덜 때문에. [청중 : 생과부 뵈지.]

“아, 예. 아니 좀 제가 뭐 좀 사 갖구 오구, 뭐 좀 사 갖구 오구 허야졌슈.”

“아이, 그렇게 허라. 번쩍 땡겨 오라.”

구 말여. 가서 참 옛날에 인저 고기두 구엽지(귀하지) 앓았는가베. 고기두 사구, 뭇두 사구, 뭇두 사구, 참 읊는거, 참, 즈이 친절은 부자니께. 그런저 사가지구 잘 드는 비수 하나를 샀어. [채록자 : 칼을유?] 응, 칼. 이눔덜 땀이 내가 평생 과부 노릇 허니께, 요눔덜 술 좀 내가 직접 팔어 주구, 저거 뭇혈적이 비수루다가 찢려 죽인다고 말여. 비수를 품구 와서 음식 지성껏 장만해서,

“어머님 내가 술상을 가지구 들어가야겠다.”

구. 아, 그런 은인이 워디 있느냐구 허니께, 아, 이, 그 어머니 짜리는 좋아서,

“아이 그렇게 허라.”

구. 술상을 가지구 가서 술을 참 권헤 가며 이러헌 은공된 양방이 워디 계시냐구, 참, 지가 술 좀 대접어야겠다구. 대접허는 대루 서너 잔을 먹었던 지간, 하이, 더 잡수시라구 자꾸 권혀. 이 메느리 짜리가. 이럴 때 관상보는 사람이,

“먹긴 더 먹을텐디 고만 먹겠다.”

“하이고, 이런 양반들 더 잡수시라.”

구. 그러니께 이 사람이

“술을 권헬테면 앙가슴에 품은 비수나 끄내 놓구 술을 권혀슈.”

그 관상쟁이가 그러더라. 그러니께 지사허는 것만 잘 보는줄 알엇더니 관상을 금방 잘 봐. 비수를 들은 것까지. 배울라면 그렇게 통용되게 배우야지, 선볼르게 배워 갖구는 안된다는 얘기여.

- 채록 일시 : 1996. 8. 23. 14:20~14:30
- 구연자 : 정영조(남, 69세, 농업, 한학 수학)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은하면 학산리 거산부락
- 채록 장소 : 구연자 자택 마루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의 구연을 마친 후에 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이태성씨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동네 어른들에게서 들음.
-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19. 열 다섯살 원님의 지혜

저기 상촌리에서 사셨었어, 김병안씨라구. 그 양반이 열다섯 살 먹어서 예산골에 원으루 가셨거든. 그런디 어린 사람이 원으루 왔으니께, 책방이니, 아전들이 썩 다 깐본단 말여. 그러구 그 예산 성씨덜, 이, 저, 성씨덜이 세 가지구 자기네 덜이, 뭐, 원만 들어오면은 내 보내는 게여. 그레 김병안씨가, 그, 뭐, 어린이가 갔으니, 그거 바짝 깐뵈거든.

그런디 송사가 들어왔거든. 송사가 무슨 송사냐면, 닭 한마리가 송사여. 서로 이게 제 닭이라네. 그러면서 이 닭을 원님이 제 닭이니께 찾아 주쇼. 서루가 그렇게 얘기를 해여.

“그러면 그레라. 닭을 두구 가져라.”

그러면서 묻는 말이,

“너는 닭을 뭐를 멕였네?”

하나는 밀을 멕였다고 허구, 하나는 수수를 멕였다고 헌단 말여.

“그려, 그럼 내일덜 와라.”

그렇허구 보냈어. 그런디 아전보구 허는 얘기가 뭐라구 허느냐면은,

“저 닭 좀 잡어라. 잡어 가지구 밥통만은 갈르지 말구 내게루 갖구 오너라.”

그러니께 닭을 잡어서 밥통만 가지구 갔단 말여, 아전이.

“그 밥통을 갈러 봐라.”

갈러보니께 밀이거든.

“그거를 거기다 그대루 뒤라.”

그레 인저, 그 사람네덜이 오라구 했으니께, 그 이튿날 왔을 거 아닌가? 닭 찾는다고. 그레 인저, 수수멕인 늪을 뚤지게 혼내는겨.

“너, 이 늪. 네 닭두 아니멘서 왜 네 닭이라구 웨겨. 아, 이게 밀이지 수수냐?”

밥통을 뵈주면서 말여. 그래서 그 늪을 아주 가뉘 버렸거든. 그짓말 헌다구. 그렇게 해서 인저 닭을 찾아 뵈단 말여. 그러니께 아전, 책방, 그 성씨들

이 인저, 돌아가면서 보니께는 이게 보통 의견이 아니거든. ‘그저 깐뵈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구서는 인저 지내는다, 가을이 돌아 왔쇼. 돌아 왔넌디,

“오늘 저녁엔 달두 휘영청 밝구 그러니께, 이 근처 좀 슬슬 한바퀴 좀 돌아보자.”

구. 아전허구 책방허구 셋이 인저 근처를 슬슬 도는디, 그전이는 근처를 이렇게 돌더래두, 그, 참, 제대루 도포를 입구 행전을 치구 이러구 돈단 말여.

그레 인저 도는디, 글밭(콩밭) 근처에 이렇게 가넌디, 수수댕이가 한 질 되게 컸거든. 그러니께,

“그, 저, 둘이 가서 저 밭에서 제일 잘된 늠이루 수수댕이 좀 하나씩 좀 뽑어 갖구 오나라.”

그러니께, 그 사람네가, 원이 뵈헐라구 저 수수댕이를 뽑어갖구 오라구 허는지, 의아허구 비웃는 걸루 생각을 허는 거여. 그런디 원이

“그 수수댕이 좀 앞새 좀 다 떼거라. 떼구서 그대루 도포 소매 속이다 좀 느봐.”

그 수수댕이가 한질두 넘어 큰 수수댕이가 그 도포 소매 속으루 들어가갸나 베? 안들어가지. 그레두 그 늠는 시늌을 허는겨. 명령이니께. 늠다가, 둘 다, “안 들어 갑니다.”

그제서 호령을 허는겨.

“이늠덜. 그레 일년두 채 못 큰 수수댕이를 니 소매속에다 못 늠는 늠덜이, 내가 십오 년 뵈다. 나이가. 십오 년 뵈넌디, 나를 니 손아귀에다 늠구 이렇게 헐라구?”

아, 거기서 호령을 치구 난리가 났단 말여. 그레서 그 뒤루 아전, 책방이 꿈쩍을 못했다는 게여. 성씨덜 허구가.

●채록 일시 : 1996. 8. 24. 10:40~10:50

●구연자 : 이상엽(남, 78세, 농업, 한문 수학)

●나서 자란 곳·사는 곳 : 충남 갈산면 운곡리 1구 373-1

- 채록 장소 : 이태규 할아버지 덕 사랑방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를 구연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이건엽 할아버지 외 4명

20. 죽었다 살아난 최풍운.

그 전이, 중국에 장자라구 허는 분이 죽었다 살았다더니,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그 때에, 죽었다 산 분이 있었거든. 그 분이 누구냐면은 전라도에서 난 최풍운 여. 바람 풍자, 구름 운자, 최풍운. 그분이 죽었다 살었거든.

그런디 그분이 오뎜 분이냐면, 유진사네 하인이거든. 하인인디, 그 유진사가 알긴 아는 양반여. 아, 난리가 날 것 같은디, 아, 어느 때 날지를 몰려유. 그걸 몰려서 항시 궁금해서, 참 생각허구 따지기두 허구 이러넌디, 도대체 몰랐거든. 그런디 알기는 자기 하인 최풍운이 중용을 해요. 그레두 묻기두 좀 창피헌 생각두 들어.

하루는 혈 수 얹이 술을 장만 허구 안주를 장만 해서 최풍운을 불렀단 말여. 그러니까 최풍운이 와서 말래(마루) 밑에서 꿇어 엎드려서

“위뎡게 불르셨습니까?”

허니까 유진사가 허는 얘기가

“이루 올러 오게. 이루 올러 와.”

“아, 지가 감히 오디를 올러갑니까?”

“아녀, 이루 올러 오게.”

그레 갓구 올러 오라니까 말래루 올러 갔지. 올러가메 이내, 참 주안상이 차려 나오는 거여. 그런디 최풍운이 기뻐히게 술을 좋아 허구 잘 먹거든. 그러니, 술을 그, 저, 자네 술을 잘 허니 실컷 마시라구 권허구. 아, 술을 이렇게 먹더니, 그 유진사가 안으루 들어가거든. 안으루 들어가더니 무슨 종이 조각 이런걸 찾아 가지구 나와요. 나오더니, 그제 최풍운의 종문서여. 그걸 전부 불 썩질러 버리거든. 그 전이는 그 때가 있쇼. 종 패가. 그 패두 읍에 버리구.

“인저 자네 허구 나 허구는 서루 친구같이 지내야여. 아주 조금치두 부담 갖지 말구 서루 친구같이 지내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니께 그담부터는 늘 같이 술을 먹구 그러넌디. 하루는 유진사가 최풍운 보고,

“자네는 알어. 난리날 걸 아니 좀 일러 주게. 그러니께 우리 식구좀 전부 살려 주게.”

유진사가 최풍운 보구 그런단 말여. 그러니께

“아는 한은 헤 드려야지유.”

“그럼 오통허면 살 수 있느냐.”

구.

“아, 살 도리가 있다.”

구. 그러구서는

“내가 댁이 식구는 살려 드릴테니 돈이나 좀 주쇼. 돈이 궁허면 논문서라 두 주쇼.”

“그려. 주다 마다.”

돈을 주다가 인저 논문서까장 췌어. 날마다 댕기메 술만 받아 먹는 거.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최풍운이. 그저 주막으루 댕기메 술만 받아 먹구, 받아 주구, 날마다 그제 세월이라 그 말여.

아, 하루는 듣자니께, 최풍운이 죽었다는 겐세. 자기네 식구를 전부 살려 준단던 최풍운이 죽었다는 거. 그제 기가 맥힐 노릇이지.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가보야졌다구 가보니께, 아들이 공석을 펴 놓구 조상을 받구 있거든. 그러니께 그 전이가 자기 하인이었지 인저 아니여. 친구가 뵈으니께, 인저 옆드려서 숯게 조상을 허구서, 기가 맥히거든. 난은 일어나게 뵈넌디, 이 최풍운이 죽었으니 자기 식구를 살리 수가 있으야지. 그러니께 그 상주 보구서, 최풍운 아들 보구서

“아, 님 아버지가 오께 이렇게 허망허게 작고 했다네? 그 별루 앓두 앓구 이러셨넌디, 느닷없이 돌아가셨으니, 그려, 참. 그러니 작고 하시면서 뭐 유언같은 거 허는 애기래두 읊대?”

그러니께

“예, 말씀이 기셨었어요.”

“뉘라구 허대?”

“나 죽결랑은 저기 저 산 중턱에다 갖다 내 모이(묘)를 써라. 그런디 저 진 사님 댁 아들 삼형젠디, 삼형제 다 복 입구서 내 생여 뉘따러 오라구 허 셴습니다.”

진사 아들 보구. 자기 상전 아들덜여. 그러더라구 그러니께

“그려여?”

고개를 근딩근딩 허더니, 집이 와서 가족회의를 허는 겨.

“최풍운이 죽을 적이 유언을 이렇게 했다넌디, 닉덜 복 입구서 생여 뉘따 러 갈래?”

큰아들부터 채곡채곡 물어가네. 그러니께 큰아들은 효자였던지,

“예, 아버지가 허라는대루 해야지유.”

둘째 아들 보구

“넌 오똥헐래?”

“전 못합니다. 워면 놈이 복 입구 하인 생여 뉘를 따러 갑니까? 죽어두 그 런 짓은 못허겠습니다.”

그런단 말여

“그려여?”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 보구 물었어.

“저두 못허겠습니다. 안 따러가겠습니다.”

셋째 아들두 둘째 아들처럼 거절헌단 말여. 아들덜이 다 반덴디, 큰아들 하나만 따러간다는 겨. 그러니께, 생여 인저, 장사를 지내야 헐텐디, 자기 허구 자기 큰아들 허구만 복 입구서 최풍운이 생여 뉘를 따러가는 겨, 지금. 따러 가넌디, 저 지리산 중턱이다 갖다가 모이를 쓰거든. 그런디 그 산중에 생여를 메구서 한참 올라 가넌디, 저 위 봉우리서,

“얼른 오너라. 얼른 오너라.”

소리를 질러 댄단 말여. 얼른 오라구.

“그 생여 다 벗어 집어 내던지구 얼른 오너. 죽지 않을테면 얼른 오너.”

헌단 말여. 보니까 최풍운일쎄. 아, 올라 가보니까, 그 유진사가 선생질 두 허구 했넌디, 유 훈장이라구두 허구, 진사 벼슬을 했넌디, 최풍운이가 그 재산 준 것을 날마다 술만 먹는 줄 알었더니, 골목쟁이에 식량을 오백 년 먹을 식량을 준비해 놓구, 또 저쪽에두 삼 년은 먹을 식량을 준비를 다 해놔더라는 거.

올라가 보니까, 저기 우리 동네 좀 내려다 보라구 해서 보니까, 왜놈들이 라가 확 불을 놔서 화촌이 났어 전부, 아주.

“저것 봐라. 저것 좀 봐.”

유진사네 집이구 뭐구 혈것 읍이 전부 타는 거. 그러디 한 골목쟁이 가더니 팔십오 년 먹을 준비를 벌써 다 해 놔지. 그러구서 인저,

“저쪽 고랑으루 읍기야 혀.”

그쪽 고랑이루 가니까, 삼 년 먹을 준비를 했거든.

최풍운이 그런 분이였다. 그 죽었다 살았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장자가 죽었다 살었구, 우리나라 최풍운이 죽었다 살었구, 예수가 죽었다 살었구, 그랬다는거. 그런 말이 있어.

●채록 일시 : 1996. 8. 24. 14:00~14:10

●구연자 : 이상엽(남, 78세, 농업, 한학 수학)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채록 장소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이시우 할아버지의 '65. 불효자를 깨우친 원님' 이야기가 끝나자 이어서 구연했다.

●청중 : 이견엽 할아버지 외 4명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동네 어른들에게서 들음.

●구연 경력 : 동네에서 더러 했음.

●제목 : 채록자가 붙임.

21. 김좌진 장군의 힘자랑

그, 저, 으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섯 살이면 찢꼬망지만, 그 양반은 굉장하 웅장했던 모양여. 그, 자기네 집이서 독선생 앉히구서 공부를 허넌디, 저녁이면 장난이 심혀. 그전이는 지름짖다구 그런게 있었어. 한편 쪽이서 냅대 물어붙이면 밑이나 벽쪽에 깔린 눔은 죽어나거든. 그 여섯살 먹은 눔이 그런 장난을 했으니 말여.

여덟 살쯤 되니까, 장난을 허기 시작허넌디, 그 키가 구척은 되는 박 누군가 허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 집이 사랑방이서 인저 손님 대접허구 일을 보넌디, 그이 허구 장난을 허넌디 옆칠뒤칠 헤여. 그 사람이 점두 치구 했넌디, 아주 무지허게 크구 힘두 장사여. 그 아들들두 그렇게 크다구. 그이 허구 옆칠뒤칠 했어. 여덟살 먹은 사람이. [채록자 : 할아버지께서 직접 보신 일인가유?] 아니, 얘기를 들었지.

그런디, 열 살 먹으니까 꼼짝 못허더라네, 그이가. 김좌진 장군한테. 그이가 토방이 이렇게 들어댁기면, 말래(마루) 올라 앉어서 상투에다가 손가락을 느서 이렇게 들더라네. [검지와 장지 손가락을 펴서 천장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며] 꼼짝을 못허더라네. 그렇게 힘이 션다는 게지.

그런디 이 양반이 어려서부터 워디 가서 술을 사두 그렇구, 떡을 사두 그렇구, 떡장사가 오면은 그냥 이루 다 내놓으라구 해서, 열이구 다섯이구 앉으면 다 노너(나누어) 맥이구, 호랑(주머니)이서 있는 대루 열 냥이구 스무 냥이구 주면 받지, 들 준다구두 못허구, 퇴취두 소용 읍구, 그런 승질(성질)이 있었어. 술을 먹어도 그랬다. 오디 가서 술을 먹으면 뗏 동이 그냥 내놓구, 다 퍼맥이구서 있는대루 주구 마는겨. 읍으면 말구. 달라구두 못혀.

한 번은 홍성서, 이 양반이 홍성만 들어오면 장난이 심혀. 처음으루 자전거가 나올적에 오면 부자가 자전거를 건들건들 허면서 타구 왔더라는겨. 자전거가 첨 나왔을 때니까, 애들이 주욱 늘어 서서 보구 섰넌디,

“이걸 오편눔이 타구 왔냐?”

허면서 그 자전거의 종을 조물락조물락해서 찌그려 났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디를 갔다 오더니, 누가 이 종을 이렇게 맨들어 났느냐구, 끝이 나고 지랄이 났어. 보매 보니까 명주바지 입구 돈냥이나 있는 늪이더라는겨. 허긴 그때 돈냥이나 있으니께 자전거를 샀지. 그때 돈이루 돈 백원이나 쫓어야 했을테니까. 지랄이 났더라너면 그러. 누가 종을 왜 이렇게 찌그려 났느냐구.

“그저 왜 그러?”

“아니, 누가 종을 이렇게 찌그려 났다.”

구.

“그럼, 내가 고쳐줄께, 술 사줄터?”

“아, 사죠.”

이거 보니까 보통사람이 아니거든. 아, 산다구 그랬단 말여.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종을 손으루 이렇게 비트니까 쪽쪽 고무처럼 늘어나네.

“오디 흔들어 봐.”

흔들어 보니까 찼랑찼랑 소리가 나거든.

“얼른 술 사.”

“아이구 술 사야죠.”

그, 저, 호수여관이 가서 뭇 동이를 사건, 다 와서 먹으라구. 그렇게 허구선, 아, 이 양반이 저녁 때까지 있었넌디, 저녁 때 있다가는 그냥 간다구 갔넌디. 조랑말을 타구 말여.

그런디 그 이튿날 식전이 이렇게 보니젠, 여기가 이렇게 손으로[얼굴을 가리키며] 홀렁 까져 갖구서는 동문 부근께서 돌아다니거든.

“아니, 나리. 어제 가신다구 허더니 오치게 이렇게 계세유?”

“가다가 말이 지랄해서, 말을 걷어내치구서 갈 수가 있납? 그래서 도루왔지.”

“말은 오치게 허구유?”

“아, 말이 하우고개 올라가다가 이게 쪼일 굼졌더니 그런가, 록 고꾸러져

서, 이것봐. 흘랑 까졌어. 여기. 부애 나걸래 말 뒷다리 쥐구서 내집어 던졌더니 쪽 뻘으러 지더면 그러.”

아, 쫓어가 보니까, 쪽 뻘으러졌더라. 그런 장난을 했다가.

그러구 우리집께 그전이 글방이 있었어. 여럿이 거기덜 다녔는디, 같이 덜 놀러들 왔었더라니면 그러. 인저 술잔덜을 먹구서 마당 같이 큰 들독이 있었어. 그 늪을 갖구서 인저 장난들을 허더러는 거지. 여럿이서들 뗏어서 아, 이것 좀 들어보라구. 그러니까

“그까짓거, 뭐.”

허더니 인저 갓을 쓴채, 두루마기를 입은 채, 두루마리를 입은채, 들독을 들어서 손위애다 요렇게 올려 놓더라. 그러구서는

“뉘덜 저리 비켜.”

허더니 흘랑 집어 던졌는디, 자 바깥이가 떨어지더라. 장사였지. 장사.

(옆에서 듣고 있던 김상엽 할아버지가 김좌진 장군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구연함) 아, 그전에 조상묘에 성묘를 다니는디, 운곡리 아닌감? 성묘를 다니는디, 성묘를 허구 나서 자기네 산마루에 있는, 관리 허는 사람네 집에 꼭 들리거든. 인사허러. 금초 허구 허느라구 수고한다구.

아, 겨울에 인저 춥구 허니까, 그 집에서 화로애다 숯불을 담아서 놔주구 그러면, 그전에는 화로불을 뒤적거리는 불손이 이렇게 큰 늪이 있거든. 옛 가락처럼 자루가 이렇게 파진 불손이 있어.

그런디, 그 늪을 틀켜 쥐구서 얘기 해가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허면 [양쪽 손으로 나무젓가락의 양쪽 꼬트머리를 붙들고 비트는 동작을 하며] 파진 불손이 퍼졌다, 구부러 졌다 허거든.

그런디 인저, 독립운동을 한참 허구 다닐때, 서울에 워편 여관이 가서 술을 먹기 시작했거든. 먹는디, 이게 방이 크니까 장지문을 들었어. 한편 쪽이 서는 그, 참, 백야장군 허구 독립운동 허는 분들끼리 앉아서 술을 먹는단 말여. 먹는디 저쪽 방에 앉은 사람네가, 술을 먹구 춤을 추구 지랄을 허다가, 장주가 그 백야장군 먹는 상이루다가 넘어갔단 말여. 장주가. 그러니까 백

야 장군이 인저 일어나서

“그것 좀 조용히 즘잖게 놀지, 그렇게 장주가 상으루 나자빠지도록 노는 법이 오디 있느냐.”

구. 이러구 야단을 허니께, 아, 이 늙이 땀대 잘했다는 게여. 자기가. 누가 장주를 일부러 메때렸느냐구 말여. 아, 땀비저든. 아, 이 양반이 근력이 장사구 허니께, 이런 고약헌 늙 보라구 허면서 땀비니께, 아, 땀대 백야장군이 펍 넘어 갔네. 가만히 생각허니께 안되게 생겼어.

그러구 땀비니께 또 넘어갔단 말여. 백야 장군이, 이거 서서 저늙허구 상대했다가는 저늙한테 또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께 이번에는 드러누워 가지구 발모가지를 붙잡었다구. 발모가지를 붙잡어가지구 흔들어 대니께, 그 늙의 대갈뺨기가, 이쪽벽에 부딪히구, 저쪽 벽에 부딪히구, 대갈뺨개가 터지구 난리가 났단 말여. 그레 가지구 살려달라는겨. 잘못했다구.

그런디 그 늙이 나중에 알고보니께, 유도가 구 단인가 십 단인가 된단 말여. 그 늙이. 그레서 백야장군두 넘어갔었던 그런 얘기두 있대.

- 채록 일시 : 1996. 8. 24. 11:10~11:20
- 구연자 : 김상덕(남, 82세, 전 부면장, 홍성중학교 졸업)
- 나서 자란 곳·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갈산면 부기리 278
- 채록 장소 : 이태규 할아버지 댁 사랑방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이견엽 할아버지의 구연이 끝나자 이어서 구연했다.
- 청중 : 이견엽 할아버지 외 4명
-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동네 어른들에게서 들었음.
- 구연 경력 : 동네에서 더러 했음.
- 제목 : 채록자가 붙임.



참고문헌

사전류

- 정다운우리말 서산사투리(장경윤, 서산문화원, 2016)
- 예산말 사전 1,2,3,4(이명재, 예산문화원, 2013)
- 입에 익은 우리말(김준영, 학고재, 2008)
- 속담사전(이기문, 일조각, 2001)
-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두산동아, 1999)
- 한국방언연구(황인식, 국학자료원 1999)
- 동아새국어사전(동아출판, 1997)
-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한울, 1997)
- 겨레말갈래 큰사전(박용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 방언사전(김병제, 대제각, 1991)
- 중보한국방언사전(최학근, 명문당, 1990)

향토자료

홍성군지1~5권(홍성군, 2016)

홍성의 민담(최운식외, 홍성문화원, 1996)

홍성의 방언(이병윤외, 홍성문화원, 2006년)

서산민속지 상·하 (서산문화원 1991)

소설류

국수(김성동, 2020)

관촌수필(이문구, 문학과지성사, 2014)

우리동네(이문구, 민음사, 2013)

홍성지역 사투리

초판 1쇄 인쇄 | 2020년 12월 15일

초판 1쇄 발행 | 2020년 12월 30일

편집자 | 김정현, 이재인

발행인 | 유환동

발행처 |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51번길 16

Tel. 041-632-3613 Fax. 041-633-1199

인쇄 | 대한인쇄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84

Tel. 041-632-3390 Fax. 041-633-6200

ISBN 979-11-968870-5-6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혹은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와

홍성문화원 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충청남도,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습니다.